

국립국어원 2014-01-1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20-01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연구책임자: 이삼형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연구 책임자: 이삼형(한양대학교)

연구 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이삼형
공동 연구원	이도영, 김정선
연구 보조원	김시정
보조원	나정인

요약문

1. **과업명:**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2. **과업의 목적:** 본 연구는 2013년에 수행한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연구 사업에서 선정된 읽기를 위한 문법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배경:**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문법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

둘째, 실용 문법으로서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교육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연구 내용:**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1】 국민의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문법 교육 자료 개발

【과업 2】 국민의 흥미 고취와 모든 세대에 유익한 읽기 자료 선정

【과업 3】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활동 개발 및 해결 방안 제시

【과업 4】 ‘말하기, 듣기, 쓰기’의 국어 능력 향상 사업과의 연계성 구현

5.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읽기)와 실용 문법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문법 교육 자료는 국민의 독본(讀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흥미있게 구성한 실용 문법 교재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자료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과 특징을 갖추고 있다.

- 다섯 개의 대단원(총 25개의 텍스트)

- ‘인문, 사회, 정치, 과학,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 망라

- 텍스트별 ‘담화, 문장, 어휘/형태, 음운/표기’ 층위의 활동과 해결 방안 제시

- 쉬어 가기: 5편

6. **결과물:** 최종보고서 50부

차례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추진 과정	4
II.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의 구성	7
1. 교재 개발의 배경과 방향	7
1.1 교재 개발의 사회적·교육적 배경	7
1.2 교재의 개발 방향	7
2. 교재 개발의 진행과 교육 내용 제시 원리	9
2.1 교재 개발의 진행과 고려 사항	9
2.2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제시 원리	12
3. 교재의 체제	14
3.1 교재의 전체 구성 체제	14
3.2 소단원 구성 체제	17
4. 교재의 특성	19
5. 교수요목	20
III. 종합 및 제언	23
참고 문헌	25
<부록>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31

표 차례

<표 1> 추진 일정	4
<표 2> 문법 내용의 층위 및 세부 내용	13
<표 3> 단원 구성의 예	17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절차	4
[그림 2] 대단원 표지의 예	14
[그림 3] 쉬어 가기의 예	15
[그림 4] 예시 답안 및 해설의 예	16
[그림 5] 본문의 예	18
[그림 6] 활동의 예	18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3년에 수행한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연구 사업에서 선정된 읽기를 위한 문법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는 실용 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서 문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확인, 연습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유익한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교양서 또는 교재의 성격을 지닌다.

1.2 연구의 필요성

1)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 자료의 부재

문법 지식은 성인의 글쓰기와 읽기, 말하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 문법 교육은 대체로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종결되므로 향후 교육이 거의 없다. 또한 정규 교육을 마친 성인이라도 고등학교까지의 국어 교육이 완전하지 않아, 문법이 요구되는 경우, 교정적 언어 교육(prescriptive approaches, Halliday 1976)으로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고등학교까지의 문법 교육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발전시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꾀하는 문법 교육 자료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 교육 관점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국어 능력으로서의 독서(읽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재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및 국민의 언어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문법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실용 문법에 대한 교육적 요구

문법이 단순히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거나 이론적 지식으로만 실재한다면, 문법의 제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교육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보의 홍수 속에 읽기 능력의 본질이자 기초 국어 능력으로 문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법의 본령은 언어 현상의 기술과 해석에 있으므로 그 일면에는 이론적인 면에 더하여 실용적인 면도 함께 갖추고 있다. 특히 교육의 장에서는 모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실용 문법으로서 독서 능력 신장을 위한 문법 내용이 구체적인 자료로 마련됨으로써 현행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새로운 문법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교육 과정의 구체화 요구

1차년도에 수행된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인 교육 자료나, 교재 개발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 사회인이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을 통해 이미 교육과정 등이 설정된 바, 독서(읽기) 능력을 실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개발함으로써 국어 능력 개발 사업의 성과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내용

1) 국민의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문법 교육 자료 개발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 가능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실용 문법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교육 자료는 국어 활동의 상이한 영역인 독서(읽기)와 문법의 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텍스트'와 함께 텍스트 별로 실용 문법을 반영한 '활동(문법으로 글 읽기)'과 '예시 답안 및 해설'을 포함한 구성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교육 자료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였다. 국어문화학교의 독서 특별 과정이나 일선 학교의 방과 후 학습, 일반인의 교양 함양을 위한 독서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도서를 개발한 것이다.

2) 독서(읽기)의 흥미 고취와 모든 세대에 유익한 읽기 교육 자료 선정

본 연구는 독서(읽기)의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서 행위의 가치 인식과 흥미 고양에 기여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 제시하여 수록된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부터 일반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고려한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텍스트의 주제, 내용, 장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읽기 행위의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문학/비문학 텍스트를 모두 아우름으로써 다양한 텍스트를 읽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였다.

3) 독서(읽기) 능력 향상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활동 개발 및 해설 제시

본 연구에서는 실용 문법의 내용을 텍스트와 연관 지어 재미있는 활동(문법으로 글 읽기)으로 구성하여 교육적 수월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제시된 실용 문법 학습 문제에 관련하여 예시 답안 및 해설을 명료하고 밀도 있게 제시함으로써 독서(읽기) 능력의 향상 및 문법 지식의 학습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4) '말하기, 듣기, 쓰기'의 국어 능력 향상 사업과의 연계성 구현

본 연구는 화법, 작문, 독서 영역과 연계한 실용 문법 교육을 통해 국민의 국어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국어 능력 발전 사업의 전체 틀 속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화법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의 내용 개발과 연계성을 갖춘 교육 자료 구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3. 연구 추진 과정

1) 연구 절차



[그림 1] 연구 절차

2) 연구 추진 일정

연구 기간은 2014년 3월 13일 ~ 8월 11일까지로 총 5개월이다. 월별 주요 연구 추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추진 일정

단계	세부 연구 내용	1	2	3	4	5
연구 계획 수립	전체 진행 계획 확정	○				
	분과별 업무 분담	○				
이론 연구	선행 연구 검토 및 문헌 분석	○				
텍스트 및 문법 내용의 선정 기준 마련	텍스트 선정 기준 마련	○				
	텍스트 목록 정리	○	○			
	문법 내용 선정 기준 마련	○	○			
텍스트 선정	텍스트 수집		○			
	텍스트 선정		○			
	전문가 자문		○			
문법 내용 선정	문법 내용 분석		○			
	문법 내용 구조화		○			
실용 문법 활동 구안	활동 개발			○	○	
	예시 답안 및 해설 제시			○	○	
전문가 검토 및 교육 자료 수정	단원 구성			○		
	집필				○	○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

3) 주요 협의회 내용

연구진은 총 20여 회의 내부 협의회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열어 연구를 원활히 진행하였으며, 2차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들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착수 보고회

- 날짜: 2014년 4월 18일(금)
- 장소: 국립국어원
- 참여자: 국립국어원 관계자, 연구진 전원, 자문위원단

<주요 내용 및 결과>

- 한민족, 한국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 공유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함.
- 편집, 삽화 등이 추가되면 바로 출판할 수 있는 형태를 최종 결과물로 제출함.
- 가급적 완결된 구조의 글을 수록하되, 약 15~20여 편의 텍스트를 수록함.
- 텍스트의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생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문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 반영함.
- 국민의 교양서적으로 읽힐 수 있으며, 국어문화학교의 독서 과정 등에서도 일부 활용 가능한 성격의 교재를 개발함.

(2) 1차 자문위원회

- 날짜: 2014년 5월 10일(토)
- 장소: 한양대학교
- 참여자: 연구진 전원, 자문위원단

<주요 내용 및 결과>

- 교양서로서의 내용과 난이도를 조절함.
-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거나 편향된 시각을 지닌 글을 배제함.
- 문학의 경우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고루 포함시킴.

(3) 중간 보고회

- 날짜: 2014년 7월 11일(금)
- 장소: 국립국어원
- 참여자: 국립국어원 관계자, 연구진 전원, 자문위원단

<주요 내용 및 결과>

-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보고함.
-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다는 가정 하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판단됨.
- 설명문이 대다수라는 점이 아쉬움. 텍스트 장르의 다양화가 필요하나 현재로서의 텍스트 추가는 무리이므로 활동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함.
- 제시된 활동이 지닌 독서 능력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담화 부분을 늘리고 음운 관련

부분은 줄이거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 저작권 관련 협의는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기로 함.
- 독자가 쉽게 생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음악을 주제로 하는 글이 2편이므로 한 편은 빼기로 함.
- 주시경 선생의 글이나 정부 수립 시의 취임사, 조선어 학회 사건, 불교, 한국의 미래 관련 텍스트 등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 텍스트를 3편 추가하기로 함.
- 읽기 전-중-후의 논리를 고려할 필요는 없음.

(4) 2차 자문위원회

- 날짜: 2014년 7월 26일(토)
- 장소: 한양대학교
- 참여자: 연구진 전원, 자문위원단

<주요 내용 및 결과>

- 활동에 대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함.
-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함.
- 전체적으로 발문 방식을 통일시키도록 함.

(5) 결과보고회

- 날짜: 2014년 8월 27일(수)
- 장소: 국립국어원
- 참여자: 국립국어원 관계자, 연구진 전원

<주요 내용 및 결과>

- 표기나 표현은 원문과 차이가 나더라도, 현행 어문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 어려운 말에 표시되는 뜻풀이를 더 추가함.
- 필요한 경우, 한자어에 괄호를 표시하고 한자를 병기함.

II.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의 구성

1. 교재 개발의 배경과 방향

1.1 교재 개발의 사회적·교육적 배경

본 교재는 크게 세 가지의 사회적·교육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언어 또는 국어 능력의 강화 필요성이다. 21세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사소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언어 능력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 및 고양은 개인을 떠나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추구한 교육 자료나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일반 국민의 교양 함양과 국어 능력 신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재의 마련이다.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교육과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교양인이자 동시에 수준 높은 문식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텍스트 제공을 통한 교양의 습득과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언어적 원리의 교육을 통합한 교재가 필요하다.

셋째, 문법의 실용성을 강화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문법(文法)은 언어 현상의 기술과 해석에 중점을 두기에 다분히 이론적인 면이 강하다. 문법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문법에 대하여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법의 이면에는 이론적인 면에 더하여 실용적인 면도 함께 존재하며 문법의 이해는 교양인으로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법을 보다 실용적인 차원, 즉 언어의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 연계하고 이를 교재화 함으로써 쉽고 재미있게 일반 국민의 문법 교육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1.2 교재의 개발 방향

본 교재는 세 가지의 개발 배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의 과정을 거쳤다. 교재 개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능력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추구한 교재 개발이다. 국어 능력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표현과 사고, 새로운 지식 습득의 원천은 언어이므로, 직업 및 학문, 연구 분야 등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

은 모두 고차원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다. 이를 위하여 국어 능력의 하위 영역인 음운에서 담화에 이르는 모든 영역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반 국민 또는 사회인, 학생 모두가 사용 가능한 교재 개발이다. 국어 능력은 한국인이 평생 동안 길러지는 항구적인 발전 가능 영역인데, 이를 기르는 것은 개인과 국가,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양한 난이도의 텍스트와 활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연령층이나 지식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민에서부터 높은 수준에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활동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이를 통해 자학자습(自學自習)이 가능한 형태의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셋째, 실용 문법을 반영한 교재 개발이다. 현행 문법 교육은 대체로 초, 중, 고교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교과서에 담긴 학교 문법의 형식적 개념을 습득하는 데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문법은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언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므로 이를 실용적으로 해석하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하는 지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문법적 접근을 취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 교재 개발이다. 그 동안의 전통적 독서 교육 이론은 대체로 설명문(expository text) 형태의 실용문을 중점적으로 접근한 면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인 김정선 외(2014), 이삼형·김시정(2014) 등에서는 독서와 문법의 통합 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접근의 가능성을 문학, 비문학 모두에서 확인·모색한 바 있다. 문법은 텍스트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모든 양상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로 존재하는 이상 문예문과 실용문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교재는 텍스트의 두 가지 존재 양태인 실용문과 문예문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법 차원의 독서 교육의 내용 및 틀을 마련해 보고, 이를 구체화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국민의 교양 독본(讀本)으로서 텍스트를 읽는 독서의 즐거움을 주는 교재 개발이다. 독서 교육은 국어 능력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으로 구분된다고 할 때, 개인의 삶에서 매우 비중이 큰 능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독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 행위가 가치 있고 매우 흥미로운 일임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가치 있고 흥미 있는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가치 있는 텍스트를 읽고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국민이 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국민 독본으로서의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교재 개발의 진행과 교육 내용 제시 원리

2.1 교재 개발의 진행과 고려 사항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연구 공정 안에 교재 개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본 교재는 교재 개발의 7 단계 진행 과정을 거쳤다. 각 과정에서 수행된 과업과 그에 따른 주요 고려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관련 교재 분석 및 이론 연구

본 교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독서 교재이면서 동시에 문법 교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서와 문법의 통합이라는 양자의 접점을 ‘독서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문법 교재’라는 명제로 확정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교재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대체로 ‘독서’와 ‘문법’은 이질적인 영역으로 여기므로 양자의 통합을 추구한 바는 쉽게 찾을 수 없었으나, 주로 현행 ‘독서와 문법’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국립국어원(2013)에서 교재화 및 활동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독서와 문법의 통합과 관련된 논저 및 논문 등을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참조할 수 있었다.

독서와 문법의 통합 교재는 대체로 가능하나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텍스트 이해의 심리적 과정 별로 문법적 지식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은 단 기간의 연구에서 달성되기 어려우며 기존의 문법 지식들 중 텍스트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선정, 재구조화하여 활동 차원에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 텍스트 선정 기준 수립 및 수집

본 교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국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탐색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재의 전반적인 주제는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설정하여 일반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되, 다문화 배경의 한국인이나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도 한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전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되 현대적인 차원에서 주제에 접근한 텍스트도 균형 있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다소 추상적이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다섯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정신문화, 한국의 삶의 양상, 한국인의 예술 문화, 한국인의 언어생활, 한국인의 정서’로 교재의 대단원을 설정하는 조직자로 활용되었다. 그리

고 각 대단원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양질의 텍스트를 3배수로 수집, 검토하여 수록될 텍스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한국인의 정신문화	→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으로”
한국인의 삶의 양상	→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인의 예술 문화	→	“조상들의 미의식을 찾아서”
한국인의 언어생활	→	“선인들의 말과 글”
한국인의 정서	→	“우리의 정서를 담은 문학”

한편, 본 교재에 수록된 텍스트들은 학교 교육에서 학습했던 텍스트를 재확인하거나 복습하는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평생 교육 차원에서 흥미와 교양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질의 텍스트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국어나 관련 교과목에서 흔히 다루어지던 텍스트도 일부 수록하되, 교과서 등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텍스트의 반영 비중을 높였다.

3) 교수요목의 선정·조정·조직

교수요목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광범위한 언어학, 국어학적 내용을 교재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 교재의 성격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문법이라는 일반 국민에게 익숙한 문법 체계를 취하되, 그 중에서 독서에의 활용도가 높은 영역을 국립국어원(2013)의 관련 부분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이때 선정된 교수요목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앞서 3배수로 선정되었던 텍스트의 내용 및 성격에 맞도록 정교화하는 작업이 다시 이루어졌다. 텍스트의 성격에 맞게 교수요목을 정교화하는 것은 추상적인 지식이 실제 텍스트의 독해에 적용되는 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교수요목은 대체로 하나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 범위(size)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교육공학의 내용 클러스터(contents cluster)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교육공학의 교수설계이론에서는 최종 목표를 고려하여 전체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한 차시에 실제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 및 양을 고려함으로써 전체 교육 내용을 다수의 수업 단위로 분할하는데, 본 교재는 하나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쉽게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내용 범위만을 한 개의 교수요목으로 분할함으로써 자칫 일어날 수 있는 학습예의 부담이나 지루함을 줄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예를 들면, ‘피동’이라는 문법 범주를 하나의 활동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피동을 한꺼번에 모두 다루거나, 학습자의 흥미나 수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학적 체계만 고려하여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이나 지루함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동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만을 하나의 교수요목으로 설정하고 피동의 형태나 의도 해석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교수요목으로 분리함으로써 교수요목 차원의 정련화를 구현하고, 학습 내용의 불필요한 반복을 줄였다.

한편, 본 교재는 각 텍스트별로 ‘음운·표기, 어휘·형태, 문장, 담화’의 네 가지 활동을 선정·조직하였다. 이는 하나의 텍스트에 네 가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도록 조직함으로써, 하나의 텍스트에서 모든 측면의 실용 문법을 적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는 독서가 음운에서 담화까지의 총체적 인식 및 이해를 전제한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4) 활동 개발

본 교재는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다양한 주제의 흥미 있는 텍스트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독서 행위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이미 읽은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실용 문법의 활동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읽는 행위와 실용 문법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였다.

본 교재의 활동은 그 성격에 맞게 ‘문법으로 글 읽기’라는 것으로 명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텍스트의 본문에 실제 나타난 표현이나 관련 내용을 전제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학습자가 읽은 텍스트와 거의 무관한 활동 내용이 아니라 유관한 형태의 활동을 개발함으로써 독서 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법 교재라는 교재의 본령을 추구하였다.

또한 각 텍스트별로 네 가지씩 제시된 활동들은, 제시한 예문이나 표현들이 대체로 앞서 읽은 텍스트에 포함된 것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예문이나 표현들을 통해 의도한 교수요목의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자신이 실제로 읽은 텍스트를 다시 살펴보는 경험을 통해 실용 문법의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5) 예시 답안 및 해설 개발

실용 문법에 대한 수용 정도나 능숙도에 따라 비교적 쉬운 활동도 그 풀이에 난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활동의 풀이에 대한 용이한 해설과 예시 답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교재는 모든 활동에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특히 어문 규정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관련된 규정을 직접 인용해 주거나 그것을 재구조화하여 쉽게 제시함으로써 활동 해결만이 아니라, 관련 지식의 습득도 용이하게 하였다.

6) 교재 초고 자문 및 피드백

본 교재는 앞선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고, 현장 및 학계의 전문가를 섭외

하여 개발된 교재에 대한 자문을 거쳐 피드백을 받았다.

주요 피드백 내용은 텍스트 제시 및 교재 구성의 측면, 활동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먼저, 텍스트 제시 측면에서는 텍스트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 수록하기보다는 현행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교체하여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도록 한 것이 있다. 이는 원문을 읽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교재로서의 성격을 더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재 구성의 측면과 관련하여 어휘력 향상 및 독해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어휘나 어려운 어휘에 뜻풀이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도움 장치 등도 본서의 교재적 성격을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활동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문 의견이 나왔다. 일부 활동의 경우 해당 교수요목을 지나치게 어렵게 반영하였거나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활동 사례별로 이를 간략화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였고, 중요도로 볼 때, 그 활동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의 답을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보다는 <보기>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활동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수요목의 성격에 따라, 단계별로 수행해야 더욱 용이하게 접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연계형(세트형)으로 개발하여 각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인 학습 결과에 이를 수 있는 형태로 개발·제시하도록 하였다.

7) 피드백 반영 확인 및 최종 개발

본 교재는 현장 교사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다시 확인 받는 과정을 통해 교재가 최종 개발되었다.

2.2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제시 원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독서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실용 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마련하여 반영하였다.

1)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국립국어원, 2013) 결과 활용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 과제인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에서 선정한 문법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음운부터 담화까지 다양한 층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기 수행 과제의 문법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제시한다.

<표 2> 문법 내용의 층위 및 세부 내용

층위	구분	세부 내용
음운·표기	음운 체계	자음과 모음, 음절
	음운 변동	교체, 축약, 탈락, 첨가
	표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어휘·형태*	의미관계	어휘의 계열 관계(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어휘의 복합 관계(다의어, 동음이의어)
	어휘 양상	방언, 은어와 속어, 금기어와 완곡어, 순화어*, 관용어와 속담*
	어휘 체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휘 형성	파생어, 합성어, 축약어
	품사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 성분 간의 호응, 성분 재배열
	문장 구조	문장의 확대, 중의적 문장 해석
	문법 요소	종결표현, 피·사동표현, 높임표현, 시간표현, 부정표현, 인용표현
담화	응집성	응집성과 통일성(지시, 접속, 대응, 생략, 반복, 구조 표지어)
	담화구조*	설명(정의, 비교/대조, 분석, 예시), 묘사(공간, 시간), 서사 (인과식, 연대기식), 논증(연역, 귀납, 유추, 문제-해결)
	담화요소	문법적 요소(단어·문장·문단), 의사소통적 요소(필자·독자·메시지·맥락)

*는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것임.

2) 텍스트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 내용 선정하여 배열

문법 내용은 선정된 텍스트의 심층적 이해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구조화한다. 문법 층위 중 텍스트 이해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담화 층위, 문장 층위, 어휘·형태 층위, 음운·표기 층위 순서로 문법 내용을 배열한다.

3) 국민의 국어 생활에 필요한 실용 문법을 중심으로 선정

텍스트를 보다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문법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국어 생활 전반에 필요한 실용 문법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국민이 자주 혼동하거나 틀리는 문법 내용을 선정하여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4) 담화 이해에 필요한 내용 필수 선정·배치

담화 층위의 문법 내용은 텍스트의 가장 첫 문항에 배치하며, 텍스트 내용의 이해에 필요한 담화 구조, 핵심 내용, 담화 요소 등을 파악하도록 하여 담화 층위의 문법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보다는 통합적으로 구성한다.

5) 다양한 수준의 문법 내용이 분포하도록 구조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 자료이므로 다양한 수준의 독자를 상정하여 기초적인 수준의 문법 내용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학교 문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론 문법 내용 가운데 실제 국어 생활에 필요한 문법을 선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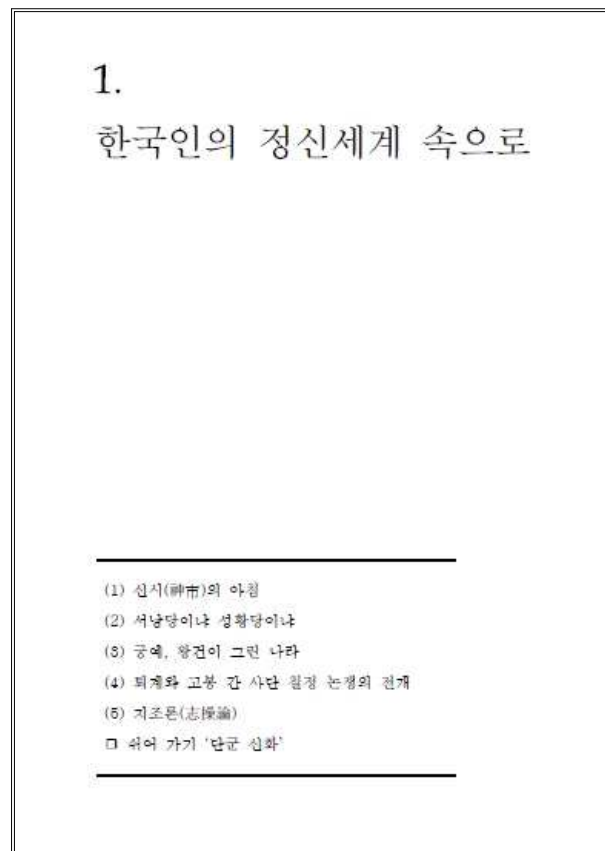
3. 교재의 체제

3.1 교재의 전체 구성 체제

본 교재의 전체 구성은 ‘표지 - 차례 - (대단원1 소개 - 소단원(1) ... - 쉬어가기- 대단원(n) 소개-소단원(n)- 쉬어가기) - 해결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 개의 대단원은 4~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표지, 차례, 대단원 소개

표지는 전체 교재의 제목 및 집필진을 안내하였고, 차례에서는 각 대단원의 쪽수를 기록하였다. 각 대단원은 대단원 소개를 통해 소단원 및 쉬어 가기를 안내하는데, 각 소단원의 배치는 시대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순서에 맞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대단원 표지의 예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5)에 이르는 텍스트들은 과거에서 근대에 이르는 텍스트가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신시의 아침’은 고조선과 관련된 텍스트이며, (2) ‘서낭당이나 성황당이나’는 뚜렷하게 연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무속 사상과 관련되므로 고대임을 알 수 있다. (3) ‘궁예, 왕건이 그린 나라’는 고려의 건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4) ‘퇴계와 고봉 간 사단 칠정 논쟁의 전개’는 조선 시대의 유명한 사상 논쟁인 사단 칠정 논쟁을 다루고 있다. (5) ‘지조론’은 전통적인 선비 정신이나 지절 정신을 다룬 것으로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텍스트이다.

2) 쉬어 가기

본 교재의 텍스트들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격을 고려하였으므로, 훈고 주석식의 독해로 경도되기 쉬운 원문 텍스트를 수록하거나 한문 원문 등을 수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텍스트 자체의 교양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에 따라, ‘쉬어 가기’를 마련하여 각 대단원의 성격과 관련되는 텍스트 또는 삽화를 선정하여 대단원의 마무리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한문 원문이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텍스트, 삽화 등이 수록되었다. 이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쉬어 가기

단군 신화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다

《고기(古記)》에 이르기,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인 환웅(桓雄)이 천하(天下)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人間)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三位)를 내려다보니 인간(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간지라, 이에 천부신(天符神) 세 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웅(雄)이 우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정상 신단수(神壇樹) 밑에 내려와 신시(神市)라 하고, 이에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병(兵)·형(刑)·선악(善惡) 등 무릇 인간의 삼박육신(三六六身)의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에 곧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神) 환웅(雄)에게 기도하되 화(化)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신 환웅은 신령스러운 속 한 마리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여자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百日)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체를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곧은 그것을 먹으면서 기(氣)한지 삼칠일(三七日) 만에 여자의 몸을 얻었으니, 밤은 기(氣)하지 않아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었다. 흥녀(興女)는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배양 단수(檀樹) 아래서 잉태하기를 밧었다.

[환웅이 아내 왕씨(王氏)를 얻어] 사(四)왕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다. [흥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檀君王)이라 하였다. 단(檀)의 고(高)입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庚寅)으로, 평양(平壤)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白岳山)에 옮겼는데, 경(庚)의 을사(乙巳)라 하고도 하며 또는 금밀(金彌)이라 하고도 한다. 그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周)의 효왕(孝王, 周)이 즉위한 기묘(己卯)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창왕(昌王)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阿舍達)에 들어와 숨어 산신(山神)이 되었으니 수(壽)가 1,908세다”라고 하였다.

古紀云 昔有桓因 厥子桓雄 數駕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 三書 遣往理之 雄率從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歸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兵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之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壇 願化為人 時神遣靈文一柱 蘇二十枚曰 爾等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身 熊虎得而食之 居三七日 熊得人身 虎不能忍 乃不得人身 熊女者 熊虎所生 故帶於壇樹下 虎乃化而為之 孕生子 號曰 檀君王 後以唐德即位五十年庚寅 都平壤城 檢爾神 又移都於白岳山阿那達 又名曰 靈山 又今平壤 御國二千五百年 周武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靈廟京 後漢隱於阿那達靈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懿祖傳系 南觀本孤竹國 周以封箕子為朝鮮 號分靈三部 謬妄至聖聖後東方 通典亦同此說

* 국사편찬위원회 역,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일(卷第一) 기이(紀二)

쉬어 가기

고려청자/우리 음악

초기 고려청자 '다완'



청자점외모양꽃병 고려청자상감은학무늬매병



[그림 3] 쉬어 가기의 예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단원의 성격과 관련이 되는 쉬어 가기를 제시하였는데, 대단원에 수록되었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문 원문 텍스트를 그 번역과 함께 제시하기도 하고, 대단원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삽화를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된 예는 대단원에서 다룬 단군 신화가 수록된 <삼국유사(三國遺事)> 원문을 그 번역과 함께 수록한 경우와 고려청자의 사진을 다룬 예이다.

3) 예시 답안 및 해설

다섯 개의 대단원이 모두 끝나면, 각 대단원의 활동과 관련되는 ‘예시 답안 및 해설’을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해설 내용은 각 소단원의 활동과 관련된 예시 답안이나 해설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되, 관련되는 일부 어문 규정을 인용하여 상세하게 해설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대단원 2	(5) 백성들이 정말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는가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홍문관, 서원, 신문고, 상언, 격정

2.

㉔

⇒ 우리 말에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들이 있다. '지아비', '지어미'는 옛사람 앞에서 남편과 아내를 낮추어 부르던 표현이다. '나'의 '저희'는 제자가 '선생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것이다.

3.

다행히, 그러나

⇒ '바로', '못', '간절히'는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고 '다행히', '그러나'는 문장 전체와 관련을 맺는 문장 부사이다. 한편, '그러나'는 문장 부사 중에서도 접속 부사에 해당하는 말이다.

4.

'나'로 발음할 수 있는 것	'이'로 발음할 수 있는 것	'네'로 발음할 수 있는 것
가, 라	나, 라	다

⇒ 한글 맞춤법 제9항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3 표기상에서 자음을 없고 있는 '나'는 표기와는 달리 [ㅣ]로 발음하고 [나]나 [ㅡ]로는 발음하지 않는다.

헌무리[헌무리], 희미하다[희미하다], 유희[유희], 오늑[오너], 하늑바람[하늑바람], 보늑[보너]

다만 4. 이는 현실음을 고려한 허용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너]로 발음한다.

이는 위의 [다만 3]의 규정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나, '무늑'은[무너]로 발음하고, '문의(問議)'는 [무 : 늑]가 원칙이고 [무 : 너]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 자어에서 '희'는 언제나 [히]로 발음이 되는데, '문의(問議)'처럼 받침이 '희'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연음시켜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며 [ㅣ]로 발음함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	원칙	허용
성 의(成意)	[성 의]	[성이]
내 의(內衣)	[내 : 의]	[내 : 어]

관형격 조사 '의'도 [-너]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던 15세기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의'가 두 형식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으나, '의'가 없어지면서 표기상에서 '의'가 없어지고 '의'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표준어로서의 '의' 이외에 방언에서는 [ㅣ], [ㅡ] 등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의'의 제통인 [네], [히]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서울 내지는 중부지방의 일상 회화에서는 [네]로 발음되는 일이 많아 이를 고려하여 '의'를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 것이다. 표기와 발음이 1대1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로 표기하여 놓고서 그 본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네]로 발음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여서 많은 논란 끝에 허용 규정으로 덧붙게 된 것이다.

예	원칙	허용
강 의(講義)의	[강 : 의 의]	[강 : 어 의 ~ 강 : 어 의]

[그림 4] 예시 답안 및 해설의 예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활동에 해당되는 예시 답안을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상세한 해설도 추가하였다. 특히 어문 규정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어문 규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근거 등과 관련지은 해설을 추가하기도 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양 함양을 도모하였다.

3.2 소단원 구성 체제

본 교재의 단원 구성은 소단원을 중심으로 살필 수 있다. 대단원1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 단원 구성의 예

대단원	소단원	쉬어 가기
1.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으로	(1) 신시(神市)의 아침	단군 신화
	(2) 서낭당이나 성황당이나	
	(3) 궁예, 왕건이 그린 나라	
	(4) 퇴계와 고봉 간 사단 칠정 논쟁의 전개	
	(5) 지조론	

각 소단원은 본문과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살필 수 있는데, 본문에는 해당 텍스트와 출전, 주요 어휘 풀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1) 신시(神市)의 아침

이어령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서

우리는 한국인이 태어난 고향을 모른다. 누구나 어머니의 태내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은밀하게 속삭이는 하나의 신화가 있어, 잊어버린 옛날이 아득한 그 기억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을 태초의 수풀이 우거져 있는 산, 태백이라고 불리는 높고 신비한 산마루를 향하여 더듬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 하나의 신단수(神檀樹)¹⁾가 푸른 잎을 드리우고 고요한 아침 햇살이 퍼져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나타난다. (중략)

이제 신시로부터 내려오자. 단군 신화에서 찾아본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이 어떻게 구현되어 왔고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원형 속에서 어떠한 한국인의 초상들이 직조(織造)되어 왔는지,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자.

출전 《신화 속의 한국 정신》, 문학사상사, 2003.

1) 신단수(神檀樹):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

[그림 5] 본문의 예

한편, 본 교재의 활동은 ‘문법으로 글 읽기’라는 명칭으로 표현되었으며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즉 각 활동은 담화, 문장, 어휘·형태, 음운·표기에 이르는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담화, 문장, 어휘·형태, 음운·표기에 이르는 순서(1번~4번)로 제시되었다. 이는 독해에 도움이 되는 층위에 따라 활동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은 소재목을 중심으로 본문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문을 참고하여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소재목	중심 내용
읽어버린 고향을 찾아서	단군 신화 속에 담겨진 한국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신사의 의미	(㉔)
신단수 밑에서의 혼약	단군 신화에는 신단수 나무 아래에서 신분이 다른 두 존재가 훌륭한 혼례를 드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간은 부러운 것	하늘에서 사는 환웅도, 땅 위에서 살던 곰송도 다 같이 인간을 그리워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인간을 자랑스리게 여겼다.)
왜 하필 곰이나?	(㉕)
속과 마늘과 어둠과	인간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옛 마음, 그 고향의 인간관은 바로 맵고 쓰고 어두운, 그 어두운 고난을 이겨낸 존재로서 인간을 생각했던 것이다.
출발점에 선 아첨의 사상	(㉖)

2.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표현들 중, 서로 호응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보자.

<보기 1>

문장의 호응 관계란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저말’이 오면 서술어에 청원, ‘아마’가 오면 서술어에 추측의 뜻을 가지는 말이 오는 것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보기 2>

㉑ 가말 지고한 하늘, 나뉘어 신트, 환이 선 명수인 호랑이나 곰은 인간 사귀를 그리워한 다는 상상한은 맵은 인간 스스로를 말사하는 반인간주의적인 사고 밑에서는 설겨 날 수 없다.

㉒ 그날 부러은 존재로서 그려져 읽고, 인간을 부러워하는 그들의 환을 얻어 환을 더 환 설친 문치자의 판상을 찾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㉓ 많은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오해하여, 만치 우리가 하늘보다 곰의 자손의 것처럼 이 아기 한다.

㉔ 다만 그 인간은 역사(국가)를 가지지 않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㉕ 그렇다 치며 하르, 이 신화의 분절을 해설하는 예는 별로 중요한 것이 로 아니다.

㉖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자식을 남으로 상학 할 동안 사랑을 들어 놓지 않고 100일이 지난 적에 잔치를 보린다.

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들을 유의 관계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 보자.

그것은 문절이 아니라 결합이다. 문절이 아니라 화합이다. 관계가 아니라 장조이며 죽을 이 아니라 탄설이다.

4. 다음 문장과 같이 ‘정음’은 ‘정음’도 쓰면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의 밑줄 친 말 중 올바른 표기에 장아 표시해 보자.

정음적인 이 신화적 상상이 아마도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의 파노라 마였을 어떻게 부정 할 수 있을까.

<보기>

㉑ 마들은 순국, 선월, 선월애 대한 목념이 있었습니다.

㉒ 2014년 8월 28일 주원회의 발언을 발언록은 3.12이며, 순율/순율은 0.692이다.

㉓ 18광에서부터 결술까지의 대간을 그려 한 월처럼 주술된 환을/환을에서는 브라질에 41%를 기록해 2위 아르헨티나(18%)를 준 격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그림 6] 활동의 예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번 활동은 담화 영역의 활동으로 텍스트의 내용 구조 및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의도한 활동이며 2번 활동은 문장의 호응 관계로 문장 범주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번 활동은 어휘의 유의 관계라는 어휘 범주의 활동, 4번 활동은 ‘음, 윌’에 관련된 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4. 교재의 특성

1) 학습자 특성

본 교재는 주로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평균적인 국어 능력을 지닌 일반 국민 또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상당히 넓은 편이므로,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을 망라하는 텍스트와 학습 활동을 적정 비율로 포함하였으며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게 발췌하여 읽도록 의도하였다.

한편, 이 교재를 학습하는 대상은 대체로 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에 일정 기간 이상 그 내용을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용 문법의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학습했던 문법을 어느 정도 되새기면서도 그 실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긴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문의 활동이나 해결 방안 등에서 관련된 내용을 일정 부분 이상 안내하고 ‘평가’보다는 ‘학습’, ‘흥미’를 목적으로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2) 내용적 특성

본 교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 출판 가능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기존 학습의 연계성 상에서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인 ‘독서와 문법’ 교육과정의 용어를 사용하며 문법 내용을 구성하였고, 문법 중에서도 실용적인 면이 강한 어문 규정 관련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법 교육이 언어 사용 영역과의 통합성을 적절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텍스트에 실린 표현이나 어휘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실용 문법 내용을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3) 구성적 특성

본 교재는 크게 보면 ‘텍스트 - 활동’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텍스트는 그 주제에 맞게 다섯 개의 대단원으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자유로운 순서로 학습할 수 있다.

각각의 대단원은 쉬운 활동에서부터 어려운 활동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담화에서 음운·표기에 이르는 활동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어떤 대단원을 먼저 학습하거나 혹은 나중에 학습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각 텍스트의 뒤에 제시되는 활동은 대체로 1번이 ‘담화’, 2번이 ‘문장’, 3번이 ‘어휘·형태’, 4번이 ‘음운·표기’로 되어 있으므로,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문장 영역’의 학습이 요구된다고 하면, 각 텍스트의 2번 활동만을 선별해서 학습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5. 교수요목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요목은 다음과 같이 담화, 문장, 어휘·형태, 음운·표기 층위로 나누어 제시한다.¹⁾

- 단원명: 1.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으로

제목	층위	세부내용	
신시의 아침	담화	담화 구조	세부 내용 확인
	문장	문장 성분	호응 관계(부사어-어미)
	어휘·형태	의미 관계	계열 관계(유의어)
	음운·표기	표기	한글 맞춤법 제11항(‘을/를’)
서낭당이나 성황당이나	담화	담화 구조	세부 내용 확인
	문장	문법 요소	종결 표현(평서형, 의문형)
	어휘·형태	어휘의 양상	전문어
	음운·표기	표기	한글 맞춤법 제18항(용언의 활용)
궁예, 왕건이 그린 나라	담화	담화 구조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구조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관형어-관형격 조사 의의 쓰임)
	어휘·형태	의미 관계	복합 관계(다의어-‘일어나다’)
	음운·표기	표기	한글 맞춤법 제26항(‘-없다’ 합성어의 띄어쓰기)
퇴계와 고봉 간 사단 칠정 논쟁	담화	담화 구조	논지 전개 과정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서술어 구조)
	어휘·형태	의미 관계	복합 관계(다의어-‘오히려’)
	음운·표기	음운 변동	교체(경음화)
지조론	담화	담화 구조	논지 전개 과정
	문장	문법 요소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어휘·형태	어휘의 체계	한자어 의미
	음운·표기	표기	표준 발음법 제13항(연음), 제15항(절음)

- 단원명: 2.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목	층위	세부내용	
KOREA로 불리다	담화	담화 구조	세부 내용 확인, 핵심어 파악
	문장	문장 구조	문장의 확대(대등적 연결 어미)
	어휘·형태	품사	품사 구분
	음운·표기	음운 체계	자음과 모음(음운의 개념)
김치와 과학	담화	담화 구조	세부 내용 확인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단위성 의존 명사)
	어휘·형태	어휘의 양상	순화어

1) 텍스트에 따라 ‘담화, 문장, 어휘, 음운·표기’ 가운데 특정 층위가 2문제 이상 출제된 경우도 있다.

	음운·표기	표기	한글 맞춤법 제18항(용언의 활용)
음력·양력의 과학적 비교	담화	담화 구조	논지 전개 과정
	문장	문법 요소	피동 표현
	어휘·형태	어휘의 체계	한자어(24절기)
	음운·표기	표기	한자어 표기(‘不’)
한옥의 공간 구성 원리, 소통	담화	담화 구조	논지 전개 과정
	문장	문법 요소	시간 표현(과거 시제, 과거 시간 표현)
	어휘·형태	품사	대명사(우리)
	음운·표기	음운 변동	교체(구개음화)
백성들이 정말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는가	담화	담화 구조	세부 내용 확인, 핵심어 파악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문장 부사어)
	문장	문법 요소	높임 표현(높임의 어휘)
	음운·표기	표기	표준 발음법 제5항(‘ㄴ’의 발음)

- 단원명: 3. 조상들의 미의식을 찾아서

제목	층위	세부내용
고려청자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법 요소
	어휘·형태	어휘의 형성
	음운·표기	표기
우리 음악의 일반적 특징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법 요소
	어휘·형태	품사
	어휘·형태	어휘의 형성, 품사
김홍도의 <씨름>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장 성분
	문장	문법 요소
	어휘·형태	의미 관계
한국의 탈춤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장 성분
	음운·표기	음운 체계
	음운·표기	표기

- 단원명: 4. 선인들의 말과 글

제목	층위	세부내용
훈민정음, 성인의 도를 구현한 언어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법 요소
	어휘·형태	어휘의 체계
	음운·표기	표기
말의 예절이란?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법 요소

	어휘·형태	어휘의 양상	관용어('말'에 관한 관용어)
	음운·표기	표기	어법에 맞는 표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	담화	담화 구조	세부 내용 확인
	문장	문법 요소	종결 표현(구어체 종결 어미)
	어휘·형태	어휘의 체계	한자어
	음운·표기	표기	표준어 규정 제14항, 제15항
퇴고의 이론과 실제	담화	담화 구조	세부 내용 확인
	어휘·형태	품사	보조사
	어휘·형태	어휘의 양상	북한어
	음운·표기	표기	외래어 표기법 제4항(파열음표기)
조선어 학회 사건	담화	담화 구조	시간 순서에 따른 전개
	문장	문법 요소	종결 표현(명령형 어미)
	어휘·형태	어휘의 양상	한자 성어
	음운·표기	표기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작은따옴표)

- 단원명: 5. 우리의 정서를 담은 문학

제목	층위	세부내용
아리랑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장 구조
	어휘·형태	어휘의 형성
	음운·표기	음운 체계
홍보가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법 요소
	어휘·형태	의미 관계
	음운·표기	음운 변동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 장수산 ¹	문장	문법 요소
	어휘·형태	어휘의 양상
	음운·표기	표기
백석의 여우난골족族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장 성분
	어휘·형태	어휘의 양상
	음운·표기	표기
토지	담화	담화 구조
	문장	문장 성분
	어휘·형태	어휘의 양상
	음운·표기	표기
영혼의 母音	담화	담화 구조
	어휘·형태	품사
	어휘·형태	의미 관계
	음운·표기	음운 체계

III. 종합 및 제언

1. 종합

본 연구는 독서(읽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교재)의 개발에 목적이 있다. 독서(읽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는 2013년에 수행된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문법의 실용성과 통합성을 강조한 형태로 교육 자료가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국민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문법 교육 자료를 완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흥미를 고취하고 모든 세대에 유익한 읽기 자료 또는 텍스트를 선정하고, 독서(읽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과 해설 등을 개발하며, 이러한 사업 수행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국어 능력 향상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구현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독서(읽기)와 실용 문법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환에서 본 교육 자료는 제시된 텍스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교양 독본(讀本)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텍스트를 선정한 것이 더하여, 흥미 있게 구성한 실용 문법 활동, 해결 방안을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이 교육 자료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일반 국민들이 각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 주도형 학습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도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교육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육 자료는 다섯 개의 단원, 총 25개의 텍스트(쉬어 가기: 4편)를 제재로 하여 100여개의 활동, 해결 방안을 개발하였다. 교육 자료에 활용된 텍스트는 ‘인문, 사회, 정치, 과학,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망라하고 있고, 실용 문법의 내용은 텍스트의 독서와 관련되는 ‘담화, 문장, 어휘/형태, 음운/표기’의 모든 언어 층위를 모두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 자료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독서와 문법 측면의 교양 교육, 실용 문법 내용의 구체적 제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통한 사회 통합, 향후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의 한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국어 사용 양상을 문법과 연계함으로써 국어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

언해 보고자 한다.

○ 향후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의 체계적 로드맵 마련 및 추진

향후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화법(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은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사업 진행 방향과 같이, ‘내용 개발 →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로 진행하되, 전자의 사업에는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요구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후자의 사업에는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강사나 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이 보다 공공의 요구에 부합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어 생활에 기반 한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의 지속적 추진

국립국어원(2013)과 본 연구를 통하여, 독서(읽기) 영역과 문법의 연계 가능성 및 문법을 통한 독서 능력 향상의 교육적 수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학계 일부 논의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언어 사용(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과 문법과의 연계 가능성이 가장 어려운 영역을 통합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므로 향후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의 성공에 긍정적 전망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화법(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이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국민의 실용적인 문식성 함양 요구를 만족하면서도 이를 문법이라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논리로 가능케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이 연계된 것과 같이, 향후 ‘작문’ 및 ‘화법’ 영역의 국어 능력 향상 사업도 일반 국민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사업의 성과물은 인쇄 매체로 출판, 보급하거나 이러닝(e-learning) 학습 콘텐츠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식하여 각급 학교나 공공 기관 등에 배포하면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직업 및 직능에 따른 국어 능력의 구체화와 발전 사업 추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용적 성격의 사업이 충분히 수행된 이후에는 다양한 직능군에 따라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체계화하고 이를 기존의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의 성과와 연계, 발전시키는 사업 구상 및 실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문서 이해 능력이나 작성 능력, 법조문 해석 능력 등은 다른 직능과는 어느 정도 차별화 된 국면의 국어 능력인데, 이를 기존의 ‘독서, 작문, 화법’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과 연계하는 등의 사업이 가능하리라 본다.

참고 문헌

- 고성환(1999), “대중매체와 텍스트언어학”,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추계학술대회.
- 고영근 외(2009), 『한국문학작품과 텍스트 분석』,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 구본관(2010), “문법 능력과 문법 평가문항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 국립국어원(2013),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국립국어원.
- 김대회(2011), “독서 수준과 텍스트 수준의 위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 김동환(2008), “텍스트언어학에 입각한 문학텍스트 분석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9,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명순(2008),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의 변화와 의미-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봉순(1996), “텍스트 의미 구조의 표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순(2010),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류 체계 연구 -읽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9, 국어교육학회.
- 김은성(2008), “국어 문법교육에서 텍스트 처리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33, 국어교육학회.
- 김정선·이삼형·정재찬·김혜정·최형용(2014), “독서문법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한국언어문화』 53, 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종률(2011), “국어과 통합 교육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 연구 - 화법·작문·독서에 관련된 사고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학회.
- 김주환(2010),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성 연구”,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혜숙·고희성·김규훈·박운조·이미정(2012), 『문법교육과 텍스트의 만남: 실천적 탐색과 적용』, 동국대학교 출판부.
- 김혜숙(2011), “통합적 문장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 맥락과 텍스트 중심의 활동 교재 구안을 위하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혜정(2004),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 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 김혜정(2006), “읽기 교육 방법론에 대한 재고”,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 김혜정(2009),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읽기 쓰기 영역의 내용 선정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 및 외연 검토-”, 『작문연구』 8, 한국작문학회.
- 김호정(2006),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텍스트 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남가영(2011), “문법교육용 텍스트의 개념 및 범주”, 『국어교육』 136, 한국국어교육학회.
- 노명완(1996), “독서 개념의 현대적 조명”, 『독서연구』 1, 한국독서학회.
- 노명완·박영목(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류보라(2010), “국어 교과서의 통합 단원 구성방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9,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9), “국어 능력 실태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10),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의와 방향”,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
- 박갑수(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 박수자(2001), 『읽기 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영목(1988), “독서 행위에 있어서의 정보 처리 과정”, 『교육심리연구』 2-1, 교육심리연구회.
- 박영목(2008), 『독서교육론』, 박이정.
- 박영애(2007), “전략중심 읽기지도가 읽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진(2005),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 박종미(2012), “문법 능력과 쓰기 능력의 상관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우(2009), “문법 교육과 관련된 탐구 학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32,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형우(2010), “문법 영역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 변우열(2009), 『독서 교육의 이해』, 조은글터.
- 서정수(1999),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한강문화사.
- 서 혁(1991), “단락·문장의 중요도 파악과 단락의 주제문 작성능력이 요약에 미치는 효과: 설명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 혁(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 혁(2006), “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발전 방향: 읽기·독서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 성낙수(2004),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 - 고등학교『문법』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 송현정(2010), “문법 과목의 영역 구조와 내용”,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 신명선(2004),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명선(2006),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 신명선(2008), “읽기교육과 문법”, 『문식성교육연구』, 한국문화사.
- 신호철(2007), “국어교육의 상보적 통합 -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 신호철(2009), “국어교육에서 연계성의 개념과 양상 -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 양세희(2012), “문장 교육과 읽기 교육의 통합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 오현아(2011), “국어교육: 화제-초점 중심의 텍스트 구조 유형화에 대한 고찰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 우문영(2009), “통합적 국어교육 방법 연구”, 『한어문교육』 20,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윤준채·서혁(2010), “표준화 독서 능력 검사도구 개발 연구Ⅱ”,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 이경화(2008),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이관규(2009), “통합적 문법교육의 의의와 방법”,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관규(2011a), “통합적 국어교육의 가치와 ‘독서와 문법’”, 『국어교과교육연구』 18, 국어교과교육학회.
- 이관규(2011b),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제와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19, 국어교과교육학회.
- 이관희(2009), “문법교육 위계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품사 교육을 대상으로”,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도영(1998), “언어사용 영역의 내용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도영(2007), “읽기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 방법론”,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형(1999a), “인지적 읽기 모델의 비판적 고찰: 스키마 이론의 독해관과 읽기 지도 모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4, 한국독서학회.
- 이삼형(1999b), “텍스트 구조 분석 연구 -화제 전개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삼형(1999c), “텍스트언어학의 응용: 텍스트 이해와 추론”, 『텍스트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삼형(2010), “‘문법 영역’과 ‘작문 영역’의 통합 문제”,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삼형·김시정(2014), “‘독서 문법’의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 145, 한국어교육학회.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이성영·정재찬·서혁·심영택·박수자(2001), 『국어교육학』, 소명.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이성영·정재찬·서혁·심영택·박수자(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도서출판 역락.
- 이영주(2007), “통합적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은희(1998), “텍스트 언어학의 국어교육적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8, 한국어교육학회.
- 이은희(1999), “텍스트언어학의 응용: 접속 구성과 언어 이해 교육 - 언어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 -”, 『텍스트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은희(2004), “언어 영역의 위상과 내용 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선청어문』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은희(2008),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텍스트 중심 접근”, 『텍스트언어학』 2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재승(1992), “통합 언어(whole language)의 개념과 국어 교육에의 시사점”, 『국어교육』 79, 한국어교육학회.
- 이재승(2004), “언어 기능 통합 지도의 배경과 충위”, 『한국초등국어교육』 2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재승(2006),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지영(2006),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 능력을 배양을 위한 담화 정보 활용”, 『한국어교육』 1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지호(1998), “국어과 통합 교육의 논리”,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학회.
- 임규홍(2007), “담화문법 교육에 대하여”, 『문법교육』 2, 한국문법교육학회.
- 임규홍(2010), “문법과 독서의 통합성”,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 임일혁(2001), “중심내용 파악 훈련이 읽기 미성취 아동에게 미치는 읽기 이해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서혁(2007), “텍스트 기반 문장종결 표현 교수·학습 방법”, 『교과교육학연구』 1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전은주(2010), “화법과 문법의 통합 교육 내용 구성”,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 정재찬(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과서 개발 방향”, 『국어교육』 137, 한국어교육학회.
- 정준섭(1996),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제민경(2011), “텍스트 중심 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신문 텍스트의 ‘전망이다’ 구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세형(2006), “문법 지식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도서출판 역락.

- 천경록(1999), “읽기의 개념과 읽기 능력의 발달 단계”, 『청람어문교육』 21, 청람어문학회.
- 천경록(2006), “독서 능력 표준화 검사 도구의 연구 개발”,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 천경록·이재승(1997), 『읽기교육의 이해』, 우리교육.
- 천경록 역(2003), 『독서지도론』, 도서출판 박이정.
- 천경록 역(2012), 『독서교육론: 독서 과정의 이해와 지도』, 도서출판 박이정.
- 최숙기(2010), “읽기 전략에 대한 독자의 상위인지 인식 양상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2, 청람어문교육학회.
- 최영환(1998), “기능과 전략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 『국어교육』 95, 한국어교육학회.
- 최영환(2007), “‘독서’의 인지적 영역 발달과 사회적 관점”,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철우·천경록 역(1996), 『사고중심 전략중심 독서지도 방법』, 교학사(Irwin & Baker, Promoting active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Allyn & Bacon, 1989)
- 허재영(2004), “문법 교육 과정의 변천”, 『문법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 Anderson, John R.(1983), *The Architecture of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eaugrande, R.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Linguistics Library; 26.
- Beers, K.(2001), *Contextualizing grammar*, Voices from the middle.
- Berkenkotter, C.(1981), *Understanding a Writer's Awareness of Audienc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 Berkowitz, S., & Taylor, B. M.(1981), *The effects of text type and familiarity on the nature of information recalled by readers*, In M. Kamil(ed.), *Directions in reading: Research and instruction*.
- Brinker, K.(1988),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guehrung in grundbegriffe und mehtoden*, Berlin: Erich Schmidt.
- Britton, B., & Black, J. B.(1985), *Understanding expository text*, Hillsdale, NJ: Erlbaum.
- Brown, H. Douglas.(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 Bruner, J. S.(1963),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lkins, L. M.(1980), *When children want to punctuate: Basic skills belong in context*. Language Arts.
- Carter, R, McCarthy, M.(1995), Spoken grammar: what is it and how can we teach it?, *ELT Journal* Vol.49 No.3 [1995].
- Carter, R., McCarthy, M.(1997), *Grammar, tails, and affect: Constructing expressive choices in discourse*, *Text*, Vol.17 No.3 [1997].
- Carter, R., McCarthy, M.(2004), *Talking, Creating: Interactional Language, Creativity, and Context*, *Applied linguistics* Vol.25 No.1 [2004]
- Collentine, J.(2009), From Corpus to Classroom: Language Use and Language Teaching by O'Keeffe, Anne, Michael McCarthy, & Ronald Carter,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93 No.3 [2009]
- Cox, Carole.(1988, 2005), *Teaching language arts: A student-and response- centered classroom*,

- Pearson Education, Inc.
- Cramer, Ronald L.(2004), *The language arts: A balanced approach to teaching reading, writing, listening, talking, and thinking*, Pearson Education, Inc.
- Crawshaw, R.(1996), *Michael McCarthy and Ronald Carter, Language as Discourse: Perspectives for Language Teaching*, The Modern language review.
- D. C. Mitchell.(1982), *The process of reading: a cognitive analysis of fluent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London: John Willey & Sons.
- Durkin, D.(1981), *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in five basal reader ser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 Flower, L. S. & Hayes, J. R.(1981),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 Fontaine S. I.(1984), *Evidence of Audience Awareness in the Writing and Writing Processes of Nine-and Eighteen-Year Old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Halliday, M.A.K. & Hasan(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 & Kress, Gunther R.(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selected pap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 & McIntosh, Augus. & Stevens, P.(1964), *The Linguistic Science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 Heineann W. & Viehweger D.(1991), 백설자 역(2001), 텍스트 언어학 입문(Textlinguistik: eine einföhrung), 역락.
- Hillocks, G., Jr.(1987), *Research on written composition: New directions for teaching*, Urbana, IL: 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in English and the ERIC Clearinghouse on Reading and Communication Skills.
- Hoover, W. A., & Gough, P. B.(1990), The simple view of reading.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 p. 127-160.
- Johns, J. L., & VanLeirsburg. P.(1994), *Promoting the reading habits*, In E.H. Cramer & M. Castle(Eds.) *Fostering the love of reading*. DE: IRA.
- Jonassen, D. H.(1982), *The Technology of Text*, Educational Technology Pub.
- Jones, B. F.(1985), *Teaching cognitive strategies and text structures within language arts program*, In J. W. Segal et al (Eds.) *Thinking and learning skills*.
- Judith W. Irwin & Isabel Baker.(1989), *Promoting active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A resource book for teac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intsch, W.(1993), *Information accretion and reduction in text processing: Inferences*, Discourse Processes.
- Kintsch, W.(1998), *The role of knowledge in discourse comprehension: A construction-integration model*, Psychological Review.
- Kintsch, W., & Van Dijk, T. A.(1978),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 Knapp Peter · Watkins Megan(2005),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 Langer, J. A. & Fihan. S.(2000), Writing and reading relationships: constructive tasks. In R. Indrisano & J. R. Squire(Eds.). *Perspectives on writing*. IRA.
- Larsen-Freeman, Diane.(2003),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aring*, Boston:

Thomson/Heinle, c2003.

- Leslie, L., & Cooper, J.(1993), *Assessing the predictive validity of prior-knowledge assessment*, In D. J. Leu, & C. K. Kinzer(eds.), *Examining central issues in literacy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Chicago, IL: National Reading Conference.
- Mathewson, G. C.(1994),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In R. D. Ruddell, M. R. Ruddell. & H. Singer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4th ed.). DE: IRA
- Mckenna, Michael C. · Dougherty Stahl, Katherine A(2009). 『*Assessment for Reading Instruction*』 .
- McNeil, John D.(1984), *Reading Comprehension: new directions for classroom practice*,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Meyer, B. J. F., & Rice, G. E.(1984), *The structure of text*, In P. D. Pearson, R. Barr, M. L. Kamil, & P. Mosenthal(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White Plains, NY: Longman.
- Noguchi, R. R.(1991), *Grammar and the teaching of writing: Limits and possibilities*,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Noyce, R. M., & Christie, J.F.(1983), Effects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grammar instruction on third graders' reading and writ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 Nystrand, M.(1987), *The role of context in written communication*, In R. Horowitz, & S. J. Samuels (Eds.), *Comprehending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Palincsar, A. S., & Brown, A. L.(1984), *Reciprocal teaching of comprehension-fostering and comprehension monitoring activities*, *Cognition and Instruction*.
- Paris, S. G., Lipson, M. & Wixson, K. K.(1983), *Becoming a strategic reader*,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 Peter Knapp & Magan Watkins(2005),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Univ of New South Wales.
- Stein, N. L., & Glenn, C.(1979),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R. O. Freedle(ed.), *Advances in discourse processes: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es*, Norwood, NJ: Ablex.
- Strickland, D. S., L. Galda, B.E. Cullinan.(2004), *Language Arts Learning and Teaching*, Thomson Learning Academic Resource Center.
- Thornbury, Scott.(1999, 2nd. 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Van, Dijk(1977), 『*Grammars and descriptions: studies in text theory and text analysis*』 , *Research in text theory* ; v. 1.
- Van, Dijk(1977), 『*Text and context: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 London: Longman, c1977.
- Vygotsky, L.(1986),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Weaver, C.(1996), *Teaching grammar in context: Why and how*. Portsmouth, NH: Heinemann.
- Weaver, C.(1998), *Teaching grammar in the context of writing*, In C. Weaver(Ed.)(1998), *Lessons to share: On teaching grammar in context*, Portsmouth, NH: Heinemann.
- Weaver, C. McNally, C., & Moerman, S.(2001), *To grammar or not to grammar: That is not the question!*, voices from the middle.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집필: 이삼형, 이도영, 김정선, 김시정

국립국어원

차례

1.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으로	33
2.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77
3. 조상들의 미의식을 찾아서	115
4. 선인들의 말과 글	151
5. 우리의 정서를 담은 문학	185
예시 답안 및 해설	227

1.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으로

-
- (1) 신시(神市)의 아침
 - (2) 서낭당이냐 성황당이냐
 - (3) 궁예, 왕건이 그린 나라
 - (4) 퇴계와 고봉 간 사단 칠정 논쟁의 전개
 - (5) 지조론(志操論)
- 쉬어 가기 ‘단군 신화’
-

(1) 신시(神市)의 아침

이어령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서

우리는 한국인이 태어난 고향을 모른다. 누구나 어머니의 태내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은밀하게 속삭이는 하나의 신화가 있어, 잊어버린 옛날이 아득한 그 기억을 일깨워 주고 있다.²⁾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을 태초의 수품이 우거져 있는 산, 태백이라고 불리는 높고 신비한 산마루를 향하여 더듬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 하나의 신단수(神檀樹)³⁾가 푸른 잎을 드리우고 고요한 아침 햇살이 퍼져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나타난다. ‘신시(神市)’-이곳이야말로 우리들의 고향, 수천 년 동안 마음속에 그려오던 잃어버린 그 고향이다. 희랍 사람들의 꿈을 키워 온 것이 올림포스의 산언덕이라 한다면, 한국인의 본뜻을 아로새겨 놓은 곳은 바로 태백산의 그 ‘신시’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망각의 고향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 몽롱한 고향 이야기들(신화)을 현대어로 옮겨 보려고 노력했다.

누구였을까? ‘신시’의 신단수 밑에서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가지고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는 환웅(桓雄)은……? 그는 하느님(桓因)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곰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그가 단군왕검(檀君王儉)……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국조(國祖)라고 옛 신화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그들은 무엇이었을까? 환웅은…… 곰은…… 그리고 그 단군은…….

어느 나라의 신화이든 그것은 사실의 역사가 아니라 수수께끼와 같은 암호이다. 현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실 속에 담겨진 마음의 언어인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역사보다도, 시와 소설과 같은 허구의 신화 속에 한 민족의 운명과 영혼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지금껏 우리는 신비한 신시의 그 수수께끼를 여러 방법으로 풀어 온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신시가 있는 태백산은 오늘의 묘향산이고, 신단수는 하나의 박달나무, 그리고 단군을 옛날 사람들이 모시던 일종의 산신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는 ‘환웅’이란 ‘감숫’ 즉 수곰[熊男]이란 뜻이고, 곰에서 태어난 사람을 국조라 한 까닭은 짐승을 숭배한 원시인들의 토tem 사상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구는 곰[熊女]은 원시 사회의 모계 추장(母系酋長)을 표상한 것이라고 하고 단군을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원시 남성 추장(男性酋長)이 호칭이었을 것이라고도 한다. 심지어 환인, 환웅, 웅녀를 삼위일체의 기독교 사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⁴⁾

2) 화석학자가 사막에 매장되어 있는 한 개의 골편에서 몇 천 년 전에 멸해 버린 동물의 전 모습을 재현해 내는 것처럼 그 민족의 신화를 분석해 보면 선사 시대의 사상적인 전 윤곽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민족의 신화를 그 민족의 운명이라고 한다.

3) 신단수(神檀樹):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

그러나 우리는 신화의 문자 뒤에 숨겨진 은밀한 이야기에 좀 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어느 산이고 그게 과연 누구였는지? 중요한 것은 그런 데 있지 않다. 사실이나, 거짓말이나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들의 물음은 신화 속에 담겨진 ‘한국인의 마음’으로 향해져야 한다. 단군 신화는 태초의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시이며, 철학이며, 윤리이며, 그 사회의 정학(政學)이었던 것이다. 슈펜글러의 용어로 나타내자면 그것은 문화의 씨앗과도 같은 근원상징(根源象徵)이다.⁵⁾ 그 근원상징을 이루고 있는 질서를 따져 가면, 그들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국가나 우주나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신시’는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시적(可視的)인 고향’이 아니라, 정신의 어느 풍토엔가 위치해 있을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일 것이기 때문이다.

신시의 의미

‘신시’는 나라가 아니었다. 따라서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은 한 국가의 통치자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 단군 신화의 묘미가 있다. ‘신시’와 ‘환웅’은 나타난 의미 그대로 인간의 마을이 아니라 땅 위에 있으면서도 아직은 하늘나라의 것이었고 인간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환웅은 여전히 인간은 아니었다. 어쩌서 하늘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신시’에 바로 고조선을 만들었다고 그들은 상상하지 않았을까?

대체 무엇 때문에 환웅이 곰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을 때, 그리고 ‘신시’에서 ‘아사달(阿斯達)’로 옮겼을 때, 비로소 ‘나라’라는 것이 생겼다고 그렇듯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먼저 해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멀고 먼 하늘을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구름과 바람이 스쳐가고 있었고 만물을 적셔 주는 비가 있었다. 그들은 이 하늘을 볼 때마다, 인간과 이 지상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느꼈을 것이다. 거기에서 햇빛이 쏟아지지 않으면, 구름이 덮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곡식을 가꿀 수가 없고, 잠시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모든 노동이 헛되게 돌아간다.

그러기에 원시인들은 누구나 이 초자연적인 힘을 향해서 감사와 두려움의 감정으로 기도를 드렸다. 만약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4) 단군 신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설(諸說)을 분석해 보면 첫째, 문화사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불암문화론, 不威文化論)의 골자를 이루는 최남선 씨의 설과 신채호 씨의 제설) 둘째, 해석론적 태도(이병도 씨의 곰 자 폴이에 의한 토탑 사상적 견해) 셋째, 사회학적 태도(백모 씨 같이 원시 사회의 계급적 형태의 반영으로 고찰하고 있는 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옛날의 신화 연구 방법론은 첫째는 주로 그것을 실제 일어났던 기정 사실로 보려는 것과, 둘째는 합리적인 해석을 내리려는 에우헤메리즘(Euhemerism), 셋째는 민속학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신화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원시 종교의 형태나 사회 관습 등을 따져 내는 발생학적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심리적 각도에 상징적 의미를 캐 내는 근대적 해석법이 있는데, 나는 이 마지막 방법에 역점을 두고 단군 신화를 논하려고 한다.

5) Myth(신화)의 어원은 본래 언어라는 뜻이다. 그래서 폴 발레리나, 뮐러 등은 신화의 기원을 원리적인 포엠(시)으로 보고 있으며, 후에 시라는 의미가 없어져서 다만 인격화된 우의성만 남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곧 인가의 통치자로 군림했다고 신화는 그렇게 꾸며졌을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환웅을 국조로 삼지 않았다. 신시를 고조선의 도읍이라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하늘은 하늘, 인간 사회는 인간 사회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그들은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 갔던 것이다.

그 증거로 땅으로 내려온 환웅은 예수처럼 하느님[桓因]의 독생자가 아니라, 분명히 '서자(庶子)'라고 기록되어 있다. 환웅이 상속자인 적자(嫡子)가 아니라 방계의 서자였다고 뚜렷이 밝힌 것은, 천상의 질서는 천상의 질서대로 인식해 두려는 태도였음을 우리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하늘의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하늘의 이미지로서 그 신화는 끝나고 있다. 환웅이 인간을 다스린 것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것이었지만 인사(人事)의 직접적인 정치를 맡은 것이 아니었다.

천부인 세 개로 다스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신시'에서 그가 한 일은 바람[風伯], 비[雨師], 구름[雲師]을 인간을 위해 거느린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천부인 세 개란 그것들을 각기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것이요, 바람과 비와 구름으로 인간을 다스렸다는 것은 정사(政事)가 아니라 기후(자연)의 제어를 의미한다. 신화에도 직접 나타나 있듯이 곡식과 생명과 병과 형벌과 선악 등 360여 가지의 인간사를 그는 다스렸다. 그것들은 모두 국가가 생기기 전의, 생물로서의 인간 조건을 좌우하는 다스림이었다. 그러나 제때 비가 온다든지 곡식을 자라도록 구름과 바람을 적당히 제어하는 것만으로 '인간 사회'가 형성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시'는 '하늘의 것[天上]'과 '땅의 것[天下]'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상징적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늘과 지상의 '다리'로서 인식된 '신시'의 사상이야말로 한국인의 사상적 원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신단수 밑에서의 혼약

그 '신시'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신시는 천상의 것과 천하의 것이 합쳐지는 즐거운 혼약의 자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혼약의 자리에서만 완성된 인간,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의 인간이 탄생한다. 그가 단군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천상의 이미지(환웅)와 지상의 이미지(곰)가 통합된 제3의 자리-거기에서 인간들의 나라가 열렸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쩌서 하늘의 아들 환웅과 짐승인 곰을 서로 결합시켰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낳은 그 '튀기'를 어쩌서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다스리는 최초의 통치자로서 설정했겠는가?

신시의 신단수 밑에서 하늘의 아들(환웅)도 땅의 짐승인 곰도 인간으로 화했다. 인간으로 화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동물)'이 서로 혼례를 올리는 그 상징적인 마당 위에서, 인간의 나라 '아사달의 아침'이 밝았다. 전율적인 이 신화적 상상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의 파노라마였음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도 인간을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은 신과 동물의 양극을 방황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불안에 가득 찬 분열의 중간자로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아들과 곰(동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중간자(단군)는 조화와 결합으로서의 축복받은 왕이었다.

단군은 그 축복 속에서 권력을 잡았다. 좀 더 이 말에 조심을 해 주기 바란다. 화합과 사랑 속에서 권력을 얻은 신화란 일찍이 서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신화였다.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의 비극이 또한 깃들어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에 관계된 세계의 고대 원시 사회의 관습적 원형으로, 프레이저 박사는 금지(金枝)의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다. 이 금지의 나무 밑에서 벌어진 그 풍습과 신단수의 나무 밑에서 벌어진 우리의 신화를 비교해 본다면 결코 과장된 독단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군 신화에는 신단수 나무 아래에서 신분이 다른 두 존재가 즐거운 혼례를 드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결합이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이며 죽음이 아니라 탄생이다. 그런데 역시 신성하다는 이탈리아의 숲, 거울같이 맑은 네미 호숫가의 그 숲, 디아나의 ‘금지’ 나무 밑에서 벌어진 신화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네미 호숫가의 전설은 혼례가 아니라 투쟁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금지’의 나무 밑에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의 주위에는 칼을 뽑아든 사제(司祭)이며 동시에 왕이기도 한 한 사람이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소(聖所)의 규칙은 사제(왕)의 후보자가 사제를 죽임으로써만이 그 직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 현재의 사제를 찢어 죽이면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미구(未久)에 나타날 새로운 도전자에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 떨지 않으면 안 된다. 왕은 살인자이며 동시에 살해되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네미 숲의 금지 신화는 정권 투쟁, 생존 경쟁, 정복과 피정복의 인간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그것은 갈등이며 투쟁이며 분열이며 불안이다. 그리고 그 숲이야말로 서양인들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이 산화뿐만이 아니라 희랍 신화를 보면, 자기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죽인 크로노스는 자기 자신도 자식에게 그 권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예언 때문에 자식을 낳는 대로 삼켜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그것을 애통하게 생각한 아내 레아가 제우스를 낳자 돌과 제우스를 바꾼다. 그것을 모른 크로노스는 돌을 삼켜 버리고 제우스는 피신을 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살아난 제우스는 다른 신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합세하여 통치자이며 자기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죽여 버리고 새 치자로 군림했다는 것이다.

유독 우리의 신화에서만 혼례의 결합 밑에서 평화로운 권력자며 치자가 탄생한다.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인간은 부러운 것

단군 신화에서 환웅과 곰의 혼례식, 이것은 하늘의 질서와 지상의 질서가 분리, 쟁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질서가 서로 융합과 조화를 이루어 이상적인 ‘인간의 나라’를 만들

었다는 상징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이 서양 사람들처럼 투쟁과 정복에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따르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것, 즉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동물)을 합치게 한 힘은 무엇인가? 다시 그 신화를 분석해 보자. 우선 하늘에서 사는 환웅도, 땅 위에서 살던 짐승(곰, 호랑이)도 다 같이 인간을 그리워했다는 점이다. 환웅은 천상에서 ‘언제나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었고’, 땅의 굴속에서 살던 곰과 호랑이는 항상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님(桓因)께 빌었다는 것이다.

이 신화를 읽으면 우리의 옛 선조들이 인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지고한 하늘나라의 신도, 힘이 센 맹수인 호랑이나 곰도 인간 사회를 그리워했다는 상상력은 결코 인간 스스로를 멸시하는 반인간주의적인 사고 밑에서는 생겨날 수 없다. 신도 짐승도, 인간 사회 안으로 뛰어 들어온 이 신화는 줄기찬 인간 긍정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의 창세기 신화는 어떠한가? 인간의 역사는 우리와는 정반대로 추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짓고 쫓겨난다. 우리처럼 신과 짐승이 인간 안으로 들어올 때 역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버림을 받는 데서 인간의 나라가 형성된다.

서양의 것은 단절감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관이다. 그러면서도 짐승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창세기》) 인간은 한없이 자기중심적인 오만으로 윤색(潤色)되어 있다. 즉 인간은 만물을 이를 짓고 지배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어서, 심지어 ‘인간이 아직 밭을 경작하지 않아서 땅에는 초목이 없었다.’는 구절까지 나온다. 식물이나 짐승은 오직 인간의 필요성, 그리고 인간의 먹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단군 신화는 그렇지 않다. 곰의 가치를 인정하였기에, 곰에서 태어난 아들을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초이며 최고의 통치자로 상정한 것이다. 즉 이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은 신과 곰(짐승)의 똑같은 협조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 《창세기》는 신, 인간, 동물, 식물, 무기질의 순서로, 창조하는 날짜까지 서로 달라서 철저한 계급 의식으로 분할되어 있다. 한쪽은 지배하고 한쪽은 봉사하는 일방통행적인 분할성이다.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 신시에서는 신도 짐승도 모두가 인간 속에서 떠나 있지 않다. 그 인간의 존재는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만하지도 않다. 그냥 부러운 존재로서 그려져 있고, 인간을 부러워하는 그들의 힘을 얻어 한층 더 완성된 통치자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환웅과 곰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통치자인 단군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단군이 없었으면 ‘아사달’의 나라(인간의 역사) 역시 생겨나지 않았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인간이란 천상의 힘과 지상의 힘이 서로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이며 인간 특유의 한 사회가 형성된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하늘의 마음과 땅의 현실(동물적 본능의 세계)을 결합시키는 자만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상이 그 속에 깃들여 있다. 이것이 원시적인 한국인의 지도 이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단군 신화를 오해하여, 마치 우리가 하느님과 곰의 자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곰을 한국인의 외가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신화를 주의 깊게 읽지 않은 탓이다. 단군 신화는 어디까지나 인간 창조의 신화가 아니라 건국 신화이다. 나라가 서기 이전에도 인간(한국인)은 있었다. 다만 그 인간은 역사(국가)를 가지지 않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곰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빌었던 것을 보아도 이미 거기에는 인간이 있었던 것이다. 즉 한국인을 곰의 아들로 상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인간상(왕)을 하느님과 곰의 핏줄의 결합으로 본 것뿐이다.

이것은 단군 신화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인간 기원인 신화가 아니고 지도 이념을 위한 통치적, 당위적인 신화라는 뜻이 된다. 같은 인간 가운데서도 인간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인간, 치자(治者)로서의 인간과 피치자(被治者)로서의 인간을 나누어 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하필 곰이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것은 비단 곰뿐이 아니었다. 호랑이도 그렇게 빌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곰과 호랑이 가운데 그중 곰만이 인간으로 화하고 호랑이는 실패했다는 그 신화적 허구의 필연성은 무엇일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흑에는 백, 밤에는 낮, 불에는 물……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대조함으로써 각기의 특성을 대조하는 방법을 써 왔다. 일웅(一熊)과 일호(一虎)는 다 같이 산악 속의 짐승을 대표하는 맹수이다. 그러면서도 곰과 호랑이는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마치 같은 시간이면서도 밤과 낮이 대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원시 시대의 조선 선조는 임간(林間) 생활을 하면서 수렵으로 삶을 영위하였으며 곰의 고기는 주식물(主食物)이 되고 그 가죽이 의복과 침구로 사용되며 또한 그 뼈는 도구, 또는 무기로 쓰였다고 어느 학자는 증언하고 있다. 그와 함께 호피(虎皮)는 원시 교역품이 되어 조선의 상징이 되었다는 관자(管子)⁶⁾의 기록이 있음도 밝혀내고 있다.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이 두 영수(靈獸)가 원시 사회의 토렘으로서 존경받았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 곰과 호랑이를 신화에 다 같이 등장시킨 것은 이해가 가나, 어쩌서 곰을 택하고 호랑이를 버렸는가? 즉 단군(통치자, 개국 이념)의 핏줄을 호랑이가 아니라 곰에서 끌어온 발상법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민간 신앙이나 설화를 보면 도리어 한국인과 친숙한 것은 곰보다도 호랑이 쪽이었다. 《삼국유사》를 봐도 호랑이 이야기는 많이 나와도 곰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산신의 화신은 곰이 아니라 호랑이다.

반면에 지명을 보면 웅진(熊津)을 위시하여 호랑이보다는 곰에게서 유래된 것이 많다. 여기에서 우리는 곰과 호랑이로 각기 상징되는 고대 한국인들의 상징적 체계가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두 가지 가치관의 상징이다. 호랑이는 현실적이고 외적인 힘의

6) 관자(管子): 중국 춘추 시대의 제나라 재상인 관중(管仲)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 부민(富民), 치국(治國), 포교(布教)를 서술하고 패도 정치를 역설하였다. 원본은 86편이었다고 하나 원나라 이후 76편이 남아 오늘날까지 전한다.

상징이며, 곰은 이상적이고 내적인 힘의 원천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두말할 것 없이 그러한 상징은 이 두 짐승의 성격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는 조선에 있어서는 무반(武班)의 상징이었다. 매서운 이빨과 용맹과 날쌔 그 동작은 투쟁의 세계를 상징했다. 그는 동적인 정복자이다. 그러나 곰은 힘을 안으로 간직한 자이다. 맹수이면서도 우둔하고 점잖은 편이다. 끈기와 참을성이 있는 인자(忍者)이다. 호랑이가 영웅을 상징한다면 곰은 성자 편이다. 이러한 ‘곰’의 상징체계는 뒤에 와서 ‘사슴’이나 ‘거북’이나 ‘학’으로 변화되어 호랑이와는 대조적인 문화, 선비의 조용한 세계의 표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군 신화에서 인간이 되는 데 호랑이가 패하고 곰이 이겼다는 것은 곧 용맹과 투쟁의 가치관보다도 인(忍)과 순박을 더 높이 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신화를 좀 더 자세히 읽어 보자. 환웅은 인간이 되고 싶다고 빈 곰과 호랑이에게 무엇을 약속했던가? 환웅은 쑥과 마늘 스무 개를 주고 이것을 먹으며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다. 환웅은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이다. 타인을 지배하는 정복의 힘자랑을 시키지 않고 마음속의 투쟁, 즉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는 자기 내면의 투쟁으로써 곰과 호랑이의 우열을 판가름하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 올림픽 경기처럼 다른 짐승을 잡아오라든지 험난한 산언덕을 빨리 뛰어넘으라고 했다면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둔한 곰이 실패했을 일이다. 이 신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 둘을 경합시키는 퀴즈 문제 속에 이미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왜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한 환웅의 약속은 곧 한국인의 마음이었다. 외적인 투쟁보다는 내면의 투쟁을, 남을 정복하기보다는 스스로 어려움을 견뎌 내려는 고난의식을…… 그러한 마음에 가치관을 두었기에 단군 신화의 드라마는 그렇게 각색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되는 힘,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인격을, 서양 사람처럼 정복의 상징인 호랑이가 아니라 참고 견디는 곰, 즉 성자에 두었다.

쑥과 마늘과 어둠과

곰은 참아서 이겼다. 쑥과 마늘은 다 같이 먹기에 역겨운 것이다. 쓰고 매운 것의 상징이다. 어느 학자는 쑥과 마늘을 원시인들의 의약물로 보고 방역과 치료에 쓰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신화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는 별로 중요한 것이 못된다. 환웅이 마늘과 쑥을 주고 100일을 견디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일이 쉬운 게 아님을 뜻한다. 이렇게 그것을 고행의 의미로 주었다는 것은 마늘과 쑥이 먹기 어려운 식물임을 암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다. 어둠을 견디라는 말이다. 원시인들에게 있어서 어둠은 하나의 공포이며 죽음이며 절망이었다. 쓰고, 맵고, 답답한 어둠, 이것을 견디는 자만이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옛 마음, 그 고향의 인간관은 바로 맵고 쓰고 어두운, 그 어두움 고난을 이겨낸 존재로서 인간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한, 인간은 한낱 고난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 같다.

이 고난은 신이 준 시련이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호랑이의 외적 투쟁이 아니라 꿈의 내적 투쟁이다. 어두운 동굴에서, 맵고 쓴 음식을 먹으며 꿈은 투쟁한다. 그 투쟁은 토끼를 물어뜯고 산등성을 뛰어넘는 유혈의 투쟁은 아니다. 남과의 투쟁이 아니다. 꿈은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다. 햇빛을 보고 싶고, 또 감미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자기 마음의 유혹을 자기 스스로가 억제하는 싸움이다. 소리가 없는 조용한 투쟁, 겉으로는 피가 흐르지 않으나, 마음 가운데 피멍이 맺히는 싸움이다. 날쌔고 동작과 날카로운 이빨은 이런 싸움에 있어서는 무력하다. 먹이를 향해 뛰어가는 호랑이의 용맹은 자기를 제어하는 용기가 못 된다. 결국 호랑이는 포기하고 말았다.

상상해 주기 바란다. 삼칠일 만에, 꿈은 우울한 동혈(洞穴)의 어둠을 헤치고 하늘과 약속한 땅, 신시의 나무를 향해 뛰어나온다. 그는 이미 꿈이 아니며 아름다운 한 인간의 딸인 것이다. 인간으로 화한 꿈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그것은 감격의 눈물 속에서 어른거리는 아침의 햇살이었을 것이다. 이슬이 빛나고 푸른 나뭇가지들이 아침 안개 속에서 웅성거리는 신선한 그 숲의 흔들림이었을 것이다.

어둠을 견디고 이긴 자만이 아침의 의미를 알고 그 인간의 마음을 안다. 고난의 길고 긴 어둠, 답답한 동굴 속에 갇혀 있던 꿈은 아침의 희열과 신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율을 맛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아침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사상, 한국인의 신화였다. 그렇기에 어둠을 이긴 웅녀의 아들 단군은 '아사달(아침)'에 도읍을 정하였고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 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외국인들은 부르고 있지만 아마 그들은 그 참뜻을 이해하지는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자식을 낳으면 삼칠일 동안 사람을 들여놓지 않고 100일이 지난 뒤에 잔치를 벌인다. 그것은 꿈이 인간이 된다는 삼칠일을 기하고 100일 동안을 참으면 인간이 된다는 환웅의 약속과 우연히도 일치되는 날짜이다. 아니 단군 신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아도 좋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낳기만 하면 곧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칠일과 100일의 시련을 겪어야 비로소 인간으로 대접받는다는 사고방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인의 마음이다.

출발점에 선 아침의 사상

종합해서 말하면 단군 신화는 자연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로 옮겨 가는 한국인 최초의 역사의식이다. 하늘의 나라(환웅)와 그 지배 밑에 있는 동물의 나라(곰, 호랑이)는 '신시'에서 서로 만났고, 신시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탄생했다. 단군은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최초의 지도자이며 그가 세운 아사달은 최초의 인간의 땅(인간 사회-나라)이었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출발을 그들은 '아침의 땅'으로 파악했다. 꿈이 갇혀 있던 동혈 속의 어둠이 광명한 대낮(환웅-천제(天帝)의 아들)에 이끌리어 아침이 된다. 이 아침을 인식하는 것이 곧 인간을 의식하는 것이었고, 그 아침에서 출발하는 것이 곧 역사의 출발을 의식하는 것이다.

아침은 ‘시작’이다. ‘아침의 시작’은 ‘어둠’과 ‘밝음’의 혼례에서 태어난 신생아이다. 아사달이라는 나라 이름만이 아침을 뜻한 것은 아니다. 새 나라 새 도읍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을은 동경(東京 새봄), 서라벌(徐羅伐 서라벌), 소부리(所夫里)같이 모두가 ‘ㅅ’과 ‘ㅂ’의 두 두음 속에서 이루어졌다. ‘ㅅ’은 새것이고 ‘ㅂ’은 ‘밝음’이다. 새로운 밝음, 즉 아사달처럼 ‘아침’이란 뜻이다.

단군 신화가 자연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로 옮겨 가는 최초의 의식이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많은 숫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삼위태백(三危太白)’, ‘천부인 세 개’, ‘삼천의 무리’, ‘삼백육십여사(三百六十餘事)’, ‘일웅일호(一熊一虎)’, ‘마늘 스무 개’, ‘백일 동안의 인(忍)’, ‘삼칠일 만의 인화(人化)’, ‘즉위한 지 오십 년’, ‘치국하기 일천오백 년’, ‘일천구백팔 세의 수(壽)’…… 시간과 개수가 모두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무한불변(無限不變)의 세계인 자연에는 일자(日字)도 개수의 한계도 없다. 인도에는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 불경을 보면 “여시아문보제(如是我聞菩提)”로 시작하여 ‘언젠가’ 또는 ‘일시에’……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도의 연대는 회랍의 고전을 통해 산출해 내고 있다.

단군 신화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 옛적’으로 시작되는 무한한 본질의 세계에 뿌리박은 순수한 추상적 신화와는 구별된다. 어렵פות이나마 구체적인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신화의 세계와 인간의 역사가 부딪치는 중간적 성격을 띤 산물이다.

이제 신시로부터 내려오자. 단군 신화에서 찾아본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이 어떻게 구현되어 갔고 변화해 갔는지, 그리고 원형 속에서 어떠한 한국인의 초상들이 직조(織造)되어 갔는지,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자.

출전 《신화 속의 한국 정신》, 문학사상사, 2003.

— 〈보기 2〉 —

- ① 가장 지고한 하늘나라의 신도, 힘이 센 맹수인 호랑이나 곰도 인간 사회를 그리워했다는 상상력은 결코 인간 스스로를 멸시하는 반인간주의적인 사고 밑에서는 생겨날 수 없다.
- ② 그냥 부러운 존재로서 그려져 있고, 인간을 부러워하는 그들의 힘을 얻어 한층 더 완성된 통치자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③ 많은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오해하여, 마치 우리가 하느님과 곰의 자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 ④ 다만 그 인간은 역사(국가)를 가지지 않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 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신화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는 별로 중요한 것이 못 된다.
- ⑥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자식을 낳으면 삼칠일 동안 사람을 들어 놓지 않고 100일이 지난 뒤에 잔치를 벌인다.

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들을 유의 관계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 보자.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결합이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이며 죽음이 아니라 탄생이다.

4. 다음 문장과 같이 ‘전율’은 ‘전률’로 쓰면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의 밑줄 친 말 중 올바른 표기에 찾아 표시해 보자.

전율적인 이 신화적 상상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의 파노라마였음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 〈보기〉 —

- ① 다음은 순국 선열/선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② 2014년 6월 28일 류현진의 방어율/방어률은 3.12이며, 승율/승률은 0.692이다.
- ③ 16강에서부터 결승까지의 대진을 고려한 월드컵 우승팀 확율/확률에서는 브라질이 41%를 기록해 2위 아르헨티나(18%)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2) 서낭당이나 성황당이나

주강현

아침에 판교원을 떠나
남으로 구성현 가는데
길옆에 오래된 성황당
숲은 어이 그리 무성하뇨

예로부터 전하기를
저 숲에 귀신이 있다 하면서
오가는 길손들
저저마다 복 받고자 하더라
지전을 나뭇가지에
시새워 걸어 놓고
숲속 성황당 향해
정성으로 비는 말

앞길 가는데
만사형통 하옵시여
말은 부디 등창 나지 말고
말발굽 탈도 전혀 없기를

조선 시대 선조조와 광해군조에 살다간 석주 권필(1569~1612)의 시 <성황부(城隍賦)>의 일부분이다. 그는 관념론과 숙명론에 반대한 유교적 지식인으로서 성황당에 대해서도 그 미신적 요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임제의 시대에도 ‘성황당’이 있어 길 가는 길손들의 지킴이로 모셔졌음을 이 시에서 알게 된다. 길가에 위치했다는 사실, 숲으로 이루어졌으면 신목(神木)이 있고, 지전(紙錢)을 걸어 두었으며, 오가는 길손들이 무언가 소원을 빌면서 모셨다는 사실 등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서낭당’과 일치한다. 그러나 임제는 분명 ‘城隍堂’이라 썼다.

조선 초기로 올라가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에는 성황반(城隍飯)이란 향악 곡명이 등장한다. 민간 신앙인 서낭 신앙을 기반으로 한 무가(巫歌)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노랫말도 ‘城隍’이라 표현하고 있다.

성황의 본적은 중국

성황의 ‘호적 초본’을 떼어 보면, 본적은 틀림없는 중국 땅.

성황의 원뜻은 성 둘레에 파놓은 연못인 해자(垓字)에서 비롯된다. 성지(城池)의 신을 성읍(城邑)의 수호신으로 믿게 된 것이 성황이다. 원래 성황은 국가나 고을의 방어 시설에 대한 단순한 명칭이었을 뿐이다. 중국의 성황 신앙은 일찍이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어 당과 송을 거쳐 명나라에 와서는 국가적으로 널리 권장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문종조에 성황 신앙이 전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로부터 '성황사'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중사(中祀)⁷⁾로서 간주되어 국가 의례로 모셔졌다. 조선 왕조 《태조실록》에는 이렇게 이른다(원년 임신 8월조).

모든 신묘 및 모든 군의 성황은 나라에서 제사 드리며, 다만 모주(某州), 모군(某郡)의 성황신은 위판(位版)을 설치해서 각각 그곳 수령이 봄, 가을로 제사를 행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온 성황사만 336개에 이를 정도였는데 이는 조선 전기 중앙 집권 강화의 한 시책으로 재정비한 탓이다. 이런 이유로 각 지방마다 성황사가 보급되며, 인물을 봉안(奉安)하기 시작했다.

가령 전라도 순천 지역의 《강남악부(江南樂府)》에 수록된 성황은 그야말로 '성황신'의 전형을 보여 준다. 물론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되는 성황신을 말하지만.

김별가(金別駕)는 뛰어난 사람이네.
살아서 평양(平壤)의 군장(軍長)이 되지는 못했어도
죽어서 성황신이 되었다네.
신의 음덕이 후손들에게 전해져 보살펴 주시니,
대대로 문관과 무관에서 어진 신하가 많구나.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진례산(進禮山)이 높고 높아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봄과 가을에 제사 드린다네.

한양은 물론이고 읍치마다 여단·사직단·성황사를 두었으니, 중앙 정권과 지방 토호들과의 대립 관계를 잘 암시해 준다. 김갑동 교수(배재대)는 고려 초기에 각 지방의 성황사가 국가가 아닌 지방 세력들에 의하여 건립된 것은 자신들의 조상을 성황신으로 배향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배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성황신이 된 김별가도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성황당은 중국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 권력이 체제 유지를 위해 보급한 관제적(官製的)인 신앙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임제 권필이 노래했던 성황당은 민간에서 볼 수 있는 서낭당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황당이라고 불렀다. 반면에 《강남악부》의 성황당은 전형적인 국가적 성황당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똑같이 성황당이라 기술했지만 그 의미는 두 가지란 말인가. 사실이 그러했다. 하나는 국

7) 중사(中祀):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지내던, 대사(太祀) 다음가는 제사. 대사보다 의식을 간단히 하여 지냈다.

가적인 성황 체계요, 다른 하나는 민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사(淫祠)’라 부르던 것이다.

서낭당의 노래

1987년 봄날, MBC의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를 찍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발치리에 간 적이 있다. 발치리(일명 전치곡)에는 장승과 솟대, 서낭당의 전형적인 모습이 남아 있다. 이 마을은 예전에 한양 가는 길목이었다. 마을 어귀에 서울 300리, 춘천 60리, 홍천 40리, 동산 15리와 같은 이정표가 쓰인 장승이 서 있고, 그 옆에는 따오기 혹은 기러기라 부르는 솟대가 우뚝 솟아 있다.

마을 중심에는 작은 기와집이 하나 서 있으니 그것이 발치리의 서낭당이다. 마을 뒷산을 가파르게 올라가면 지금은 죽은 나무지만 500년 되었다는 매우 큰 서낭나무가 있다. 즉 이 마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을 장승과 솟대가 막고, 뒤쪽으로 빠지는 산길은 서낭목이 막으며, 마을 가운데의 서낭당이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형국이다.

발치리에서는 온전히 ‘서낭당’이라 부르고 있다. 이곳에서 드러나듯, 서낭당은 주로 동구나 고갯길에 자리 잡거나 돌무더기, 서낭목, 서낭당 집 따위와 함께 있거나 떨어져 있다. 또한 장승·솟대·수구매이·홍수매이탑·수살 같은 수호신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복합 신앙적 양상도 보여 준다.

서해안을 찾아가면 마을의 안녕과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서낭당이 있다. 충남 서천군 도둔리 각시당도 그중 하나다. 각시란 ‘각시서낭’을 말하며 서낭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물색(옷감), 바느질 도구, 심지어 화장품을 제물로 바친다. 시시때때로 새 옷을 갈아입혀 단장해 주기도 한다. 앞에서 나왔던 삼척의 ‘해랑당’도 서낭당이다.

이렇게 서낭당은 분명 성황당과 달랐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민간의 서낭당을 성황당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 삼척 지방에 가면 묵은해가 새해로 바뀌는 자정에 ‘성황당제’를 올리고 있는데, 신체로는 철마로 된 ‘마서낭’을 모시고 있다. 주민들 말로는 ‘성황’님이 왔다가 그 말들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지켜 준다는 것이다. 서낭과 성황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성황당’ 항목을 펼쳐 보았다. ‘성황당→서낭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항목 ‘서낭당’에서 찾으라는 말일 터이고 양자는 같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서낭당과 성황당이 두루뭉수리같이 쓰이고 있을까. 같은 마을 신앙인데도 하나는 ‘서낭’이고, 다른 하나는 ‘성황’인 까닭은 무엇인가. 정비석의 소설 제목에는 ‘성황당’이라 했고, 유행가 가사에는 ‘서낭당’ 고갯목이라 한다. 이 같은 혼선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강의 시간마다 항상 이렇게 정리해 준다.

성황은 두 가지 ‘기능’을 지닌다. 하나는 국가적인 성황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민간적인 ‘음사’를 의미한다. 둘은 이름은 같고, 의미는 다르다.

민간에서 ‘음사’는 두 가지 ‘이름’을 지닌다. 하나는 성황이요, 다른 하나는 서낭이다. 둘은 이름

은 다르고, 의미는 같다.

이 글을 보면 대개 알쏭달쏭하게 생각한다. 위의 밑줄 부분을 유심히 읽어 주길 부탁 드린다. 그러나 가우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양자를 너무도 자주 혼동하여 썼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성황당이야 분명히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민간의 서낭당 혹은 성황당이다.

성황과 서낭은 하나?

아무래도 논의를 앞으로 되돌려야만 할 것 같다. 앞에서 각 지방 세력들이 성황사를 앞다투어 세웠다고 설명하였다. 각 지방의 성황사는 지방 관아의 고유한 행사가 되어 ‘관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동국세시기》 12월조를 보자.

고성 풍속에 군의 사당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관(官)에서 제사를 지낸다. 비단으로 신의 탈을 만들어 사당에 안치해 둔다. 12월 20일 이후에 그 신이 오른 읍 사람이 그 탈을 쓰고 춤추면서 관아의 안과 고을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논다. 그러면 집집에서는 그 신을 맞아서 즐긴다. 정월 보름 전에 그 신을 사당에 돌려보낸다. 이 풍속이 해마다의 상례로 되었다. 이는 대체로 나례신(難禮神)의 종류이다.

이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나오는데, 단오날 성황사(城隍祠)에서 백희(百戲)⁸⁾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성의 경우, 지방 관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이 드러난다. 기록을 하나 더 들추어 보자. 《임영지》 풍속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읍에는 각기 성황당이 있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강릉만은 제사를 지내는 일 외에 유달리 이상스러운 일이 있다. 매년 4월 15일이면 이곳 강릉의 시임호장(時任戶長)은 무격(巫覡)을 거느리고 대관령 위로 나아간다. 여기에는 신당이 한 칸 있다. 호장은 신당에 나아가 고유(告由)하고 무격으로 하여금 나무 사이에서 신령을 구하도록 한다. 나무 하나에 광풍이 불어 나뭇잎이 스스로 흔들리면 ‘신령이 내렸다’고 하고 나뭇가지 한 개를 자른다. 호장은 건장한 이로 하여금 받들고 가게 하고, 이것을 일컬어 국사신(國師神)의 행차라고 한다.

다시 설명할 것도 없이 강릉 단오제의 옛 기록이다. 읍마다 성황신을 모시면서 왜 국사신을 별도로 모셔 올까. 민간에서 오랜 세월 모셔 온 무속적인 국사신을 단오제에 모심으로써 민간 신앙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를 의도하였던 결과다. 아울러 민간에서 산신으로 모셔 오던 대관령의 국사신은 어느덧 국사 성황으로 바뀌게 된다.

국가적으로 민간 신앙을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포섭하는 동안에 전혀 반대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대략 17~18세기가 되면서 성황당이 국가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민간적 성황사로 다수 바뀌었던 것이다. 역사 민속학자 정승모 선생은 이렇게 설명한다.

8) 백희(百戲): 온갖 연희(演戲). 가면 놀이, 곡예, 요술 따위를 이른다.

토호 세력이 주도하고 민간인이 참여함으로써 중앙 사족들에 의해 음사로 몰린 성황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지사족이 향촌의 주도권을 잡은 17~18세기에 이르면 폐기되거나 유명무실해진다. 그 대신 이것은 생산력의 발달과 함께 촌락이 성장·확대되어 가면서 촌락 단위의 행사로 주변화되어 갔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잦은 재해, 특히 전염병의 발생은 이의 확산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는 읍성 밖으로 밀려난 외방 성황(外方城隍)을 예로 들고 있다. 나주의 성황당이 그 예다. 단적으로 말하여, 국가적 성황 신앙이 밀려나면서 외방 성황이 되어, 결과적으로 ‘성황사’가 민간화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에서 임제 권필이 부른 ‘성황당’은 ‘외방 성황’ 따위와는 무관하다. ‘민간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민간적’이다. 이 같은 혼선은 두 가지로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서낭이란 말을 한자로 쓰기가 불가능하므로 한자를 빌려와 편의상 성황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간에 보편적으로 서낭이란 말이 있었고 서낭 신앙이 실제로 ‘성황 신앙’과 무관하게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즉, 서낭을 성황과 분리하였다.

(중략)

한편으로는, 민중들 특유의 생존 방식으로 국가에서 강조하는 성황이란 이름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민중들은 음사로 비판되는 서낭당을 수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으로 명칭과 내용을 구별하지 않았을까. 성황당이란 명칭은 빌려오되, 제의 자체에서 무속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한 셈이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서낭제에는 무속적인 양식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반면에 유교적 양식이 가미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타협책인 것인데, 다른 민간의 마을굿들이 걸어온 길을 서낭당도 예외 없이 거쳐 온 것이다.

나는, 서낭은 이전부터 별도로 존속하여 왔던 신앙 풍습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성황에서 취음(取音)을 하였을 뿐이다. 원래는 순수 민간 신앙이었던 대관령 국사 신앙이 후대의 성황으로 바뀐 것에서 하나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정적 이유를 또 하나 들라 하면, 서낭당의 친족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오늘날까지 서낭당은 복잡한 양식으로 전해져 왔다. 앞에서의 마서낭과 각시서낭당이 그렇고 다른 신앙과 결합된 국사서낭당, 사신서낭당, 짐대서낭당, 골매기서낭당 등이 그렇다.

동해안을 제외하고 남해안과 서해안에 가면 곳곳에 배서낭을 모신다. 배를 새로 만들어 물에 내리는 진수식을 행할 때나, 당제·출어 시에 배에 제물을 차려놓고 뱃고사를 올린다. 배서낭은 당나무나 돌무더기와 관련이 없다. 또한 ‘배성황’이란 말도 없다. 굳이 한문식으로 풀자는 ‘배의 왕’이란 뜻인 선왕(船王)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있다. 어쨌거나 배서낭은 서낭이 매우 원초적이며 뿌리 깊은 이름으로서 성황과 무관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존재 양상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민간의 서낭당이 본디 토속적인 것임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것들은 ‘서낭’이든 ‘성황’이든 그 이름과 관계없이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자는 변별성을 상실하여 부르는 이에 따라서 편의대로 불렀다. 그러다 보니 성황과 서낭이 혼선되어 쓰였던 것이다. 이렇듯, 성황과 서낭 두 가지 말에는 깊은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

출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2004.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에서 설명한 ‘성황당’과 ‘서낭당’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의 번호를 찾아보자.

〈보기〉

- ① 고려 문종 조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
- ②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 권력이 체제 유지를 위해 보급한 관제적인 신앙이다.
- ③ 주로 동구나 고갯길에 자리 잡거나 돌무더기, 서낭목, 서낭당집 따위와 함께 있거나 떨어져 있다.
- ④ 《강남악부》에 나오는 ‘김별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 ⑤ 민간적인 음사(淫祀)를 의미한다.
- ⑥ 마서낭, 각시서낭당, 다른 신앙과 결합된 국가서낭당, 사신서낭당 등 복잡한 양식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성황당	서낭당
(①, ,)	(③, ,)

2.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한편으로는, 민중들 특유의 생존 방식으로 국가에서 강조하는 성황이란 이름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민중들은 음사로 비판되는 서낭당을 수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 명칭과 내용을 구별하지 않았을까.

(1) 밑줄 친 부분에서 ‘-을까’에 해당하는 필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밑줄 친 부분을 ‘구별하였다’로 바꾸면 필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3. 다음 무속 관련 어휘와 그 의미를 바르게 연결해 보자.

① 무격(巫覡) ■

■ ㉠ 부정한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 ② 음사(淫祀) ■
- ㉠ 시골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돌이나 나무
- ③ 수살(水殺) ■
- ㉡ 무당과 박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4.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가)	
(나)	고풍스런 성황당_마을의 수호신으로 오래된 그림들이 있던 이 성황당은 불행하게도 산불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강원도 삼천시 근덕면 초곡리).

(1) (가)에서 ‘자랑스런’은 ‘자랑스러운’으로 수정되었다. (가)를 참고하여 (나)에서 잘못된 활용형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2) 다음 용언의 적절한 활용형을 적어 보자.

용언	환경	활용형
묻다(埋)	+ -아/-어	묻어
돕다		
파랳다		
낮다		

(3) 궁예, 왕건이 그린 나라

함석헌

남아 있는 민중의 감정

고려 한 시대는 세 구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구절마다 한 봉우리가 있고 한 골짜기가 있다. 봉우리는 민족적 주체 의식이 높아졌을 때요, 골짜기는 그 의식이 낮아졌을 때다. 그러므로 먼저 것은 진취적인 밀물 때요, 뒤에 것은 퇴영적(退嬰的)인 썰물 때다.

첫 번째 밀물은 왕건이 나라를 세우던 때다. 신라 마지막에 정치의 썩음이 극도에 이르러 백성의 뜻은 풀어지고, 사회는 어지러움에 빠졌다. 그리하여 동양식 말로, 영웅이 한번 나설 때였다. 그것은 곧 다른 말이 아니고 민중의 가슴이 새 시대를 기다려 설렌다는 말이다. 밀물 때라니 다른 것 아니요, 민중의 가슴이 스스로 깨려고 흥분이 되어 감을 말하는 것이다. 영웅이 출마한다고 하지만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타야, 민중의 가슴속 설레는 감정의 물결을 잡아타야만 정말 영웅이다. 그리하여 그때에도 그 물결을 한번 타 보려고 곳곳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양길⁹⁾은 북쪽에서 일어나고, 견훤¹⁰⁾은 남쪽에서 일어나고, 양길의 뒤를 이어 궁예¹¹⁾가 일어나고, 궁예의 뒤를 이어 일어난 것이 이따가 고려 태조가 될 왕건이다. 그리하여 반도는 마치 낙제생의 책상에 지난해의 교과서가 다시 나타나듯 옛날 삼국 시대의 모양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삼국이 통일이 되었다지만, 그리하여 수백 년이 지나갔지만, 세 나라의 감정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 아닌가? 묵은 삼국 시대의 감정이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통일이 아직 참으로 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닌가. 한때는 속여도 역사는 못 속인다. 개인은 속여도 민중은 못 속인다. 속이고 억지로 하였던 일은 언제 가서든 뜯어고치고야 마는 것이 역사다.

견훤은 다시 백제를 내세우고 궁예는 다시 고구려를 내세웠다. 그러나 갈라서는 것은 벌써 대세가 지나간 일이요, 다시 있을 수 없다. 가을이 되면 작게나마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모양으로 한때 삼국 형세를 되풀이하는 듯은 하나 어느 하나가 통일하고야 말 것은 처음부터 결정된 일이었다. 후백제·후고구려 하는 것은 민중을 잡아타는 한 수단이다. 민중의 가슴속에 아직 망한 나라의 원한이 깃들여 있는 것을 알므로 그것을 이용한 것이

9) 양길(梁吉): 신라 말기의 호족. 진성여왕 때 북원 곧 지금의 원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궁예를 부하로 맞아 여러 지방을 공략, 판도를 넓혔으나 궁예의 세력이 커지자 그를 없애려다 도리어 역습을 받아 대패하여 도주하였다.

10) 견훤(甄萱, ?~936): 후백제의 시조. 후백제를 세우고 한때 후삼국 중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켰으나, 고창싸움 뒤 세력을 잃어 결국 고려의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11) 궁예(弓裔, ?~918): 후고구려의 왕. 신라 진성여왕 5년에 북원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 901년에 자칭 왕이 되어 국호를 후고구려·마진·태동 등으로 정했다. 918년 왕건에게 쫓기어 달아나다가 백성들에게 피살되었다.

다. 그러나 감정은 남아 있어도 민중의 살림은 이제는 하나다. 경제 발달은 이미 거기까지 갔다는 말이다.

그럼 역사의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나? 실제 살림이나? 민중은 나중에는 실살림의 요구에 복종하고 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일을 결정하고야 만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민중은 이해에 따라 움직이지만,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당장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정말 민중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뜻이다. 역사의 어려움은 민중의 이해와 감정이 일치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그것에 맞추어, 반대되는 두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듯, 민중으로 하여금 전진을 하게 하는 것은 뜻의 제시다.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참 지도자요, 참 영웅이다.

민중은 잘 흥분하지만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민중은 이해에 매달리지만 경제 법칙으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민중은 사람이다. 뜻을 찾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뜻이 있음을 볼 때에는 현실과 관념이 갈라진 것을 합해 몸과 마음을 잇고 뜻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그것이 혁명이요, 그것이 새 나라 세움이다. 그럼 그것을 누가 과연 지도할까?

궁예

새 시대를 위한 경제 관계는 준비되었는데 민중의 감정은 옛날에 붙어 있다. 옛날에 붙어 있는 것은 그동안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를 지키자는 마음과 옳지 않은 억지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통과 도덕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민중에게 “앞으로 갓!”을 부르려면 새 나라의 새 윤리를 보여 주어야만 될 수 있는 일이다. 역사의 대세를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의 동양 천지를 본다면 비상시였다. 만주에서는 발해가 망하는 때요, 중국에서는 이른바 오대(五代) 시대의 어지러운 때이므로 아시아 동부에 저기압이 생겼다. 한민족에게는 반도 안의 정치를 고치는 것만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명에 대한 산 눈을 뜨고 한번 크게 건너뛰기를 시험해 볼 때였다. 별을 바라는 자만이 산에 올라갈 수가 있고, 구름을 따라가야만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발부리 앞만 보고 자증자증 하는 놈은 아무것도 못하고 역사의 지층 속에 화석이 될 뿐이다. 시대는 문밖에서 한민족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부르고 있었다. 한번 큰 경륜을 세워볼 만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듯 고난의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하는 때에 영웅심을 찢러 일으키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은 해맵의 길을 떠나려는 탕자에게 또 한번 돌이키기를 애원해 문간에서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과연 조선 사람의 가슴에 자각의 밀물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북으로 쳐들어가자는 의논이 머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우선 그것을 대표한 것은 궁예였다. 그는 본래 왕족으로서 서자로 태어났던 탓에 산간 절간으로 돌아다니며 역경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큰 뜻을 품었던 사나이다. 시대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한번 산문(山門)을 차고 나왔다. 후에 그가 너무 교만하고 사나운 것을 하다가 실패하였으므로 세상이 흔히 너무 지나친 평으로 그를 버리나 사실 그는 뜻이 좁

있던 사람이다. 민심을 잃어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동정의 여지가 많은 사람이다. 그는 역사의 죄짐을 지는 사람의 하나다. 신라 타락의 죄악이 궁중 생활에 일으킨 거꾸로 일어난 한 큰 물결이었다. 거꾸로 이는 물결에 거품이 어찌 없을 수 있을까? 그의 성격에 사나움이 끼여 있는 것은 면키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서 볼 것은 임금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써 힘 있게 대표된 국민의 의기가 높이 올라간 것이다. 그가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 하며, 고구려를 위하여 원수를 갚는다고 신라를 불러 멸도(滅都)라 한 것은 물론 고구려 자손의 반항심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지만 또 그것만도 아니었다.

관제를 정하는 데 중국 냄새 나는 신라의 옛것을 버리고 모두 우리나라 고유의 식대로 하며, 나라 서울을 평양에 세울 계획을 하고, 사대(史臺)¹²⁾를 두어 외국 말을 배우게 한 것들은 모두 다 뜻이 만주 옛터에 있어서 한 것이었다. 나라 이름을 그렇게 하였듯이 고구려의 정신을 살리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제가 스스로 지은 운명의 심판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으니, 그는 싹트고도 자라지 못한 영웅이다.

왕건의 큰 조선 생각

궁예는 넘어졌으나 그가 품었던 큰 뜻은 왕건¹³⁾에게 계속되었다. 그는 한개 군인으로 일어나서 임금 자리에까지 가는 재능과 도량을 가진 인물이었다. 처음에 궁예에게 붙었으니 그 하는 일이 점점 사납고 망측해지는 것을 보자 한편으로는 너그럽고 착한 태도로 인심을 모아, 마침내 궁예를 내쫓고, 그 나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반도 안에서 임금질함으로 만족하려는 작은 인물이 아니었다. 견훤을 누르고 신라를 어루만지어 삼국 통일을 한 다음은 역시 북으로 가자는 것이 이상이었다. 수도는 송도로 정하였으나, 늘 장래의 수도로는 평양을 생각하여 성을 수리하고 학교를 세우고, 해마다 한 번씩 순행을 하여 특별히 생각을 하는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다 북으로 한번 가자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오는 발해의 남은 백성을 될수록 받아들여 돌보아 주었으며, 거란이 교통(交通)하자는 데 대하여는 그 사신을 섬으로 정배(定配) 보내고 그 예물로 보내온 낙타를 만부교 아래 매어 두어 굶겨 죽이는 등, 아주 싹 자르는 태도를 보여 국민으로 하여금 각오를 단단히 하게 하였다.

후에 이조의 사신(史臣)이라는 것이 이것을 평하여 그것은 도리어 거란과 원수를 맺은 동기가 될 뿐이라 하여 왕건은 생각이 모자란다고 하며, 또 거란의 발해를 멸한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발해를 위하여 그다지 원수 삼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등, 어렵없는 수작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분할 나위도 없어 웃을 일이지, 웃기보다도 차라리 불쌍히 여길 일이다.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 들까? 연작(燕雀: 제비와 참새)이 안지홍곡지지(安知鴻鵠之志)리

12) 사대(史臺): 태봉에서, 외국어를 통역하고 번역할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13) 왕건(王建, 877~943): 고려의 제1대 왕. 뛰어난 정치력과 덕망으로 고려 왕조 창건과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루었다.

요(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리요), 조그만 것들이 왕건의 생각이 신라 이전 큰 조선에 있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아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글을 그만큼 읽고 재주가 그만큼 있는 것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왕건의 생각이 그리 남모르는 것을 생각하여 뛰어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때 일반 민중의 생각이었다. 그랬으므로 왕건이 그것을 내세웠고 그만큼 민중을 알아주었으므로 민중을 따라감으로 그만큼이라도 성공한 것이다.

영웅은 다른 것이 아니요, 민중과 하나 됨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를 생각이 아닌데, 신하라는 놈들이 왕건을 잘못이라 하는 것은 그러다가 저의 임금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민중과 하나 되어 만주를 칠 생각을 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질 것이요, 그러면 저희 감투가 그냥 붙어 있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저희 지위의 만년 보장을 위해 임금이 가진 사상의 죽지를 아예 일찍부터 자르자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이 자기를 잊었다 하지만, 예나 이제나 민중은 결코 자기를 잊지 않는다. 특권 계급은 언제나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민중을 속여 압박자에게 팔고 자기네는 그 값으로 영화를 누리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나 민족을 파는 것은 권력 계급이다. 민족을 팔지 않고 권력은 안 생긴다. 민중은 자기를 아니 팔기 때문에 권력이 없다. 언제나 권력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 듯 민중을 속여 대적에게 팔고야만 생기는 것이다.

왕건 태조의 정책

그의 그러한 큰 계획은 실제 정책에 나타나 있다. 그 첫째는 중국 제도의 채용에 관한 것이다. 그는 신라 중간 무렵부터 들어온 중국의 흉내를 내는 버릇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 본래의 것을 존중하려고 힘썼다.

《훈요십조(訓要十條)》¹⁴⁾ 중 제4조에 말하기를 “우리 동방이 예로부터 당나라 풍을 사모하여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곳이 다르고 땅이 다르면 사람의 성격도 다른 것이니 구태여 꼭 같이 할 필요가 없느니라.” 하였다. 그리고 말을 이어 “거란은 짐승의 나라라 풍속이 같지 않고 말이 다르니 의관 제도를 절대 본받지 마라.” 하였다. 이는 확실히 중국 숭배의 사상을 물리쳐 한(韓)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북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가는 정책을 취하여 결코 타협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또 본래 가지고 있는 한 얼을 일으키기 위하여는 지금 말한 소극 정책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정책도 썼다. 그의 종교 정책이 그것을 말한다. 곧 불교의 통제와 팔관회¹⁵⁾를 행한 것이다. 이조의 사가들이 모두 태조가 불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비난

14) 훈요십조(訓要十條): 고려 태조가 943년에 박술회를 통하여 왕실의 후손들에게 내린 유훈(遺訓). 모두 10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불교와 토속 신앙, 풍수지리, 음양오행, 도참설 등에 대한 태조의 깊은 믿음을 잘 보여 준다. 아울러 훈요십조가 기본적으로 왕실 내 가훈(家訓)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왕자(王者)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 운영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5) 팔관회(八關會): 고려 때 토속신에게 제 지내던 의식.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로서, 중경에서는 추수 이후 음력 11월에, 서경에서는 10월에 등불을 밝히고 술과 다과를 베풀고 가무와 백회를 펼치며 나라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저희 임금의 불교를 믿으면, 저희 유신(儒臣)들의 지위가 위태롭겠으므로 애매한 왕건을 걸어 두고 만들어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설혹 사심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충언으로 했다 하여도 사신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요, 반대로, 정말 그렇게 알아서 한 것이라면 걸만 보는 열은 생각이다. 태조가 사실 절을 많이 세우고 고치기도 했고 《훈요》 첫째 조목에 우리나라는 부처의 보호로 되었다 했고, 그 아래도 불교에 관한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장려보다는 통제를 하였다. 말은 도선(道詵)¹⁶⁾의 도참(圖讖)에서 빌려 가지고 사실은 절을 더 세우는 것을 금한 것이다. 태조만한 사람으로서 신라가 망한 원인이 절이 너무 많아져서 낭비, 탈세, 착취 등으로 국민 경제를 파괴한 것이 그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러므로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응당 썼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걸으로는 억제하지 않는 척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일찍이 유파(儒派) 최웅이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한 일이 있다. 거기에 대해 태조는 대답하기를, “불교가 신라 사람의 골수에 배었으니 이제 갑자기 금하면 도리어 반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 하였다. 여기가 태조의 생각이 있는 곳이다. 곧 금하기는 하나 민심의 안정을 위해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그것만이 아니다. 최웅이 불교를 배척하는 것은 그때 유·불 두 파가 맞서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니, 태조가 민심 안정을 위해 불교가 필요하다 한 것은 실은 거기 말을 빌려 당시 바로 일어나던 유파의 세력을 누르려는 생각에서다.

팔관에 관하여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오직 임금이 된 첫 해에 유사(有司)의 청에 따라 신라에서 매해 동짓달에 하던 예에 따라서 팔관회를 열었다고 하였고, 《훈요》 중에 팔관은 천령급오악명산대천용신(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¹⁷⁾을 섬기는 것이라 하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팔관이 무엇이나 하는 데 대하여 역사가들의 의견이 각각이다. 어떤 이는 불교의 의식이라 하고, 어떤 이는 우리나라 예로부터 오는 종교 의식이라 한다. 그러한 천령급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긴다고 한 것으로 한 옛적부터 하늘에 제사해 오던 그 종교에서 흘러내려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신라 궁중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보면 예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면서도 어느 정도 불교에 맞추어 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로부터 오던 종교와 불교와의 서로 타협된 무엇이 아닌가? 지금도 절에 가면 불교와는 본래 관계없는 산신령 칠성님을 반드시 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궁중에서 행하였다는 것은 예로부터 연중행사로, 일종의 명절놀이를 하는 풍속이었으므로 불교가 들어온 후에도 그것은 그대로 지켜오는 동안 불교 의식에 편입이 된 것이 아닌가? 마치 오늘날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만일 그렇다면 태조가 팔관회를 시작한 것은 생각이 많아서 한 것일 것이다.

중국 사상에 중독이 되어 피도 혼도 없는 혈끔한¹⁸⁾ 유교 선비의 손으로 된 역사에 본

16) 도선(道詵): 신라 말의 승려로 풍수지리설의 대가. 일찍이 왕건의 탄생과 그의 건국을 예언하였다. 그가 지었다는 《도선비기(道詵秘記)》는 고려의 정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우리나라 절터는 그가 정한 것이 많다 한다.

17) 천령급오악명산대천용신(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 《훈요집조》 중에 “짐(朕)이 지극히 원하는 것은 연등과 팔관이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과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것이니, 후세에 간신이 이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래 있던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기록은 도무지 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으므로, 간접으로 여러 가지를 미루어 생각해 보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는 있을 듯하다. 곧 신라 마지막에 국교였던 불교는 산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은연중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대하여 통일 시대 이래 당나라 문물을 실어들임에 따라 점점 유학자라는 한 계급이 생겨 불교파와 세력을 겨루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에 혁명의 기운이 떠돌기 시작하자 그동안 차차 잊어버렸던 본래 가지고 있던 종교, 곧 화랑도·국선·국풍·풍월도 하는 사상이 갑자기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밖에서 오는 사상에 대한 반동이다. 그리고 그때의 혁신 기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던 세력에 반대하는 관계로 자연히 새로 일어나는 부흥 종교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아마 큰 조선을 다시 일으키자는 생각을 가지는 왕건이 특별히 건국 정신·국가 정책의 표준을 결정하는 《훈요》 속에다 이것을 넣어서 ‘경의행지(敬依行之: 경건한 자세로 따라함)’하라고 부탁한 것일 것이다.

그의 마음속을 더듬는다면 혹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 우선 인심이 깊이 젖은 불교를 이용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시대의 사조인 유교의 정치 교화의 이론을 실제로 채용하여 정치 기구를 튼튼하게 하는 한편, 민족이 가지고 내려오는 정신을 부흥시켜 국민적 의기를 높여 한번 만주에까지 큰 경영을 해 보자고 하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때, 고려의 건국은 우리 민족 역사상 중대한 뜻을 가지는 시기다. 책임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 태조의 정책은 실현을 못 보고 말았다. 궁예가 싹틔우고 키우지 못한 것을 그는 어느 정도 키우기는 했으나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 하였다.

출전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길사, 2003.

18) 험끔하다: 피곤하거나 아파서 얼굴이 꺼칠하고 눈이 쑥 들어가 있다.

의 보호로 되었다 했고, 그 아래도 불교에 관한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3. 다음은 ‘일어나다’의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다)의 ‘일어나다’가 각각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해 보자.

일어나다 「동사」

- ①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
- ② 잠에서 깨어나다.
- ③ 어떤 일이 생기다.
- ④ 어떤 마음이 생기다.
- ⑤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
- ⑥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
- ⑥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다.
- ⑦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
- ⑧ 소리가 나다.
- ⑨ 종교나 사조 따위가 발생하다.
- ⑩ 병을 앓다가 낫다.

- (가) 그리하여 그때에도 그 물결을 한번 타보려고 곳곳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 (나) 양길은 북쪽에서 일어나고, 견훤은 남쪽에서 일어나고, 양길의 뒤를 이어 궁예가 일어나고, 궁예의 뒤를 이어 일어난 것이 이따가 고려 태조가 될 왕건이다.
- (다) 그리고 그때의 혁신 기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던 세력에 반대하는 관계로 자연히 새로 일어나는 부흥 종교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4. 다음의 밑줄 친 ‘관계없다’는 합성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말 중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보자.

지금도 절에 가면 불교와는 관계없는 산신령 칠성님을 만드시 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보기〉

- ① 고양이가 겉없이 사냥개에게 덤비고 있었다.
- ② 아무리 사정해 봤자 내게는 소용없는 일이다.
- ③ 내 동생은 눈치없이 아버지의 가방을 열어 보았다.
- ④ 간을 더하여 보았지만 찌개가 맛없기는 마찬가지였다.

(4) 퇴계와 고봉 간 사단 칠정 논쟁의 전개

목영해

사단(四端)은 맹자가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을 말하며, 이 네 마음 상태는 각각 인(仁), 의(義), 예(禮), 지(智)라는 네 덕의 단서가 된다. 이에 반해 칠정(七情)은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서 지칭한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심(欲)의 일곱 가지 감정을 말하며, 이 일곱 가지 감정은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 감정을 총칭한 것이다.

조선조 명종 때 정지운(鄭之雲)은 동생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천명도(天命圖)’를 작성하면서 ‘사단은 이(理)에서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氣)에서 발한 것이다.’라고 사단과 칠정을 해설하였다. 그런데 천명도를 접해 본 퇴계는 사단 칠정에 관한 이 해설을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로 고치도록 권한다. 이에 정지운은 퇴계의 지적을 수용하여 ‘신천명도’를 작성하였고, 신천명도를 작성한 지 6년이 지난 1559년 퇴계가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에게 이 신천명도 내용과 관련한 다음의 편지글을 보내면서 사단 칠정에 대한 대논쟁이 시작된다.

동료학자들을 통하여 사단 칠정에 대하여 논한 것을 전해 들었는데, 저도 일찍부터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병폐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교정하고 논박하여 주시니 잘못하였음을 더욱 깨닫게 되어 그 표현을 ‘사단의 발함은 순리(純理)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함은 기를 겸하였으므로 선악이 있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병폐됨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계의 위 편지글로 추론컨대, ‘사단은 이의 발, 칠정은 기의 발’이라는 퇴계의 견해에 대하여 당시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 논란의 중심에 기대승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퇴계는 사단 칠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사단의 발은 순수한 이만의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칠정의 발은 이와 함께 기를 겸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로 수정한다고 고봉에게 편지글로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봉은 퇴계의 새 견해 또한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퇴계 편지글에 대한 답서의 형식으로 사단 칠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동시에 퇴계 견해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고봉의 첫 번째 편지글의 요지는 다음의 셋으로 요약된다.

첫째, 사단과 칠정은 다 같은 정(情)으로서, 칠정과 사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절도에 맞아 선한 것만을 추려서 말한 것이다.

둘째,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의 것으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것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

계인 이와 기를 분리시키어 각각의 것이 되게 하며, 이에 칠정은 성(性), 즉 마음 중의 이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사단은 기적인 요소를 갖지 아니하다는 말이 된다.

셋째, 기가 발동함에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있어 성의 본체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경우 악이 되고,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성의 본체가 완전히 실현되면 선이 된다.

이상의 요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봉이 퇴계의 사단 칠정설을 비판하는 근거는 퇴계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와 기를 분리하여 논의한다는 점이다.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 사건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감정의 경우에도 이와 기의 결합에 의하여 그 발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부당하게도 사단이라는 정을 기가 배제된 이만의 것, 칠정이라는 감정은 이가 배제된 기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된 견해에도 이와 기의 부당한 분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봉은 이와 기로 구성된 마음이 발한 것이 칠정이라는 감정이고, 사단은 칠정이라는 감정 중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감정만을 임의로 분리하여 이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기의 분리에 근거한 사단 칠정 분리의 부당함을 재차 지적 받은 퇴계는 고봉에게 장문의 답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답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단과 칠정은 다 같은 정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취하여 말하는 바는 다르다.

둘째, 사람의 성을 이와 기로 나누고 이것을 근거로 성을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으로 나누는 이상 정에 있어서도 이와 기를 나누어 사단 및 칠정으로 귀속시킴에 그릇됨이 없다.

셋째, 사단은 본연의 성에서 발하는 것이고, 칠정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하여 기질지성에서 발한 것이다.

넷째,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와 기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원지(所從來)와 비중을 두어 말하는 바(所主而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은 이, 어느 것은 기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섞어서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 주자어류(朱子語類)에도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되어 있다.

이상의 요점에서와 같이 사단과 칠정을 부당하게 나눈다는 고봉의 첫 번째 편지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나누는 자신의 견해가 오히려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사단과 칠정이 비록 다 같이 정이고 이와 기가 결합하여야 발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원처와 비중 그리고 가리키는 바가 다르므로 사단 칠정은 분리되어야 하며, 오히려 분리하여 논의하지 않는 고봉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주자어류에도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라는 구절이 있음을 지적하여, 사단과 칠정을 분리하는 견해의 정당함을 강조한다.

이와 기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와 기 그리고 사단과 칠정을 분리하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는 퇴계로부터의 반박을 받은 고봉은 다시 논점을 정리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퇴계의 견해가 정당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편지글을 다시 보내게 된다. 기대승의 두 번째

편지글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와의 논변은 이기가 아닌 심성의 개념에서 분명치 않은 점에 기인하는데, 본연의 성은 이만을 말한 것인 반면, 기질의 성은 이가 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기질의 성에서 발하는 칠정도도 이가 들어와 있다.

둘째, 칠정이 발하되 절도에 맞는 것이 성 본연의 체로서, 맹자가 말한 사단과 내용은 같으면서 이름만 다를 뿐이다.

셋째, 퇴계의 주장대로라면 사람에게 두 개의 정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서 발한 선과 기에서 발한 선의 두 가지 선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성을 말할 때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으로 나누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성이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이 있는 곳에 따라 구별해 말한 것일 따름이다. 정은 성이 기질에 떨어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기를 겸하여 선악이 있다고 한다.

다섯째, 발하지 않았을 때는 성이라 하고 발하면 모두 정이다. 발하지 않았을 때의 정은 온전한 이이지만 발하면 기의 작용에 의지한다. 이런 점에서 사단도 정이며 따라서 기이다.

여섯째, 사단만 선한 것이 아니라 칠정도 선한 것이니 선악 미정(未定)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곱째, 사단 칠정은 모두 성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그 근원적 발단처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여덟째, 사단의 발현 또한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선이라고 할 수 없다.

아홉째, 주희가 ‘이의 발’, ‘기의 발’이라고 한 것은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한 말이므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고봉은 퇴계에게 보내는 두 번째 글에서도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고, 정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본연의 성이 기에 들어간 기질지성이 발한 것이며, 사단은 절도에 맞는 칠정을 별도로 지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고수한다. 여기에 더하여 고봉은 퇴계의 견해가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두 개의 새로운 논점을 더한다. 그 하나는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은 서로 다른 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은 하나뿐인데 그 성이 기질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성의 위치에 따라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이 둘이 아니라는 논점은 퇴계가 사단은 본연지성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질지성에서 발한다는 맥락에서 사단 칠정의 근본적 발원처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논박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봉은 주자어류의 구절을 빌려 와 사단 또한 절도에 맞지 아니하는 불선의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단에도 불선인 경우가 있다면 사단은 이의 발로서 순선무악하다는 퇴계의 주장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대신 사단 또한 이기가 겸하여 발한 것이라는 기대승의 주장은 입지가 강화되는 것이다.

고봉의 두 번째 편지글을 받은 퇴계 또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긴 편지글을 고봉에게 보낸다. 고봉의 두 번째 편지글을 축조심¹⁹⁾ 식으로 조목조목 논박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퇴계의 두 번째 편지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없는 이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을 가르쳐서 천지의 성이라고 하듯이, 이와 기가 섞인 기질지성도 기만을 지적하여 말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사단에 기가 없지 않음에도 이의 발이라고 하고, 칠정에 기가 없지 않음에도 기의 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람 또한 이와 기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람의 이기는 서로 발함이 있고, 또 그 발함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 발하므로 각각 주(主)하는 바 있으며, 따라서 분별해서 말할 수도 있다.

셋째, 칠정은 외물에 감하여 발한 것이되 이가 개입되어 있고, 사단도 외물에 감하여 발한다는 점에서 칠정과 같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는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는 타는 것’이다.

넷째, 사단과 칠정은 다 같은 정이기 때문에 근원적 발단처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나, 발단처가 다르지 않다면 굳이 사단 칠정으로 나눌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것은 사단의 근원처는 이, 칠정의 근원처는 기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단도 부중절한 경우가 있다는 견해는 맹자의 본의가 아니다.

퇴계는 자신의 두 번째 글에서도 사단과 칠정은 발원지가 성이지만,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은 비중을 두어 말하는 바가 각각 이와 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는 자신의 견해를 고수한다. 대신 퇴계는 ‘사단은 이가 발하되 기가 따르는 것, 칠정은 기가 발하되 이가 타는 것’이라는 사단 칠정에 대한 진전된 정의를 내놓는다. 사단은 이의 발, 칠정은 기의 발이라는 견해가 사단에는 기가 개입하지 않고, 칠정에는 이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퇴계의 두 번째 편지글을 받은 고봉은 다시 세 번째의 편지글을 퇴계에게 보낸다. 세 번째 글에 추가된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지 본연의 성은 비유하면 하늘의 달이요, 기질의 성은 물속의 달이다. 달이 비록 하나는 하늘에 있고, 또 하나는 물속에 있는 차이가 있으나, 달됨은 하나일 따름이다. 따라서 천상의 달은 달이라 하고 물속의 달은 물이라 함은 부당하다.

둘째, 주희가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한 것은 대설(對說)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인설(因說)로 말한 것이다. 대설이란 좌우를 말할 때와 같이 서로가 상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설이란 상하를 말할 때와 같이 포섭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셋째, 기가 이를 따라 발하되 조금의 장애도 없는 것이 바로 ‘이의 발’이다. 그밖에 다

19) 축조심: 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함.

시 이의 발을 찾는 것은 건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이발기수, 기발리승’의 견해는 매우 정밀하나, 칠정은 이와 기가 결합 것이 되는 반면 사단은 이발의 뜻만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이 발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가 움직이는데 기가 갖추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기가 감응하는데 이가 탄다고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이와 기가 서로 발한다는 것은 ‘이의 정의(情義), 계도(計度), 조작(造作)함이 없다.’는 주희의 견해와 어긋난다.

고봉은 세 번째 편지글에서 하늘의 달과 물속 달의 비유, 대설과 인설 등을 동원하며 사단과 칠정에 대한 자신의 기존 견해가 옳음을 논변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글에서 자신이 인정하였던 ‘이의 발’에 대하여 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인데 기가 발함에 한 점의 어김도 없이 이에 따라 발할 경우 ‘이의 발’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이 해명을 전제로 고봉은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부당함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가 발한다는 것은 이가 결코 동(動)할 수 없다는 주희의 견해와 상반된다는 것이다.

고봉의 세 번째 편지글을 받은 퇴계는 고봉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조목별로 답하는 형식의 글을 준비하지만 고봉에게 보내지는 않고, 대신 논쟁을 끝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된다. 퇴계의 이 편지를 받은 고봉은 ‘사단 칠정후설(四端七情後說)’과 ‘총론(總論)’을 지어 퇴계에게 보내오고, 이에 퇴계는 ‘서로 간의 근본은 같은데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르다.’는 요지의 편지를 고봉에게 보내면서 퇴계와 고봉 간의 사단 칠정 논쟁은 끝난다.

출전 《성리학의 재해석과 교육》, 문음사, 2001.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은 퇴계와 고봉 간의 사단 칠정 논쟁을 그 전개 과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논쟁의 각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여 보자.

전개 과정	핵심 내용
① 사단 칠정에 대한 퇴계의 새 견해	㉠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와 기를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② 고봉의 첫 번째 반론	㉡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 두 개의 새로운 논점을 추가하여 상대 견해의 부당함을 지적함.
③ 퇴계의 첫 번째 재반론	㉢ 사단과 칠정은 엄연히 다르다는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사단 칠정에 대한 진전된 정의를 내놓음.
④ 고봉의 두 번째 반론	㉣ 사단과 칠정은 그 근원처와 비중 그리고 가르치는 바가 다르므로 사단 칠정은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함.
⑤ 퇴계의 두 번째 재반론	㉤ 비유 등을 동원하면서 자신의 기존 견해가 옳음을 논변하고 상대의 이기호발설의 부당함을 새롭게 제시함.
⑥ 고봉의 세 번째 반론	㉥ 사단의 발은 순수한 리만의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칠정의 발은 이와 함께 기를 겸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고 함.

- ①:
 - ③:
 - ⑤:
- ②:
 - ④:
 - ⑥:

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분석한 것을 찾아 동그라미를 해 보자.

(1) 사단과 칠정이 비록 다 같이 정이고 이와 기가 겸하여야 발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원처와 비중 그리고 가르치는 바가 다르므로 사단 칠정은 분리되어야 하며, 오히려 분리하여 논의하지 않는 고봉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 ① 다르+므로 ② 다름+으로

(2) 본연의 성은 이만을 말한 것인 반면, 기질의 성은 이가 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기질의 성에서 발하는 칠정에도 이가 들어와 있다.

- ① 것임+으로 ② 것이+므로 ③ 것+이므로

(3) 사단만 선한 것이 아니라 칠정도 선한 것이니 선악 미정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것+이니 ② 것이+니

3. 다음 문장의 부사 ‘오히려’의 뜻과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보자.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나누는 자신의 견해가 오히려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보기〉

- ① 자기가 잘못하고서는 오히려 큰소리친다.
- ② 머리를 숙이느니 오히려 죽는 게 나을 것이다.
- ③ 그의 웃음소리는 호탕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련하게 들렸다.
- ④ 우리의 도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 ⑤ 그런데 우습게도 나는 처음과는 달리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릇한 호기심마저 일어나는 것이었다.

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의 올바른 발음을 써 보고, <보기>의 밑줄 친 말 중에서 이와 동일한 현상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골라 보자.

경음화는 예사소리이던 것이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사단은 칠정 가운데 절도에 맞아 선한 것만을 추려서 말한 것이다.

[] []

〈보기〉

- ① 철수는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대신하였다
- ② 아버지는 눈이 오자 자동차 덮개를 씌우셨다.
- ③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법규(法規)를 지켜야 한다.
- ④ 자고 일어나면 잡자리를 깨끗이 정리해라.
- ⑤ 나는 누나의 참고서(參考書)를 가지고 수학 문제도 풀어 보고 영어 문법도 익혔다.
- ⑥ 헌법(憲法)은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이다.
- ⑦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效果)가 다를 수 있다.

- 번호: _____

(5) 지조론(志操論)

-변절자(變節者)를 위하여

조지훈

지조(志操)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名利)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一朝)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지조 있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인고(困苦)를 이해할 뿐 아니라 안심하고 그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者)이기 때문에 지조 없는 지도자, 배신하는 변절자들을 개탄(慨嘆)하고 연민(憐憫)하며 그와 같은 변절의 위기의 직전에 있는 인사들에게 경성(警醒)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식견(識見)은 기술자와 장사꾼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말이다. 물론 지사(志士)와 정치가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독립운동 할 때의 혁명가와 정치인은 모두 다 지사(志士)였고 또 지사라야 했지만, 정당 운동을 통한 정치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의 정상(政商)인 이상 백성을 버리고 백성이 지지하는 공동 전선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구복(口腹)과 명리(名利)를 위한 부동(浮動)은 무지조(無志操)로 규탄되어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이 난국을 수습할 지도자의 자격으로 대망하는 정치가는 권모술수(權謀術數)에 능한 직업 정치인보다 지사적(志士的) 품격의 정치 지도자를 더 대망(待望)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충정(衷情)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염결공정(廉潔公正) 청백강의(清白剛毅)한 지사정치(志士政治)만이 이 국운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는 이상 모든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지조의 깊이를 요청하고 변절의 악풍을 타매(唾罵)하는 것은 백성의 눈물겨운 호소이기도 하다.

지조와 정조는 다 같이 절개에 속한다. 지조는 정신적인 것이고, 정조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지조의 변절도 육체 생활의 이욕(利慾)에 매수된 것이요, 정조의 부정도 정신의 쾌락에 대한 방종에서 비롯된다. 오늘의 정치인의 무절제를 장사꾼적인 이욕의 계교와 음부적(淫婦的) 환락(歡樂)의 탐혹(耽惑)이 합쳐서 놀아난 것이라면 과연

극언이 될 것인가.

하기는, 지조와 정조를 논한다는 것부터가 오늘에 와선 이미 시대착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하긴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지조와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부자연한 일이고, 시세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부나 홀아비가 개가(改嫁)하고 재취(再娶)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나 가정생활로나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가와 재취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승인하면서도 어떤 과부나 환부(鰥夫)가 사랑하는 옛 짝을 위하여 개가나 속현(續絃)의 길을 버리고 일생을 마치는 그 절제에 대하여 찬탄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했대서만이 아니라 자연으로서의 인간의 본능고(本能苦)를 이성과 의지로써 초극(超克)한 그 정신의 높이를 보기 때문이다. 정조의 고귀성이 여기에 있다.

지조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양심과 주제는 일찌감치 집어던지고 시세(時勢)에 따라 아무 권력이나 바꾸어 붙어서 구복(口腹)의 걱정이나 덜고 명리(名利)의 세도에 참여하여 꺼덕대는 것이 자연한 일이지, 못나게 쪼를 부린다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짓밟히는 것처럼 부자연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 얼핏 들어 우선 말은 되는 것 같다.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다가 가을바람만 불면 단팔죽 장사로 간판을 남 먼저 바꾸는 것을 누가 욕하겠는가. 장사꾼, 기술자, 사무원의 생활 방도는 이 길이 오히려正道(正道)이기도 하다. 오늘의 변절자(變節者)도 자기를 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처한다면 별 문제다. 그러나 더러운 변절의 정당화를 위한 엄청난 공언(公言)을 늘어놓는 것은 분반(噴飯)할²⁰⁾ 일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먼 줄 알아서는 안 된다. 백주 대로에 돌아앉아 볼기짝을 까고 대변을 보는 격이라면 짐작지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인가.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抗拒)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인욕(因辱)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선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 안 된다. 정신의 자존(自尊) 자시(自恃)를 위해서는 자학(自虐)과도 같은 생활을 견디는 힘이 없이는 지조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조의 매운 향기를 지닌 분들은 심한 고집과 기벽(奇癖)까지도 지녔던 것이다. 신단재(申丹齋) 선생은 망명 생활 중 추운 겨울에 세수를 하는데 곳곳이 앉아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다 얼굴을 씻기 때문에 찬물이 모두 소매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제자(弟子)가 그 까닭을 물으매, 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머리 숙일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일화(逸話)가 있다. 무서운 지조를 지킨 분의 한 분인 한용운(韓龍雲) 선생의 지조 때문에 낳은 많은 기벽의 일화(逸話)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지조는 이토록 삼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 뒤에는 당신들을 주시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위의(威儀)와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좀 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라는 충고 정도다. “한때의 적막을 받을

20) 분반(噴飯)하다: 참을 수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오다. 입 속에 있는 밥을 내뿜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지언정 만고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채근담(菜根譚)》의 한 구절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란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딜 힘도 없으면서 뜻있는 백성을 속여 야당(野黨)의 투사를 가장함으로써 권력의 미끼를 기다리다가 후딱 넘어가는 교지(狡智)를 버리라는 말이다. 욕인(辱人)으로 출세의 바탕을 삼고 항거로써 최대의 아침을 일삼는 본색을 탄로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충언의 근원을 캐면 그 바닥에는 변절하지 말라, 지조의 힘을 기르란 뜻이 깃들어 있다.

변절(變節)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철이 들어서 세워놓은 주체의 자세를 뒤집는 것은 모두 다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하는 변절은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변절이 아니고, 좋고 바른 데서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변절을 변절이라 한다.

일제 때 경찰에 관계하다 독립운동으로 바꾼 이가 있거니와 그런 분을 변절이라고 욕하진 않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親日派)로 전향한 이는 변절자로 욕하였다. 권력에 붙어 벼슬하다가 야당이 된 이도 있다. 지조에 있어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이들에게도 변절자의 비난은 돌아가지 않는다.

나머지 하나 혐의(狹義)의 변절자, 비난 불신의 대상이 되는 변절자는 야당전선(野黨戰線)에서 이탈하여 권력에 몸을 파는 변절자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역력히 기억할 수 있다.

자기 신념으로 일관한 사람은 변절자가 아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치욕에 김상헌(金尙憲)이 쫓은 항서(降書)를 도로 주워 모은 주화파(主和派) 최명길(崔鳴吉)은 당시 민족정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으나 심양(瀋陽)의 감옥에 김상헌과 같이 갇히어 오해를 풀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얘기다. 최명길은 변절의 사(士)가 아니요 남다른 신념이 한층 강했던 이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누가 박중양(朴重陽), 문명기(文明琦) 등 허다한 친일파(親日派)를 변절자라고 욕했는가. 그 사람들은 변절의 비난을 받기 이하의 더러운 친일파로 타기(唾棄)되기는 하였지만 변절자는 아니다.

민족 전체의 일을 위하여 몸소 치욕을 무릅쓴 업적이 있을 때는 변절자로 욕하지 않는다. 앞에 든 최명길도 그런 범주에 들거니와, 일제말기(日帝末期) 말살되는 국어(國語)의 명맥(命脈)을 붙들고 살렸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민족 해방의 날을 위한 유일의 준비가 되었던 《맞춤법 통일안》, 《표준말 모음》, 《큰사전》을 편찬한 ‘조선어 학회’가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聯盟) 조선어 학회 지부(朝鮮語學會支部)’의 간판을 붙인 것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런 하는 일도 없었다면 그 간판은 족히 변절의 비난을 받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좌옹(佐翁), 고우(苦愚), 육당(六堂), 춘원(春園) 등 잊을 수 없는 업적을 지닌 이들의 일제 말의 대일협력(對日協力)의 이름은 그 변신(變身)을 통한 아무런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애석하나마 변절의 누명을 씻을 수 없었다. 그분들의 이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은 우리의 기억이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이분들은 ‘반민특위’(反民特委)에 불리었고, 거기서 그들의 허물을 벗겨 주지 않았던가. 아무

것도 못하고 누명만 쓸 바에야 무위(無爲)한 채로 민족정기(民族精氣)의 사표(師表)가 됨만 같지 못한 것이다.

변절자에게는 저마다 그럴 듯한 구실이 있다. 첫째, 좀 크다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백이(伯夷), 숙제(叔齊)는 나도 될 수 있다, 나만 깨끗이 굶어 죽으면 민족은 어찌느냐가 그것이다.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는 투의 이론이요, 그 다음엔 바깥에선 아무 일도 안 되니 들어가 싸운다는 것이요, 가장 하치가, 에라 권력에 붙어 이권이나 얻고 가족이나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굶어 죽기가 쉽다거나 들어가 싸운다거나 바람이 났거나 간에 그 구실을 뒷받침할 만한 일이 획책(劃策)도 한번 못해 봤다면 그건 변절의 낙인밖에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어떤 선비도 변절하여 권력에 영합해서 들어갔다가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온 예를 역사상에서 보지 못했다. 연산주(燕山主)의 황음(荒淫)에 어떤 고관의 부인이 궁중에 불리어 갈 때 온몸을 명주로 동여매고 들어가면서, 만일 욕을 보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 놓고 밀실(密室)에 들어가서는 그 황홀한 장치와 향기에 취하여 제 손으로 명주를 풀고 눕더라는 야담이 있다. 어떤 강간(強姦)도 나중에는 화간(和姦)이 된다는 이치와 같지 않는가.

만근(晩近)²¹⁾ 30년래를 우리나라는 변절자가 많은 나라였다. 일제말(日帝末)의 친일 전향, 해방 후의 남로당 탈당, 또 최근의 민주당(民主黨)의 탈당, 이것은 20이 넘은, 사상적으로 철이 난 사람들의 주책없는 변절임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궐(同軌)다. 감당도 못할 일을, 제 자신도 율(律)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민족이니 사회니 하고 나섰다는 말인가. 지성인의 변절은 그것이 개과천선(改過遷善)이든 무엇이든 인간적으로는 일단 모욕을 자취(自取)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지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은 다음의 한 구절이다. “기녀(妓女)라도 늘그막에 남편을 좇으면 한평생 분 냄새가 거리낌이 없을 것이요, 정부(貞婦)라도 머리털 센 다음에 정조(貞操)를 잃고 보면 반생(半生)의 깨끗한 고절(苦節)이 아랑곳없으리라.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을 보려면 다만 그 후반(後半)을 보라.” 하였으니 참으로 명언(名言)이다.

차들에 바람이 들면 백 리를 날아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거니와, 늦바람이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아직 지조를 깨뜨린 적이 없는 이는 만년(晩年)을 더욱 힘쓸 것이니 사람이란 늙으면 더러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직 철이 안 든 탓으로 바람이 났던 이들은 스스로의 후반을 위하여 번연(翻然)히 깨우치라. 한일합방 때 자결(自決)한 지사 시인(志士詩人) 황매천(黃梅泉)은 정탈(定奪)이 매운 분으로 ‘매천필하무완인(梅泉筆下無完人)’이란 평(評)을 듣거니와 그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보면, 민충정공(閔忠正公), 이용익(李容翊) 두 분의 초년(初年) 행적을 헐뜯은 곳이 있다. 오늘에 누가 민충정공, 이용익 선생을 욕하는 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들의 초년을 모른다. 역사에 남은 것은 그분들의 후반(後半)이요, 따라서 그분들의 생명은 마지막에 길이 남게 된 것이다.

도도히 밀려오는 망국(亡國)의 탁류(濁流). 이 금력과 권력, 사악 앞에 목숨으로써 방과

21) 만근(晩近):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조의 함성을 높이 외치라. 그 지성 앞에는 사나운 물결도 물러서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천하의 대세가 바른 것을 향하여 다가오는 때에 변절이란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인가. 이완용(李完用)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를 위한 36년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가졌었다.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력에 뒤늦게 팔리는 행색(行色)은 딱하기 짝 없다. 배고프고 욕된 것을 조금 더 참으라. 그보다 더한 욕이 변절 뒤에 기다리고 있다.

“소인기(少忍飢)하라.” 이 말에는 뼈아픈 고사(故事)가 있다. 광해군(光海君)의 난정(亂政) 때 깨끗한 선비들은 나가서 벼슬하지 않았다. 어떤 선비들이 모여 바둑과 정담(情談)으로 소일(消日)하는데, 그 집주인은 적빈(赤貧)이 여세(如洗)라 그 부인이 남편의 친구들을 위하여 점심에는 수제비 국이라도 끓여 드리려 하니 뭇나무가 없었다. 껌작을 뜯어 도마 위에 놓고 식칼로 쪼개다가 잘못되어 젖을 찢고 말았다.

바둑 두던 선비들은 갑자기 안에서 나는 비명을 들었다. 주인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실 얘기를 하고 추연(湫然)히 하는 말이, 가난이 죄라고 탄식하였다.

그 탄식을 듣고 선비 하나가 일어서며, 가난이 원순 줄 이제 처음 알았느냐고 야유하며 간 뒤로 선비는 다시 그 집에 오지 않았다. 몇 해 뒤 그 주인은 첫 뜻을 바꾸어 나아가 벼슬하다가 반정(反正) 때 몰리어 죽게 되었다.

수레에 실려서 형장(刑場)으로 가는데 길가 숲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수레를 잠시 멈추게 한 다음 가지고 온 닭 한 마리와 술 한 병을 내놓고 같이 나누며 영결(永訣)하였다. 그때 그 친구의 말이, 자네가 새삼스레 가난을 탄식할 때 나는 자네가 마음이 변할 줄 이미 알고 발을 끊었다고 했다. 고기 밥 맛에 끌리어 절개를 팔고 이 꼴이 되었으니 죽으면 고기 맛이 못 잊어서 어찌겠느냐는 야유가 숨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찾는 것은 우정이었다.

죄인은 수레에 다시 타고 형장(刑場)으로 끌려가면서 탄식하였다.

“소인기(少忍飢) 소인기(少忍飢)하라.”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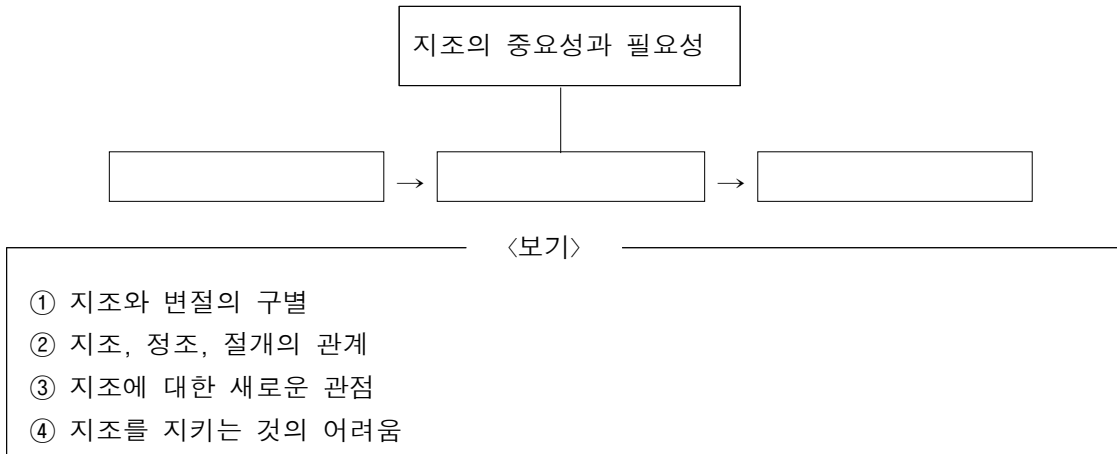
변절자에게도 양심은 있다. 야당에서 권력으로 팔린 뒤 거드럭거리다 이내 실세(失勢)한 사람도 있고 갓 들어가서 애교를 떠는 측도 있다. 그들은 대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표면으로 성명은 버젓하나 뜻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 얼굴에는 수치의 감정이 역연(歷然)하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란 것이다. 구복(口腹)과 명리를 위한 변절은 말 없이 사라지는 것이 좋다. 자기변명은 도리어 자기를 깎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핑계는 있다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왜 아기를 배게 뒀느냐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창피하지 않은가.

양가(良家)의 부녀가 놀아나고 학자 문인까지도 지조를 헌신짝같이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으니 변절하는 정치가들도 우리쫓이야 괜찮다고 자위할지 모른다. 그러나 역시 지조는 어느 때나 선비의, 교양인의, 지도자의 생명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조를 잃고 변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자임(自任)하는 바를 포기하는 것이다.

출전: 《지조론》, 나남. 1996.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은 본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구조화한 것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써 보자.



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①~⑤에 사동, 피동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보자.

<보기>

사동(使動)이란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을 말하며, 피동(被動)이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을 말한다.

① 어떤 제자(弟子)가 그 까닭을 물으매, 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머리 숙일 곳이 없기 때 문이라고 했다는 일화(逸話)가 있다.

② 이러한 충언의 근원을 캐면 그 바닥에는 변절하지 말라, 지조의 힘을 기르란 뜻이 깃들 이어 있다.

③ 병자호란(丙子胡亂)때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치욕에 김상헌(金尙憲)이 찢은 항서(降書)를 도로 주워 모은 주화파(主和派) 최명길(崔鳴吉)은 당시 민족정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으나 심양(瀋陽)의 감옥에 김상헌과 같이 갇히어 오해를 풀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얘기다.

④ ‘조선어 학회’가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聯盟) 조선어 학회지부(朝鮮語學會支部)’의 간판을 붙인 것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

⑤ 그 때문에 이분들은 반민특위(反民特委)에 불리었고, 거기서 그들의 허물을 벗겨 주지 않았던가.

3. 다음 낱말들의 올바른 뜻을 골라 ○ 표시를 해 보자.

(1) 정신의 자존(自尊), 자시(自恃)를 위해서는 자학(自虐)과도 같은 생활을 견디는 힘이 없는 지조는 지켜지지 않는다.

• 자존(自尊)

- ①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킴. ()
- ② 자기를 높여 잘난 체함. ()

• 자시(自恃)

- ① 어떤 일이 그러려니 하고 자기 혼자 짐작하여 믿고 겉으로 드러냄. ()
- ②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믿음. ()

• 자학(自虐)

- ① 자기를 스스로 학대함. ()
- ②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움. ()

(2) 한일합방 때 자결(自決)한 지사시인(志士詩人) 황매천(黃梅泉)은 정탈(定奪)이 매운 분으로 ‘매천필하무완인(梅泉筆下無完人)’이란 평(評)을 듣거니와 그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보면, 민충정공(閔忠正公), 이용익(李容翊) 두 분의 초년(初年)행적을 헐뜯은 곳이 있다.

• 자결(自決)

- ① 의분을 참지 못하거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 ()
- ②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와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함. ()

(3) 이러한 사람들이 지조를 잃고 변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임(自任)하는 바를 포기하는 것이다.

• 자임(自任)

- ① 임무를 자기가 스스로 맡음. ()
- ②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이라고 자부함. ()

4. 다음 문장에 나타난 ‘젓을’의 올바른 발음에 ○표시를 하고, <보기> 중 이와 같은 원리로 발음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꺄뺏을 뜯어 도마 위에 놓고 식칼로 쪼개다가 잘못되어 젓을 찌고 말았다.
(저즐, 저슬, 저들)

〈보기〉

- ① 식사 후에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셨다.
- ② 제가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낯으로 부모님을 뵈겠습니까?
- ③ 그는 옷 안에 중요한 문서를 넣고 두리번거리면 집을 나서고 있었다.
- ④ 밤일을 할 때는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낯일을 할 때는 반대로 잠 오는 약을 그 아이도 먹었다.

• 번호: _____

쉬어 가기

단군 신화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인 환웅(桓雄)이 천하(天下)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 을 내려다보니 인간(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웅(雄)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정상 신단수(神檀樹) 밑에 내려와 신시(神市)라 하고 이에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명(命)·병(病)·형(刑)·선악(善惡) 등 무릇 인간의 삼백육십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神) 환웅(雄)에게 기도 하되 화(化)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신 환웅은 신령스러운 쭉 한 타래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百日)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체를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곰은 그것을 먹으면서 기(忌)한지 삼칠일(三七日) 만에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범은 기(忌)하지 않아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없었다. 웅녀(熊女)는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매양 단수(檀樹) 아래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다. [웅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 당(唐)의 고(高)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庚寅)으로, 평양성(平壤城)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궁(弓) 흘산(忽山)이라고도 하며 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한다. 그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周)의 호왕(虎王-武王-)이 즉위한 기묘(己卯)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 에 돌아와 숨어 산신(山神)이 되었으니 수(壽)가 1,908세다.”라고 하였다.

古記云 昔有桓因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 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 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 壇君王儉

以唐堯卽位五十年庚寅 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 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武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樂浪帶方

通典亦同此說

* 국사편찬위원회 역,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일(卷第一) 기이(紀異)

2.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 (1) KOREA로 불리다
 - (2) 김치와 과학
 - (3) 음력·양력의 과학적 비교
 - (4) 한옥의 공간 구성 원리, 소통
 - (5) 백성들이 정말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는가
- 쉬어 가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우리의 각오’
-

(1) KOREA로 불리다

박용운

우리나라를 영어로 표기하면 Korea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고조선을 시작으로 해서 고구려·백제·신라·발해·고려·조선 등의 국명이 보인다. 그런데 왜 영문 표기가 Chosun이나 Shilla가 아닌 Korea가 되었을까. 이는 서양에 언제 우리나라가 알려졌는가를 살펴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즉 ‘고려’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Korea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이름을 알렸을까.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역하면서 이 국명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중동이라고 하면 뜨거운 사막의 나라, 석유의 나라 그리고 많은 전쟁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다지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는 낯선 나라이다. 그런데 비행기도 없고 통신 수단도 없는 그 먼 고려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아라비아 상인들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동방의 작은 나라에 오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고려 시대에는 머나먼 아라비아에서만 상인이 왔을까. 우리는 고려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와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 알아보자.

국제 무역항, 예성 강변의 벽란도

조수가 들고나매,
오고 가는 배는 머리와 꼬리가 잇대었구나.
아침에 이 다락 밑을 떠나면,
한낮이 채 못 되어 돛대는 남만(南蠻) 하늘에 들어가누나.
사람들은 배를 가리켜 물 위의 역마(驛馬)라 하지만
나는 바람 쫓는 준마(駿馬)의 굽도 이에 비하면 오히려 더디다 하리.
어찌 구구(區區)히 남만(南蠻)의 지경뿐이라.
이 목도(木道: 배)를 빌리면 어느 곳이고 가지 못할 곳이 있으랴.

이 글은 고려 시대의 대문호인 이규보(李奎報)가 예성강에서 선박이 오고 나가는 것을 읊은 글이다. 물론 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예성강 포구에서 많은 선박의 출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다. 또한 한낮이 채 못 되어 다다르는 남만의 하늘은 단순히 남쪽 하늘이 아니라 바다 저편 남방의 다른 나라를 가리킨 것이다.

예성강의 벽란도는 수많은 외국 상인이 개경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항구였다. 고려의 음악 가운데는 예성강에 온 중국 상인이 고려의 아리따운 부인을 보고는 그 남편과 도박을 해서 부인을 도박의 대가로 받아 데려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그 부인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을 가진 것이 있다. 당시 예성강에 많은 중국 상인이 오고 갔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신이 오갈 때 무역을 행하다-조공 무역

고려 광종 11년(960)에 중국은 오랜 혼란기를 극복하고 송이 천하를 통일하였다. 이에 고려는 광종 13년(962)에 이흥우(李興祐)를 파견하고 송이 이듬해 시찬(時贊)을 보내옴으로써 양국 간에 국교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송나라와 고려의 국교는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간헐적이었다. 즉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서 성종 13년(994)에 국교가 단절되었고, 이후 문종 25년(1071)에 이르러서야 양국 간의 관계는 재개되었다. 그러나 1126년 북송이 멸망하고 이듬해 남송이 건국되면서부터는 몇 번의 사신 왕래는 있었으나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고 결국 1279년 남송이 멸망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두 나라 사이의 교류 형식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의례적인 형태인 조공 관계였다. 조공 관계에서 고려는 중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선물을 바치면, 중국에서는 답례품을 주었다. 이러한 형태로 양국 간의 물품이 교환되는 것을 조공 무역이라고 부른다.

조공 무역을 통해서 두 나라 간에 주고받는 물건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신을 파견할 때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사료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문종 32년(1078)에 송나라에서 안도(安燾)가 왔을 때 100가지가 넘는 종류에 그 수량은 6천 건에 이를 정도의 물건을 가져왔다. 구체적으로는 국왕에게 내린 의복류·보석류·그릇류 등이었다. 문종 34년(1080) 고려에서 보낸 물건은 생중포(生中布) 2천2백 근 등이었다. 실로 엄청난 양의 물품이 오간 것이다.

고려가 가져간 이런 물건에 대해서 송나라에서는 일정한 값을 쳐서 희사품을 돌려주었다. 송나라 신종 2년(1079)까지는 공물에 가격을 매겨서 대개 만점(萬錢)을 액수로 보내었으나 이후에는 일일이 값을 매기지 않고 총괄해서 만점으로 그 액수를 정하였다고 한다.

고려와 송나라 사이의 조공 무역은 국교가 단절된 시기가 있었고, 국교를 재개했다고 하더라도 북쪽의 거란과 여진에 대해서 두 나라 모두가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민간 무역에 비해서는 덜 활발했다고 할 수 있겠다.

오가는 배는 머리와 꼬리가 잇대었구나

고려와 송의 조공 무역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점에 비해서 민간 무역은 매우 활발했다. 양국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나 연결되었을 때나 송나라 상인의 출입은 계속되고 있었다. 송나라 상인의 최초 고려 내왕은 현종 3년(1012) 육세령(陸世寧)이 토산물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 후로 현종 때부터 충렬왕 4년(1278)까지 총 126회에 이르며, 매회 온 인원은 50여 명 내외였다. 송나라 상인의 출입은 현종부터 인종까지 빈번하였는데, 특히 문종 때에 매우 활발하였다.

당시 송나라 상인의 출입이 얼마나 빈번하였던지 문종이 송나라와 정식으로 국교를 재개하려고 하자 내사문하성에서 송나라와 국교를 맺는 것은 북방의 거란을 자극하여 국가에 이롭지 못하며, 나라의 문물·예악이 크게 일어난 지 오래되었으며, 장삿배가 끊임없이

출입하여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는데 굳이 중국에 의뢰할 것이 없다고 한 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

송나라 상인의 내항은 7~8월에 가장 많아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시기 서남 계절풍을 이용하여 고려에 입국하였다가 팔관회에 참석한 뒤 10~11월 북풍을 이용하여 송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고려에 내왕한 송나라 상인은 대개 중국 남쪽 지역, 푸젠성(福建省)의 쉐저우(泉州)·밍저우(明州) 출신들이 많았다. 송은 건국 초부터 연운 16주를 회복하기 위해 거란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전쟁 비용이 필요했고 때문에 유례없는 중상 정책을 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저우(廣州)·밍저우·항저우(杭州) 등의 남중국 해안에 무역항을 지정하여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고 상세를 거둬들였다.

고려에 오는 송나라 상인은 밍저우 시박사에서 발급하는 공첩(公貼)을 가져야 하며, 귀국 때에도 시박사에서 귀환 수속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에 오는 많은 상인이 이 지방 출신이라고 표기되는 것이다.

이들의 항로는 산둥 반도 덩저우(登州)에서 동북 직선로에 의해 대동강 어구의 초도를 거쳐 웅진항 또는 예성강에 이르는 길을 사용했다. 그러나 문종 대 이후로는 밍저우에서 동북으로 흑산도를 거쳐서 다시 동북행하여 고군산도 등 서해안 도서를 거쳐 예성강에 이르는 항로를 사용했다.

고려와 송나라 사이의 무역품은 매우 다양하다. 수출품은 금·은·구리·인삼·송자·황철 등의 원료품과 능라(綾羅)·세저포(細苧布)·세마포(細麻布)·백지·향유·금은동기·나전 기구·부채·금은장도·송연묵 등 가공품이 중심이고, 유황·도검·청서피 등 일본산·여진산 물품도 포함되었다.

수입품으로는 능견·자기·금박·약재·차·서적·악기·금은전 등이며, 향약·서각·상아·산호·호박·수정·소목 등의 서남아시아 산의 물품도 송의 중계 무역에 의해서 수입되었다. 무역품이 대개 사치품과 무기류가 많은 것은 당시의 국제 무역이 귀족의 화려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란·여진과의 무역

고려 시대의 외교 관계 면에서 거란과 여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 장에 길게 설명한 송나라의 관계와 같이 매우 컸다. 우리나라는 중국 대륙의 국가와 조공 관계를 맺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친밀하게 지내왔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서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즉, 고려 초기에는 거란의 세력이 그리고 중기에는 여진의 세력이 강성하여서 송과 고려의 연결을 경계하며 꺼려하게 되었다. 특히 거란은 성종으로부터 현종까지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 결국 고려는 송과 국교를 끊고 거란과 조공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고려와 거란, 그리고 여진 간의 경제적인 관계는 매우 소원했다. 이는 송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인 이득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거란과는 그들의 1차 침입 이후 목종 8년(1005)에 보주[현재의 의주]에 일종의 국경 시장인 각장(樵場)이 설치되어 물품이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곧 폐지되고 이후 몇 번의 치폐(置廢)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폐지되고 말았다. 각장 무역이 폐지됨에 따라 양국 사이에는 의례적인 조공 무역만이 이루어졌고 일부 밀무역도 행해졌다. 무역 품목은 금속류와 포백류·공예품·필묵·종이 등을 조공품으로 바치면 능라·단사와 양을 주로 한 가축류 등을 회사품으로 받았다.

여진은 정종 3년(948)에 대광(大匡) 소무개(蘇無蓋) 등이 말 7백 필과 방물을 가져와 바치자, 고려에서는 말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값을 지불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여진은 각 부족별로 내조하면서 토산물을 바쳤다. 이들은 말·철갑·화살·선박 등의 군수 용품과 번미·표피·수달피·청서피·황모 등의 토산물을 바치고 고려로부터 회사품(喜捨品)을 받아갔다. 여진인이 진헌물(進獻物)을 가지고 개경에 오면 객관에 머물게 하고 관리의 입회 아래 물품을 교환하게 하였다. 여진이 농사에 필요한 소를 요청하기도 해서 고려 정부에서 이를 보내준 적도 있다.

그러나 예종 10년(1115) 완안부의 아골타(阿骨打)에 의해서 부족 상태로 흩어져 있던 여진이 통일되어 금이 건국되면서 부족별로 토산물을 바치던 관례는 사라지고, 조공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는 금과도 역시 조공 무역을 행하게 되었다. 명종 13년(1138)에 매년 금에 가는 사신이 상품 교역의 이익을 노려 토산품을 많이 가져가서 운반하는 데 폐단이 생기므로, 이를 없애기 위하여 사신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제한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파면시킨다는 것을 정하였다. 이처럼 조공 무역을 하는 와중에도 사신들에 의한 개인적인 사무역이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의 무역

고려와 일본은 정식 국교를 맺지 않았으며, 따라서 고려 시대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관계가 매우 소원하였다. 고려의 대일 무역은 제한적이고 거절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고려와 일본의 관계는 송과 고려, 또는 거란·여진과 고려와의 관계처럼 정식 조공 무역이 행해진 것도 아니었으며, 국교가 단절되었을 때의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처럼 자유로운 민간 무역이 행해지지도 않았다.

선진 문물을 가진 고려로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교류도 매우 소원했다. 다만 표류해서 고려에 들어온 일본인을 돌려 보내준다는가, 반대로 일본에 흘러간 고려인을 보내준다는가 하는 정도의 교류가 보이고 있다.

매우 소원했던 가운데에서도 양국 사이에 얼마간의 교류가 보이고 있다. 문종 27년(1073) 일본인 왕측정(王則正) 등 42명이 나전·안장·칼·벼루 갑·화병·향로·화살·수은 등을 바치기를 청하였으며, 일기도구당관(壹岐島勾當官)도 사신 등 33명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려 하니, 고려가 이들을 뱃길로 개경까지 올 수 있게 허락한 기록이 있다. 이는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상인이 개인적으로 고려에 물건을 바치고 회사품을 얻어가거나[사헌 무역] 일부 지방의 지방관이 사신을 보내서 진공하고 사여물(賜與物)을 바라는 약간의 공적인 성격의 무역이 병존했다.

무역품을 보면 일본에서 고려에 진상한 물품으로는 수은·유황·진주·법라·나갑·삼재·해조 등의 원료품이나 경갑·향로·화병 등 공예품, 칼·보도 등의 무기류, 감자·소·말·채단 등이며 소목 등의 남방산 물품이 섞여 있다. 고려의 하사품은 인삼·사향·홍화·호표피·면주·대장경·미곡·약재 등이었다.

하사품 가운데 미곡이 섞여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다. 즉 대마도(對馬島)나 일기도(壹岐島) 등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곧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하사품으로 미곡을 내려 준 것이다.

KOREA로 불리게 되다-아라비아와의 무역-

고려 현종 15년(1024) 9월에 대식국(大食國)의 열라자(悅羅慈) 등 10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듬해와 정종 6년(1040)에도 대식국의 상인들이 왔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식국이란 아라비아, 오늘의 이란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도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어떻게 동방의 끝에 있는 고려까지 오게 되었을까.

대식국인들은 당(唐)나라 이래로 중국 남쪽의 광저우(廣州)를 중심으로 무역을 해 왔으며 송나라에 이르러 송의 해외 무역 장려책에 힘입어 활기를 띠었다. 이 때문에 송에서 고려에 대한 풍문을 들어 고려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식국인의 내왕에 관한 기사는 위에 보이는 3회에 그치고 있어서 그들이 고려와 지속적인 무역 활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당시 송나라 상인이 고려와 아라비아 상인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제약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규모 상인단의 출입과 송나라 상인에 의해 고려에 대해 지식을 갖게 된 이들에게 고려가 알려지면서 고려(KOREA)라는 국명이 서방 세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교류였다.

이들이 가져온 수은·용치(龍齒)·점성향(占城香)·물약·대소목(大蘇木) 등은 모두가 동남아시아나 중근동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들로서 그 가운데 점성향은 안남 지방에서 나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식국 상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향해 도중 기항하는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팔고 다시 점성향과 같은 상품을 사 가지고 와서 고려에 팔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고려는 이들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비단[錦]을 많이 주었다고 전한다.

출전 《고려 시대 사람들 이야기》, 신서원, 2002.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보기>의 어휘를 활용하여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자.

서론	우리나라가 KOREA로 불리게 된 이유 고찰	
본론	외국 상인들의 출입이 잦았던 예성강 ()	
	송과의 무역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신을 통한 ()
		조공 무역에 비해 활발했던 ()
	거란·여진과의 무역	세력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조공 무역
	일본과의 무역	다른 나라에 비해 소원했던 일본과의 무역
결론	우리나라가 KOREA로 불리게 된 이유: ()과의 무역	

<p>————— <보 기> —————</p> <p>백란도, 민간 무역, 조공 무역, 아라비아 상인</p>
--

2. <보기>의 문장을 보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p>————— <보 기> —————</p> <p>가. 고려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고 통신 수단도 없었다. 나. 여진이 소를 달라고 요청해<u>서</u> 고려는 여진에 소를 보내 주었다.</p>

(1) ‘가’와 ‘나’의 문장 중에서 앞뒤 문장을 바꾸어도 의미에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해 보자.

(2) ‘가’와 ‘나’의 밑줄 친 연결 어미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3. <보기>의 밑줄 친 어휘를 보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보 기>

① 송나라 상인의 출입은 문종 때 매우 활발하였다.(활발하다)
② 중국에 의뢰할 것 없다고 한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드러나다)
③ 이들은 예성강에 이르는 길을 사용했다.(사용하다)
④ 고려와 송나라 사이의 무역품은 매우 다양하다.(다양하다)

(1) 다음은 밑줄 친 어휘를 청유형과 명령형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어색한 어휘를 찾아보자.

청유형	활발하자, 드러나자, 사용하자, 다양하자
명령형	활발해라, 드러나라, 사용해라, 다양해라

(2) 위 활동을 바탕으로 두 어휘의 품사를 구분해 보자.

4. 우리말의 음운에 대하여,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보 기>

아라비아 상인

(1) <보기>의 말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보자.

- 자음:
- 모음:

(2) <보기>에서 ‘아’의 ‘ㅇ’은 음운으로 보지 않고 ‘상’의 ‘ㅇ’은 음운으로 본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김치와 과학

김숙희

흔히 영양학자들은 “자기가 먹은 음식이 자기를 만든다(Foods becomes you).”라고 말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인의 몸은 50% 이상이 김치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신세대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밥 한 그릇에 김치 한 보시기로 한 끼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배추 김치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단일 식품으로 한국인의 건강을 수천 년간 지켜왔다.

배추김치의 주재료는 배추와 무이며 양념으로 파·마늘·생강·고춧가루·실고추가 들어간다. 지역이나 각 가정의 기호에 따라 멸치젓·새우젓·갈치속젓·황석어젓 등의 젓갈이 쓰이며 부수적으로 굴·전복·낙지·생새우·조기·동태·갈치와 같은 어류를 집어넣기도 한다. 또한 밤채·대추채·배·감과 같은 과실류, 석이버섯·표고버섯·송이버섯 같은 버섯류, 잣과 같은 견과류들이 그 가정의 전통과 입맛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가된다.

이렇게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에는 비타민 A·D·C·K·B2·B6·B12·나이아신·엽산 등이 풍부하며 김장 김치는 특히 야채가 귀한 겨울철에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류 중 멸치젓은 자가분해를 하는데 육질은 각종 유리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멸치의 뼈는 칼슘·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로 분해된다. 이와 같은 각종 유리아미노산과 무기질은 김치가 시어지는 것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기온이 높은 남부 지역 김치가 기온이 낮은 중부 지방이나 북쪽 지방에 비해서 젓갈 함유량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장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젖산균이 증가하는데 젖산균은 정장 작용(整腸作用)을 하며 일부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젖산균은 채소에 붙어 있는 잡균들의 번식을 억제하면서 기생충 알의 살균 작용도 한다. 배추나 무 등 채소에 많이 들어 있는 식이성 섬유는 장을 자극하여 소화 흡수를 촉진시키며 섬유소는 중금속을 흡착하여 제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을 위시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분이 김치에 포함되어 있다.

김치는 2~3%의 소금 농도 환경에서 일어나는 채소의 발효 식품으로 이 과정에서 특히 젖산균에 의한 발효로 십여 종의 유기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젖산·구연산 등을 위시해서 모두 산성의 유기산을 만들어 낸다. 미생물들이 유기산을 만드는 배지는 채소의 조직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아밀레이스 등에 의해서 조직 세포 내에 있는 당을 분해하며 또한 첨가된 설탕, 무에 함유된 당질 등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이를 유산균이 배지로 쓴다.

김치에 당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젖산균에 의해서 젖산 발효가 진행되는 중이므로 김치가 시지 않다가 포도당이 거의 젖산 발효 배지로 쓰여서 농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신맛이 나는데 이때 김치에 첨가한 생선이나 젓갈 조직에 함유된 펩티데이스(peptidase)에 의해 단백질이 유리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김치의 신맛을 덜어 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생성된 산에 의해서 멸치의 뼈나 다른 생선의 조직에 존재하는 무기질이 분해되어서 유리Ca 또는 P 등으로 분해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김치 내의 이러한 변화 때문에 김치가 익는 시기가 각각 다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주식인 밥과 김치에는 지방을 제외한 모든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치를 썰어 넣고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트려 비벼먹은 김치비빔밥은 영양이 균등하게 포함된 완전식품에 가깝다. 김치는 그 냄새 때문에 외국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여러 가지 유기산과 아미노산, 각종 비타민·무기질·미생물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항암 작용, 체중 조절, 순환계 질환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김치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배가 고플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이 잘 익은 김치와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다. 따끈한 쌀밥과 맛있게 익은 김치는 언제나 어머니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한국의 김치는 어머니의 작품이어서 딱히 정해진 레시피가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르다. 한 집안의 김치 맛은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며느리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는 손맛으로서 그 집안의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도 공통적으로 김치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주재료와 같고 이에 부가되는 양념이나 젓갈 등이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치는 매기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다. 그런데 김치 냄새를 식탁 이외의 장소에서 맡으면 불쾌하게 느껴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은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김치 먹는 일을 아주 조심해야 했다. 특히 직업이 의사인 경우 김치를 먹고 난 직후에는 환자를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할 일이 있으면 김치 먹는 일을 삼가야 했다. 그러나 김치가 현대인의 고민인 성인병과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보고된 지금에는 냄새와 상관없이 세계인의 기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김치에 대해 대표적인 웰빙 음식이라는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에 잘 알려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면 김치와 불고기이다. 불고기의 전통 명칭은 너비아니인데 쇠고기를 조금 도톰하게 썰어서 파,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 설탕을 넣고 잠깐 재워 두었다가 숯불에 구워 먹는다. 요즘은 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 가스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이 애용되고 있다. 고기를 다 먹고 난 후에는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팬에 남아 있는 불고기 양념과 함께 밥을 볶아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최근에는 불고기를 먹으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김치에 싸서 먹

기도 한다.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 돼지고기 보쌈은 삶은 돼지고기를 배보자기에 싸서 다듬잇돌로 눌러 놓았다가 얇게 썰어 초절국에 찍어 먹거나 김치 옆에 싸 먹는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육류 먹는 방법은 서양 사람처럼 덩어리 고기를 썰어서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이 아니라 몇 점 먹는 것으로 젓가락을 놓았다.

최근에는 김치 먹는 양은 감소하고 육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각 가정에서 독특한 자기 집안의 김치 맛을 자랑하던 시절도 모두 세월의 뒷전으로 사라지고 요즈음은 김치가 상품이 되어 팔리고 있다. 젊은 주부들은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다고 또는 담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사 먹는다. 이러한 풍조는 전국의 김치 맛을 획일화시키고 있어서 각 가정이 지니고 있던 독특한 김치 맛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대단히 아쉬운 문화의 소멸이다. 여기에도 중국에서 김치를 담가서 한국으로 역수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문화를 도둑맞은 느낌마저 든다. 고유한 전통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한국 주부들이 음식 문화 지킴이로서 반성을 해야 할 점이다. 한국의 김치 전통은 한국인이 만든 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치와 한국인의 식사

우리는 고대 국가 시대부터 조선조 중기에 이르기까지 소금에 절인 각종 채소를 김치의 원조라고 칭해 왔다. 동치미나 나박김치는 고대인들이 섭취했던 음식이지만 지금도 한국인이 즐겨 먹고 있다. 찐지와 신견지, 소박이와 췌박지, 그리고 장아찌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이 즐겨 먹고 있는 침채형, 해형 김치를 통틀어 절임 채소인 ‘저(菹)’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조 후기에 들어와 통배추가 재배되고 고추가 유입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고춧가루로 버무린 포기김치가 정착이 되었다. 이와 같이 포기김치는 고춧가루를 배추에 가미하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인의 식단에는 밥이 나오고 반찬으로는 반드시 김치와 찌개 또는 국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김치라고 하면 주로 통배추 김치를 말하는데 나박김치나 겨울에 먹는 동치미 또는 여름용 찐지는 요즈음에는 전통을 고수하는 집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반찬이 되고 있다.

반찬에는 국과 찌개에 더하여 채소를 삶아서 무친 숙채나 생채 나물, 생선이나 육류가 있고 멸치나 북어 보푸라기 같은 마른 반찬 볶음이 있다. 찐 반찬으로는 소라젓, 새우젓 무침과 같은 젓갈 반찬과 간장이나 볶음 고추장이 상 한가운데에 놓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선 전유어나 두릅나물 데친 것, 초강희 같은 반찬이 마련되면 초고추장을 올리기도 한다.

한국인의 식단은 서양인의 식단과는 매우 다르다. 미국인은 그들이 선호하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구운 쇠고기나 양고기 또는 닭고기 덩어리에다가 구운 감자 한 덩이와 삶겨

나 데친 야채에 빵을 곁들인다. 흔히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샐러드를 먹고 이어서 크림 수프나 맑은 장국과 같은 콩소메 수프를 전식으로 먹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인의 식단에 비하면 한국인의 식단은 복잡하다. 그래서 젊은 주부들이 한식 상 차리기를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한국 식단으로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기름진 고기 위주의 서양식 식사보다 건강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한국인은 주식인 밥에 반찬을 곁들여서 식사를 한다.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밥을 한번 떠먹은 후에 반찬을 먹고 거기다 또 김치를 집어 먹는다. 더구나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김치를 먹어서 육류의 느끼함을 없애려고 한다. 한국인들은 간식으로 떡이나 국수를 먹을 때도 김치를 곁들여 먹는다. 어릴 적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찢감자나 고구마를 간식으로 주시면서 “목이 땄라, 김칫국부터 마시고 먹어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은 자랐다.

이런 경우 김치는 소화제 역할을 한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잘 익은 김치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없어도 한 끼 식사를 마칠 수 있다. 김치는 주재료가 채소이기 때문에 흔히 서양 식단의 샐러드와 비교되지만 반찬과 반찬 사이에 입맛을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서양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마시는 와인과도 비교할 수 있다.

《한국의 음식 김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진술에서 맞는 것에 V 표시를 해 보자.

- 멸치젓은 김치가 시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
- 김치에 포함된 성분들은 모두 해명되어 있는 상태이다. ()
- 한국인의 주식인 밥과 김치에는 단백질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다. ()
- 김치는 성인병과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다. ()
-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다. ()

2. <보기>를 참고하여 각 문장에 나타나는 단위성 의존 명사에 모두 밑줄을 그어 보자.

— < 보기 > —

의존 명사는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와야만 하는 명사이다. 특히 우리말에는 이러한 의존 명사 중에서도 사물의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부류가 발달되어 있다. 국어에서 신발은 켄레로 그 단위를 세며, 조기나 굴비는 두름으로 센다. 이는 단순히 two, three 등의 수사로 수량을 세곤 하는 영어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고유어와 어울려 쓰이는 국어의 다양한 의존 명사들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가꾸어 온 언어 유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인들은 밥 한 그릇에 김치 한 보시기로 한 끼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 어머니는 고등어를 한 손만 사오라고 하셨는데, 한 손이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어.
- 할머니께서는 손녀인 나에게 겨우 석 달 동안 기와집 한 채, 장롱 두 채, 이불은 몇 채를 준비해 주셨다.

3. 다음 어휘는 식생활과 관련하여 흔히 쓰이는 말이다. 이러한 어휘를 순화어로 바르게 고쳐 보자.

- | | |
|---|---|
| • 웰빙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 • 레시피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
| • 슬로푸드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 • 사라다(salad)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

4. ㉠~㉣ 중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내가 어렸을 적에는 요즘과는 풍속이 사뭇 달랐어. 온 마을마다 김장김치를 많이도 ㉠ 담궜었지. 어머니를 도와 드리느라 소금물에 손을 너무 오래 ㉡ 담가서 손이 부르트기도 했어. 하지만 커다란 항아리 안에 김치를 차곡차곡 ㉢ 담아서 마당 뒤에 묻어 두고 나면 절로 든든한 마음이 들곤 했지.”

<바르지 못한 표현>

<고친 표현>

• →

• 이유:

(3) 음력·양력의 과학적 비교

박성래

우리들은 서양 것은 덮어 놓고 과학적이려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은 더 우수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서양에서 과학을 배워 들여왔지, 우리들 스스로 물리나 화학을 제대로 발달시켰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니 우리들은 ‘과학’이라거나 ‘과학적’, 또는 심지어 ‘논리적’이란 말만 들어도 지레기가 죽어서 그것은 서양 사람들의 전매특허겠거니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고는 사사건건 우리들의 전통적인 어느 문화가 서양의 그것과 다를 때에는 무조건 우리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해 버린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근대 서양에서 크게 일어나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문화유산 가운데 서양 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인 것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음력을 들 수 있다. 우리들은 음력이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며, 양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란 단정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발달시켜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양력은 서양의 세속적인 역사로 오염된 불합리한 역법인데 반해서, 동양인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음력은 그야말로 순전히 과학적인 역법이어서 아무런 모순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자도 음력설을 우리의 설날로 복권시키려고 미력이나마 힘썼고, 우리가 설날을 되찾은 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을 되찾자는 감상적인 동기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릇된 생각과 편견을 바로잡자는 데 더 큰 뜻이 있었다. 우리는 양력과 음력만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경우에 우리들 자신의 전통 속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통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되찾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양력의 비합리적 모순

얼핏 보기에 양력이란 아주 잘 맞는 달력이라 생각하기 쉽다. ‘잘 맞는다’는 점에서는 이런 평가에 조금도 잘못이 없다. 해마다 같은 날에는 그만큼 덥거나 추워서 누가 보기에 계절에 딱딱 맞는 역법이 양력이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하면 음력의 날짜는 꼭 계절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대강 한 달쯤은 왔다 갔다 하는 꼴로 보이는 것이 음력이기 때문이다. 음력 날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 양력을 더 과학적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양력의 날짜가 계절과 잘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양력은 바로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역법이기 때문이다. 양력은 달의 운동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해의 운동만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역법이다. 태양은 여름에는 머리 위에 높이 떴다가 겨울에는 저 아래로 떨어진다. 정오에 태양의 그림자를 재 보면 그림자가 가장 길 때가 동지이고,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된다. 그리고 하지에서 이듬해 하지까지, 혹은 동지에서 이듬해 동지까지가 1년이 된다. 태양 운동으로 따지는 1년이란 365일 48분 46초가 된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의 길이는 24시간이고, 한 달의 길이는 달의 운동을 가지고 따질 양이면 29일 반쯤 된다. 달력의 발달은 바로 이 복잡한 한 해, 한 달, 하루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역법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양력은 한 달의 길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발전한 역법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양력을 처음 만들어 썼다고 알려졌는데, 그들의 양력이란 30일 짜리 한 달을 12번 두고 해마다 연초 5일을 축제일로 하여 1년의 길이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따지면 1년의 길이는 365일로 딱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은 1년의 실제 길이에서 거의 6시간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그 6시간이 자꾸 모이면 나중에는 아예 계절이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봄에 죽은 사람의 제사가 대강 360년 지나면 겨울에 지내게 된다.

서양에서 이 모순을 고쳐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그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력(Julius曆)’이라 불리는 이 역법은 4년마다 무조건 하루씩을 더 넣어 이 모순을 해결했다. 1년의 길이를 365일 6시간으로 잡은 셈이다. 이로써 몇 백년 안에는 그리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1년 길이를 실제로 다 11분 이상 길게 잡은 셈이어서 1000년 이상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역법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고치는 기준은 춘분이었다. 기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는 춘분 날짜가 3월 21일이었는데, 1582년의 춘분은 3월 11일이었으므로 이듬해인 1583년부터는 춘분이 다시 3월 21일이 되도록 고쳐 정한 것이다. 교황청이 춘분 날짜에 이처럼 관심을 가진 것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이 매년 비슷한 날짜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부활절은 춘분을 지나서 처음으로 오는 만월 다음의 첫 일요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도 순전한 양력만으로는 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만월이란 다름 아닌 음력 15일을 말하기 때문인데, 양력만으로는 달 모양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교황청은 그해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이라고 정함으로써 10일을 건너뛰어 다음 해 춘분을 3월 21일로 바꿀 수가 있었다. 이것이 소위 ‘그레고리력’이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은 그때까지 써 오던 ‘율리우스력’에서 윤달 넣는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역법을 만든 것이었다. 즉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넣지 않고 평년으로 하고, 다시 400으로 나뉘질 때는 윤년으로 한다는

규칙이다 예를 들면 1988, 1992, 1996년은 4로 나뉘지니까 윤년이지만, 1900, 2100, 2200년 등은 100으로 나뉘지기 때문에 평년이 되고, 2000, 2400년 등은 400으로 나뉘지기 때문에 다시 윤년이 된다. 앞으로 몇 만 년을 써도 계절과 어긋나지 않을 만큼 오늘의 양력은 완벽한 것이 된 셈이다.

이처럼 태양 운동을 날짜와 맞게 만든 점에서는 아무 탓할 것이 없다. 그러나 양력은 다른 면에서는 모순투성이이다. 우선 영어나 그 밖의 서양 언어로 표시된 달 이름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어로는 9월 이후의 달 이름이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인데 이 달들의 어원을 따져 보면 각기 일곱 번째 달, 여덟 번째 달, 아홉 번째 달, 열 번째 달이 된다. 원래 로마 시대의 연말은 February, 즉 지금의 2월이었는데, 그것이 슬그머니 두 달 앞당겨지면서 오늘의 모양이 되고 만 것이다. 그 덕택에 연말에 하루가 늘었다 줄었다 해야 할 윤년의 하루가 지금은 2월 말에 붙어 있다.

영어로 더욱 못마땅한 이름은 7월(July)과 8월(August)이다. 원래 이 이름은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Julius Caesar)와 아우구스투스(Augustus)를 기념하여 붙인 이름인데, 이 달에 그들의 생일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왕 기념하는 바에 더 길게 하기 위해서 30일이던 8월을 연말에서 하루 더 가져다가 31일로 만들어 놓았다. 7, 8월이 연속 31일이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결국 달마다 길이가 불규칙하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여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워진 셈이고, 이걸 외우기 위해 학생들은 손등까지 동원하게 되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기념할 이유는 없다. 달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더구나 없는 일이다. 이왕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달력이라면 서양 사람 이름만 달 이름에 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옛 인물 가운데 한 명쯤도 달 이름으로 써 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가? 게다가 한 달의 길이가 28일부터 31일까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1월, 3월, 5월, 7월 등 홀수 달을 30일씩으로 하고 2월, 4월, 6월 등 짝수 달은 31일로 하되 12월은 평년 30일, 윤년 31일로 하면 된다.

실제로 양력의 이런 모순을 없애고 세계가 함께 쓸 수 있는 양력을 만들려는 운동이 1954년 유엔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찬성하는 나라와 반대하는 나라는 똑같이 20개국이었고, 반대국 가운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들어 있었다. 쉽게 말해서 동양 사람들은 고치자 했고 서양 사람들은 고치기를 반대했다. 서양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역사이며 전통이니 당연한 일이겠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국도 아니었지만, 이 운동을 벌이던 단체에서 우리의 뜻을 물어 본 일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양력을 고치자는 의견을 낸 일이 있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당연한 의견이었다.

게다가 양력 1월 1일이란 정말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날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들은 양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까지 높여 3일간의 공휴일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우리의 진짜 설날은 음력이라고 없애 버린 채.

양력 1월 1일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절 계산을 하기 위해 춘분을 고정해 놓고 그에 따라 저절로 생긴 날일 따름이다. 당연히 양력 1월 1일에는 해와 달의 어느 것도 새로운 모양을 보여주지 않는다.

음력의 합리성과 과학성

역법이란 해와 달의 변화 속에서 어떤 계기를 잡아 인간의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에서 어느 시각을 잡아 새해의 시작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나 달이 어떤 특수한 시작점에 있을 때를 잡아 새해의 시작이라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 뜻에서 양력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으로는 낙제점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음력은 이와 정반대이다. 서양의 양력이 온갖 서양 사람들의 문화적인 때가 묻어 있는 것과 달리 동양의 음력에는 조금도 때가 묻어 있지 않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이 달 이름에 남아 있는 것과 달리 음력에서는 달 이름에 사람 이름을 붙여 놓은 일이 없다. 음력에서는 1월, 2월, 3월, 4월 등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붙여 달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 혹시 다른 이름을 쓴다 해도 ‘꽃 피는 달’, ‘새 우는 달’ 등의 자연현상에 맞춰 운치 있는 이름을 만들었을 뿐이다.

또 음력에서는 한 달의 날짜 수가 29일과 30일로 불규칙적으로 바뀌지만, 그 까닭은 순전히 자연현상에 달려 있지, 어느 사람의 생일이 들어 있다 하여 그 달이 길어진 일은 없다. 음력에서는 달마다 15일을 보름[望]이라 하여 달이 가장 둥글게 뜨는 날로 맞춰 놓았다. 그렇게 되면 초하루[朔]는 저절로 결정되고 그 전달의 크기가 29일이나 30일이 되는 일이 없다. 황제의 생월이라고 30일짜리를 31일로 늘려 놓은 서양의 양력과 자연의 리듬에 따라 저절로 한 달의 길이가 결정되는 우리의 음력 중 어느 쪽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는 따져 볼 것도 없다.

그러면 왜 음력은 날짜가 계절과 잘 맞지 않는 걸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원래 음력은 날짜를 달 모양의 변화에 맞게 만든 것이지 계절에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춥고 더운 계절의 변화란 태양의 운동에 따라 좌우된다. 음력에서는 이런 태양 운동을 24절기(節氣)로 나타내고 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하며 이어지는 24절기란 바로 태양 운동을 24등분하여 붙여 놓은 이름이다. 당연히 24절기는 각각의 계절에 정확히 상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음력 속에 들어 있는 양력인 셈이 된다.

우리는 그저 음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음력 속에는 양력 성분이 24절기로 들어 있다. 그래서 과학사에서는 동양의 음력을 태음태양력이라 부른다. 달의 운동을 날짜로 나타내며, 태양의 운동은 24절기로 나타냄으로써 해와 달을 함께 나타낸 훌륭한 역법인 것이다.

음력 날짜를 가지고 계절과 맞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것은 스스로 바보임을 드러낼 따름이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은 절기로 알고 날짜로는 달의 크기만을 알았던 것이다. 지금처럼 조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에게 그날그날 달 모양을 알고 지낸다는 것은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또 달의 모양은 밤의 밝기만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수의 간만도 좌우한다.

음력을 미신적이라 지레 생각하는 사람들은 토정비결이나 사주 등 미신적인 것이 모두 양력 아닌 음력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를 뒤집어 잘못 생각한 일이다. 만약 우리가 음력 아닌 양력을 쓰고 살았더라면 당

연히 양력으로 계산하는 미신들이 발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양력 1월 1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다. 그러나 음력 1월 1일은 달이 새로 생겨나는 날이다. 이것만으로도 양력보다는 음력 1월 1일이 훨씬 자연현상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래 동양에서 음력이 발달할 때에는 지금과는 좀 달리 새해의 시작을 해와 달이 모두 새롭게 되는 그런 때를 골라 설로 만들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지 정월을 지켰던 것이 뒤에 지금과 같은 입춘 정월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읽을 수 있다. 동지 정월이란 동지가 든 달을 첫 달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경우 동지가 그 달의 첫날이 될 경우는 동짓날이 그대로 설날이 된다. 그러면 그 날에는 달도 새로 생겨나고 해도 새로 생겨난다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럴 듯한 새해가 될까?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아야 19년에 한 번이나 일어날까 말까 하고, 대개의 경우는 설이 지난 한참 뒤에 동짓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추위는 동지가 지난 다음에 오니 설을 지나고 한 달 후, 혹은 두 달 동안 추위가 찾아올 것이다. 설은 새해의 시작을 뜻하는데 소한, 대한의 추위가 모두 설 지난 다음에 찾아온대서야 기분이 말이 아닐 터이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동양에서는 새해의 시작을 동지에서 입춘 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것이 과학적이 아니라 하여 다시 동지 정월로 설날을 옮긴 적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695년부터 700년까지에 있었던 일이다. 또 동지를 설로 하려던 생각은 지금도 우리들이 동짓날 팔죽 속의 새알심 수를 따져 나이 먹는 것을 말하는 전설 속에 남아 있다. 또 열두 달을 12지에 맞춰 부를 때 지금도 자월(子月)을 동짓달로 잡고 있다. 원래 자월이 1년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설날이 입춘 정월이라 하여 설날이 입춘이 든 달의 초하루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입춘 정월이라기보다는 ‘우수 정월’이라는 편이 더 정확하지만, ‘봄 기운이 들 때’라는 뜻을 강조하여 ‘입춘 정월’로 부를 뿐이다.

원래 24절기는 정확히 말하자면 12중기(中氣)와 12절기로 되어 서로 번갈아 나오게 되어 있다. 우수, 춘분, 곡우, 소만 등은 중기이고, 입춘, 경칩, 청명 등은 절기가 된다. 그런데 달 이름을 정해 주는 것은 중기이지 절기가 아니다. 음력에서 윤월을 넣는 방법도 바로 이 원칙에 따라 순전히 과학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즉 14일쯤에 절기만 들어 있고 중기가 없는 달은 그 전달이 윤달이 되는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 설명이 어찌면 복잡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요컨대 양력은 계절을 맞추는 데에는 정확하지만 여러 가지 서양 문화의 찌꺼기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쓰기에는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반하여 우리들의 전통적 음력은 날짜가 계절과 맞지 않는다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절을 맞추기 위해서 양력 성분인 24절기가 따로 들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음력에는 동양 사람들의 문화적 찌꺼기가 조금도 붙어 있지 않다. 음력은 순전히 과학적인 역법일 뿐이다.

출전 《다시 보는 민족 과학 이야기》, 두산동아, 2002.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을 논지의 전개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자.

통념	우리는 서양의 것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나, 우리의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	--



통념의 반박	그러나 양력은 _____ _____
--------	------------------------



주장의 강화	음력은 _____ _____
--------	--------------------

2. 본문에는 다양한 피동, 사동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①~③에 담긴 화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해 보자.

〈보기〉	
피동 표현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임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사동 표현은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피동과 사동은 이러한 개념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독특한 심리적 의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표현 의도>	
• 주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다는 의도를 표현	
•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표현	
<사동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표현 의도>	
• 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표현	

① “내 마음은 이번에 일어난 일로 갈가리 찢기고 말았어.”

표현 의도: _____

② “김철수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거둔 성적은 총 8.5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가 내려졌습니
다.”

표현 의도: _____

③ “골목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가, 제 핸들을 틀게 한 것입니다.”

표현 의도: _____

3.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설명에 해당하는 24절기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찾아 써 보자.

_____ <보기> _____
춘분(春分), 입하(立夏), 대한(大寒), 우수(雨水), 입추(立秋), 상강(霜降)

- _____: 경칩(驚蟄)과 청명(淸明)의 사이에 들며 양력 3월 21일 무렵이다.
- _____: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들며, 한 해의 가장 추운 때를 의미한다. 1월 20일경이다.
- _____: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들며, 양력 2월 18일경이 된다.

4.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한자 ‘不’이 붙어 생긴 한자어가 바르게 표기된 것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자.

_____ <보기> _____
대체로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ㅌ’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 ‘ㄷ’이 떨어진 대로 적는다. 예컨대 ‘부당(不當)’이라는 말은 ‘불’과 ‘당’이 합하여진 말이나 ‘ㄷ’ 앞에서 ‘불(不)’이 ‘부’로 읽히므로 ‘부당’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한자 ‘불(不)’이 ‘ㄷ, ㅌ’ 앞에서만 ‘부’로 읽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불납(不納), 부납(不納)
- 불주의(不注意), 부주의(不注意)
- 불실(不實), 부실(不實)

(4) 한옥의 공간 구성 원리, 소통

이상현

우리는 곧잘 집을 우주에 비유한다. 우주라는 한자 말 자체에는 집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다. 아마도 우주가 세상 만물이 어우러져 쉬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집은 우주처럼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공간이어야 하지, 고립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집주인만을 생각하게 되면, 집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가 훼손되고 만다. 그렇다면 한옥은 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공간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한옥은 ‘신’이 함께 할 것을 예비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옥에는 성주신(城主神)과 함께 여러 신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집에 신이 살다니? 그야 과학이 발달하기 전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21세기 대명천지에 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일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집에 신이 산다는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기독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도들의 집을 돌며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한다.

“주여 이 집에 함께하시옵소서. 이 집에 영원히 함께하시며…….”

신에게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애원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옥의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신이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신이 함께한다는 걸 의식하지 못한다. 현실 생활이 우리에게 영성(靈性)이 머물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집에서 흥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작게는 아이를 혼낼 때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일부터, 크게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더 나아가 가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까지 왕왕 이런 일들이 뉴스를 타기도 한다. 이는 집이 신성(神性)을 잃어버리면서 경건성도 함께 잃었기 때문이다. 집에 신이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집이라면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집 옆에 신전을 짓고 살았다. 집을 지을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집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집은 훨씬 경건해질 수 있다.

둘째, 한옥에는 ‘자연’이 사람과 더불어 산다. 집에 자연이 들어와 사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창을 보면 알 수 있다. 창은 사람이 다니자고 만들지 않는다. 도둑이 아닌 이상 창을 넘어 다니지 않는다. 창은 바람과 햇살이 드나드는 곳이다. 한옥은 기둥에 의지하는 뼈대 집이어서 벽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벽을 마음대로 뚫어 쓸 수 있어 자연이 드나들기 좋은 집이다. 한옥은 안팎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마당이다. 마당은 이게 집 안인지 밖인지 헷갈린다. 빈 마당은 자연을 들이는 공간으로 현대 건축에서도 의미를 크게 부여한다. 대청도 경계가 모호한 곳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 된다. 사실 한옥에서는 건물

에 달린 게 창인지 문인지 헛갈릴 때도 종종 있다. 들어열개문은 평상시에는 문으로 쓰지만, 통째로 문을 들어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문을 들어 올려 천장에 걸면, 문이 있던 자리는 커다란 창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한옥에서는 문과 창을 합해서 창호라는 말을 쓴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열린 집이다.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집은 다시 자연을 끌어들이는 순환 구조다. 요즘 아파트와는 거의 대척점에 있다. 베란다까지 실내로 확장하여 꼭꼭 틀어막은 아파트에는 자연이 들어와 머물 공간이 없다.

셋째, 한옥은 ‘타인’과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 담장을 예로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담장은 꽤 높다. 담이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니 당연하다. 그러나 전통 한옥의 담장은 사람 어깨 높이를 잘 넘지 않는다. 요즘 한옥 마을에 가서 만나게 되는 담장은 거의 새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이는 현재 사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높게 쌓은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전통적인 한옥은 담장이 낮아야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 낮선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이웃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툼이 있어도 빨리 화해할 수밖에 없다. 매일 원수가 되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옥에서 타인과 어우러지기에 좋은 곳으로 마당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사회적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한옥의 마당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한옥에는 그 집의 주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신이나 자연 또는 이웃을 위해 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옥의 공간 구성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고려 대상은 바로 네 번째 요소인 ‘집주인’이다. 한옥이 집주인을 위한 집이라는 사실은 건물 사진을 보면 직감할 수 있다. 한옥을 찍은 사진은 집 안에서 밖을 향해 찍은 것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건물 사진을 보면-요즘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거의 건물 외경을 찍은 사진이다. 이런 태도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건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 준다. 서양 건축은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한옥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 한옥이 경건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집이라고 해서 집주인에게는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산에 사는 신과 자연을 존중하여 산발치에 집을 지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 편하다. 산머리에는 바람이 불어 견디기 힘들다. 이런 태도는 건축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 서양 건축은 황금 비율이라는 이상적인 수치에 매달리지만, 한옥은 특정한 비율에 매달리지 않는다. 한옥도 ‘구고 현법’이라는 비율을 써서 집을 짓는다. 구고 현법은 직각 삼각형이 가지는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한옥은 이 비율을 중시하지만 이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비율은 평면적이지만 집은 입체적이어서 비율을 고집하면 집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는 사람이 다르면 한옥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한옥이 사람을 위한 집이라고 할 때 사람은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집에 사는 구체적인 사람이다. 한옥이 사람 중심의 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많다. 머름(문턱보다 높은 창턱)의 높이, 뒷마루(건물의 바깥 기둥 안에 만든 마루로, 바깥 기둥 밖의 처마 밑에 만드는 쪽마루와 구분된다.)와 대청의 높이, 천장의 높이, 문의 크기, 마당의 넓이. 모두 사는 사람을 배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환경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생겼다.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

는 영향을 다루는 학문으로, 건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람에게 좀 더 나은 건물을 짓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환경 심리학이 연구하는 많은 부분은 한옥에서 이미 고려해 왔던 사항이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구한 인간 중심의 건축이 첨단 학문으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한옥에서는 각진 것보다는 둥근 것을, 화려한 색보다는 편안하고 온화한 색을, 지나치게 밝은 것보다는 적당히 밝은 것을, 급격한 변화보다는 중간 영역인 마당처럼 온건한 변화를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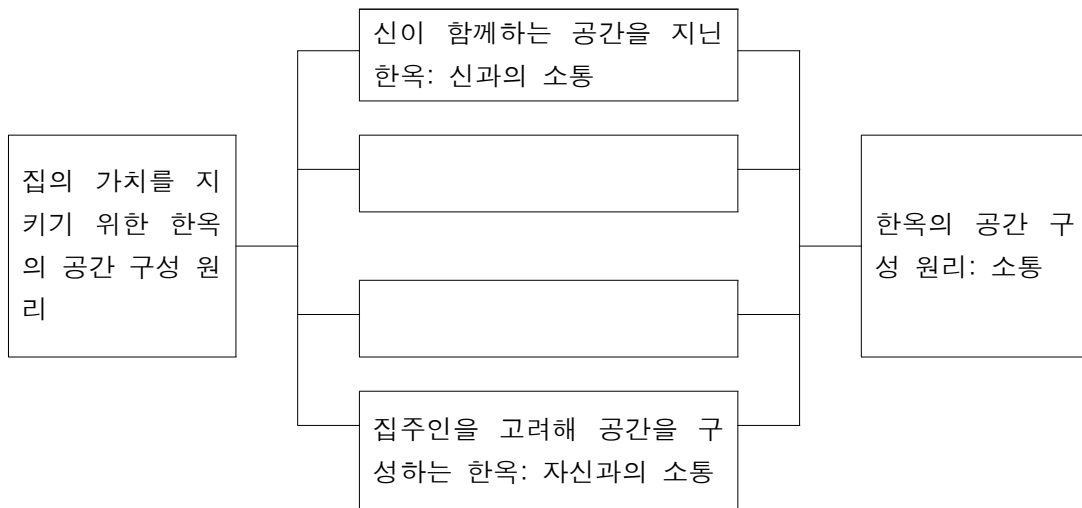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옥의 공간 구성 원리는 ‘자기와의 소통’이다. 전통 한옥에는 다락이나 장독대처럼 자투리 공간이 많다. 다락이나 장독대 뒤편은 언제나 자기만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혼나면, 다락에 숨어들고는 했다. 거기서 서러움을 울음으로 토해내고 나면, 어둠 속에 사물들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어둠 속에서 사물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요즘이라면 어림도 없는 사치다. 현대 건축은 공간을 능률적으로 쓰기 위해 자투리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에서 감정이 요동칠 때 마음의 변화를 유도할 자투리 공간은 꼭 필요하다. 자기 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락이 기분 전환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공간이라면, 자기 방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옥의 공간 구성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다. 신과의 소통, 자연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과의 소통. 결국, 사람이 사는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그래서 한옥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어우러질 수 있다. 한옥이 좋은 것은 단지 나무와 흙으로 지은 생태 건축이어서가 아니다. 한옥에는 술한 세월 동안 쌓아 온 이런 문화적인 편안함이 숨어 있다. 아파트가 갖지 못한 가치다. 많은 문제가 산적한 현대 사회의 문제도 근본에는 소통의 부재가 깔려 있다. 이 때문에 한옥의 소통 정신은 살림집의 공간 구성 원리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구성 원리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전 《한옥과 함께하는 세상 여행》, 채륜서, 2012.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보자.



2. 다음의 문장을 보고 우리말의 시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런 한옥의 마당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다.

(1) 위 문장의 시제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위 문장에서 시제를 알 수 있게 하는 어휘를 모두 찾아보자.

(3) 위의 문장을 바꾸어 표현한 것 중에서 어색한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보기〉

- ① 이런 한옥의 마당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살펴본다.
- ② 이런 한옥의 마당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살펴보겠다.
- ③ 이런 한옥의 마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살펴보았다.
- ④ 이런 한옥의 마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살펴본다.
- ⑤ 이런 한옥의 마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살펴보겠다.

• 어색한 문장: _____

3. 다음 문장에 사용된 ‘우리’와 같이,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보자.

- 우리는 곧잘 집을 우주에 비유한다.
- 신에게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애원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옥의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다.

〈보기〉

- 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 ② 우리 먼저 나간다. 수고해라.
- ③ 아, 맛있다. 음식하면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 _____

4.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가치’와 ‘같이’의 발음을 생각하며,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 한옥의 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공간 구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 신에게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애원하는 것이다.

(1) 밑줄 친 두 어휘의 발음을 적어 보자.

- 가치: []
- 같이: []

(2) ‘같이’와 동일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보기>에서 골라 보자.

〈보기〉

꽃밭, 밭에서, 밭이, 밭이랑

- 동일한 음운 현상인 것: _____

(5) 백성들이 정말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는가

구덕회

조선 시대에는 백성들이 신문고를 두드리려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언론 제도가 발달하여 왕권의 전횡(專橫)을 견제하고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탄핵하여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치를 잘못 하여 신하들에게 쫓겨난 왕들도 있었고,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갖고 국정을 좌우한 고위 관리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하층민들이 양반·지주나 지방의 수령들로부터 수탈을 당하여 억울하게 재산과 처자식을 빼앗기거나 남의 노비가 되기도 하고, 고향을 버리고 몰래 도망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심지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도 많았다. 이것은 제도와 그 운영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그 실상이 잘못 알려진 때문인가?

언론 기구의 대표, 삼사(三司)

조선 시대에는 앞 시기에 비해 언론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기능이 강화되고 활동도 보장되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관리들은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서울의 주요 관원들은 윤대(輪對) 제도를 통해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왕을 교육하는 자리인 경연에서 왕과 함께 현실 정치나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었다. 또한 상소도 널리 허용되었다.

조선 시대의 언론은 건국 초에 사헌부와 사간원이 설치되고, 세종 때의 집현전을 계승하여 성종 때에 홍문관이 세워지면서, 이른바 언론 ‘삼사(三司)’의 제도로 정비되었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주로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 탄핵, 왕에 대한 간쟁과 더불어, 관리 임면과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심사하는 서경(署經)을 담당하였다. 홍문관원은 경연관으로서 왕의 공부를 돕고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외에, 대간[사헌부와 사간원]의 언론에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여 언관으로서 기능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사림 세력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언론 관행이 만들어졌다. 삼사의 언관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동료들과의 합의를 거쳐 논의를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세하는 양사 합계(合啓), 여기에 홍문관까지 가세하는 삼사 합계를 이루어 그 언론이 공론(公論) 곧 다수의 공통된 견해를 표방하고 나서게 되었다. 아울러 소문으로 들은 사실에 근거해서도 탄핵할 수 있는 풍문거핵(風聞擧劾)과 그 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불문언근(不問言根)의 관행도 확립되어 언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삼사 관원들은 동료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왕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또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그 자리를 피

하는 피험(避嫌)을 하였다. 피험에 대한 처치도 삼사 스스로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피험과 처치는 삼사 관원들이 자주 교체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가 되었다. 한편 삼사의 탄핵을 받는 관원은 그 결말이 내려질 때까지 근무를 중단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변론하여 대간과 다툴 수도 없었다. 국가의 정책 추진도 삼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할 때까지 시행이 중지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관행이 쌓이면서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이 되는 관리이므로 모든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국가의 기밀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도 대간에게는 문서로 알리거나 그 논의 과정에 대간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삼사의 언론 기능이나 내용은 왕을 비롯한 권력 집단의 성격,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져 항상 일정치는 않았다. 그러나 명문이나 윤리·풍속에 관련된 사안, 관리들 특히 수령·감사 등의 인사 문제나 비리 행위는 항상 삼사 언론 활동의 중심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유교적인 지배 체제의 확립이 중심 과제였으므로 삼사의 언론도 그 영향을 받았다. 왕권이 비교적 강했고 공신이나 고위 관료들이 정국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대간의 언론은 별 힘을 얻지 못했고 그 활동도 미약했다. 16세기에 이르러 새로이 성장한 사림 세력은 주로 삼사에 자리 잡고 기득권을 가진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논핵(論劾)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언론 관행이 쌓여 나갔고, 그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 말에 이르러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삼사의 언론은 더욱 활발해졌다. 삼사를 통해 상호 비판과 견제가 봉당 간의 세력 균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봉당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해지자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몰아내거나, 자기 세력을 비호하고 끌어들이는 데 삼사의 언론이 그 첨병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영조·정조 대에 탕평 정치가 추진되면서 삼사의 활동은 정치적인 성격이 줄어들고 대신 정치 기강의 확립이나 관리의 비리 탄핵, 민생 문제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도 정치가 이뤄지면서 삼사의 언론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제 삼사는 세도 가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본래의 기능조차 상실하였다.

지방 사족의 여론과 언론(言路)

16세기 이후에는 지식인층이 확산되고 지방 사족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족들은 향약을 통해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하층민들을 통제하였으며, 서원을 통해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원래 후진 교육과 선현들의 제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서원은 지방 유생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므로 지방의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서원들은 서로 연락망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심 서원이나 향교에 모여 여론을 모으기도 하였다. 서원을 통해 모아진 여론은 그 서원 출신의 관리들을 통해 중앙 정계에 반영되기도 하고, 집단적인 상소의 형태로 왕에게 올려 지기도 하였다.

한편 사족들은 유향소(향소)에 참여하여 수령을 보좌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등

지방 행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임인 향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하기도 하였다. 향회에서 결의된 의견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일차적으로 수령과 관찰사에게 올려지고 최종적으로 왕에게 상소되었다. 유향소와 향회가 지방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였기 때문에 18세기에는 이를 둘러싸고 새로이 성장한 지방 세력과 향전(鄉戰)이라는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16세기 말에 형성된 봉당은 주로 학파를 중심으로 결집되었으므로 자연히 지방의 서원과 연계를 맺고 있었다. 남인들은 경상북도 일대에 있는 이황과 그 제자들을 모신 서원과 연결되고, 북인들은 경상남도 일대에 있는 조식과 그 제자들을 모신 서원과 연결되었으며,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서인은 경기와 충청·호남 지방의 서원들과 연결되어 이들 지역을 각각 자신들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즉 지방의 서원은 지방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에 반영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중앙 정치 집단의 지역적 기반이었다.

바로 이러한 서원과 중앙 정치 집단 사이의 연결이 중요한 언론의 구실을 하였고, 그 배후에서는 산림(山林)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림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향촌 사회의 세력을 근거로 재야에 머물면서도 자신의 추종자들을 통해 중앙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정인홍, 김장생과 송시열, 허목 등 대표적인 산림들은 각각 북인, 서인, 남인의 우두머리로 인식되었고, 그 정권의 이념적 지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당대의 사상을 주도하고 정치 전반에 걸쳐 의견을 개진하였다. 중앙의 언론은 이들의 뜻을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서원을 통해 형성된 지방의 여론이나 산림들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지배층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삼사의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지배층의 언론이 피지배층인 일반 백성들의 입장을 전혀 도외시한 것만은 아니었다. 민생의 안정은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사회·경제 정책이나 수령과 관찰사의 비리·부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본 정치를 표방하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피지배층인 일반 백성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억울함은 다른 통로로 해결되어야 했다.

백성들이 정말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나

조선 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중앙 정부나 지방 수령, 그리고 지방의 토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과 피해를 자주 당하였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의 불법이나 부정은 대개 은폐되고, 법을 집행하는 관원들의 오관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하게 재산이나 처자를 빼앗기기도 하고, 양인이 천민으로 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인 백성이 힘에 눌려 가해자로 바뀌어 형벌을 당하는 경우도 생겼다. 더구나 조선 초기에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백성들이 수령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이 가중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국가에 대한 부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는 대신 공동납의 형태로 바뀌면서 집단적인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힘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명이거나 체념하고 이를 감수하

거나 아예 자신의 억울함을 깨닫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의식이 있거나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왕을 비롯한 지배층도 안정된 지배의 유지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과 민심 획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소원(訴冤)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신문고와 상언(上言)·격쟁(擊錚)의 제도가 그것이었다.

1401년(태종 1년) 7월 태종은 중국의 제도를 본떠서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처음에는 등문고라 했음.)를 설치하였다. 신문고는 의금부 당직청에 있었고, 영사(令史) 1명과 나장(螺匠) 1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신문고를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 때나 신문고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먼저 담당 관원에게 호소하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헌부에 호소하게 했다. 지방에서는 먼저 자기 고을의 수령에게, 그 다음 관찰사에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헌부에 호소하도록 했다. 사헌부의 처리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신문고를 치도록 하였다. 이때 각 단계별로 전 단계의 관원에게서 그 사안을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다음 단계에 호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신문고를 칠 수 없게 했고 오히려 엄한 벌을 내렸다. 정치의 득실이나 민생의 안정과 관련되어 건의할 것이 있는 사람도 먼저 의정부에 올렸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문고를 칠 수 있게 했다. 다만 역모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바로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신문고를 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지키던 영사가 먼저 의금부의 관리나 당직원에게 보고한 후에 사유를 확인해서 사안에 따라 신문고를 칠 수 있게 하였다. 역모에 관한 일이면 바로 신문고를 치게 하였고, 정치의 득실이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절차가 제대로 거쳤는지 사유가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자세히 물어 조서를 받은 다음에야 복 치는 것을 허락하였다. 신문고를 치면 의금부의 관원이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지시에 따라 해당 관청에서는 5일 안에 처리해야 하였다. 신문고를 친 사람의 억울함이 사실이면 이를 해결해 주었고, 거짓일 경우에는 엄한 벌을 내렸으며, 해당 관원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신문고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제약이 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차를 어기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령이나 관찰사들이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신문고에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신문고를 칠 수 있는 사유도 크게 제한되었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일이나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것만이 허용되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대신 신문고를 치는 것도 금지되었다. 다만 억울하게 대간의 탄핵을 당한 관리들의 경우 신문고를 칠 수 있도록 한때 허용되었다. 그 후 16세기에 이르러 형벌로 자신이 죽게 된 경우와 부자 관계를 가리는 일, 정실부인인지 첩인지를 가리는 일, 양인인지 천인인지를 가리는 일에 대해서도 신문고를 칠 수 있게 조금 확대되었다.

그러나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신문고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다. 수령이나 관찰사 또는 서울의 해당 관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가 신문고를 통해 왕에게 알려지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유형·무형의 압력과 회유를 통해서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신문고 앞에 이르러도 이를 지키는 의금부 관원들의 방해에 부딪치게 된다. 실제로 신문고를 치는 데에 비교적 제약이 적었던 세종 때에도 노비인 자재(自在)라는 여자가 의금부 당직원의 금지로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되자, 법을 어기면서 광화문의 종을 두드려 원통함을 호소하려 한 일도 있었다. 더구나 중죄인들을 다스리는 의금부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두려움은 신문고에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문고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방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시대 전 시기에 걸쳐 거의 그대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신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사는 전 현직 관리들이었고, 그 사유도 토지나 노비의 소유권과 관련된 송사에 대한 불만이나 경제적인 이권과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나마 특권 지배층의 반발로 세조 때부터 폐지와 설치가 반복되었던 신문고는 결국 종종 때 아예 폐지되고 말았다.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문고가 유명무실해지자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언과 격쟁만이 남게 되었다. 상언은 대부분 왕의 행차가 있을 때 그 앞에 나아가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격쟁은 왕이 있는 곳 근처에서 시끄럽게 징을 울려 왕의 이목을 끈 다음 구두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독특한 제도였다. 상언은 신문고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 쉬운 것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알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격쟁도 별다른 제약은 없었지만 격쟁을 한 사람은 먼저 형조의 취조부터 감수해야 하였다. 상언이나 격쟁도 처음에는 신문고와 마찬가지로 호소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제한되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상언과 격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지배층들은 그 남발에 따른 분란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려 하였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국 18세기 초에 이르러 아들이나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한 일, 지어미가 지아비를 위한 일, 아우가 형을 위한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한 일과 기타 지극히 원통한 일에 대해서도 상언과 격쟁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다른 사람이 대신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농민층 분해와 상공업적인 분위기의 진전, 그에 따른 신분제의 동요 등과 같은 사회 경제의 변동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일반 백성들의 저항 의식도 성장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였다.

영조는 백성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일을 여러 번 되풀이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등 상언과 격쟁이 남발되었고 제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웠다. 이를 바로잡는

것을 내세워 1771년(영조 47년) 11월에 창덕궁 진선문(進善門)과 경희궁 건명문(建明門) 앞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규정된 내용만을 호소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내용이나 수단은 일절 금지하였다. 이때의 신문고는 궁궐 안에 설치되었고 그 이용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어 겉으로 내세워진 명분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정조는 백성들의 병폐를 적극 수렴하려 하였고 이에 상언·격쟁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로부터 상언·격쟁이 대폭 허용되고, 민폐 일반에 관계되는 사안 모두가 대상이 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19세기에는 세도 정치가 이뤄지면서 삼사의 언론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었다. 삼사의 관원들이 외척 세도 가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수는 없었다. 신문고나 상언·격쟁의 제도 역시 제약이 강화되어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져 갔다.

억울함을 풀 길이 막힌 백성들은 적극적인 저항의 길로 나섰다. 지방관이나 악덕 지주들의 죄상을 폭로하기 위해 집단으로 상급 기관에 항의하거나[정소: 呈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와언: 訛言], 부정한 관리나 지주의 집에 요구 사항과 온갖 욕설을 담은 글을 살포하였으며[투서: 投書], 그러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기도[괘서: 掛書] 하였다. 나아가 동헌 뒷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수령과 아전들의 비리를 외치거나[산호: 山呼], 밤에 횃불 시위를 하기도[거화: 擧火]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래 전부터 이용되었지만, 19세기에 한층 활발해졌다. 더구나 부세 제도의 문란으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고, 이제 개인 차원을 떠나 집단 민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백성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 더욱 심해지자 19세기 전반부터 일반 백성들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봉기’를 일으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출전 《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청년사, 2005.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보기>의 어휘를 활용하여 빈칸을 채워 보자.

_____ <보기> _____		
격쟁, 상언, 서원, 신문고, 홍문관		
서론	조선 시대 언론 제도에 대한 고찰	
본론	지배층의 언론	언론의 대표적 기구였던 삼사 - 사헌부, 사간원, ()
		지방 사족의 여론과 언론 - ()
	백성들의 언론	백성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알리는 ()
		왕의 행차에 나아가 글을 올리는 ()
		징을 올려서 왕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
결론	다양한 형태를 보인 조선 후기 백성들의 언론 방법	

2.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높임 표현이 쓰인 예를 <보기>에서 찾아보자.

18세기 초에 이르러 아들이나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한 일, 지어미가 지아비를 위한 일, 아우가 형을 위한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한 일과 기타 지극히 원통한 일에 대해서도 상언과 격쟁이 허용되었다.

_____ <보기> _____
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저자입니다.
② 저희가 먹던 것을 어떻게 선생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③ 어머니, 당신께서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셨지요.

3. 다음의 밑줄 친 어휘는 문장 전체와 관련을 맺는 문장 부사어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이와 같은 용법을 가진 부사어를 찾아보자.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신문고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제약이 심하지는 않았었다.

부사는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를 성분 부사라고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문장 부사라고 한다. 문장 부사 중에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한다.

- ① 바로 눈앞에 있었어도 못 찾았다.
② 초행이었지만 다행히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③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①~④에 적절한 ‘ㄴ’ 발음을 찾아보자.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제5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는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ㄴ]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① 향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②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③ 이것은 운영의 잘못 때문인가.
④ 동의할 때까지 시행이 중지되었다.

‘ㄴ’로 발음할 수 있는 것	‘ㄴ’로 발음할 수 있는 것	‘네’로 발음할 수 있는 것

쉬어 가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우리의 각오

연설일자 1948.08.15.

대통령명 이승만

외국 귀빈 제씨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 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렵습니다. 4천여 년을 자치 자주해 온 역사는 막론하고 세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써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모든 방해와 지장에 대하여 일시의 악감이나 낙심 애절하는 상태를 보이지 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만 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 같은 기초 위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아니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요,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건국 기초에 요소가 될 만한 몇 조건을 간략히 말하면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 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하의 사소한 장애로 인해서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대정 방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 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 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전제 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치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하고 30년 전부터 결정해서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래로 저의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 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수난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 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험 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 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행사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으로 공고하며 밖으로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럽게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 분자가 있다면 공산 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 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함께 병행불패(並行不敗)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 전쟁을 피하고 전 민족의 활동을 도모함이니 우리의 활동과 단합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고 시대부터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6.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과연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에 위협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하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줄로 아는 바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 사이에 대소 강약을 물론하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 되는 것과 전쟁과 평화에 화복 안위를 같이 당하는 이치를 다 깨닫게 되므로 어떤 적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이 모든 큰 나라에 동일하게 관심 되는 것입니다. 연합국과 모든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왕에 밝히 표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은 이 세계의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준 것인데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요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의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 군정은 끝나고 대한 정부가 시작되는 이날에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인 사이에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에 돕는 것이니 우리 토지의 일척일촌(一尺一寸)이나 우리 재정의 일푼전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연 정의와 인도의 주의로 그 나라의 토대를 삼고 이것을 세계에 실천하는 증거가 이에 또다시 표명되는 것입니다. 겹하여 과도기에 미국 장교들을 도와서 계속 노력한 모든 동포들의 업적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우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 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또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미 점령군 사령관이요 지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우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새로 건설되는 대한민주국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의 좋은 친구 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주의(主義)하는 바는 기왕에 친근히 지내던 나라와는 더욱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요 기왕에 교제 없는 나라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열기로 힘쓸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 연합의 회원 된 나라들을 일일이 다 지명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많은 동정을 표하였으며 작년 11월 14일에 한국을 위하여 통과한 결의로 우리의 독립 문제를 해결되게 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중 더욱이 유엔임시위원단에 대표를 파견한 그 나라들이

민주적 총선거를 자유로 거행하는 데 도와주어서 이 정부가 생기게 한 것을 특별히 고마워하는 바입니다. 이 앞으로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릴 때에 우리나라 승인 문제에 다 동심 협조하여 이만치 성공된 대사업을 완수하게 하기를 바라며 믿는 바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가 북편을 돌아보고 비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1천만 우리 동포가 민국 건설을 우리와 같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다 원하였으나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요. 다음에는 세계 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도 약한 이웃의 강토를 무단히 점령케 하기를 허락한다면 종차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자유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니만치 우리가 자유로 사는 것을 그 나라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선을 지키며 지내는 것과 같이 소련과도 친선한 우의를 다시 교환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 우방들의 후의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금후로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깊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것은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감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애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에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 《이대통령훈화록》, 金玼燮 편, 중앙문화협회, 1950.

3.

조상들의 미의식을 찾아서

-
- (1) 고려청자
 - (2) 우리 음악의 일반적 특징
 - (3) 김홍도의 <씨름>
 - (4) 한국의 탈춤
- 쉬어 가기 ‘고려청자/우리 음악’
-

(1) 고려청자

유홍준

인간이 만들어 낸 생활 용기 중 아직까지 도자기(陶瓷器) 이상 좋은 것은 나오지 않았다. 예부터 나무 그릇, 옷칠 그릇, 질그릇, 놋그릇, 은그릇 등을 사용해 왔고 오늘날에는 유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 스틸·플라스틱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자기처럼 깨끗하고 보기 좋고 위생적인 용기는 발명되지 않았다.

도자기는 도기(potter)와 자기(porcelain)로 분류한다. 간혹 유약이 있으면 자기, 없으면 도기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는 올바른 분류가 아니다. 또 1200도 미만의 낮은 화도(火度)에서 구워내면 도기, 1300도의 높은 화도로 구워내면 자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분류법은 아니다.

명확히 말해서 바탕흙인 태토(胎土)가 도토(陶土)면 도기, 자토(瓷土)면 자기다. 도토는 쉽게 말해 진흙이고 자토는 철분이 적은 점토(粘土) 또는 흰 돌가루인 백토(白土)이다. 도토는 600~1200도에서 구워지며 화도가 그 이상 올라가면 주저앉고 만다. 이에 비해 자토는 1200~1400도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구워지며 대체로 1300도가 적정 온도다. 이 때문에 도기는 그릇이 두껍고 투박하며 투명하지 않고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난다. 이에 비해 자기는 가볍고 얇고 반투명체로 비치며 두드리면 맑은 쇠소리가 난다. 모든 면에서 자기는 도기보다 더 발전한 우수한 용기이다.

도기는 일찍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란, 그리스, 멕시코 등 전 세계 고대 국가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로 발전시켜 갔다. 그러나 자기를 전 세계인이 공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자기를 처음 만들어 낸 곳은 중국이다. 중국인들은 1세기 무렵 초보적인 자기를 만들기 시작하여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이르면 완벽한 청자(靑瓷)를 만들어 냈다. 뒤이어 고려인들이 10세기 후반부터 초보적인 청자를 만들어 11세기엔 청자다운 청자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12세기는 송나라와 고려 모두 청자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어느 나라도 청자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자기 문화를 갖고 있던 나라는 오직 중국과 고려뿐이었다.

자기 기술을 주도해 온 중국은 14세기에 이르면 청자에서 백자(白瓷)로 전환했다. 조선은 독자적인 분청자(粉靑瓷) 문화를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백자의 길로 들어서서 15세기가 되면 중국과 다른 조선백자의 독특한 도자 세계를 구현하였다. 베트남도 15세기에는 약간 질이 떨어지지만 안남(安南) 자기라 불리는 백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조선 도공의 힘으로 아리타야키(有田焼)를 열면서 일본이 백자 문화에 동참하였고, 18세기 초에는 독일의 마이센(Meissen)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도 백자를 만들어 냈다. 이로써 전 세계가 오늘날까지 백자 문화를 갖게 된 것이다.

고려청자의 기원과 다완(茶碗)

고려청자의 발생에 대해서는 《고려사》를 비롯한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다. 학자에 따라서는 장보고의 해상 활동과 해무리굽의 유래를 근거로 9세기 전반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유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대략 고려 초인 10세기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는 신라로부터 이어받은 우수한 도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 고려 도기는 청자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생활 문화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아직 청자를 만들지 못하던 때에는 중국 청자를 수입하여 고급 자기 문화를 접하고 있었다.

9세기, 당나라 말기부터 크게 발달한 중국 청자는 생활 문화의 일대 혁명이었다. 특히 선승(禪僧)²²⁾들은 청자 다완을 애용하였다. 선종의 참선에서 차는 필수였다. 차는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와 선이 밀접해지면서 다선일치(茶禪一致)를 말할 정도로 차가 더욱 중요해졌다. 당나라의 육우(陸羽)는 《다경(茶經)》에서 “다완의 최고는 월주요의 청자완과 형주요(邢州窯)의 백자완이다.”라고 하였다.

하대 신라의 도당 유학승들은 중국에서 이 차 문화에 익숙해졌고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선풍이 일어나면서 국내에도 차의 생산과 수요가 급증하였다. 김대렴(金大廉)이 지리산에 차나무를 심은 것도 9세기의 일이다. 통일신라의 9세기 유물층에서는 중국 청자다완과 백자다완이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다완은 엄청나게 비쌌을 뿐만 아니라 오대라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월주요의 청자다완은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바로 이때 고려는 월주요 도공들을 받아들이면서 청자다완의 자체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고려 초기 청자 가마가 월주요식 벽돌가마이고 주 생산품이 다완이었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중략)

11세기 고려청자

11세기로 들어서면 서해안 변에 청자가마가 많이 열리게 된다. 강진 용운리, 해남 신덕리, 부안 유천리, 고창 용계리, 고양 원당리 가마 등이 있다. 이 청자가마들은 대개 인근에 소규모 도기가마가 있던 곳이다. 이 무렵 청자 중에는 질그릇과 닮은 광구병(廣口甁), 접시, 발(鉢) 등이 많은데, 이는 도기의 전통이 청자로 이어져 발전했음을 말해 준다. 특히 강진 가마와 부안 가마에서 발군의 청자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모든 가마에서 뛰어난 청자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다. 해남 진산리 가마와 인천 경서동 가마에서는 짙은 갈색과 짙은 녹색을 띠어 ‘녹청자’라 불리는 조질(組質) 청자를 제작하여 관용 자기와 생활 자기로 사용되었다.

11세기는 요나라 연호를 사용하고 요와의 교류가 빈번한 시기였다. 이 때문에 고려청자는 중국 북방 청자인 요주요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청자가 녹갈색을 띠고, 무늬를 틀로 찍어내는 압출양각(壓出陽刻) 기법이 다완에 구사되며, 앵무새·물고기·꽃무늬 등이 나

22) 선승(禪僧): 참선하는 승려.

타난 것은 중국 북방 청자의 영향이다. 고려청자에서 오랫동안 유행한 포류수금무늬(蒲柳水禽文)의 연원도 요나라로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청자양각꽃무늬다완, 청자음각앵무새무늬다완 등이 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얇은 연두색을 띠고 무늬가 예리한 음각선으로 새겨지거나 압출 양각으로 정교하게 나타나며, 기벽이 매우 얇고 기형의 바깥 선이 곡선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한편 고려는 외교적으로는 요나라에 사대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송나라와 교류하며 남방 청자를 여러 가지로 받아들였다. 특히 11세기 3/4분기인 문종(1046~1083) 연간에 이르러서는 송나라와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재개되어 송나라의 발달된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입되었다. 문종 연間は 고려의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다. 이슬람 지역과의 교역도 이루어지고 일본 사신이 개성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문화적으로 활기를 찾았다.

강진과 부안의 자기소

11세기 이후 고려청자는 강진과 부안의 가마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강진군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에 200여 곳,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일대에 70여 곳의 가마터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가마가 동시에 가동된 것은 아니었다. 대개 5~10곳 정도의 가마가 10~20년마다 옮겨 다녔다. 당시 가마의 운영에는 땔나무를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나무를 다 베어 쓰고 나면 나무 조달이 쉬운 곳으로 가마를 옮긴 것이다. 그리하여 강진의 경우 11세기 중엽에는 용운리, 12세기에는 사당리, 13세기에는 계율리, 14세기에는 수동리로 옮겨 갔다.

청자를 만드는 도공은 일반 농민보다 신분이 낮은 잡척(雜尺)²³⁾이었다. 고려 시대 신분제도는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는 양천제(良賤制)인데 잡척은 도자기, 떡, 종이, 소금, 광산 등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양인의 최하층으로 향(鄕), 소(所), 부곡(部曲)이라는 특수 행정단위에 거주하였다. 조선 왕조에서는 왕실의 필요 물품을 군현 단위에 맡겨 민간이 생산하게 한 것과는 달리 고려는 일종의 사회적, 지역적 분업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많은 소가 호남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도자기의 경우도 강진과 부안에 자기소가 설치되었다.

강진과 부안 가마에서 생산된 청자를 고려 정부가 어떻게 경영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고려사》에 제요직(諸窯直)이라는 관명이 나오고, 2008년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 시대 배에서 개성의 참판에게 보낸다는 물표가 달린 청자 꾸러미가 나왔다. 어떤 식으로든 조정의 관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2세기 예종 연간의 문화 발전

12세기 1/4분기인 예종 연간으로 들어서면 고려청자는 완성 단계로 들어가, 전에 없이

23) 잡척(雜尺): 잡직에 있던 사람.

높은 수준의 청자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청자의 빛깔이 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한 것이다. 이는 종래의 산화염을 높은 화도의 환원염으로 바꾸면서 얻어낸 성과였다.

예종 연간은 문신 귀족 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시기였다. 요나라의 압박으로 소원했던 송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송나라는 난숙(爛熟)한 문화를 보여 주던 휘종 때로 고려가 이를 적극 받아들였다.

예종은 궁궐 안에 ‘청연각(淸燕閣)’이라는 도서관을 세웠고, 중국의 대성악을 들여와 고려 아악을 정비했다. 이때 송나라의 황실 전용 가마를 본받아 강진 가마를 거의 왕실용 가마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진 청자는 더욱 발전하여 고려 고유의 비색(翡色) 청자로 나아가게 된다.

이 시기 청자에 대한 증언은 예종이 죽은 이듬해인 인종 원년(1123)에 송나라 사신 노윤적(路允迪)을 수행하여 고려에 왔던 서공의 《고려도경》에 무엇보다도 잘 나와 있다.

서공의 《고려도경》

흔히 줄여서 《고려도경》이라 부르는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은 서공이 개성에 약 1개월간 머물면서 본 바를 귀국 후 저술하여 이듬해(1124)에 완성한 책으로 휘종 황제에게 바쳐졌다. 선화는 휘종의 연호다. 서공은 이 책에서 고려의 건국, 성읍, 궁전, 인물, 사우, 민서(民庶), 잡속(雜俗), 기명(器皿) 등 28개 편을 300여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그림까지 덧붙였다. 휘종은 이 책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서공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 주었다. 그러나 2년 뒤인 1126년 금나라가 송의 수도 개봉을 유린할 때 이 책은 소실되었다. 다행히도 서공의 집안에는 부분(副本)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그림은 없고 글만 있었다. 서공의 조카는 1167년에 이를 간행했다.

이 책은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실감나게 증언해 준다. 그중에는 고려청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고려청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려 주는 기념비적 문헌 자료가 되었다.

《고려도경》의 비색청자 서공은 잔치에 나오는 음식들을 묘사한 <연례(燕禮)>편 ‘연의(燕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릇은 대부분 도금한 것을 썼다. 은으로 된 것도 있으나 청자(靑瓷器)를 귀한 것으로 쳤다.

또 <기명> 편에서는 ‘도준(陶尊, 도기 술병)’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년 이래로 제작 솜씨가 공교(工巧)해졌고 빛깔도 더욱 아름다워졌다. 술 그릇의 형상은 오이 같은데 위에 있는 작은 뚜껑은 연꽃에 얹드린 오리 형태를 하고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발, 꽃병, 탕 그릇도 만들 줄 알았으나 모두 중국의 정기 제도(定器制度, 그릇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를 모방한 것이기에 그림을 생략하

였고, 술그릇만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드러내었다.

고려청자의 비취색을 비색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아울러 빛깔이 생명인 청자의 기술이 완성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서궁은 고려청자의 많은 기형이 중국의 것과 닮았다며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무렵 청자 중에는 그런 기형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중국의 청동 제기 중 정(鼎)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청자도철(饗簋)무늬향로는 국내외에 여러 점 전하고 있다. (중략)

인종 장릉 출토 청자참외모양꽃병

12세기 고려청자의 세련된 모습은 무엇보다도 인종(1146년 졸) 장릉(長陵)에서 출토된 청자들이 잘 보여 준다. 1916년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일본인 골동품상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정식 학술 발굴에 의한 출토품은 아니지만 한결같이 질이 우수하다. 청자 이외에도 인종의 옥돌 시책과 숟가락·젓가락, 청동내합과 옥돌외합, 청동인장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자 중 백미는 단연 청자참외모양꽃병이다. 몸체는 여덟 개의 골이 파인 참외모양으로 볼륨감이 야무지며 목이 상큼하게 뻗어 올라갔다. 넓게 벌어진 입술은 꽃잎 모양으로 예쁘게 돌려 있으면 굽은 주름치마처럼 여러 갈래로 넓게 퍼져 안정감을 이룬다. 형태가 아름답고 질감이 부드러우며 빛깔은 전형적인 비색이고 유색(釉色)은 아주 맑으면서 은은하여 왕가의 유물다운 품위가 있다.

이와 같은 참외 모양의 꽃병은 원래 송나라에서 온 것으로 경덕진요에서 제작한 비슷한 꽃병이 개성에서 출토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참외 모양 꽃병들은 대개 목이 짧고 몸체가 뚱뚱하며 굽도 낮아 양감은 풍부하지만 둔중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에 반해 장릉 출토 꽃병은 아주 늘씬하고 상큼하며 무엇보다 기품이 넘친다. 즉 국제 양식을 받아들여 고려적으로 멋지게 세련시켜 재창조해 낸 것이다. 강진의 사당리 7·8호 가마터에서 이와 동일한 꽃병의 도편이 수습된 바 있다.

청자참외모양꽃병과 함께 출토된 청자합, 청자 접시, 청자 받침 등도 모두 고려 비색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기형 자체가 단아하면서도 품위 있다. 특히 접시는 기벽이 아주 얇아 더욱 고고한 멋을 풍긴다. 《고려도경》에서 서궁은 대신들의 말을 인용하여 임금의 “검소를 보배로 삼고 넘치는 행동이 없으며, 옷은 무늬 있는 비단을 입지 않고, 그릇은 조각한 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장릉 출토 청자들은 모두 무늬 없는 순청자뿐이었다.

천하제일 고려 비색

12세기 1/4분기의 예종, 2/4분기의 인종, 3/4분기의 의종 연간은 고려청자의 전성기이자 완성기였다. 특히 송나라(북송)가 멸망하여 남쪽으로 피난 가는 바람에 중국(남송)과의

교류가 뜸해지자 고려청자는 자기 발전을 꾀하여 더욱 고려풍으로 세련되었다. 명·청 교체기를 거치면서 진경산수라는 조선의 산수화풍이 확립되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의종은 처음에는 학문과 예술을 좋아했으나 나중에는 도를 넘어 호사를 즐긴 나머지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결국에는 국정을 소홀히 하여 무신난으로 거제도에 귀양 갔다가 살해되는 비극으로 삶을 마쳤다. 하지만 중앙 문신 귀족 문화는 이때 난숙하게 피어나 청자 명품을 많이 만들어냈다.

송나라의 태평노인(太平老人)은 소매 속에 간직할 귀한 것이라는 뜻의 저서 《수중금(袖中錦)》에서 단계의 벼루(丹研), 건주의 차(建州茶), 절강의 칠기(浙漆), 거란의 말안장(契丹鞍) 등 28가지 품목이 천하제일(天下第一)이라고 열거하면서 백자는 정요의 백자(白瓷), 청자는 ‘고려비색’을 천하제일로 꼽았다. 이는 당시 고려청자의 국제적 평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출전 《한국 미술사 강의 2》, 놀와, 2012.

【문법으로 글 읽기】

1. 고려청자의 발전 과정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보자.

<보 기>

가. 중국 북장 청자인 요주요의 영향, 송나라의 남방 청자의 영향도 받았다.
나. 청자 제작 시작, 강진 가마와 부안 가마에서 발군의 청자를 만들어냈다.
다. 전성기이자 완성 단계, 전에 없이 높은 수준의 청자를 제작하였다.

고려 초 10 세기 후반	
11세기	
12세기	

2. (가), (나)의 문장에 사용된 시제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찾아 짝 지어 보자.

(가) 인간이 만들어 낸 생활 용기 중 아직까지 도자기(陶瓷器) 이상 좋은 것은 나오지 않았다. 예부터 나무 그릇, 옷칠 그릇, 질그릇, 놋그릇, 은그릇 등을 사용해 왔고 오늘날에는 유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 스틸·플라스틱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자기처럼 깨끗하고 보기 좋고 위생적인 용기는 발명되지 않았다.

(나) 도자기는 도기(potter)와 자기(porcelain)로 분류한다. 간혹 유약이 있으면 자기, 없으면 도기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는 올바른 분류가 아니다. 또 1200도 미만의 낮은 화도(火度)에서 구워 내면 도기, 1300도의 높은 화도로 구워 내면 자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분류법은 아니다.

<보 기>

㉠ 시간성과는 무관한 어떤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므로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
㉡ 과거의 사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시간 순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다.

- (가) - ()
- (나) - ()

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와 단어 형성 방법이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도자기는 도기(potter)와 자기(porcelain)로 분류한다.

— <보 기> —

술잔, 황갈색, 곡선미, 땀나무, 앞바다

- 일치하는 것: _____

4. <보기>의 ㉠~㉢ 중 다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찾아 그 기호를 써 보자.

— <보 기> —

두음 법칙: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 앞에서의 ‘ㄹ’과 ‘ㄴ’이 ‘ㅇ’이 되고,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 앞의 ‘ㄹ’은 ‘ㄴ’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자(女子), 연세(年歲), 요소(尿素), 유대(紐帶), 이토(泥土), 익명(匿名)’은 ‘녀자, 년세, 뇨소, 뉴대, 니토, 닉명’이 아닌 ‘여자, 연세, 요소, 유대, 이토, 익명’으로 적는다.

- ㉠ 유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 스틸·플라스틱 그릇 등
- 문종 ㉡ 연간은 고려의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다.
- 28가지 품목이 천하제일(天下第一)이라고 ㉢ 열거하면서 백자는 정요의 백자(白瓷), 청자는 ‘고려 비색’을 천하제일로 꼽았다.
- 1126 ㉣ 년 금나라가 송의 수도 개봉을 유린할 때 이 책은 소실되었다.
- 작은 뚜껑은 ㉤ 연꽃에 얹드린 오리 형태를 하고 있다.

- 적용되지 않는 것: _____

(2) 우리 음악의 일반적 특징

신대철

서양과는 다른 소리깔²⁴⁾의 추구

어떤 음악이건 소리깔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한 고운 소리를 만들려고 한다. 기악이건 성악이건 고운 소리를 만드는 음악적 작업은 연주가들의 각고의 노력 속에 숨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운 소리와 이에 의한 음향은 좋은 작품과 어울려 음악 애호가들의 가슴을 적셔 준다. 이러한 까닭에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고운 소리깔의 음향에 의하지 않으면 그 음악적 감동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고운 소리의 소리깔 추구는 분명히 음악가들과 애호가들의 공통분모이긴 하나 우리 음악의 현장에서는 이와는 좀 다른 음악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라고 고운 소리를 추구하려는 음악적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으나 서양인들이 추구했던 일관된 고운 소리의 추구와는 달랐다. 그들의 고운 소리와는 다른 개념을 지닌 소리를 우리는 추구하였다.

우리는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와 그 빛깔까지도 수용했다. 그러면서 기악이건 성악이건 소리 가공의 단계를 가능한 최소화시켜 나갔다. 많이 가공된 소리일수록 고운 소리의 이상에는 접근되나 자연의 소리에서는 멀어져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기 제작의 경우에도 가능한 가공 단계를 축소시켰으며, 그 공정도 수공업의 단계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서양 음악은 고운 소리를 얻기 위해 소리 가공의 단계를 보다 확대시켜 나갔다. 기악도 성악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음향학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일단 연주자의 손을 떠난 음도 다시 재울림을 통해 듣는 이에게 전달되도록 극장의 음향에까지도 그들은 지극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서양인들의 고운 소리에 대한 열망은 바로크(1650~1750) 시대에 이르러 벨칸토 창법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고운 소리 추구가 목적인 이 창법은 그 후 서양의 모든 성악에 적용이 되었다. 아울러 벨칸토의 이 원리는 기악에까지도 적용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서양 음악의 고운 소리 추구는 그들의 음악을 고른음 중심으로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시끄러운 음은 특별한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 사용되는 정도였다. 그들의 음악 이론서는 고른음과 시끄러운 음의 음악적 용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다.

우리 음악은 고운 소리를 추구하면서도 시끄러운 소리까지를 음악의 현장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로 보지 않았다. 자연의 소리로 본 것이다. 우리의

24) 소리깔: 음색(音色)은 순수한 우리말로 소리빛깔로 불린다. 이 소리빛깔을 줄여서 소리깔로 만들어 보았다. 필자는 이 말에 특별한 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기존의 음색, 소리빛깔과 같은 뜻으로 사용해 보고자 한다.

철학적·사상적 기저가 자연과의 조화였기에 이러한 음악적 생각 또는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의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질박(質朴)한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의 악기 소리

우리의 궁중 아악(雅樂)에는 축(祝)·어(敵)·박(拍)·부(缶) 등의 악기가 사용된다. 위의 악기 중 축·어·박은 나무로 만든 악기이고, 부는 흙을 질화로 모양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악기이다. 이 네 가지의 악기들은 모두가 음정이 없는 타악기이고, 서양 음악식으로는 시끄러운 음을 내는 악기들이다.

축은 4각의 나무상자 틀의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고 야구 방망이 같은 방망이로 그 구멍 밑바닥을 내려치는 악기이다. 가공하지 않은 나무판을 나무 몽둥이로 내려치는 소리는 어찌면 시끄러운 소리 중의 시끄러운 소리일지도 모른다. 어는 나무 호랑이 모양의 악기로 그 등을 톱니와 같이 하였다. 그런데 이 호랑이 머리를 여러 갈래로 쪼갠 대나무로 세 번 내려치고 등의 톱니를 드르륵 긁는다. 어떤 소리가 날까? 결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박은 여섯 조각의 박달나무 판자 쪽을 다다닥 울려 주는 악기이다.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축, 끝을 알리는 어, 시작과 끝, 중간의 속도 변화를 알리는 박들의 소리는 분명 유쾌하지 않는 시끄러운 소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에 가장 가까운 소리이기에 우리 음악에서 버려질 수 없는 소중한 음향이 되고 있다.

부는 어의 채와 같은 채로 질화로 모양의 가장자리를 탁탁 쳐 주는 악기이다. 물론 절대로 고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흙과 대나무에 의한 자연의 소리를 음악 속에서 들려준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현악기로 그 줄을 튕겨 주거나 마찰함으로써 울려 준다. 여기에 사용된 명주실은 여러 개의 가는 줄을 꼬아 준 것뿐이다. 특별한 여러 단계의 인공적 가공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줄은 손가락과 대나무로 만든 술대라는 것으로 울려진다.

해금은 말총으로 된 활에 송진을 묻혀 마찰함으로써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이들은 앞서 말한 타악기보다는 훨씬 고운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그러나 서양의 현악기와 비교한다면 소리 가공의 단계를 이들보다 상당히 생략한 명주실 그 자체의 울림을 존중하는 자연에 가까운 소리이다.

민속 음악에는 징과 쟁과리가 자주 사용된다. 엄청난 소리 크기를 지닌 시끄러운 음의 악기이다. 그러나 늦쇠를 두드려 만든 이들 악기는 비록 시끄러우나 쇠소리 울림 그대로를 들려줌으로써 음악적 흥취를 자아내 준다.

이상의 악기들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 즉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 서양 음악에서처럼 음악에서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악기들이다. 시끄러운 듯한 자연의 질박한 소리를 사랑하기에 합주에서 우리는 이들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양 음악에서는 드물다. 그들의 심벌즈와 북 등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들

의 음악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부차적인 음향 효과를 위한 목적이 보다 강하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자연의 소리에서 훨씬 먼 소리이다.

우리의 사물놀이를 보자. 네 가지의 악기가 모두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것들뿐이다. 그러나 누가 그 소리를 마다하는가? 누가 그 소리를 시끄럽다 하는가? 얼마나 신명나게 우리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는가? 더군다나 이 음악은 서양 음악의 기본적 3요소라고 하는 가락, 화음, 리듬 가운데 오로지 타악기의 리듬만으로 음악을 이루고 있다.

서양인들은 리듬, 가락, 화음 세 가지 모두가 있어야 음악이 구성된다고 하였다. 국내의 거의 모든 음악 이론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지침이 아니다. 바로 자연의 질박한 소리에 의한 리듬만으로 구성된 사물놀이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투박한 타성의 소유자에게도 명창의 희망이

한편 우리의 성악에서 자연적 소리 추구의 모습은 어떠한가? 판소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판소리의 명창이 되려면 소리를 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타고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판소리에서는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져야만 명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으로는 비록 타성을 가졌어도 노력 여하에 따라 명창이 될 수 있는 것이 판소리의 세계이다. 비록 고운 소리는 아니더라도 타고난 소리에 알맞게 음악을 잘 엮어 나가면서 그 소리의 특성을 살린 명창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적잖이 있다. 그리고 고운 소리보다 약간은 쉼 듯한 이러한 목소리에 의한 판소리를 좋아하는 판소리 애호가들도 또한 많다. 얼핏 들으면 탁하디 탁한 소리에 이들은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 세계의 한 면은 타고난 자연의 소리를 존중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양의 성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점이다. 그들의 세계에서 명창이 되려면, 우선적 조건이, 타고난 고운 소리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목이 쉼 듯한 탁한 허스키 보이스(husky voice)는 대중음악에서는 그런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순수 음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의 소유자는 아예 성악가로서 입신할 꿈조차 꾸지를 않는다. 그들이 추구하는 성악의 가장 큰 이상 중 하나는 고운 소리의 벨칸토 창법이 기 때문이다.

판소리에서 타고난 좋은 소리를 청구성, 혹은 천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좋은 소리의 명창은 오히려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통의 소리를 가진 소리꾼이 명창이 되는 경우가 보다 많다. 그리고 판소리계에서는 천구성에 약간 쉼 듯한 곱삭은 소리인 수리성을 겸한 소리를 으뜸의 소리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판소리의 발성은 고운 소리를 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타고난 천성적 자연의 소리인 타성을 버리지 않고 갈고 닦아 탁성다운 맛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지는 않지만 가곡과 시조, 잡가, 민요 등의 소리에서도 자연적 소리를 존중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즉 이들 장르의 음악에서도 특별히 고운 소리를 내기 위해 소리 가공의 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는다. 그저 각 지역의 음악적 특성과 창자의 신체적·음악적 특성에 맞게 자연스러운 발성을 택한다. 즉 서양식의 벨칸토에 의한 아름다운 소리의 추구를 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배경에 밝지 않은 이들은 우리의 성악에는 발성법이 없다고들 한다. 그리고 거친 소리를 이용하는 것에 호감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일방적 서양 음악만의 교육으로 인한 서양식 음악 애호 취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판소리와 잡가, 민요, 시조, 가곡 등의 발성법에 의한 음악을 서양의 성악적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무리를 범하기도 한다.

우리의 성악에 발성법이 없다는 생각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혹 이 땅에는 서양식의 벨칸토 창법이 없다고 한다면 흔쾌히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음악에는 분명히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에 의한 우리 음악에 알맞은 발성법이 있다.

우리의 판소리를 쉬지 않고 한바탕 연창하는 것을 완창 판소리라고 한다. 보통 짧은 것은 3~4시간 정도 걸리고 긴 것은 8시간 걸린다. 그런데 이 긴 음악을 혼자 부른다. 그것도 거의 쉬 없이 부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판소리의 발성법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것이 된다. 서양의 어떤 최고수급 성악가가 쉬지 않고 3~8시간을 노래했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 보지 못했다. 그들의 세계에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음악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엄두도 못 낸다. 그들의 목이, 이 긴 시간을 지탱하리라는 보장도 불분명하다.

서양 음악의 오페라 가운데 대작 중의 대작이라고 하는 작품 중의 하나가 이태리 작곡가 로시니의 <윌리엄 텔>이다. 음악의 총 연주 시간은 5시간 남짓 걸린다. 대작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자주 연주되지는 않고 있다. 전곡 연주의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작의 이 오페라도 혼자 부르지는 않는다. 주연급의 독창, 중창, 합창단의 합창, 관현악에 의한 서주와 간주, 중간의 발레 등으로 나누어 각각 분담되어 노래되고 연주된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의 합이 5시간이다. 더군다나 이 오페라에서 정작 주인공이 독창으로 부르는 노래의 양은 전부 합해 2시간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를 우리 판소리 완창에 비교해 보자. 그토록 오랜 시간을 우리는 혼자 부른다. 무리 없는 발성법이 아니고서 이것이 가능해질까? 우리의 발성법을 서양의 발성법에 맞추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우리 음악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악에서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의 8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아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리는 자연, 혹은 이에 가까운 소리이며, 이들 악기에 의해 조화된 음향은 동양 철학적인 오묘한 상징을 지닌, 매혹적인 세계이기도 하다. 더구나 서양 음악이 음높이에 의한 수직적 동시 진행으로 화음(和音)을 연출함에 비해, 우리는 자연적이고 특색 있는 소리갈의 수평적 울림에 의한 화(和)의 세계를 창출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음악적 가치가 충만한 우리의 소리꼴

이렇게 우리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존중하는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또 그러한 소리에 의해서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빛깔과 향취를 지닌 음악적 소리의 세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자연을 존중하는 사상적·철학적 사고와도 관계가 깊다. 그러나 서양 음악의 울림에 젖어온 귀에는 이러한 울리는 소리로 이루어진 우리 음악은 거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들이 우리 음악을 기피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약간은 거친 듯하며, 세련되지 못한 듯한 투박하고도 질박한 이 소리꼴이 우리가 목표할 소리였다. 이는 자연에 몰입하여 자연을 존중하는 세계관이 없었다면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음악 세계의 한 면이다. 그리고 이는 어떤 소리 세계와 비교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자연의 소리와 그에 가까운 소리꼴은 바로 우리 음악을 더욱 생명력 있게 해주고 있는 커다란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에 의한 소리는 우리 음악의 미적 특색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충분히 들어 즐길 만한 가치를 충만히 안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를 느끼고 맛보며 즐기는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두어야 한다.

출전 《우리 음악 그 맛과 소리꼴》, 교보문고, 1998.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을 참고하여 우리 음악이 추구하는 소리꼴(소리 빛깔)과 서양 음악이 추구하는 소리꼴을 비교한다고 할 때, 다음 표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보자.

	우리 음악	서양 음악
고운 소리에 대한 태도	추구	추구
시끄러운 소리에 대한 태도	넓게 포용	특별한 효과를 위해서만 수용
소리 가공의 정도		많음
자연의 소리와 의 거리	가깝다	멀다
음량		크다

2. <보기 1>은 국어 의문문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의문문 ①~③에 적절한 내용을 <보기 2>에서 찾아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의문문: 질문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한다. •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사용되는 질문으로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한다. • 수사 의문문: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의미상으로 강한 긍정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2> —</p> <p>① 그토록 오랜 시간을 우리는 혼자 부른다. 무리 없는 발생법이 아니고서 이것이 가능해질까?</p> <p>② 누가 그 소리를 시끄럽다 하는가? 얼마나 신명나게 우리의 어깨를 들썹거리게 하는가?</p> <p>③ 한편 우리의 성악에서 자연적 소리 추구의 모습은 어떠한가?</p>

• ①: ()

• ②: ()

• ③: ()

(3) 김홍도의 <씨름>

오주석



김홍도 <씨름>

예술 작품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기울여 찬찬히 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속내를 내보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을 보여 드릴 텐데, 이 그림 모르시는 분은 여기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니, 저 그림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네!’ 하고 절감하실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이불견(視而不見)’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볼 시(視) 자에 볼 견(見) 자, “보는 보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청이불문(聽而不聞)’, 들을 청(聽) 자, 들을 문(聞) 자,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고 듣는데 왜 안 보이고 안 들릴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초 찬찬히 보고 들을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럼 이제 옛 그림을 한 점 한 점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가 20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공책만한 작은 그림입니다. 지금 환등기로 확대를 해서 커졌지만, 그래도 맨 앞줄에 앉으신 분이 보시기에도 좀 작은 크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청중들은 의자가 너무 멀리 있어서 지나치게 먼 데서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강사: 그림의 가로 세로 길이를 비교하는 시늉을 함.* 서양 그림 같으면 가로가 길겠지만 우리 그림은 역시 세로가 깁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백도 역시 그렇게 비스듬하게 생겼군요! 이 그림은 개칠한 흔적 없이 단번에 척척 그렸어요. 등장한 사람이 모두 스물두 명인데, 우선 여기 오른편 위쪽의 중년 사나이를 보세요. 입을 헤벌리고 재밋게 씨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밋으니까 뒤통이 앞으로 쏠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두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총각은? 아니, 상투를 틀었군요! 총각이 아닙니다! 수염도 안 난 모양새를 보면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팔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아니, 씨름판에 오자마자 팔베개를 하고 눕는 사람 있습니까? 아, 이거 씨름판이 한참 진행돼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까운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몸이 고단해 누운 거지요. 시간의 경과를 보여 줍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쓴 모자는 털병거지입니다. 양반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돼지 털을 엮어 만든 모자인데 저절로 썼던 사람이라면 신분이 마부 정도 되겠군 하고 짐작이 갑니다.

뒷사람을 오히려 진하게

앞사람인 중년 사내는 진하게 그리고 뒷사람 젊은이는 조금 흐리게 그렸는데, 서양식이라면 맨 뒷사람이 가장 흐려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뒷사람 옷이 오히려 다시 진해졌어요. 그리고 또 그 뒤쪽에 웅숭그린 꼬맹이들이 제일 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앞이 진하고 뒤가 흐리게 그리지만, 우리 옛 그림에서는 뒷사람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게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진하게 그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뒷사람까지 속속들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단위 화면에 통일감이 생기게 되었죠?

특히 뒤쪽의 작은 어린이들을 흐리게 그렸다면 그 귀여운 모습이 눈에 훤히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요즘 같으면 어린애들이 앞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른들에게 야단이나 맞을 터인데, 옛적에는 꼬맹이들까지 어른 뒤에 얹전하게 자리한 것이, 참 예의범절이 반듯했구나 하는 그 시절 풍속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멀리 있고 작아서 답답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세부를 크게 해서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도를 먼저 보세요! 관중들이 모두 빙 둘러앉아 씨름하는 것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구심적(求心的)인 원형 구도입니다. 한눈에 보는 이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아주 쉬운 작품이죠.

이제 그림을 확대해서 보니까 좋지요? 아주 가는 붓으로 그린 그림이네요. 그런데 참 빨리도 척척 그려 냈습니다. 더 꼼꼼히 보시는 분은 겹쳐진 갓을 먼저 그리고, 그 위쪽에

맞닿은 인물의 엉덩이를 나중에 두 번의 붓질로 그린 것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서 아래에서 위로 익숙하게 그렸습니다. 여러 세부 중 편의상 우선 눈만 보십시오. 가는 붓을 가지고 그저 살짝 눌러 준 것뿐인데 사람들마다 눈의 표정이 서로 다르고 개성까지 엿보입니다. 오른쪽 맨상투잡이 인물의 눈은 콧절린 듯 쳐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느낌이 들죠? 그 왼쪽 옆의 소년은 눈빛이 너무나 맑고 초롱초롱 하군요. 바로 옆 노인은 기운이 없는 듯한 눈빛에 인자한 느낌이 듭니다. 앞쪽의 갓쟁이는 좀 뚱뚱하게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눈빛이 똑똑해 보입니까? 아니죠, 어쩐지 좀 미옥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다리를 내뻗고 있군요. 다리가 저려서 펴고 있습니다. 역시 씨름판이 꽤 오래되었다는 시간의 경과를 알려 주는 요소입니다. 본인이 애초부터 똑바로 앉았다면 저렇게 다리가 저려 슬그머니 내뻗을 일도 없었겠죠? 뒤쪽 노인을 비교해 보면, 의관도 반듯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똑바로 앉으신 것이 젊어서부터 자세가 단정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은 갓도 빼박한 것이 평소 사람이 좀 시원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채로 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품이 성격도 약간 소심한 듯하고, 아무래도 영 시원치 않죠? 젊은 사람이! 이런 사람은 사위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청중 웃음

그 다음 아래쪽 이 두 사람을 함께 보십시오. 서로 꼭 닮은 것이 어쩐지 쌍둥이 같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닮았나 꼼꼼히 살펴보니, 우선 턱이 아주 다부지게 생겼고 눈은 또 부리부리하고 두 사람 시선의 방향이 같은 것까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 다 등줄기가 곧고 똑바른데 앞사람은 무릎을 세워 두 손을 각지 낀 모습이 약간 긴장한 듯도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 선수 같죠? 지금 화폭 한복판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씨름 경기는 유도처럼 한 판 이기면 진 사람은 떨어 나가고 이긴 사람이 그 다음 사람과 막 바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판에 나갈 두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관찰하면서 다음 판에 이길 저 녀석을 어떻게 요리할까, 지금 이기고 있는 상대의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뭐냐, 이렇게 판세를 예의 분석하고 있는 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히 알려 주는 것이 발쪽에 신발, 즉 발막신이라는 가죽 신발을 이미 벗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갓도 함께 벗어서 나란히 포개 놓았군요. 씨름에 나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이제 씨름꾼들을 보죠. 다시 눈부터 바라보니 역시 당사자들의 눈이라 제일 골똘하고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왼편 사람은 눈이 아주 뚱그레 가지고 양미간 사이에는 깊은 주름까지 잡혀 있는데, 그 찢찢매는 눈빛이 너무나 처절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의 펜 같은 도구 가지고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붓이라는 게 상당히 부드러운 도구지만 그 부드러움 덕에 오히려 표현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앞사람을 보십시오. 어금니는 앙다물고 광대뼈는 뚝 튀어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넘겨 버리고 말겠다는 각오가 대단해 보이지요? 뒷사람이 틀림없이 졌습니다. 지금 건 씨름 기술은 무엇입니까? 청중들 ‘들배지기’라고 대답함 그렇습니다! 들배지깁니다. 들배지기라는 것은 기운 좋은 장사가 상대를 번쩍 들어 가지고 그대로 냅다 매다꽂는 겁니다. 앞사람이

이겼죠? 보십시오! 두 발을 땅에 굳건하게 디디고 서서 상대를 들어 올리려고 용쓰는 양 하며 한 일(一) 자로 딱 다문 입술에서 젓 먹던 힘까지 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앞사람은 두 다리가 모두 굳건한데, 지는 쪽은 한 발이 들리고 다른 한쪽마저 들리려는 순간입니다. 그 오른손이 바나나같이 길게 그려졌군요. 화가 실력이 부족해 그렇게 그렸을까요? 아니지요, 이 손마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뒷사람이 분명 졌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자빠질까요? 오른쪽으로 자빠질까요?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 보십시오! 강사: 청중들에게 어느 편일 것 같은지 한번 손을 들어 보라고 함 아. 70~80% 정도가 왼쪽으로 자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글썄, 제 생각엔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자빠질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길 보세요! 강사: 오른쪽 아래 구석의 두 구경꾼을 가리킴 구경꾼들이 턱을 치켜들고 눈은 쪽 찢어진 채 입을 딱 벌리고, ‘어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상체가 뒤로 물러나며 또 손으론 뒤 땅을 짚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림 바깥에 있고 이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직접 씨름을 구경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구경꾼들이 우리보다는 더 잘 알겠죠? 분명 오른쪽으로 자빠집니다. 이걸 그러니까, 유도나 씨름에서나 대개 상대가 왼쪽으로 자빠뜨리려고 하면 누가 ‘날 잡아 잡수’ 하고 그리로 넘어가 주지는 않죠. 반대편으로 안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젓 먹던 힘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탁, 하고 반대편으로 뉘아쳐서 한 판 경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화가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이렇게 기막힌 그림을 그려 냈습니다.

구경꾼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느껴지시죠? 한데 이 두 구경꾼이 위치한 곳은 화면에서는 구석진 자리입니다. 화가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구도를 잡고 그렸기 때문에 강사: 우상에서 좌하로 대각선을 그려 보임 이 자리는 아주 외진 자리예요. 그 구석에 있는 인물을 화가는 유난히 진하게 그려 놓고서 ‘이 사람을 잘 봐라, 여기 힌트가 있다.’ 하고, 승패의 실마리를 슬쩍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 위쪽에 짚신이 있고 또 가족으로 만든 고급 신발인 발막신이 있습니다. 붓 선을 처음에 콧 찍었다가 이렇게 쓰윽 빼내 가지고 선의 굵기 변화에 생동감을 주었군요. 2cm도 안 되는 크기지만 신발 맵시가 잘 표현되었죠! 신발 주인을 찾아볼까요? 강사: 화면을 다시 씨름꾼 장면으로 돌림 어떻게 신발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씨름꾼의 옷이 주름 잡힌 정도가 비슷한데, 앞사람은 막일하는 사람처럼 소매가 짧고 뒷사람은 손목까지 길게 내려온 모양새가 입성이 훨씬 좋습니다. 잘 보시면 뒷사람은 종아리에 행전²⁵⁾까지 깔끔하게 찢 품이 역시 차림새가 좀 나아요. 그러니 뒷사람이 아마 가족 신발 주인일 듯합니다. 앞사람은 짚신 주인이고……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오른쪽 위, 입을 헤벌리고 좋아했던 중년 사나리와 느긋하게 누워 미소 짓던 말구종²⁶⁾ 같았던 젊은이는 아마 승자 편이라서 좋아라 했던 것 같고, 왼편 위쪽 갓을 벗어 놓은 두 선수가 모두 심각한 눈빛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패자 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가, 하는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책만한 작은 그림이지만 화폭 안에 줄거리가 분명한, 어떤 드라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은 작품에는 이렇게 많은 얘기가

25) 행전(行纏): 바지를 입을 때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바짓가랑이를 가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번듯한 형겼으로 소맷부리처럼 만들고 위쪽에 끈 둘을 달아서 돌려 매었다.

26) 말구종(-驅從): 말을 타고 갈 때에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따르는 하인.

들어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요새 씨름과 비교하면 아주 색다른 면이 엿보이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 니까? 요즘은 팬티만 입고 경기를 하는데, 그림에서는 옷을 다 입고 버선까지 신은 채 경기를 하죠? 역시 동방예의지국답습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살바가 다르죠! 살바는 허리에 둘러져서 허벅지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씨름꾼들에겐 허리에 두른 살바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씨름 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요즘 하는 씨름은 살바로 허리를 두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나 왼쪽 허벅지로 이어져서 그것을 왼씨름 오른씨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해,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씨름은 ‘바씨름’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지금은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양,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서만 하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부를 통해서 그림 속 씨름의 배경이 어느 지방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절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부채를 들고 나와 있는 모양을 보면-옛날에는 아무 때나 씨름을 하지 않았으니까-아마도 힘든 모내기를 끝낸 뒤인 단오절 무렵이 아닐까요? 단오절이 되면 너도나도 부채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 세시풍속에서 단오절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부채를 선물하거든요. 다가오는 더위를 식혀 가면서 맑은 일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가 바뀌는 동지(冬至)에는 아랫사람들이 윗분들께 책력, 즉 달력을 만들어 올립니다. 내년에도 일정을 운영할 적에 아랫사람들 삶의 편의를 살뜰하게 배려해 달라는 뜻이지요.

아 참, 이 그림에 이상하게 틀린 그림이 한 곳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틀린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양손이 잘못됐지요?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구경꾼의 왼팔에 오른손이 붙어 있어요! 또 오른팔에는 왼손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 그림의 화가 김홍도는 사람의 눈을 그릴 때 잔 붓으로 점을 한 번 콧 찍어 가지고 슬쩍 빠치는 것만으로도 인물의 나이며 성격, 그 인물이 처한 상황까지 속속들이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화가가 어떻게 이렇듯 엄청나게 멍청한 실수를 했을까, 잘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김홍도의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지금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만-원래는 김홍도의 그림 가운데 최고의 걸작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당시 일반 서민들이 사서 보라고 손쉽게, 아주 빨리 그려 낸 값싼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바탕 종이가 고급 화선지가 아닌 일반 장지입니다. 그러나 표면에 붓질이 잘 나가라고 방망이로 다듬이질을 많이 해서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서민 대중이 보는 그림인 까닭에 화면에 어려운 글씨가 한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림의 소재도, 모두 일반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민들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를테면 <씨름>에서도 옷차림이 허술한 사람 쪽이 이기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일부러 틀리게 그린 그림

이것이 원래 25장으로 된 풍속화첩인데 다른 그림들을 보아도 작품 속에 종종 손이나 발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화첩 눈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옛 그림 보

는 일이 직업이고 전공이니까, 정색을 하고 아주 찬찬히 뜯어보았더니 여기저기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세부 그림들이 많습니다! <벼 타작>이라는 그림에는 머리 위로 벼단을 쳐들어 올린 사람을 앞모습 뒷모습으로 두 명 그렸는데, 그 손 모양이 꼭 같습니다! 또 <점심>이란 작품 한가운데서 사발을 들고 밥 먹는 사람은 오른쪽 정강이에 왼발을 붙여 났죠? 이처럼 X자 구도의 복잡한 그림인 경우에 화폭 한가운데서 슬그머니 그림을 틀리게 그려 놓았습니다. 알아차리기 어렵게끔…… 그런데 훨씬 단순한 작품 <있담배 썰기>는 어떨까요? 오른쪽 위쪽 이 젊은이의 발 모양을 보세요! 틀렸지요? ‘이렇게 간단한 그림에서도 속았지? 메롱!’ 하고 즐거워하는 화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 다름 아닌 틀린 그림 찾기예요! 보는 사람들 재미있으라고 일부러 장난을 친 것입니다! 네? 혹,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진짜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 경우라면 이 그림은 절대 누군가가 복사한 그림이 아니라 원본이라고 우선 판단됩니다. 남의 그림을 옮겨 그린 경우는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칠 테니까요. 또 사물의 왼쪽 오른쪽을 바꾸는 실수를 한 걸 보면 화가는 좌뇌보다 우뇌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좌뇌, 우뇌의 차이에 대해선 복잡하니까 다음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죠. 아무튼 여기서는 일단 틀린 그림의 주인공은 뒷모습이 보였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었다는 점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옛장수가 있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골똘하게 씨름꾼만 쳐다보는데-물론 옛판을 결눈질하는 댕기머리는 예외입니다! 옛장수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며 싱글거리고 있는 걸까요? 옛판 위의 엽전 세 닢이 뭐 그리 호뭇할까요? 이게 구도상, 꼭 그렇게 그려져야만 합니다! <씨름>은 구경꾼들이 모두 이렇게 둥글게 둘러앉아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통일감이 썩 좋은 작품입니다. 단번에 그림에 집중이 되죠. 그런데 통일감만 있고 변화가 없으면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텅 띄워 놓고 거기에 발막신, 짚신 이렇게 서로 다른 신발을 모아 놓고 홀어 놓고 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 신발들을 잘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안쪽에 머리를 두지 않고 화면 바깥을 향하도록 놓았는데, 이것도 작지만 사실은 중요한 조형 장치로서 그림에 숨통을 트이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옛장수도 먼 산 바라보고 있듯이 이렇게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 것은 그림에 바람이 드나들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 옛장수 대신에 심판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판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씨름꾼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인물들이 모두 작품 중앙을 향하고 있어서, 구도가 너무 구심적(求心的)이고 답답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빼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구도를 한 번 더 보실까요? 만약 구경꾼들이 아래쪽에 많고 위에 적었다면 그림이 재미있었을까요? 씨름판의 열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겠죠? 영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위가 무겁고 아래가 가볍게 보이도록 가분수처럼 만들어 뒀습니다. 일부러 말이지요……. 참 슬기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듯 구경꾼들이 다 내려다보이게 그리려면 화가가 3층 정도의 아파트 높이에서 내려다봐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데서 바라보았다면, 이번엔 또 씨름꾼들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씨름꾼은 원래 난쟁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위에서 보면 당연히 짜그라져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림 속 씨름꾼 두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몸집도 더 크게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유난히 늘씬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림 속 구경꾼들이 앉아서 지켜다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즉 구경꾼의 시선을 그대로 빌려다가 화폭 한가운데다 박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예전에 보시면서 씨름꾼과 구경꾼의 모양이 서로 맞지 않는, 좀 이상한 그림이다,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셨죠?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만의 기발한 재주입니다. 구경꾼의 시선을 이렇게 슬쩍 빌려옴으로써 우리는 직접 씨름 구경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고, 그림의 현장감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뭔가가 없는데, 무엇이 어떻게 빠져 있을까요? 심판이 없다고요? 심판은 아까 구도상 일부러 빼 듯하다고 말씀드렸죠? 도장이 없다고요? 화첩에선 원래 도장을 매 폭마다 찍지 않습니다. 마지막 폭에 흔히 낙관을 하는데, 이 화첩에는 그것조차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없죠? 여기에 처녀든 아줌마든 할머니고 간에 누군가 여성 한 분이라도 구경꾼 사이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이 작품이 옛날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조선 시대 후기에는 신랑 신부가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결혼할 정도로 내외(内外)를 가리는 법도가 엄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단옷날이라도 여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춘향이처럼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여인네끼리 모여 그네를 타거나 널뛰기를 했지, 여기 남정네들 틈에 끼어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점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풍속까지 소상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옛 그림 전문가라고 해서 제 얘기를 무조건 믿지는 마십시오. 정당한 의문이라면 항상 의심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 시대 이런 씨름판에서 상민하고 양반이 함께 씨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조선 풍속으로는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점은 다음 작품 설명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전 《한국의 미 특강》, 술, 2003.

【문법으로 글 읽기】

1. (1)~(5)의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 그림에서 찾아 그 기호를 써 보자.



(1) 우리 옛 그림에는 서양과 달리 뒷사람이 앞사람보다 진하게 그려지기도 했다. ()

(2) 다음 판 시합에 도전할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난다. ()

(3) 이길 것 같은 선수가 사용하는 기술은 ‘들배지기’이다. ()

(4) 화가는 일부러 구경꾼의 손을 이상하게 틀린 모습으로 그렸다. ()

(5) 화가는 그림에 완벽한 통일감을 깨뜨리기 위해 이 인물을 그렸다. ()

2. 다음 <보기1>을 윗글의 일부인 <보기 2>로 고쳐 쓴 후 달라진 양상을 ①~⑤에서 찾아 보자.

— <보 기 1> —

이제 누가 이기는지 선수들을 살펴보자. 아무래도 한눈에 뒷사람이 곧 질 듯하다. 등을 보인 사나이는 우선 두 발이 땅에 굳건한데, 저편은 한 발이 완전히 허공 중에 들리고 다른 쪽 발도 벌써 반쯤은 땅에서 떨어졌다. 들배지기에 걸려 체중이 떠오르니 안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양미간에는 애처롭게도 깊은 주름까지 패었다. 또 마지막 희망인 오른팔조차 손을 놓쳐 가니 그 손가락이 바나나처럼 쪽 늘어난 모습으로 과장되게 그려져 있다. 한편 다른 편 장사는 이번엔 아주 끝낼 요량으로 젓 먹던 힘까지 내어 마지막 용을 쓰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부지고 억센 몸에 온 가득히 힘이 들었고 아래턱까지 앙그러지게 악물었다.

— <보 기 2> —

자, 그럼 이제 씨름꾼들을 보죠. 다시 눈부터 바라보니 역시 당사자들의 눈이라 제일 골똥하고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왼편 사람은 눈이 아주 뚱그레 가지고 양미간 사이에는

깊은 주름까지 잡혀 있는데, 그 찢찢매는 눈빛이 너무나 처절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의 펜 같은 도구 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붓이라는 게 상당히 부드러운 도구지만 그 부드러움 덕에 오히려 표현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앞사람을 보십시오. 어금니는 앙다물고 광대뼈는 뚝 튀어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넘겨 버리고 말겠다는 각오가 대단해 보이지요? 뒷사람이 틀림없이 젖습니다. 지금 건 씨름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들배지깁니다. 들배지기라는 것은 기운 좋은 장사가 상대를 번쩍 들어 가지고 그대로 뱉다 메다꽂는 겁니다. 앞사람이 이겼죠? 보십시오! 두 발을 땅에 굳건하게 디디고 서서 상대를 들어 올리려고 웅쓰는 양하며 한 일(一)자로 꼭 다문 입술에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앞사람은 두 다리가 모두 굳건한데, 지는 쪽은 한 발이 들리고 다른 한쪽마저 들리려는 순간입니다.

- ① 경어법을 사용하여 독자에 대한 친근감이 커졌다.
- ②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문장의 종결 어미가 단순화되었다.
- ③ 문어체가 두드러져 글 전체에 안정감이 더해졌다.
- ④ 일방적인 진술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의 진술로 변화되었다.
- ⑤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말들이 자주 나타난다.

• 달라진 양상: _____

3. 밑줄 친 ㉠~㉣의 세 개의 ‘보다’와 ㉤~㉨의 세 개의 ‘듣다’ 중 문맥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찾아 그 기호를 써 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이불견(視而不見)’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볼 시(視) 자에 볼 견(見) 자 “㉠ 보기는 ㉡ 보는데 ㉢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청이불문(聽而不聞)’, 들을 청(聽) 자, 들을 문(聞) 자, “㉤ 듣기는 ㉥ 듣는데 ㉦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보고 듣는데 왜 안 보이고 안 들릴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초 찬찬히 보고 들을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 문맥적 의미가 다른 것: (,)

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아니’와 가장 유사하게 쓰인 것을 <보기>에서 찾아 품사를 써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 쓰는 말인지 생각해 보자.

아니, 씨름판에 오자마자 팔베개를 하고 눕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 기>

- ①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 ② 나의 양심은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버릴 수 없다.
- ③ 아이는 거칠게 ‘아니’ 하고 머리를 도리질하고 말았다
- ④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 일치하는 것: ()
- 품사: ()

(4) 한국의 탈춤

조동일

농촌 탈춤, 떠돌이 탈춤, 도시 탈춤

무당굿 놀이, 꼭두각시놀음, 탈춤 중에서 민속극으로서 특히 중요하고 발전된 형태는 물론 탈춤이다. 그런데 무당굿 놀이는 무당의 연극이고 꼭두각시놀음은 사당패의 연극이라고 쉽사리 규정할 수 있지만, 탈춤을 공연한 주체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이에 따라서 탈춤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농촌 탈춤은 농촌 마을에서 농민이 공연했다. 도시 탈춤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 거주하는 이속(吏屬)이나 상인들이 주동이 되어 공연했다.

이 세 가지 탈춤 중에서 농촌 탈춤은 다른 탈춤들보다 오랜 유래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극으로서의 발전은 더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농촌 마을에서 일 년에 한 차례씩 농악대가 주동이 되어 농사가 잘되라고 굿을 하면서 굿 놀이로 공연한 것이 농촌 탈춤이다. 농악대 굿은 담당자가 예사 농사꾼이며 농촌 마을 자체에서 오랫동안 이어 온 행사라는 점에서 무당굿과 구별되고, 풍물을 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서 거행된다는 점에서 유교 또는 도교의 격식을 받아들이어 절을 하고 축문을 읽는 엄숙한 절차를 갖춘 동신제(洞神祭) 또는 서낭제와도 다르다.

무당굿에서 무당굿 놀이가 생겨나고 농악 굿에서 탈춤이 생겨났는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고 교류가 인정되면서도 각기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연극이다. 조선 초기 이래로 유교에 입각한 농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층에서는 음사(淫祀)라고 규정한 서낭굿을 서낭제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하층 농민은 마을 굿을 완강하게 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울분을 발산하고 마음껏 신명 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에 탈춤이 자라날 수 있었다.

함경도 북청(北靑) 지방에서 전승한 사자놀음은 농촌 탈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풍물잡이들이 사용하는 악기, 연주하는 가락이 특이해서 농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풍물잡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한 굿을 하는데 탈을 쓰고 가장한 인물이 몇이서 따르며 놀이를 벌인다는 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를 따르고 있다. 사자탈을 덮어쓴 사람들이 주역인 셈이고, 양반이 하인인 꼭쇠(꼭쇠)와 함께 등장하고, 그 밖의 배역도 있다.

사자춤은 신라 때의 산예(山伎)²⁷⁾ 놀이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재앙을 물리치는 구실을 한다. 양반의 명령에 따라 꼭쇠가 사자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해서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짜 맞추고, 사자가 죽었기에 다시 살려낸다고 하면서 소생의 의미를

27) 산예(山伎): 신라 오기(五伎)의 하나. 사자탈을 쓰고 연출하는 연극이다.

가진 사건을 설정했다. 그러나 재담은 미처 발달하지 않았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관노들이 공연한다고 해서 강릉관노가면놀이[江陵官奴戲]라고 하는 놀이도 구성이나 전개 방식에서는 농촌 탈춤을 따르고 있다. 강릉은 농촌 마을이 아니고 지방 관장이 주재하는 큰 고을이다. 그곳에서 여느 마을 곳보다 월등하게 규모가 큰 단오 곳을 거행할 때 농민이 아닌 관노가 공연하니 놀이도 야단스러운 것 같지만 도시 탈춤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농촌 탈춤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기에 알맞은 자료이다.

등장인물은 장자마리·양반·소매각시·시시딱딱이뿐이고, 대사 없이 진행되는 무언극이다. 정체가 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장자마리만으로도 신의 하강을 나타낼 수 있었을 듯한데 재앙을 물리치는 구실을 하는 시시딱딱이를 보냈고, 양반이 소매각시와 놀아나는 장면으로 연극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시시딱딱이가 양반을 물리치고 소매각시를 차지하려 하며, 소매각시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소동까지 벌어져 상황이 복잡하다.

농촌 탈춤으로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갖춘 것은 하회 탈춤이다. 하회 탈춤은 세 가지 보고서가 다른 점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강신(降神)에서 송신(送神)까지 또는 송신 이후의 놀이까지 여남은 마당에 걸쳐 거행되는 행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양반과 선비가 지체를 다투는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극적인 내용이 흥미로운 짜임새를 보인다. 그보다 앞서 파계승 마당에서는 중이 부네라는 여자에게 유혹되는 광경을 보여주더니, 뒤이어 등장한 양반과 선비가 중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과는 다르게 부네 때문에 다투기 시작한다. 다툼은 누가 지체가 높은가에 따라서 판가름하려고 억지를 부리는데, 양쪽 하인이 개입해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벌어진다.

양반: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이거든.

선비: 문하시중, 그까짓 것. 우리 할아버지는 문상시대(門上侍大)인데.

양반: 문상시대, 그것은 또 뭔가?

선비: 문하보다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 시대가 크다.

이렇게 해서 고려 때의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을 말장난거리로 만들어 지체 다툼이 허망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다. 그러자, 양반이 반격을 하느라고 자기는 사서삼경보다 더한 팔서육경(八書六經)을 읽었다고 한다. 선비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당황해 하는 팔서육경을 양반의 하인 초랭이는 “팔만대장경, 중의 바래경, 봉사 안경, 약국의 질경, 처녀 월경, 머슴 세경”이라고 풀이하고, 선비의 하인 이매가 들어서 그 말이 맞는다고 맞장구를 친다. 초랭이는 경망스럽고 이매는 바보이니, 하인으로서 적극적인 구실을 하는 말쑥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양반과 선비가 자기네끼리 다투다 망신을 당하고 만다. 농촌 탈춤은 마을 곳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는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배층과 과감하게 맞서서 체제를 비판하기는 어려웠다.

도시 탈춤에 이르면 그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농촌 탈춤이 바로 도시 탈춤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도 그 둘 사이에 떠돌이 탈춤이 있어서 매개 구실을 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하다. 떠돌이 놀이패는 남사당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온갖 종류의 놀이를 받아들여 공연 종목을 다채롭게 하느라고 탈춤을

거기 포함시켰으며, 탈춤을 주 종목으로 삼아 영업을 한 예도 있다. 서울 근교의 본산대(本山臺) 놀이패나 경남 지방에서 오광대(五廣大)를 퍼뜨렸다는 대광대패 등은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집단의 성격이나 놀이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지만, 탈춤을 주 종목으로 삼은 떠돌이 놀이패라고 보아 마땅하다. 떠돌이 놀이패는 놀이를 해서 먹고 사는 직업적인 연예인이었으므로 어디 본거지를 정해도 거기 머무를 수 없었고, 인근 여러 고을이나 마을을 찾아다니며 탈춤을 공연했다. 농촌 탈춤을 배우고 본떠서 마련한 종목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널리 퍼뜨리고, 도시 탈춤이 일어날 때 그 모형을 제공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서울 변두리 녹번(綠番)·애오개[阿峴]·사직(社稷)골 등지에 자리를 잡고 활동했다는 본산대 놀이패는 자료가 미비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산대회 또는 나례회를 거행할 때 동원되는 신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재주를 팔아 생활하느라고 산대회나 나례회를 할 때에는 소용되지 않는 탈춤을 하며 서울 가까운 여러 고장을 찾아다니며 순회공연을 했던 것 같다. 유득공(柳得恭)이 《경도잡지(京都雜志)》의 한 대목에 기록해 둔 말이 그런 사정을 엿보는 데 도움이 된다. “연극에는 산희(山戲)·야희(野戲), 두 부류가 있는데 나례도감(儺禮都監)에 속한다.”라고 한 말은 산희라고 한 산대회나 야희라고 한 탈춤이 둘 다 법제적으로 나례도감에 속하는 무리가 공연하는 놀이라는 뜻이겠다. 그 다음에서, 산대회는 다락을 엮고, 사자·호랑이 따위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놀이라고 했으며, 탈춤의 야희는 당녀(唐女)·소매(小梅)로 분장하고 춤을 추는 놀이라고 했다. 당녀와 소매는 등장인물 이름임이 틀림없으며 별산대놀이에서 볼 수 있는 왜장녀와 소무의 전신이 아닌가 싶다.

한편, 경남의 초계(草溪) 밤마리라는 곳에 본거지를 정하고 그 인근 지역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한 대광대패의 공연 종목은 남사당의 경우보다도 더 다채로워 온갖 곡예와 재주를 포괄했다. 탈춤인 오광대도 그중의 하나이고 죽방울을 받아 이어서 공연한다는 점에서는 곡예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인기가 있었다. 경남 지방에는 밤마리 대광대패 외에도 의령 신반(新反)의 대광대패, 하동의 목골 사당패, 남해의 화방사(花芳寺) 매구, 진주의 솟대쟁이패 등이 더 있어 떠돌이 놀이패가 아주 많았으며, 그런 무리가 모두 자기네의 공연 종목에 탈춤을 포함시켰던 것 같다. 화방사 매구는 절간에 집결지를 두었고, 목골 사당패는 이름부터 사당패이다.

앞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 이르면 떠돌이 놀이패는 아주 많아지고 놀이 종목도 다채롭게 마련되었다. 경남 지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전국 여러 곳, 특히 경기도나 황해도에서는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보아도 좋다. 떠돌이 놀이패가 탈춤을 놀이 종목으로 택해서 인기를 끌었던 것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서울 변두리의 본산대패나 밤마리의 대광대패는 그런 무리들 중에서 특히 성공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본산대패는 이미 과거의 일로 끝났지만 산대회를 할 때 동원되던 신분들이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서울이 상업 도시로 성장하는데 힘입어 떠돌이 놀이패 가운데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했다. 밤마리의 대광대패는 밤마리가 낙동강을 통한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크게 번창할 수 있었다.

떠돌이 놀이패의 본거지란 원래 집결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절간일 수도 있고 아주 시골일 수도 있었는데, 상업 도시가 발달하면서 본거지가 주 공연지로 바뀐 것 같다. 그래도 주 공연지만으로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순회공연지가 여럿 있어야만 했고, 순회공연지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 나타났다. 그런 관계를 맺는 순회공연지 또한 상업 도시이므로 탈춤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장사가 더욱 번창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양주(楊州)에서는 해마다 사월 초파일과 오월 단옷날에 사직골 딱딱이패를 초청해다가 탈춤을 공연했는데, 그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해서 분개한 끝에 기존의 놀이 방식을 본떠 독자적으로 탈춤을 만들어 낸 것이 양주별산대라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초청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양주별산대를 만들었기에 본산대를 초청할 필요가 없게 된 시기는 이백 년 전쯤이라고 한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상업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상업 도시가 나타나자, 그 도시의 주민인 상인과 이속이 주동이 되어 각기 독자적인 탈춤을 키워 나갔기 때문에 떠돌이 탈춤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다가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되고 도시 탈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서 나타나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 본산대를 대신하는 별산대놀이가 양주뿐만 아니라 송파(松坡)에서도 생겨났던 일은 경제사적 설명까지 곁들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서울의 특권적 상인에게 대항하는 이른바 사상도고(私商都賈)가 지방의 물산이 서울로 들어가는 곳에 자리를 잡고 서울의 상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해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마침내 특권적 상인인 금난전권(禁亂塵權)을 철폐하는 데 이르러서 상업의 발달에 획기적인 전환이 생겨났다. 양주와 송파는 바로 사상도고가 자리를 잡은 신흥 상업 도시였으므로, 그곳에 축적된 역량으로 독자적인 탈춤인 별산대놀이를 키워 나갔다.

본산대가 쇠퇴하고 별산대가 흥기한 것은 상업사에서의 전환과 바로 대응된다. 봉산(鳳山)을 위시한 황해도 각 고을의 탈춤은 그쪽에서 활동하던 떠돌이 놀이패의 탈춤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역시 18세기 중엽쯤 생겨났다. 황해도 각 고을은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의주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상업 도시로 성장했고, 경남의 해안 및 낙동강 연변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및 거기에 관련된 국내 교역의 요충지마다 들놀이 또는 오광대라고 하는 탈춤을 키우는 상업 도시가 나타났다.

도시 탈춤은 떠돌이 탈춤을 본뜬 것이고 떠돌이 탈춤이 인기를 누리던 권역 안에서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촌 탈춤을 발전시키면서 자라났다고 할 수 있다. 마을 곳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고 연극으로 독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공연하는 날짜가 반드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여러 과장으로 나누어진 복잡한 내용에다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떠돌이 탈춤의 전례를 이었다. 그러나 공연 담당자가 직업적인 놀이패는 아니기에 구경꾼들과 동질적인 의식을 가지고 모두 함께 신명풀이를 하는 대방놀이를 재현했다는 점에서는 농촌 탈춤의 계승자 노릇을 했다. 떠돌이 탈춤과의 관계 때문에 전파에 의한 유사성을 가지고 농촌 탈춤이 본래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는 독립 발생적인 공통성을 물려받았으면서도, 도시 탈춤은 지역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조건에 따른 차이점을 갖추고 있어서 서로 견주어서 고찰하는 것이 또한 긴요한

과제이다.

탈춤 계승의 의의

탈춤은 19세기 후반에 전성기에 이르렀다가 외세의 침투로 인한 사회 변화 때문에 위축되기 시작했고, 일제의 강점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민족 문화 특히 민중 예술의 탄압을 중요한 시책으로 삼은 일제는 1911년, 밤에 함부로 노래 부르거나 춤을 추면 즉결 처분으로 처벌한다는 명령을 공포했다. 그래서 탈춤을 계속 공연할 수 없게 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명절놀이나 민속 행사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조건에서도 탈춤이 되살아나기 어려웠다. 민속을 연구하고 진흥시키고자 하는 관심이 일어나 탈춤을 다시 공연하도록 했으며, 1936년의 봉산 탈춤 공연은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었으나, 대세를 돌려놓지 못한 채 암흑기를 맞이했다.

광복 후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시련을 겪고 가까스로 이어진 탈춤이 1960년대 후반 이래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대학들이 대단한 열의를 보여 탈춤 재흥의 시기를 맞이했다. 탈춤을 마당극 또는 무대극으로 변용해서 계승하고자 하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탈춤에서 무엇을 계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탈춤이 연극으로서 지닌 의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탈춤이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공연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은 주제가 오늘날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데서 계승의 이유를 찾고 말 수도 없다. 탈춤이 지닌 연극적 특징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을 든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공연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이 공동체적인 유대를 가진 ‘대동놀이’라는 사실이 사회적 성격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연 방식에서도 일관된 원리를 형성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설정이 자유로워 극적 갈등을 구현하기에 유리하다. 일체의 설명은 빼고 오직 극적 갈등만으로 풍자를 하는 방법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승은 물론 개작이나 계승에서도 이런 특징이 다치지 않고 충분히 발현되어야 한다.

공연하는 사람은 탈을 써서 구경꾼과 분리되고, 배역의 성격을 쉽사리 나타낸다. 탈 쓴 얼굴을 두는 각도나 방향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고, 거기에 햇불 조명이 비추어져 구경꾼을 긴장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나 탈꾼들끼리만 연극을 하는 것은 아니다. 탈꾼이 악사와 수작을 나누어 연극의 폐쇄성을 깨고, 악사뿐만 아니라 구경꾼도 배역이 아닌 채로 정해진 각본에 따르지 않고서 공연에 간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연극이 평소의 생활과 동떨어진 별세계로 인도하는 극적 환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살아가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현장에서 심의하고 처결하는 회의와 같은 구실을 하게 한다. 연극 공연 전 후에 벌이는 길놀이와 난장놀이는 회의 참가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데 소용된다. 그런 것들이 신명놀이의 원리를 이룬다.

공연이 시작되면 각 과장마다 처음 설정된 극 중 장소는 바로 공연 장소이다. 등장인

물도 놀이가 벌어졌다기에 구경하거나 장사하러 나왔다고 해서 생활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고는 일체의 무대 장치는 없이 몸짓, 대사, 그리고 약간의 소도구만으로 극 중 장소를 전환하되, 공연 장소에서의 거리와 극 중 장소에서의 거리가 비례하지 않는다. 공연 시간과 극 중 시간의 관계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구차스러운 배경을 제시할 필요는 없이 장소와 시간을 필요한 대로 전환해, 서사적 설명은 배제한 극적 갈등을 구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극 중 장소에서 따로 벌어지는 일을 한꺼번에 보여주어 서로 대조가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명은 일체 배제하고 극적 갈등만 구현한다는 특징은 억압된 상황에서 억압의 원인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데 아주 유리한 작용을 했다. 소설이나 판소리에서는 기존의 덕목을 걸로로나마 표방해야만 되었는데 탈춤은 그럴 필요가 없었으며, 다른 예술 형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갖가지 수법을 다채롭게 개발했다. 등장인물이 구경꾼들과 한패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며,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며, 말을 하기도 하고 무언이기도 해서 긍정과 부정의 관계가 다각도로 표현된다. 말이나 행동은 겉 다르고 속 다른 뜻이 있어 잘못 듣고 보면 멍청이가 된다.

세 가지 특징 가운데에서 첫 번째 특징은 공동체적인 유대와 생활 현장에서의 일체감이 지속되거나 다시 생기는 조건에서 제대로 계승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실내의 극장에서 공연하는 현대극이라도 무대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고, 새롭게 개발할 여지가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주제를 설명으로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야 의의가 발현되고, 연극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의 다른 영역에서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서양 전래의 근대극이 연극의 완성 형태라는 생각을 버리고 연극의 새로운 활로를 민족적 전통에서 찾고자 하는 데 이 결론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

출전 《한국의 탈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채워 보자.

탈춤	농촌 탈춤	북청 ()놀이
		강릉()놀이
		하회탈춤
	떠돌이 탈춤	본산대 놀이패
		대광대패
	()탈춤	양주 ()놀이
		송파 ()놀이
		황해도 봉산 탈춤
		들놀이, 오광대

2.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보기>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도, 그 문맥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골라 보자.

소설이나 판소리에서는 기존의 덕목을 걸로나마 표방해야만 되었는데 탈춤은 그럴 필요가 없었으며, 다른 예술 형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갖가지 수법을 다채롭게 개발했다.

<보 기>

소설이나 ① 판소리는 기존의 덕목을 걸로나마 표방해야만 되었는데 탈춤은 그럴 필요가 없었으며, 다른 예술 ② 형태는 보이지 않는 갖가지 수법을 다채롭게 개발했다.

• 어색하지 않은 것: _____

3. <보기 1>은 ‘하회 탈춤’의 대본 중에서 윗글에서 인용된 내용에 해당된다. 밑줄 친 부분의 언어유희(말장난) 양상과 유사한 것을 <보기 2>에서 찾아보자.

<보 기 1>

양 반: 아니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선 비: 아니 그럼 또 뭐가 있단 말인가?
 양 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네. 어흠.
 선 비: 아니 뭐라고. 사서삼경? 아니 뭐 그까짓 걸 가지고.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
 양 반: 아니, 도대체 팔서는 어디 있으며 대관절 육경은 또 뭐로?
 초랭이: 나도 아는 육경 고것도 모릅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래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다 큰 처녀의 월경, 이 머슴 놈의 세경 말입니다. 세경.

— <보 기 2> —

- ①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 ②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 ③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 ④ 운봉의 갈비(사람의 갈비뼈)를 직신, “갈비(소갈비) 한 대 먹고 지고.”
- ⑤ “신 것을 그리 많이 먹어. 그 놈은 낱더라도 안 시건방질까 몰라”

- 양상이 유사한 것: _____

4.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해 보자.

— <보 기> —

농촌 탈춤으로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갖춘 것은 하회 탈춤이다.

조사 ‘로서’는 앞 체언의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내주고, ‘로써’는 앞 체언이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가 됨을 나타내 준다.

- ① 나는 회장(으로서 / 으로써) 이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 ② 내가 친구(로서 / 로써) 해주는 마지막 충고이다.
- ③ 대화(로서 / 로써) 갈등을 풀 수 있다.
- ④ 이 일은 눈물(로서 / 로써) 호소할 일인 것이다.

쉬어 가기

고려청자/우리 음악

초기 고려청자 '다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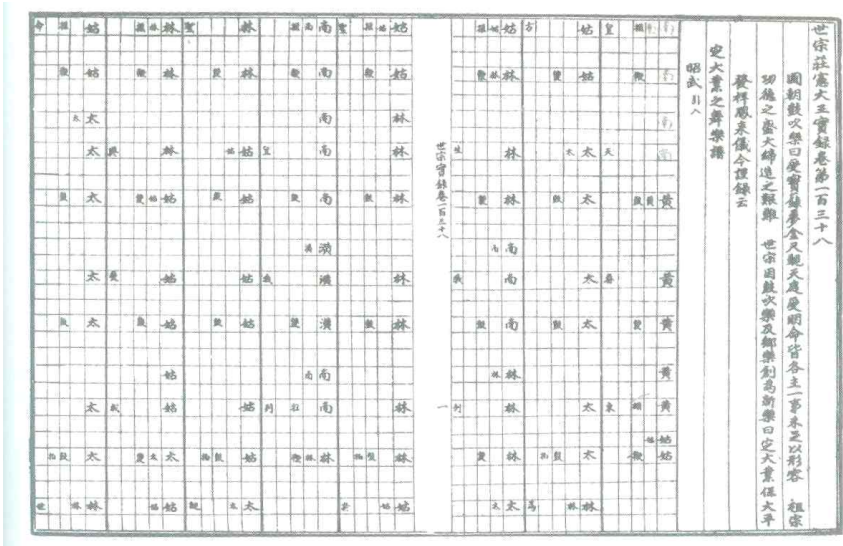
청자참외모양꽃병



고려청자상감운학무늬매병



조선 세종 시대의 악보인 '정간보'



우리 음악의 악기



4.

선인들의 말과 글

-
- (1) 훈민정음, 성인의 도를 구현한 언어
 - (2) 말의 예절이란?
 - (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
 - (4) 퇴고의 이론과 실제
 - (5) 조선어 학회 사건
- 쉬어 가기 ‘훈민정음(訓民正音)’
-

(1) 훈민정음, 성인의 도를 구현한 언어

문중앙

훈민정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이란 우리말의 표기 체계인 한글의 본래 이름이자 책 이름이기도 하다. 《세종실록》의 1443년(세종 25년) 12월 30일 기사는 훈민정음이 처음 창제되었을 때를 생생히 전한다. 세종 “임금이 친히 28자를 만들었으며, 초성·중성·종성이 모여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니, 모든 언어의 소리들을 표현함이 무궁하다.” 간단한 기록에 불과하나 표음(表音) 문자²⁸⁾로서 음소 세 개가 모여 음절 단위로 하나의 글자를 이루면서 무궁한 소리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한글의 과학적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자들은 현대 언어학에서 판단하는 한글의 장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바로 반포하지는 않았다. 물론 최만리의 반대 상소로 알려진 것처럼 많은 관료와 지식인들의 비판적 의견이 만만치 않은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세종은 그러한 반대 의견에 과감히 대처하면서도 신중하게 훈민정음의 체계를 다듬어나갔다. 그 결과 창제한 지 3년이나 지난 1446년(세종 28년) 9월 29일 《실록》의 기사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정리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이 편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실록》에는 세종이 직접 쓴 <어제(御製)>와 정인지의 <서문>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세종의 <어제>는 나중에 다시 한글로 번역, 풀이되어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언해본)훈민정음》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낯익은 문헌이다. 그러나 이 《세종어제훈민정음》에는 새로운 문자 창제의 뜻과 간략한 개요만이 담겨있을 뿐이다.

원본 《훈민정음》이 세상에 알려진 때는 1940년이였다. 경상도 안동의 고가에서 처음 발견되어 간송 전형필 선생이 보관해 오다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현재 간송미술관의 간송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때 발견된 《훈민정음》에는 그때까지 알려졌던 세종의 <어제>와 정인지의 <서문>이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실려 있고, 그 사이에 세종의 <어제>에 대해 해설과 주석을 다는 형태로 본문 격인 <해례(解例)>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었다. 이 <해례>는 발견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훈민정음의 자모가 만들어진 구체적인 원리와 자모들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 자모들이 모여 음절 단위로 글자를 이루는 방법과 원리, 훈민정음의 용례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훈민정음은 <해례>가 수록된 문헌으로는 유일하며, 그래서 이른바 《(해례본)훈민정음》이라고도 불린다. 이 《(해례본)훈민정음》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창제

28) 표음(表音) 문자: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 한글, 로마자, 아라비아 문자 따위가 있다.

과정과 그 원리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유일한 문헌이다. 이 때문에 한글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체계 중에서 창제 과정과 시기가 정확히 알려진 유일한 문자가 되었다. 우리의 귀중한 유산일 뿐 아니라 전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귀중한 유산이다. 특히 이 책에 실린 문자를 만든 원리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 나타난 이론의 정합성(整合性)과 과학성은 그야말로 ‘언어 과학’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1997년 10월에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지정되었다.

훈민정음 자모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훈민정음》에 서술된 언어학적 이론 체계와 창제 과정은 이미 수많은 국어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져 있다. 그중 훈민정음의 자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적 발명의 차원에서 살펴보자.

훈민정음 자모의 기원에 대한 이설(異說)들은 매우 많다. 그중에는 다소 황당하거나 실증적으로 근거를 대기 어려운 주장들도 끼어 있다. 예컨대 우리 전통 가옥의 창살 모양을 본떴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이다. 사실 필자도 어렸을 적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고심하다가 잠결에 달빛에 비친 창살의 모양을 보고 창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생생하다. 이 가설은 흡사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해 냈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인류의 위대한 유산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의 영감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설은 세종이나 뉴턴이라는 인물들의 비범한 천재적 감각을 신비화해 개인적인 영웅으로 만들 뿐이며, 그들의 업적 이전에 그것이 있게 한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는 공허함을 낳을 뿐이다.

《훈민정음》에는 자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적혀 있다. <제자해(制字解)>에는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으며, 정인지의 서문에는 “모양을 본뜨되 옛 전자(즉 전서체라는 한자의 서체를 말한다)를 모방했다.”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어떤 모양을 본떴으며, 전서체라는 한자의 서체를 모방했음은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이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첫째로 들 수 있는 주장이 ‘발음 기관 상형설’로 훈민정음의 자모가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한글학의 원로 최현배 선생과 같은 분들이 주장했고, 현재에도 가장 많은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지배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주장은 <제자해>에 나오는 초성 17자의 제자 원리 설명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예를 들어 보자. 어금닛소리인 ㄱ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으며, 헛소리인 ㄴ

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 ㅁ은 입의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 ㅅ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이 다섯 글자가 기본자이며, 나머지 자모들은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즉 어금닛소리인 ㅋ은 같은 어금닛소리의 기본자인 ㄱ에 한 획을 더해서, 헛소리인 ㄷ과 ㅌ은 같은 헛소리의 기본자인 ㄴ에 획을 더해서, 마찬가지로 ㅂ과 ㅍ은 ㅁ에 획을 더해서, ㅈ과 ㅊ은 ㅅ에 획을 더하고, ㅇ과 ㅎ은 ㅇ에 획을 더해서 각각 만들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어금닛소리 ㅇ, 헛소리 ㄷ, 잇소리 ㅅ은 획을 더해서 만들지 않고 별도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자 원리가 훈민정음의 모든 자모에 설득력 있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ㅁ과 ㅅ이 어떻게 입 모양과 이의 모양을 각각 본뜰 수 있을까? 조금 수궁하기가 힘들다. 또 ㅇ과 ㄹ이 어떻게 혀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과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과 유사한지 추정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중성자, 모음자의 경우에는 더욱 들어맞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많은 국어학자들이 발음 기관에서 유추해 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천지인의 형상을 담아내다

그래서 제기된 다른 주장이 본뜬 모양이 발음 기관의 모양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주역》의 원리를 담은 삼재(三才), 곧 천지인(天地人)의 형상을 담아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 또한 <제자해>에 수록된 실제 기록에 근거해 제시된 것으로 꽤 설득력이 있다. <제자해>의 기록에 따르면, 중성의 기본 모음자 ㆍ, ㅡ, ㅣ는 역(易)의 기본인 천지인 삼재의 모양을 본떴다.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각각 본떴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기본 모음자를 천지인 삼재를 본떠 만든 다음, 나머지 여덟 개의 모음자는 세 기본 모음자를 결합해 만들었는데, 그 결합 방법과 원리가 바로 《주역》에 담긴 교역(交易)과 변역(變易)의 원리, 그리고 오행설(五行說)의 원리였다.

이 주장은 적어도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에서는 발음 기관 상형설보다 설득력이 크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원리를 초성 자음자의 제자에까지 적용하기도 한다. 보통 태극은 하나의 점(ㆍ), 또는 원(○)으로 상징된다. 이 원 또는 점으로 상징되는 태극에서 양과 음이 생성된다는 것은 태극설을 믿는 15세기 성리학자들에게는 당연한 사고방식이었다. 이때 양과 음은 하늘과 땅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천원지방(天圓地方), 곧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태극에서 동그라미 (○)와 네모 (□)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이 양(하늘)과 음(땅)을 상징하는 ○과 □의 기하학적 도형에서 오행의 모양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형태의 문자를 창제해야 하는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처지에서는 ○와 □의 기하학적 도형에서 다섯 개의 기본 자음자 ㄱ, ㄴ, ㅁ, ㅅ, ㅇ의 형태를 도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자해>에서 다섯 개의 기본 자음자들을 목·화·토·금·수의 오행 원리를 이용해 그 음가와 음의 성질을 설명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추리하

는 것도 억지는 아니다.

또 양과 음을 상징하는 ○와 □의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에서 자음자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제자해>의 서술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기본 자음자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음 기관의 모양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그라미에서 목구멍의 모양을 닮은 ○을 도출하고, 네모에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ㄱ과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ㄴ을 각각 도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발음 기관 상형설을 보완하는 이론이면서 동시에 훈민정음 창제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도 부합하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전 《문중양 교수의 우리 역사 과학 기행》, 동아시아, 2006.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구분	물음	답
훈민정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언해본 훈민정음과 해례본 훈민정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훈민정음 자모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훈민정음 자모의 기원에 대한 이설은 무엇이 있는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발음 기관 상형설로 잘 설명되는 자모는 무엇인가?	
천지인의 형상을 담아 내다	삼재(三才)의 상형설로 잘 설명되는 자모는 무엇인가?	

2. <보기>를 참고하여 본문의 ㉠과 이를 고친 ㉡의 의미 차이를 설명해 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 < 보기 > —</p> <p>부정문은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으로 나뉜다. 의지 부정은 어떤 내용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나 주체의 의지로 일부러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쓰이고, 능력 부정은 어떤 행위를 할 능력이 없거나 외적 환경이나 원인에 의해 그 행위를 하지 못할 때 주로 사용된다.</p> <p>㉠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바로 반포하지는 <u>않았다</u>.</p> <p>㉡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바로 반포하지는 <u>못했다</u>.</p>
--

3.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훈민정음 자모의 유래를 설명하는 학설은 ‘발음 기관 상형설’과 ‘삼재 상형설’로 나뉜다. 두 학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하나만 찾아보자.

비유적(比喩的)

순환적(循環的)

발전적(發展的)

인과적(因果的)

상보적(相補的)

계층적(階層的)

4. 다음은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규정들이다. 이를 읽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표준 발음법>

제30항 사이시옷이 붙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냇가[내:까/냇:까] 샛길[새:길/쌔:길]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콘날→곤날] 아랫니[아래니→아랜니]
3.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갸넌→베갠넌] 깃잎[깡닙→깡닙]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궂밥 나룻배 나룻가지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텃머리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깃열 텃웃 두렛일 텃일 텃입맛

(1) <표준 발음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

- | | |
|------------------------------------|-------------------------------------|
| • 붓물 [] | • 어금닛소리 [] |
| • 뒷부분 [] | • 윗잇몸 [] |

(2) <보기>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이시옷 표기들이다. <한글 맞춤법>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의 사이시옷 표기 근거를 ①~③에서 찾아보자.

————— < 보기 > —————

붓물, 어금닛소리, 뒷부분, 윗잇몸

- 붓물 (②)
- 어금닛소리 ()
- 뒷부분 ()
- 윗잇몸 (②,)

(2) 말의 예절이란?

이덕무

말이란 소곤거리서도 안 되고, 지껄여서도 안 되고, 어수선해서도 안 되고, 어물어물해서도 안 되고, 길게 늘어뜨려서도 안 되고, 딱딱 끊어져서도 안 되고, 소리가 낮거나 힘이 없어서도 안 되고, 난폭하거나 성급해서도 안 된다.

기쁠 때 나오는 말은 아첨하기 쉽고, 화가 날 때 나오는 말은 과격하기 쉽다. 내가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다. 물 가져오너라, 불 가져오너라 하거나 계집종이나 사내종을 부르는 소리는 가늘고 길게 하지 말고, 시끄럽거나 사납게 해서도 안 된다.

초상을 당한 사람의 곡소리는 재촉하듯 빠르거나 혈떡거리듯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 하품하듯 해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목소리가 고와 노랫가락처럼 들려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짖어서도 안 된다. 소나 말 울음소리처럼 듣는 사람의 귓전을 때려 놀라게 하여 부녀자나 어린 아들의 비웃음을 사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풍속에서 초상을 당한 사람의 곡소리는 계속해서 ‘애고(哀告)’를 부르짖는다. 외증조부이신 박효정 공께서는 일찍이 “계속해서 ‘애고’라고 부르짖는 두 소리는 겨우 목구멍에서 나오므로 자연히 끊어지게 되어 있다. ‘애고’보다는 ‘애애(哀哀)’라는 한 소리가 곧장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애통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는 집이 이웃과 맞닿아 있거나 큰길가에 있을 때, 크게 웃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웃 사람이 귀를 쫓긋하고 듣거나 길 가던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듣게 되면, 비방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많다 보면 위엄을 해치고 정성스러움을 잃게 된다. 또한 기운을 상하고 일을 그르치게 된다.

좋은 말이라도 지루하면 듣는 사람이 되레 싫어한다. 하물며 나쁜 말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계집종이나 사내종을 시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절대로 말을 번거롭거나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 번거롭거나 복잡하면 종이 그 말을 다 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일만 늦어질 뿐이다.

말을 할 때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글의 첫머리를 나열하듯 해서 듣는 사람이 싫증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란 정확하고 세밀하며, 간략하고 명백해야 한다. 번거롭거나 되풀이하거나, 가늘게 하거나, 자질구레해서는 안 된다.

저속한 말이란 한 번 입에서 나오면 선비의 품격과 행실을 곧바로 떨어뜨린다.

저속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예를 들어 요즘 세상의 경박한 자들이 유학자들을 일컬어 ‘궤(跪), 꿇어앉을 궤’라고 하며 무릎 꿇고 앉은 자세를 조롱하거나 무인(武人)들을 일컬어 ‘약(躍), 펴 약’이라고 하며 발로 뛰며 활 쏘는 행동을 조롱하는 일 등이 그렇다.

다른 사람을 ‘이놈’ 혹은 ‘저놈’이라고 하거나 ‘이 물건’ 혹은 ‘저 물건’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무리 비루하고 천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화를 내어 ‘도적놈’이니 ‘개돼지’니 ‘원수놈’이라고 부르지 말고, 또한 ‘죽일 놈’이라거나 ‘왜 죽지 않고 살아 있는가’ 하고 나무라서도 안 된다.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별척 내며 ‘나는 죽어야 한다’느니,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느니, ‘하늘이 폭삭 무너져 버려야 한다’느니, ‘나라가 깡그리 망해야 한다’느니, ‘떠돌며 빌어먹는다’느니 하는 따위의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서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우스갯소리에 그친다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는 일은 실속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지껄이는 말이란 대개 농담 아니면 바둑이나 장기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한 여색이나 술과 안주 아니면 과거에 합격한 벼슬아치들의 출세와 좌천 혹은 가문의 높고 낮음에 대한 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듣고 있자면 민망스럽기 그지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다른 사람과 마주하고 앉아 경서와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껏 보지 못했다.

끊임없이 벼슬아치의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또한 요동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군자는 영화로움과 이로움을 자주 말하지 않고, 욕심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흠족하게 여길 뿐이다.

부패하고 사악한 냄새가 나는 모든 나쁜 일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들은 매우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음탕한 말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말과 나귀, 집과 정원, 패물이나 보감(寶鑑), 장식품 등의 가치나 기생과 악공 등의 이름, 얼굴, 재주 등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어느 틈에 학문이나 인륜 혹은 자신을 위하는 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음담패설, 패악 무도한 반란, 허망하고 망령스러운 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혹은 가혹하고 과장되고 원한 가득한 말을 듣게 되면 절대로 대꾸하지 말고 슬금슬금 물러나 자리를 피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일상생활의 화젯거리를 남에게 신이 나 떠들고, 다른 날 다시 그 사람을 만나 예전에 말한 것은 까마득히 잊은 채 다시 얘기한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염증을 느끼게 된다. 총명하지 못해 일으킨 행동이지만 마음과 기운이 거칠고 경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출전 《조선 지식인의 말하기 노트》, 한정주·엄윤숙 엮음, 포럼, 2007.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 중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말의 예절을 찾아 ○ 표시를 해 보자.

- 말이 많다 보면 위엄을 해치고 정성스러움을 잃게 된다. (○)
- 좋은 말이라도 지루하면 듣는 사람이 되레 싫어한다. ()
-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
-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절대로 말을 번거롭거나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 ()
- 말을 할 때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듣는 사람이 싫증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 언제든지 말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 ()
-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보기>의 (가)는 직접 인용을 한 것이고, (나)는 간접 인용을 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고쳐 보자.

— < 보기 > —

(가) 외증조부이신 박효정 공께서는 일찍이 “‘애고’보다는 ‘애애(哀哀)’라는 한 소리가 곧장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애통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증조부이신 박효정 공께서는 일찍이 ‘애고’보다는 ‘애애(哀哀)’라는 한 소리가 곧장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애통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철수는 “난 학교에 일찍 갔어.”라고 말했다.

⇒ 철수는 _____.

3. 둘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는 관용어가 있다. 다음은 ‘말[言語]’이 들어간 관용어이다. 밑줄 친 부분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예문	의미
그런 일로 남의 <u>말을 들어서야</u> 되겠느냐?	①
무슨 잘못을 했는지 <u>말이 굳어 있었다</u> .	

남자는 <u>말이 무거워야</u> 한다.	
용의자들은 이미 <u>말을 맞추었는지</u> 똑같이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u>말이 모자라</u> 못한 적이 없는 그녀였지만 말문이 껍 막히고 콧날만 시큰했다.	
이미 다 <u>말이 있어서</u> 그러는 건데 너 혼자만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이나?	

— < 보기 > —

- ① 꾸지람을 듣거나 시비의 대상이 되다.
- ②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신중하다.
- ③ 제삼자에게 같은 말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말의 내용이 다르지 않게 하다.
- ④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⑤ 어떤 말에 대응할 말이 없다.
- ⑥ 말이 더듬더듬 막히다.

4. 다음은 단어의 발음만으로는 정확한 표기를 짐작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어법에 맞는 표기에 동그라미를 해 보자.

- 일찍이, 일찌기
- 몇일, 며칠
- 굴병, 골병
- 올라비, 오라비
- 없이여기다, 업신여기다

(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

정민

보배 구슬을 간직하려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읽지 않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계열화해서 쌓아 가는 것이다. 책을 읽을수록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될수록 새것이 더 궁금해져서 자꾸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게 된다.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쌓이면 전에는 몹시 어렵던 것이 아주 쉽게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중국 남방 촉 지방에 사는 어떤 사내아이가 슬슬주(瑟瑟珠)라는 귀한 구슬 수천 개를 얻었다. 구슬이 너무 영롱해서 이것을 도시에 가져가서 팔려고 가슴에도 품고, 옷깃에도 차고, 손에 움켜쥐고, 심지어는 입안에까지 물고서 먼 길을 떠났지.

그런데 길을 가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앞가슴을 헤치자 가슴속에 품은 구슬이 땅에 떨어졌다. 물을 건널 때 몸을 숙이자 옷깃에 찬 것이 물 위로 떨어졌다. 길 가다가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하자 입속에 물고 있던 구슬이 튀어나왔다. 벌이나 전갈이나 뱀 같은 것이 쫓아오면 그걸 뿌리치려다가 손에 들고 있던 구슬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낙양은커녕 그 절반도 못 가서 지니고 있던 슬슬주는 모두 없어지고 말았지.

낙담한 소년이 힘없이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다 나이 든 장사꾼을 만났지. 그리고 그에게 귀한 구슬을 모두 잃고만 얘기를 했더라. 그랬더니 늙은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

“명청한 녀석! 좀 더 나를 일찍 만났더라면 구슬을 하나도 잃지 않았을 텐데. 구슬을 보관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비단실을 새끼 돼지 털에 묶어 이것을 바늘로 삼아 푸른 구슬은 꿰어 푸른 꿰미를 만들고, 붉은 것은 붉은 것끼리 꿰어 붉은 꿰미를 만든다. 이렇게 구슬 색깔에 따라 같은 색끼리 꿰어 물소 가죽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가져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 아깝구나! 너처럼 했다가는 몇 천 개 아니라 몇 만 개의 구슬을 얻었다 해도 금세 모두 잃고 말았을 게다.”

다산은 제자들을 위해서 옛 경전에서 구슬처럼 중요한 항목들을 뽑아 갈래별로 분류한 《소학주관(小學珠串)》이란 책을 펴낸 일이 있다. 위 이야기는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란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소년의 구슬은 하나하나가 공부를 통해 얻은 정보를 말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내용을 익혔는데, 막상 써먹으려고 보니 이리저리 흩어져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 공부가 체계를 갖추지 않고 따로 따로 놀기 때문이지.

사람은 동서남북과 전후좌우를 잘 구분해야 한다. 동서남북은 변치 않는 방위이지. 내가 어디를 향해 있더라도 북극성은 북쪽에서 뜬다. 해는 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하지만 전후좌우는 이와는 달라. 내가 북쪽을 보고 서 있으면 내 오른쪽이 동쪽이지만, 내가 반대로 돌아서면 내 오른쪽은 서쪽이 된다. 내가 서쪽을 보고 서 있으면 내 오른쪽은 다시 북쪽이 된다. 우리는 동서남북과 전후좌우를 잘 알아야겠지. 전후좌우를 동서남북으로 착각하면 북쪽으로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사실은 남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목표에서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고 말지.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고 책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늘 방향을 파악하고 정확한 길로 가야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는 나침반이 꼭 필요하다. 책을 읽을 때도 나침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지 순서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많은 구슬이 색깔별로 꿰어져 하나도 잃지 않게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 책들을 찾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게다.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그와 연관된 다른 책을 찾아 읽는 식이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니?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그 뿌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연하던 것이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법이다.

정보 통합 요령

다산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그동안 고향 집에 있는 아들들에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많은 편지를 보냈지. 한번은 아들이 닭을 쳐서 생계에 보탬이 되려 한다는 편지를 보내온 모양이야. 그러자 아버지 다산은 아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네가 닭을 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치는 데도 우아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사 책을 꼼꼼히 읽어 거기에 실린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도록 해라. 닭의 털 빛깔에 따라 구분해 보기도 하고, 횡대의 크기를 달리 해 보기도 해서 다른 집보다 닭이 더 살지고 번드르르하게 길러야 한다. 번식도 더 많게 해야지. 또 이따금씩 시를 지어서 닭의 모습을 묘사해 보도록 해라. 사물을 통해 사물을 살피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양계법이니라. 만약 이익만 따지고 의리는 거들떠보지 않거나, 기를 줄만 알고 운치는 몰라, 부지런히 애써 이웃 채마밭의 늪은이와 더불어 밤낮 다투는 자는 작은 마을에 사는 못난 사내의 양계인 게다. 너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구나. 이왕 닭을 기른다면 모름지기 백가의 책 속에서 닭에 관한 글들을 베껴 모아 보거라. 내용에 따라 차례를 매겨 《계경(鷄經)》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당나라 때 육우는 차에 대한 자료를 모아 《다경(茶經)》을 지었고, 유득공은 담배에 관한 내용을 모아 《연경(烟經)》을 지었지. 속된 일을 하더라도 맑은 운치를 얻는 것은 언제나 이것을 좋은 예로 삼도록 해라.

닭을 쳐서 달걀을 얻고 병아리를 기르는 것은 속된 일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공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구나. 먼저 여러 농사 관련 서적을 뒤져서 거기 나오는 양계법에 대한 내용을 추려 내야겠지. 그중 좋은 방법을 골라서 직접 적용해 보는 것이 그다음 단계다. 또 직접 닭을 기르는 과정을 시로 써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둔다. 나아가 옛글 속에서 닭에 관한 글들을 하나둘 모아서 갈래를 나눠 편집한다면 닭을 기르는 방법에 관한 아주 요긴하고 알찬 내용을 담은 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다산 정약용 방식의 정리 방법이란단.

다음 글은 다산이 병아리를 관찰한 후 쓴 글이다. 말하자면 자식들에게 구체적인 공부의 시범을 보인 셈이지.

옛날 정자(程子)라는 학자가 병아리를 관찰했는데, 기록하는 사람이 '인(仁)', 즉 어진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내 집은 서울 안에 있지만 해마다 닭은 한 배씩 기르며 병아리를 즐겨 관찰하곤 한다. 막 알을 까고 나오면 노란 주둥이는 연하고 연두색 털이 송송 돋았다. 잠시도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어미가 마시면 저도 마시고, 어미가 모이를 쪼면 저도 쪼는다. 화기애애 하여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미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모두 지극하다. 조금 자라 어미 곁을 떠나면 형제끼리 서로 따른다. 어디를 가도 함께 가고, 깃들 때도 같이 깃든다. 개가 으르렁거리면 서로 지켜 주고, 술개가 지나가면 함께 소리친다. 그 우애의 정이 또한 지켜보기에 즐겁다. 효성과 우애는 인(仁)을 이루는 근본이다. 너희들은 조금 자란 병아리다. 부모만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형제간에 우애를 도탑게 하지 않는다면, 저 병아리들이 도리어 너희를 비웃고 천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이 하나둘 모이고, 옛사람이 쓴 닭에 관한 글들을 모두 모으면 정말 닭에 관한 근사한 책 한 권이 되었을 게다.

변상벽(卞相璧)이란 화가는 닭 그림을 아주 잘 그리기로 유명하지. 옆의 그림을 보렴. 사나운 개의 얼굴 모양처럼 생긴 바위 아래 새끼 병아리들이 모이를 먹고 있구나. 어미의 주둥이를 잘 살펴보렴. 입에 곤충을 물고 있는 것이 보이지? 어미가 벌레를 물고 와서 서 있으면 병아리들이 달려들어 뜯어먹는다. 그 아래쪽 두 녀석도 벌레 한 마리를 서로 마주 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물이 담긴 접시에 올라앉은 녀석들도 있구나. 다산은 변상벽의 이와 비슷한 닭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긴 시를 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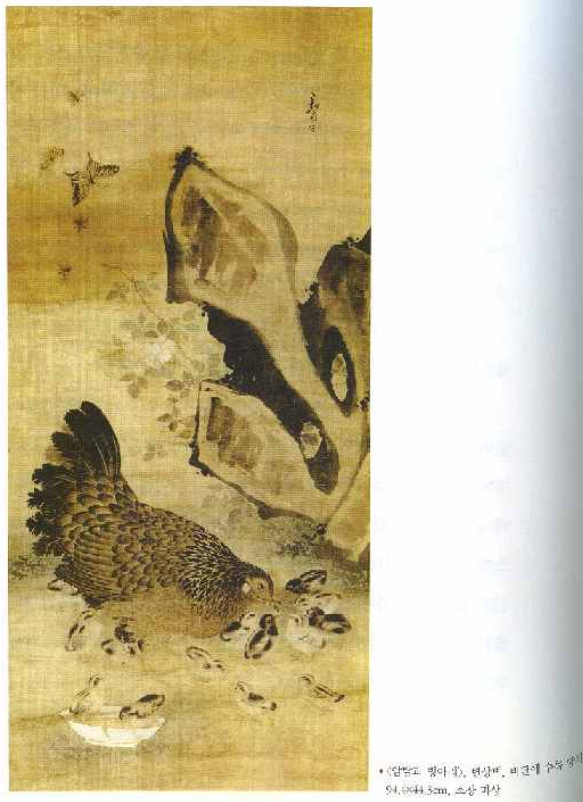
제목은 <변상벽이 그린 어미 닭이 병아리를 거느린 그림에 제하다(題卞尙璧母鷄領子圖)>란 작품이다.

변상벽은 변고양이라는 별명 있으니	卞以卞貓稱
고양이 그림으로 이름이 났네.	畫猫名四達
이제 다시 병아리를 그려냈는데	今復繪鷄雛
하나하나 깃털이 살아 있는 듯.	箇箇毫毛活
어미 닭 까닭 없이 성을 내는데	母鷄無故怒
낮빛이 몹시도 사나웁구나.	顏色猛峭截
목깃이 고슴도치처럼 일어서	頸毛逆如蝟
맞닥치면 성내어 소리 지른다	觸者遭嗔喝
뒷간 옆을 찾거나 방앗간에서	煩壤與碓廊

땅을 굶어 언제나 흙을 파는 듯
날알 하나 얻으면 거짓으로 쪼는 척
괴롭게 굶주림과 목마름 참네.
사방 봐도 보이는 것 하나 없더니
숲 저편에 솔개가 지나가누나.
놀라워라 자애로운 어미의 성품
하늘 준 것 뉘 능히 빼앗으리오.
병아리들 어미 곁을 졸졸 따르니
보송보송 노란 옷 굵기도 해라.
밀랍 부리 막 굳은 듯 보드라운데
붉은 빛은 희미하게 빛깔이 엷다.
병아리 둘 서로 쫓아 달려가는데
허둥지둥 저리 빨리 어디로 가나.
앞에 녀석 부리에 벌레를 물자
뒤 녀석이 빼앗으려 하는 것일세.
두 병아리 지령이를 다투느라고
같이 물고 둘 다 서로 놓지를 앓네.
새끼 한 놈 어미 등에 올라타서는
가려운 곳 혼자서 긁고 있구나.
한 놈은 저만치 따로 떨어져
채소 싹을 이제 막 따 먹는도다.
형상마다 세밀하여 진짜 같아서
도도한 그 기운을 막을 수 없네.
듣자니 이 그림 갓 그렸을 때
수탉이 잘못 알고 야단났다지.
이 밖에 고양이 그림도 능해
못 쥐들을 겁먹게 할 만하였네.
뛰어난 기예가 여기 이르니
만질수록 마음이 자꾸 쏠린다.
거칠게 산수를 그려 넣으매
거침없는 손놀림이 상쾌도 하다.

爬地恒如塤
得粒佯啄之
苦心忍飢渴
瞿瞿視無形
鷗影度林末
嗟哉慈愛性
天賦誰能拔
群雛繞母行
茸茸嫩黃褐
蠟嘴軟初凝
朱冠淡如抹
二雛方追犇
急急何佻撻
前者味有垂
後者意欲奪
二雛爭一蚓
雙銜兩不脫
一雛乘母背
癢處方自撥
一雛獨不至
菜苗方自捋
形形細逼真
滔滔氣莫遏
傳聞新繪時
雄鷄誤喧聒
亦其烏圓圖
可以群鼠惕
絕藝乃至斯
摩挲意未割
麤師畫山水
狼藉手勢闊

어떠냐? 그림을 보고 나서 시를 읽어 보렴. 어미 닭과 병아리들이 마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게다. 때로는 그림보다 글이 더 생생할 때도 있단다.



작은 주제 사전 만들기

송나라 때 여본중(呂本中)이 쓴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이란 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오늘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내일 한 가지 일을 기록하는 일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자연스레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알 수가 있다. 오늘 한 가지 이치를 알아내고 내일 또 한 가지 이치를 알아내는 일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자연스레 세상의 도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다. 오늘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실천에 옮기고, 내일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실천에 옮기면 오랜 뒤에는 저절로 굳세고 단단해질 것이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작업은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가 곤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치자. 그중에서도 여름만 되면 아파트가 떠나갈 듯 울어 대는 매미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곤충에 대한 책을 구해 읽어야겠구나. 하지만 이 책 속에는 매미에 관한 내용은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매미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또 매미의 한살이를 설명한 책도 있으니, 그 책도 구해 봐야겠구나.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네가 궁금한 점, 알고 싶은 내용을 하나하나 메모해서 적어 두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궁금증을 풀어 줄 내용을 찾아봐야겠지.

찾은 자료는 주제별로 잘 갈무리해서 체계적으로 모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 가다 보면, 매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고, 그 울음소리가 다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또 애벌레 과정을 거쳐 성충이 되는 기간이 저마다 같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매미에 관한 한 너를 따라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지.

이런 공부를 옛사람은 격물치지(格物致知) 공부라고 했다. 격물(格物)이란 무질서한 사물을 가지런하게 정리한다는 뜻이다. 치지(致知)는 격물을 통해서 무언가에 대해 앎[知]의 상태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격물치지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모아 어지러운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다산 정약용이 말한 격물치지 공부의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역시 다산이 귀양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란다.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책 읽기에 대해 나름대로 깨달은 점이 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비록 날마다 백 번 천 번을 읽는다고 해도 안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책을 읽을 때는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뜻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널리 살펴보고 자세히 따져서 근본까지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차례차례 글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날마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겉으로 백 권의 책을 아울러 살피게 될 뿐 아니라 그 책의 내용까지 환하게 꿰뚫게 되니, 명심하도록 해라.

예를 들어 《사기》란 역사책 중에 <자객열전>이란 글을 읽는다고 하자. 내용 중에 '조제(祖祭)를 지낸 뒤에 출발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께 묻겠지. "선생님! 조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멀리 길 떠나는 사람을 전송할 때 건강하게 잘 돌아오라고 비는 제사다."라고 대답하시겠지. 그러면 네가 또 묻겠지. "선생님! 그런데 왜 제사의 이름에 할아버지 조(祖)자를 쓰나요?" 선생님은 당황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실 거야. 집에 돌아와서 사전을 꺼내 조(祖)란 글자의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해라. 또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까지 찾아서 풀이와 해석을 살펴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보아야지. 지엽적인 뜻까지 다 살펴야 한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통전》이나 《통지》《통고》 같은 각종 제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책을 뒤져서, 조제를 어떤 형식으로 지냈는지 차례대로 모아서 시대별로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들면 길이 남을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전까지 한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네가 이일부터는 조제의 내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도 조제에 관해서만은 너보다는 더 잘 알 수가 없게 될 테니 얼마나 신 나는 일이나? 예전 송나라 때 학자 주희 선생의 격물치지 공부도 이렇게 했을 뿐이다. 오늘날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살피고, 내일 한 가지 사물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

책을 읽다가 궁금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다. 조제는 고대에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비는 제사다. 그런데 왜 굳이 할아버지 조(祖)자를 썼을까? 조상에게 빌면 조상의 혼령이 지켜 줄 거라고 생각한 걸까? 막상 사전을 찾아보면, '길제사 지낼 조'란 뜻이 보이고, 먼 길 떠나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뜻풀이가 나온다. 그래도 왜 할아버지 조자를 쓰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자꾸 문헌을 더 뒤져 보면, 고대의 전설적인 임

금인 황제(黃帝)의 아들 누조(累祖)가 여행을 좋아하다가 길에서 죽었다는 기록과 만나게 된다. 그제야 조제가 바로 이 누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생긴 제사임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라는 뜻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해서 조제란 명칭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냈을까? 이것은 역대 여러 종류의 제사 지내는 방법을 적은 책을 참고하여 알아볼 수 있다. 차례를 정해서 옮겨 적으면, 조제의 내력과 방법에 관한 아주 훌륭한 소책자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조제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산이 가르쳐 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다. 요즘 인터넷에서 링크를 통해 계속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격물치지 공부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에 있는 셈이다. 일찍이 작은 관심사를 키워 나가는 습관을 기르면 그것이 쌓여서 아주 큰 공부를 너끈히 해낼 수 있게 된다.

출전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고전 독서법》, 보림출판사, 2012.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에 인용된 글의 주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보자.

구분	주요 내용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1	①
다산이 병아리 관찰한 후 쓴 글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2	

— < 보기 > —

- ① 정보 정리 방법
- ② 격물치지(格物致知) 공부의 예
-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의 예

2. 본문은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표에 제시한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대화를 하는 듯이 느껴진다.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보자.

형태	명칭	높임 등급	의미
-란다	종결 어미	해라체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주는 데 쓰는 종결 어미. 친근하게 가르쳐 주거나 자랑하는 것 같은 뜻이 비칠 때가 있다.
-렴			

3. 다음은 본문의 일부분이다.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경(經)’과 같은 어휘를 만들어 보자.

기왕 닭을 기른다면 모름지기 백가의 책 속에서 닭에 관한 글들을 베껴 모아 보거라. 내용에 따라 차례를 매겨 《계경(鷄經)》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당나라 때 육우는 차에 대한 자료를 모아 《다경(茶經)》을 지었고, 유득공은 담배에 관한 내용을 모아 《연경(煙經)》을 지었지.

무경(舞經), _____

4. 다음 표준어 규정에 맞는 어휘들을 <보기>에서 찾아 표에 정리해 보자.

제3절 준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찮다 김	귀치 않다 기음	~ 매다.
제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경황 - 없다 궁상 - 떨다	경 - 없다 궁 - 떨다	

— < 보기 > —
귀이개 - 귀개, 무 - 무우, 부스럼 - 부럼, 생쥐 - 새앙쥐, 솔개 - 소리개, 수두룩하다 - 수독하다

제 14항		제 15항	
표준어(준말)	비표준어	표준어(본말)	비표준어
무	무우	귀이개	귀개

(4) 퇴고의 이론과 실제

이태준

1. 퇴고란?

글은, 사상인 것이나 감정인 것이나, 자기 마음속엿 것을 꺼내어 남에게 전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원만히 전달했으면 목적을 성취한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글은 심중엿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도구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것은 고려의 유신(遺臣)²⁹⁾, 길재(吉再)의 노래다. 나라 이미 망하고, 섬기던 임금 가신 길 알 길 없고, 포은(圃隱) 같은 충신은 선죽교의 이슬이 된 뒤, 그 나라, 그 임금, 그 충신의 같은 유신으로서 망해버린 송악(松嶽) 일경(一境)의 산천만 바라보는 길재의 심정이 이 석 줄 문장에 남김없이 다 드러났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명문(名文), 명화(名畵), 명담(名談)이라도 심중엿 것을 백 퍼센트로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루 측량할 수 없느니, 일필난기(一筆難記)³⁰⁾니, 불가명상(不可名狀)이니 하는 말들이 있는 것이다. 이 이루 측량할 수 없고, 일필난기요, 불가명상인 것을 ‘가급적 심중엿 것에 가깝게’ 표현한 것을 명문이라, 명화라 하겠는데 명문이나 명화치고 일필휘지(一筆揮之)³¹⁾해서 되는 것은 자고로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엇이나 원만히 된 표현이란 능란한 기술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무엇에서나 기술이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방법이란 우연이 아닌, 계획과 노력을 의미한다. 흥내의 천재인 채플린도 영화 <황금광(黃金狂) 시대>에서 닭의 몸짓을 내기 위해 양계장에 석 달을 다녔다는 말이 있다. 일필(一筆)에 되는 것은 차라리 우연이다. 우연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필(二筆), 삼필(三筆)에도 안 되면 백천필(百千筆)에 이르더라도 심중엿 것과 가장 가깝게 나타나도록 고쳐 쓰는 것이 문장법의 원칙일 것이다.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문장을 고쳐 나가는 것을 ‘퇴고(推敲)’라 한다.

29) 유신(遺臣): ① 왕조가 망한 뒤에도 전 왕조에 충성을 지키는 신하. ② 선왕(先王)을 모시던 신하.

30) 일필난기(一筆難記): 한 붓으로 이루 적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내용이 길거나 복잡해 간단히 기록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31) 일필-휘지(一筆揮之): 글씨를 단숨에 죽 내리 씀.

2. 퇴고의 유래

‘퇴고’라는 말은 우리 문장인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한다.

조숙지변수(鳥宿池邊樹) 새들은 연못가 나무 위에 잠들고
승고월하문(僧敲月下門) 중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리네

당(唐) 시대의 시인 가도(賈島)의 서경시(敘景詩)다. 이 시의 바깥쪽 ‘승고월하문(僧敲月下門)’이 처음에는 ‘승고(僧敲)’가 아니라 ‘승퇴월하문(僧推月下門)’이었다. 승퇴월하문이 아무리 읊어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 ‘퇴(推)’, 밀 ‘퇴’ 자 대신으로 생각해 낸 것이 ‘고(敲)’, 두드릴 ‘고’ 자였다. 그래 ‘승고월하문’이라 해 보면 이번엔 다시 ‘퇴’ 자에 애착이 생긴다. ‘퇴(推)로 할까? 고(敲)로 할까?’ 정하지 못한 채, 하루는 노새를 타고 거리로 나갔다. 노새 위에서도 ‘퇴로 할까? 고로 할까?’에만 열중하다가 그만 경윤(京尹) 행차가 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쳐 버렸다. 가도는 경윤 앞에 끌려 나가게 되었고, 또 ‘퇴로 할까? 고로 할까?’ 생각하느라 미처 비켜서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다. 경윤은 이내 크게 껄껄 웃고 다시 잠깐 생각한 뒤에

“그건 퇴보다 고가 나으리다.”

하였다. 경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침 당대 문호 한퇴지(韓退之)였다. 서로 이름을 알게 된 둘은 그 자리에서 글벗이 되었고, 가도가 ‘승퇴월하문’을 한퇴지의 말대로 ‘승고월하문’으로 정해 버린 것은 물론, 이로부터 후인들이 글 고치는 것을 ‘퇴고’라 일컫게 된 것이다.

3. 퇴고의 중요성

한때는 일필휘지(一筆揮之)니 문불가점(文不加點)³²⁾이니 해서 단번에 써내 버리는 것을 재주로 여겼으나 그것은 결코 경의를 표할만 한 재주도 아니고, 또 단번에 쓰는 것으로 경의를 표할 만한 문장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다. 소동파(蘇東坡)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었을 때 친구가 와 며칠 만에 지었냐고 물으니까 “며칠은 무슨 며칠, 지금 단번에 지었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동파가 밖으로 나간 뒤에 자리 밑이 불쑥해서 들쳐 보니 여러 날을 두고 고치고 고치고 한 초고(草稿)가 한 무더기나 쌓였더라는 말이 있다. 고칠수록 좋아지는 것은 글쓰기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버리거나 숨기는 것은 어리석다. 같은 중국 문호라도 구양수(歐陽脩) 같은 이는 퇴고를 공공연하게 자랑삼아 하였다. 초고는 반드시 벽 위에 붙여 놓고 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읽어 보고 고쳤다. 그의 명작 중 하나인 《취옹정기(醉翁亭記)》의 초안을 쓸 때 첫머리에서 저주(滁州)의 풍광을 묘사하는데, 첩첩이 둘러싼 산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보다가 고치고 고치어 나중엔 “저주 둘레는 온통 산

32) 문불가점(文不加點): 글에 점 하나 더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글이 아주 잘되어서 흠잡을 곳이 없음을 이르는 말.

이다 [環滁皆山也] ”란 말로 만족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거니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톨스토이를 부러워한 것도 그의 재주가 아니라,

“그는 얼마나 느긋하게 원고를 쓰고 앉았는가!”

하고 원고료에 급하지 않고 얼마든지 퇴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을 부러워한 것이다. 러시아어 문장을 가장 아름답게 썼다는 투르게네프는 어느 작품이든지 써서 곧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 속에 넣어 두고 석 달에 한 번씩 꺼내보고 고쳤다고 하며, 고리키도 체호프와 톨스토이에게서 문장이 거칠다는 비평을 받고부터는 얼마나 퇴고를 심하게 했는지 그의 친구가

“그렇게 자꾸 고치고 줄이다간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사랑했다, 결혼했다, 죽었다’ 네 마디밖에 안 남지 않겠나?”

했단 말도 있다. 아무튼 두 번 고친 글은 한 번 고친 글보다 낫고, 세 번 고친 글은 두 번 고친 글보다 나은 것이 진리다. 예나 지금이나 명문장가치고 퇴고에 애쓴 일화가 없는 사람이 없다.

4. 퇴고의 기준

어떻게 고칠 것인가? 거기엔 먼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기준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턱 아름답게, 허턱 굉장하게, 허턱 유창하게 꾸미려 든다. 허턱 아름답고, 허턱 굉장하고, 허턱 유창한 글은,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는 것처럼 도리어 미를 상하게 하는 화장이다.

먼저 든든히 지키고 나갈 것은 마음이다. 표현하려는 마음이다. 인물이든, 사건이든, 정경이든, 무슨 생각이든,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그 인물, 그 사건, 그 정경, 그 생각을 품은 내 마음’이 여실히 나타났나? 못 나타났나? 문장의 기준은 오직 그 점에 있을 것이다. 문장을 위한 문장은 피 없는 문장이다. 결코 문장 혼자만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먼저 아름답게 느낀 것이면, 그 마음만 여실히 나타내어보라. 그 문장이 어찌 아름답지 않고 견딜 것인가?

글을 고친다고 해서 으레 화려하게, 유창하게, 자꾸 문구만 다듬는 것으로 아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출전 《문장강화》, 임형택 해제, 창비, 1988.

【문법으로 글 읽기】

1. 위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 보자.

	주요 내용
퇴고란?	
퇴고의 유래	당나라 시인 ‘가도’의 시 ‘승퇴월하문’, ‘승고월하문’에서 유래하였다.
퇴고의 중요성	글은 고칠수록 좋아진다.
퇴고의 기준	

2. (가), (나)는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읽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가) 국어에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문법 형태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조사(助詞)라고 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을’은 앞에 오는 체언이 목적어라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만’은 앞말에 ‘한정’의 뜻을 더하여 주는 보조사이다. ‘철수와 영희’의 ‘와’는 두 단어를 연결해 주는 접속 조사에 속한다.
(나)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1) 아래 글에서 밑줄 친 것은 보조사들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더해 주는지 국어사전에서 뜻풀이를 찾아 정리해 보자.

무엇이든 원만히 된 <u>표현이란</u> 능란한 기술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무엇에서나 기술이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u>방법이란</u> 우연이 아닌, 계획과 노력을 의미한다.

(2) 띄어쓰기에 맞도록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보자.

- 그 사람은 거기에 갈 수 밖에 없었다. ⇒ _____
- 얼굴을 보니 심술 깨나 부리겠더구나. ⇒ _____
- 빠리는 커녕 천천히도 못 걸겠다. ⇒ _____

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북한어 ‘허턱’의 의미와 유사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 보자.

어떻게 고칠 것인가? 거기엔 먼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기준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턱 아름답게, 허턱 굉장하게, 허턱 유창하게 꾸미려 든다. 허턱 아름답고, 허턱 굉장하고, 허턱 유창한 글은,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는 것처럼 도리어 미를 상하게 하는 화장이다.

〈 보기 〉

- ① 근거 없이 함부로 ② 매우, 아주 ③ 대충 ④ 헛되이

4. 다음은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이다. 제4항을 참고하여 다음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고쳐 보자.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도스또예 프스끼 ⇒ _____
- 똘스또이 ⇒ _____

(5) 조선어 학회 사건

이희승

엉뚱한 사건의 발단

조선어 학회 사건은 참으로 우연하고 사소한 데서 발단이 됐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한 여학생의 일기장 속에 있던 근거 없는 글 한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홍원 경찰서 한국인 형사 한 사람의 끈덕진 공명심으로 사건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1942년 한여름 어느 날 함경남도 홍원읍의 전진 정거장 대합실에서 홍원서 고등계 형사 후카자와(深澤)라는 자가 한국인 청년 한 사람을 불심 검문했다.

“자네 어디서 온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힘을 짜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 청년은 국방복 대신 한복 차림으로 머리에는 기름까지 발라 멋지게 빗어 넘겼으니 한눈에 ‘불순분자’로 보였던 것이다.

“홍원읍에 사는 박병엽(朴炳燁)이오.”

청년은 통명스레 대답하였다.

홍원 육영학원(育英學院)의 설립자요 어업 조합장의 아들인 박병엽은 메이지대학 상과를 졸업한 지식 청년이었고 반일 감정 또한 강했다. 지장일(池章逸)이라는 친구를 마중 나왔다는 말에도 형사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잠시 후 지 청년이 기차에서 내려 박 청년과 해후하고 나자 형사는 다시 지 청년을 검문했다. 검문에서 아무런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으면서도 형사는 그들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들은 곧 풀려났지만 고등계 형사 세 명이 다시 박 청년의 집으로 찾아가 가택 수색을 했다. 그러나 박 청년의 방에서는 책을 모조리 뒤져 봐도 별것이 없었다.

그런데 세 명의 형사 중 야스다(安田)라고 창씨(創氏)를 한 안정묵(安正默)이라는 한국인 형사가 박의 조카 박영옥(朴英玉) 양의 일기장을 찾아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일기장이었다. 그때 박영옥 양은 함흥 영생 여학교 4학년 학생으로 여름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었다.

안정묵은 무엇이랄도 한 가지 꼬집어낼 욕심으로 “일기장이 재미난다.”며 빌려가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양의 일기장을 읽던 안정묵은 무릎을 쳤다. “국어(國語)를 상용(常用)하는 자를 처벌하였다”라는 한 구절을 발견한 것이다. 국어라면 일본어가 아닌가. 일본어 상용자를 학교에서 처벌했다니 이런 반(反)국가적인 행위가 어디 있는가.

안의 눈동자는 공명심으로 빛났다. 더욱이 담임 교사의 검인까지 찍혀 있으니 영생 여학교의 공식적인 확인까지 된 셈이다. 이튿날 안은 주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입건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문제의 구절 중 ‘국어’란 우리말을 뜻하는 것으로 반향 심리에서 나온 표현이었으며, 담임 선생은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사무적으로 검인을 찍어준 것뿐이었다.

박영옥 양은 당장 경찰서에 끌려가 뉘달을 받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를 잡지 못했다.

“그까짓 것, 아이들의 장난이니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형사들은 덮어두자고 했지만 안정묵은 꼭 배후가 있으니 두고 보라고 했다.

박 양의 친구 이성희(李城嬉), 이순자(李順子), 채순남(蔡順南), 정인자(鄭仁子) 양 등이 차례로 불러왔다. 매질과 회유로 여학생들은 정태진(鄭泰鎭), 김학준(金學俊) 두 교사의 이름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

김학준은 도쿄의 어느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정태진은 정인승과 연희전문 문과 동창으로서 졸업 후 영생 여학교 선생이 되었다. 그는 호가 돌부처라는 뜻인 석인(石人)으로 아주 착실한 사람이어서 학교 측의 주선으로 컬럼비아 대학에 유학해서 철학과 교육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다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세계정세와 일본의 불안한 장래, 우리 민족의 우수성 등을 곧잘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그 무렵 정태진은 영생 여학교를 그만두고 정인승의 추천으로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 편찬 실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불려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지만 끝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불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온갖 고문과 회유에 굴복한 그는 조선어 학회가 민족주의자들의 단체라는 억지 자백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학회 간부들과 회원들 그리고 사전 편찬 사업을 지원하던 사람들을 모조리 검거하기에 이르렀고, 어학회 사무실에서 거의 정리되어 가던 어휘 카드 등 자료를 압수했다. 이 사건만 없었던들 사전은 곧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무렵 조선어 학회는 독지가(篤志家) 정세권(鄭世權) 씨가 지어 준 화동의 회관에서 본격적인 사전 편찬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었다. 이중화, 권승욱, 한징, 이석린, 정태진, 김병제(金炳濟) 등이 어휘를 뽑아 주석을 달고 카드를 작성하는 등 실무를 전담하여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에서도 한때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안정묵의 마구잡이 수사로 사건을 벌여 놓고 보니 이른바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었고 더욱이 물증이 없어 당황하였다. 흥원 경찰서는 물론 함경남도 경찰부의 간부들도 입건이 무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굶어 부스럼이 아닌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무렵 총독부 경무국 외사 과장(外事課長)이 현지 시찰을 왔을 때 그들은 사건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나 그도 즉석에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부에 물어 지시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뒤 총독부에서 “요시찰인(要視察人)³³⁾ 중에서 위험 분자는 모두 검거하여 엄중히 처벌하라”는 예비 검속령을 내렸다. 현지 경찰은 이 명령이 어학회 관계 인사들을 엄중 조

33) 요시찰인(要視察人): 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하여야 할 사람.

치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본격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어 학회 사건의 발단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 기차 안에서 형사가 학생을 단속하다가 발단이 되었다고 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후에 박영옥과 박병엽을 만나서 사건의 전말을 들었고, 당시 홍원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조선인 형사로 후일 월남하여 중부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던 이를 만나서도 그때의 경위를 자세히 들었다.

혹독한 고문의 신문(訊問) 과정

1942년 12월 들어서 본격적인 문초가 시작되었다. 홍원 경찰서에는 ‘무덕전(武德殿)’이라는 큰 강당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유도와 검도를 수련하는 곳으로 바닥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이곳에서 함경남도 경찰부와 홍원 경찰서의 고등계 형사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문초하였다.

이들은 감방에서 우리를 한 사람씩 불러내서 조선어 학회에서 한 일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상세히 자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맞춤법 통일안 제정,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통일 등을 적어냈더니 그들은 “이 따위 것을 쓰라고 예까지 데려온 줄 아느냐”며 알맹이 있는 내용을 쓰라고 협박했다. 그래서 좀 고쳐서 써내면 또 찢어받기며 “다시 쓰라”라고 강요했고 그렇게 여러 차례 고쳐 써도 그들이 고대하는 내용이 눈에 띄지 않자 본격적으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진술은 “조선의 독립을 획책하기 위하여 상하이 임시 정부 지령에 따라 사전을 만들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고문에는 육전(陸戰), 해전(海戰), 공전(空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육전이란 각목이나 목총이나,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 아무 데나 마구 후려치는 것이다. 목총이 텅텅 텅 부러져 달아나고 머리가 터져 피가 흘러내리는데, 처음 몇 대를 맞을 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별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들은 해전이나 공전으로 들어간다.

기다란 나무 판때기 걸상에 반듯하게 눕고 묶은 뒤에 커다란 주전자로 콧구멍에 물을 붓는 것이 이른바 해전이다. 콧구멍으로 들어간 물은 기관을 따라 폐부에 스며들고 입으로 들어간 물은 위로 들어가 삼시간에 만삭의 여자처럼 배가 불러진다. 그러면 누구든 기절을 하고 마는데, 저들은 기절한 사람을 감방에다 처넣고 주사를 주고 약을 먹여 정신이 들게 한다. 그러면 공전에 내보낸다.

두 팔을 뒤로 묶어 팔 사이에 작대기를 지르고는 양쪽 끝을 밧줄로 묶어 천장에 달아맨다. 처음에는 짚단을 발밑에 괴어 주지만 저들이 지어낸 물음에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짚단을 빼 버린다. 그러고는 달아맨 두 줄을 마치 그넛줄 꼬듯 한참 꼬았다간 풀어놓는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고통과 심한 어지러움으로 누구든 10분도 못 되어 혀를 빼물고 기절하고 만다.

지금 생각해 봐도 치가 떨리며 등골이 오싹한 일이다. 나는 재수 없게도 가장 악독하기로 이름난 안정목의 담당이어서 더욱 혼쫓이 났다. 그때의 담당 형사 중 가장 악독한 데다 고문의 명수라고 해서 그는 ‘사람 백정’이라 불렸다.

이극로는 조선어 학회의 대표라 해서 독방에 갇혔고 남보다 심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이윤재는 상하이에 갔다 온 사실로 더 고초를 겪었다. 김두봉을 데려오기 위해 상하이에 갔던 일을 저들은 임시 정부의 지령을 받고 온 것이라 우겨댔던 것이다.

가장 당하지 못할 일은 동료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었다. 당하고 있는 동료는 불쌍하다는 뜻에서만 아니라 ‘곧 나도 저 꼴을 당하겠구나.’ 하는 본능적인 공포심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 꼴은 정말 못 볼 노릇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혹독한 고문으로 이른바 자백이라는 것을 얻어냈지만 여러 사람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그 말을 맞추기 위해 또 고문을 했다. 당하다 당하다 우리가 지고 말았다. 재판도 받아보기 전에 유치장에서 개죽음을 당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검찰에 송국되어 부인하고 경찰서에서는 저들의 요구대로 모두 시인하기로 합의했다. 우선은 살고 보아야 할 노릇이었다.

그들은 어휘 카드에서 ‘태극기는 대한 제국의 국기’, ‘창덕궁은 대한 제국 황제 순종이 거처하던 궁궐’이라 주석한 것을 내놓고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심지어 ‘서울’에 대한 주석이 ‘도쿄’보다 길고 자세하다고 트집을 잡기도 했다.

그들의 요구대로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서였다”라고 시인하면 “그것은 곧 조선 독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면 ‘반국가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3단 논법인데, 예정된 결론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유도 신문이었던 것이다.

이윤재와 김윤경은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사건에 연루되어 이러한 3단 논법에 걸려들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에 있어 “간접 목적에서 한 행동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무죄를 예언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난 것은 1943년 3월께였다. 우리는 하루속히 검찰에 송국되는 날을 고대했으나 그들은 몇 달이 지나도록 그냥 내버려두었다. 결국 송국은 생략됐고 대신 검사가 경찰서로 출장을 나와 조사를 시작한 것이 8월부터였다. 담당 형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는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아오야기(靑柳五郎)란 담당 검사는 경성 고등 상업 학교를 거쳐 큐슈 대학 법과를 나와 검사가 된 사람으로 낭인(浪人) 아오야기 난메이(靑柳南冥)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성미가 고약했다. 경찰 조서를 부인한 사람은 영락없이 그날 밤 담당 형사에게 불려가 치도곤(治盜棍)³⁴⁾을 당하곤 했다.

검사에게조차 혹독한 고문으로 억지 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하지 못한 우리의 흉중은 너나없이 착잡했다. 미리 짜인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함흥 형무소 646번

1년을 끌어온 조사의 결과는 이른바 치안 유지법 제1조의 내란죄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이극로·이윤재·최현배·이희승·정인승·정태진·김양수·김도연·이우식·이중화·김법린·이인·

34) 치도곤(治盜棍): ①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 ② 몹시 혼남. 또는 그런 곤욕.

한정·정열모·장지영·장현식 등 16명은 기소, 이강래·김윤경·김선기·정인섭·이병기·윤병호·서승효·이은상·서민호·이만규·권승욱·이석린 등 12명은 기소유예가 됐다.

우리가 함흥 형무소로 이감된 것은 9월 12, 13 양일간이었다. 행선지도 모르는 채 홍원으로 끌려온 지 만 1년 만이었다. 용수를 쓴 채 함흥으로 이송되는 기차 안에서 ‘사람 백정’ 안정목이 “이희승, 신문 보고 싶어?”하며 읽던 신문을 던져 주었다. 그 신문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의 3축국(樞軸國)³⁵⁾의 하나인 이탈리아가 항복했다는 놀라운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게 자명한 일이 아닌가. 나는 너무도 기쁘고 놀라워서 함흥 역에서 형무소로 끌려가는 동안 이윤재 등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귀띔해 주었다.

함흥 형무소에서는 모두 독방에 들었다. 경찰서 감방에서 입었던 한복을 벗고 푸른색 미결(未決) 수의(囚衣)를 입었다. 미결 번호 646번, 이것이 그 속에서의 내 이름이었다. 기소 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받은 동료 12명도 일단 형무소 감방에 갇혔다가 며칠 후(9월 18일) 모두 석방됐다.

곧 시작된다는 예심은 한 달이 넘도록 기척도 없었다.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하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형사들은 우리에게 “빨리 조사를 받고 넘어가는 게 신상에 좋다.”라고 공갈을 쳤다. 예심이란 몇 년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니 고분고분 자백을 하고 하루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그 무렵 있는 예심 제도란 사상범에 한해 적용하던 것인데, 표면상으론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했으나 사실은 사상범들을 더 오래 형무소에 묶어두기 위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제도였다.

2개월이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예심이 시작됐다. 예심 며칠 전 예심 판사는 우리를 한 곳에 모아 놓고는 “진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하라.”라고 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술수에 면역이 되어 있던 터여서 그들의 말은 들은 체도 않고 2개월여 만에 서로 얼굴을 맞대게 된 기쁨을 나누었다.

그런데 한징이 번쩍 손을 들고는 “형무소에서 주는 정량 미달의 주먹밥으론 배가 고파 살 수 없다.”라고 항의하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무섭도록 수척해 있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예심(豫審)³⁶⁾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어 학회로 개칭한 것에서부터 이윤재의 상하이 행, 사전 편찬 사업 등 일련의 움직임이 상하이 임시 정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의 독립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판에 박은 물음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사실을 검사에게조차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우리는 일투의 희망을 걸고 나카노(中野虎雄)라는 예심 판사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35) 추축국(樞軸國): 제1차 세계 대전 때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맺은 삼국 동맹을 지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과 대립한 여러 나라. 1936년에 무솔리니가 ‘유럽의 국제 관계는 로마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선을 추축으로 하여 변화할 것이다.’라고 연설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36) 예심(豫審): 구형사 소송법에서, 공소 제기 후에 피고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공판 전의 절차.

그도 마찬가지였다. 경찰과 검찰에선 시인하고서 왜 지금 와서 부인하느냐고 껍뻑 소리를 질러댔다.

사전 편찬의 의도에 대해 내가 고대 그리스 어와 아라비아 어 등을 예로 들어 “문자란 인류의 문화적 업적이므로 영원히 남길 가치가 있는 것”이라 설명하자 그는 “그래애?” 하면서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예심은 다음해 9월 30일에야 종결됐다. 장지영과 정열모는 면소가 됐고, 이운재·한징 등 두 동지가 옥중 원혼이 됐기 때문에 12명만이 기소가 확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게다가 전황이 날로 급박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난 등 각종 물자난도 더욱 심해졌다. 귀리, 옥수수, 감자, 수수, 피, 기장 등 잡곡을 써서 뭉친 주먹밥만으로, 혹은 썩은 콩깍묵 한 덩이씩으로 연명해야 했던 우리는 극도의 영양실조와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말이 아니었다.

많은 수인들이 죽어 나갔다. 한밤중 나막신 소리가 저벅저벅 울려오고 옆 감방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린 뒤 다시 나막신 소리가 멀어져 가면 예외 없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시체를 실어내는 것이었는데, 그 해 겨울 함흥 형무소에선 270여 명의 동사자(凍死者)가 나 도지사(道知事)가 갈렸을 정도였다.

1943년 12월 8일 이운재도 그렇게 죽었고 1944년 2월 22일 한징 동지도 그렇게 옥중 원혼이 된 것이다. 나와 한 족쇄에 발이 묶여 감방 안을 부러워하던 그들, 풀려나거든 과수원에 놀러오라던, 예심에 가선 철저히 부인하자고 옆구리를 찌르던 그들은 그렇게 원통하게 갔다. (중략)

함흥 지방 법원에서의 1심은 1944년 11월 말부터 시작됐다. 북원(北原)의 겨울,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우리는 맨발에 쟁신을 신고 손목은 사슬에 묶인 채 걸어서 출정을 해야 했다. 호송 차량이 모두 전쟁터로 징발(徵發)당했다는 것이다.

형무소에서 법원까지는 상당히 멀었다. 가는 길에 우리는 B29 몇 대가 함흥 상공에 까맣게 높이 떠 오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그럴 때마다 호송하던 간수들은 우리를 방공호에 대피시키곤 했다. 곧 이어 성천강 하구의 고사포 진지에서 대공 사격(對空射擊)을 하는 포성이 들렸다.

다급해진 일본의 상황은 우리의 안테나이던 한국인 간수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솔로몬 군도에서 일본 군함 10여 척이 침몰했다. 미군이 이오(硫黃) 섬과 오키나와(沖繩)에 상륙했다. 공습으로 도쿄 시가지가 쑥밭이 됐다. 이런 뉴스들을 그들은 수시로 전해 주었다.

출전 《딸깍발이 선비의 일생》, 창작과비평사, 1996.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보자.

- ① 함경남도 흥원읍의 전진 정거장 대합실에서 박병업을 불심 검문함.
- ② 박영옥 양이 일기장에 “국어를 상용하는 자를 처벌하였다”라는 글을 씀.
- ③ 조선어 학회는 화동의 화관에서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 중.
- ④ 흥원 경찰서에서 조사받음.
- ⑤ 함흥 형무소로 이감됨.

② → () → () → () → ⑤

2. <보기>는 명령형 어미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읽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 < 보기 > —————

(가) 명령형 어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으로 상대높임법에 따라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로 구분한다.

(나) 간접 인용문에서는 명령형 어미로 ‘-고’가 쓰인다.

(1) (가)를 읽고 다음 글에서 명령형 어미를 찾아보자.

그 뒤 총독부에서 “요시찰인 중에서 위험 분자는 모두 검거하여 엄중히 처벌하라”(라)는 예비 검속령을 내렸다. 현지 경찰은 이 명령이 어학회 관계 인사들을 엄중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본격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 명령형 어미: _____

(2) (나)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자.

- 밥을 먹다: 형이 나한테 빨리 와서 밥을 _____고 했다.
- 알리지 말다: 장군은 부하들에게 나의 죽음을 적에게 _____고 하였다.

3. <보기> 중,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가장 유사한 의미인 것을 찾아보자.

그 무렵 있는 예심 제도란 사상범에 한해 적용하던 것인데, 표면상으론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했으나 사실은 사상범들을 더 오래 형무소에 묶어 두기 위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제도였다.

〈 보기 〉

①표리부동(表裏不同) ②일거양득(一舉兩得) ③견마지로(犬馬之勞) ④표리일체(表裏一體)

- 유사한 의미인 것: _____

4. <보기>의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글에 사용된 작은따옴표의 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들은 어휘 카드에서 ‘태극기는 대한 제국의 국기’, ‘창덕궁은 대한 제국 황제 순종이 거쳐하던 궁궐’이라 주석한 것을 내놓고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심지어 ‘서울’에 대한 주석이 ‘도쿄’보다 길고 자세하다고 트집을 잡기도 했다.

〈 보기 〉

2. 작은따옴표(‘ ’), 낫표() 「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2)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붙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쉬어 가기

훈민정음(訓民正音)

훈민정음 연해본



성종영정훈민정음 나랏말싸미 등귀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박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뭇츨내 제 뜨들 시러 퍼디 몬 흙 노미 하니라. 내 이
를 위하여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덟짜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뻥한키 하고져 흙 쓰르미니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
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사진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1228&cid=42955&categoryId=42955>

5.

우리의 정서를 담은 문학

-
- (1) 아리랑
 - (2) 흥보가
 - (3)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장수산(長壽山)1
 - (4) 백석의 여우난골족族
 - (5) 토지
 - (6) 영혼의 母音
- 쉬어 가기 ‘김유신전’
-

(1) 아리랑

(가) 진도 아리랑

작자 미상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문전 세제는, 웬 고갯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엔, 잔별두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만나니 반가우나,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고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노다 가세, 놀다가 가세
저 달이 떴다, 지도록 놀다 가세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왜 왔던고, 왜 왔던고
울고 갈 길을 내가 왜 왔던고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다려 가요, 날 다려 가오
우리 님 뒤 따라서, 나는 가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울 님에 담 님에, 님 숨겨 놓고
호박잎만 노을노을, 날 속이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단장을 님을 때는, 먼 맘을 먹고
문고리 잡고는, 아발발 떴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울 님에 담 님에, 망보는 잡놈
마음만 있으면, 날 따라 오너라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저 건너 저 가시나, 앞가슴 좀 보아라
넝쿨 없는 호박이, 두 통이나 열렸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저 건너 저 머시마, 눈매를 봐라
아니 본 듯 아니 본 듯, 꼭 나만 보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임이 날만치, 사랑을 한다면
가시밭 천 리라도, 맨발로 가노라.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치어다보니, 만학은 천봉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로구나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임이 죽어서, 극락을 가면
이내 몸도 따라가지, 지장보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나) 정선 아라리

작자 미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눈이 올려나 비가 올려나, 억수장마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명사 십 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 피나
모 춘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정선의 구명(舊名)은, 무릉도원 아니냐
무릉도원은 어데 가고서, 산만 층층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정선 읍내 일백오십 호, 몽땅 잠 들어 놓고
이모장네 맡며느리 데리고, 성마령을 넘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싸릿골 올 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깐 님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오라버니 장가는, 명년에나 가시고
검둥 송아지 툭툭 팔아서, 날 시집 보내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간다지 못 간다지, 얼마나 울었나
송정암 나루터가, 한강수가 되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앞 남산 뺨꾸기는, 초성도 좋다
세 살 적에 듣던 목소리, 변치도 않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정 들이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정선 읍내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
비빙글 배뱅글, 잘도 돌아가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우리 집의 저 철딱서니, 날 안을 줄 모르니

노랑머리 상투 언제 길러, 내 낭군 삼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출전 《한국의 민요, 아름다운 민중의 소리》, 조영배, 민속원, 2006.

【문법으로 글 읽기】

1. (가), (나)의 중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가)	1~2연	인생의 험난함.
	3~6연	
	7~11연	임에 대한 관심과 호감
	12~14연	
(나)	1~2연	몰락한 왕조에 대해 한탄함.
	3~6연	
	7~11연	
	12~14연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인의 마음

2. (가)와 (나)의 문장에 쓰인 연결 어미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자.

— < 보기 > —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에는 연결 어미를 사용한다.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어미와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어미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연결 어미는 ㉠ 나열과 ㉡ 대조의 의미 관계를, 후자는 ㉢ 원인, ㉣ 조건, 의도, 배경, 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낼 때 활용한다.

- 만나니 반가우나, 이별을 어이해 ()
- 님이 날만치, 사랑을 한다면 / 가시발 천 리라도, 맨발로 가노라()
- 정 들이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
- 잠시 잠깐 님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

3. (가)와 (나)에 쓰인 다음 어휘를, <보기>의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잡놈, 문고리, 가시발, 맨발, 만머느리, 뱃사공, 나루터, 군불	
— < 보기 > —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이고,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이다.	
합성어	파생어
문고리,	잡놈,

4. (가)와 (나)에 쓰인 후렴구에서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을 찾아보자.

유성음(울림 소리)는 발음할 때, 목청이 떨어져 울리는 소리이다. 국어의 모든 모음이 이에 속하며, 자음 가운데에는 ‘ㄴ’, ‘ㄹ’, ‘ㄲ’, ‘ㅇ’ 등이 있다. 유성음은 밝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어 민요의 후렴구에 자주 사용된다.

- 자음: (,)

(2) 홍보가

매품도 못 파는 홍보

아니리

이때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고요.”

“읍내는 무엇 하러 가실라고요?”

“환자(還子)³⁷⁾ 맡은 호방(戶房)에게 환자 섬이나 얻어 와 굶은 자식을 살려야 하지 않겠소.”

“아이구 나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홍보가 읍내를 들어가는데 홍보 차림새가 이리하것다.

자진모리(평우조성)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 치레 불작시면, 편자 떨어진 헌 망건(網巾) 밥풀 관자(貫子)³⁸⁾, 노당줄³⁹⁾ 뒤로 잔뜩 졸라매고, 철대 부러진 헌 파립(破笠) 벌이줄 총총 매어 조사갓끈⁴⁰⁾ 달아 쓰고, 떨어진 헌 베 도포 열두 도막 이은 실타피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떨어진 부채 쓰고, 또 한 손에다 곱돌 조대⁴¹⁾를 들고, 그래도 양반이라고 여덟팔자걸음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간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가며 별안간 걱정이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핍을 걱정하는 남자가 되었을 망정 반남(潘南) 박(朴)가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하대를 하나 존대를 하나? 아서라, 말은 허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 질청(秩廳)⁴²⁾을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

“박 생원 어찌 오셨소?”

“참 양도(糧道)가 절량(絶糧)되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호장(戶長)이 하는 말이,

“박 생원 들어오신 김에 품 하나 팔아 보오. 우리 골 좌수(座首)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

37) 환자(還子): 국가가 비축했던 곡식을 춘궁기에 백성에게 꾸어줬다가 추수 후 돌려받는 곡식 및 제도.

38) 밥풀 관자(貫子):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관품이나 계급에 따라 금, 은, 옥, 대모, 호박, 쇠 발톱 따위를 가려 썼음. ‘밥풀’은 관자를 따로 마련하지 못해 밥풀을 사용했다는 것인 듯함.

39) 노당줄: 노끈으로 된 당줄. ‘당줄’은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동여매는 줄.

40) 조사갓끈: 조사로 만든 갓끈. ‘조사’는 은조사(여름 옷감으로 쓰는 비단)를 가리키는 듯함.

41) 곱돌 조대: 곱돌로 만든 담뱃대. ‘곱돌’은 윤이 나고 매끌매끌하고 연하여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돌의 한 가지.

42) 질청(秩廳): 아전들이 일을 맡아보던 청사.

데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 석냥씩 서른 냥은 쏘아 놓은 돈이요, 마샷까지 닷 냥 지정해 두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니 팔지 말고,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정강이말로⁴³⁾ 다녀올 테니 그 돈 닷 냥을 날 내어 주지. 하하하.”

중모리(평·계면 섞임)

저 아전(衙前) 거동을 보아라. 궤(櫃) 문을 절걱 열고 돈 닷 냥을 내어 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박홍보가 좋아라고 질청문 밖에 썩 나서서,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봐. 얼씨구나 돈 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옹게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만일 돈을 못 보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끊어지니 보이는 게 돈밖에 또 있느냐.”

떡국 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반 돈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서 푼어치를 사서 마시고 어깨를 느리우고 입을 빼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서른닷 냥이 들어간다. 우리 집을 어서 가자.”

제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우루루루루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가 옳지. 계집이. 아 사람아 당돌히 앉아 있으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웬 일인가. 에라 이 사람 요망하다.”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홍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어디 돈, 어디 돈 허고 돈 봅시다, 돈 봐.”

“놓아 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根本)을 자네 아나.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맹상군(孟嘗君)의 수레바퀴⁴⁴⁾처럼 둥글둥글이 생긴 돈. 생살지권(生殺之權)을 가진 돈, 부귀공명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 어 어 어 얼씨구얼씨구 돈 봐.”

아니리

이 돈을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고 고기 죽을 누그름하게 열한 통이 되게 쭈어 가지고 각기 한 통씩 먹여 놓으니,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빠기잠⁴⁵⁾을 자는데,

43) 정강이말로: ‘아무것도 타지 않고 제 발로 걸어서’의 뜻.

44) 맹상군의 수레바퀴: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이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과 이름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돈’을 이처럼 비유한 것임.

45) 고자빠기잠: 나무를 베어낸 뒤에 남은 밀둥처럼 꽃꽂이 앉아서 자는 잠.

죽 국물이 코끝에서 쇠죽 후죽국 내리듯 땡강땡강 떨어지겠다. 홍보 마누라가 하는 말이,
“여보 영감 그런디 이 돈이 무슨 돈이오?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돈인지 좀 압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을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하고 샅으로 받아온 돈이제.”

홍보 마누라 깜짝 놀라며,

“소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산단 말은 고금천지에 어디서 보았소.”

진양(계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생(千不生) 무록지인(無祿之人)이요 지부장(地不長) 무명지초(無名之草)라⁴⁶.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카.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죽도록 골병 된답니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아니리

홍보 아들놈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나 병영 간다.”

“갔다 올 제 떡 한 보따리 사 가지고 오시오.”

중모리(엄·평·애원성 섞임)

아침밥을 끓여 먹고 병영 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 내려를 가며 신세자탄(身世自嘆) 울음을 운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화려한 집 짓고 잘사는데 내 팔자는 왜 그런고.”

병영 골에 당도하여 치어다보니 대장기(大將旗)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肅靜牌)⁴⁷로구나. 깊은 산속에 있는 사나운 범의 용맹 같은 용(勇) 자 붙인 군노(軍奴) 사령(使令)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때 박홍보는 숫한⁴⁸ 사람이라 벌벌 떨며 들어간다.

아니리

방울이 떨렁, 사령

“예이.”

야단났지. 홍보가 삼문(三門) 간에 들어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이 불기를 맞거늘, 홍보

46) 천불생(千不生) 무록지인(無祿之人)이요 지부장(地不長) 무명지초(無名之草)라: 하늘은 먹고 살 녹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음. 여기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제 먹을 것은 있다는 뜻으로 쓰임.

47) 숙정패: 조선 시대에 군영에 세워 두었던 푯말. 군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때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숙정’이라는 두 글자를 나무 패에 써서 세워두었다.

48) 숫한: 순박하고 어수룩한

마음에는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 냥 번다. 나도 불기 좀 까고 업저 불까.’ 불기를 까고 삼문 간에 가 었드렸을 제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병영 생긴 후 불기전⁴⁹⁾ 보는 놈이 생겼구나.”

사령 중에 뜻밖에 홍보 씨 아는 사령이 있더라.

“아니 박 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그러.”

“당신 꿏았소.”

“꿏다니 계란이 꿏지, 사람이 꿏나. 그게 어떤 말인가?”

“박 생원 대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가지고 벌 씨 떠나갔소.”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 척이요 방울눈에 기운 좋습디다.”

홍보가 말을 듣더니,

“허허 그전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마는 옆집 꺾수 애비란 놈이 알고 발 등걸이⁵⁰⁾를 허였구나.”

중모리(계면)

“번수(番守)⁵¹⁾네들 그러한가. 나는 가네. 지키기나 잘들 하소. 매품 팔러 왔는데도 손재(損財)⁵²⁾가 붙어 이 지경이 웬일이냐. 우리 집을 돌아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사 주마고 달래고, 떡 사 달라 우는 자식 엇 사 주마고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허지.”

그렇저렇 울며불며 돌아온다. 그때에 홍보 마누라는 영감이 떠난 그날부터 후원에 단(壇)을 세우고 정화수를 바치고,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 한 대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 오시라고 밤낮 기도하면서,

“병영 가신 우리 영감 하마 오실 제 되었는데 어찌하여 못 오신가. 병영 영문 곤장을 맞고 허약한 체질 주린 몸에 병이 나서 못 오신가. 길에 오다 누웠는가.”

아니리

문밖을 가만히 내다보니 자기 영감이 분명하것다. 눈물 씻고 바라보니 홍보가 들어 오거늘,

“여보 영감 매 맞았소? 매 맞았거든 어디 곤장 맞은 자리 상처나 좀 봅시다.”

“놔둬. 상처고 여편네 죽은 것이고, 요망스럽게 여편네가 밤새도록 울더니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쇠아들⁵³⁾이다.”

홍보 마누라 좋아라고,

49) 불기전: ‘불기를 파는 가게’라는 뜻으로, 홍보가 불기를 내놓고 었드려 있는 모양을 비꼬아 일컫는 말.

50) 발등걸이: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 하는 행위

51) 번수: 대궐 또는 관아에서 번갈아 묵으면서 밤에 보초를 서던 사람

52) 손재(損財): 손재수(損財數). 재물을 잃을 운수.

53) 쇠아들: 은정도 모르고 인정도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중중모리(계면·홍나게)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좋을시구. 영감이 엇그저께 병영 길을 떠난 후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하느님 전에 빌었더니 매 아니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 아니 즐거운가. 얼씨구나 절씨고.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출전 《한국고전문학전집 008》, 정충권 옮김, 문학동네, 2010.

봐.”

“㉔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나.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이 생긴 돈. 생살지권(生殺之權)을 가진 돈, 부귀공명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 어 어 어 얼씨구얼씨구 돈 봐.”

• ㉑:

• ㉒:

• ㉔:

3. 다음은 본문에 쓰인 어휘를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 <국어사전> ——	
끓다01	
「1」 속이 물크러져 상하다. -----	①
「2」 (비유적으로) 은근히 해를 입어 골병이 들다.-----	②
끓다02	
양(量)에 아주 모자라게 먹거나 굶다. -----	③
끓다03	
「1」 담긴 것이 그릇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비다.-----	④
「2」 한 부분이 옹골차지 아니하고 폭 꺼지다.-----	⑤

사령 중에 뜻밖에 흥보씨 아는 사령이 있던가.
“아니 박 생원 아니시오.”
“알아 맞혔구만그러.”
“당신 ㉑ 끓았소.”
“끓다니 계란이 ㉒ 끓지, 사람이 끓나. 그게 어떤 말인가?”
“박 생원 대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가지고 벌써 떠나갔소.”

(1) ㉑과 ㉒이 ①~⑤ 중,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파악해 보자.

• ㉑:

• ㉒:

(2) 다음 문장들에서 ①~⑤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번호를 써 보자.

<보 기>

- 배 **끓지** 말고 밥을 잘 챙겨 먹어라. ()
- 객지 생활을 오래 해서 몸이 많이 **끓었다**. ()
- 참외가 속으로 **끓아서** 만져 보면 물컹거린다. ()
- 떨어진 밤은 많았지만 대부분 말라서 속이 **끓아** 있다 . ()
- 자루가 커서 한 가마 가까이 담았는데도 여전히 **끓아** 있다. ()

4. 본문에 쓰인 <보기 1>의 어휘를 발음해 보고, <보기 2>의 ‘음운 변동’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보자.

<보 기 1>

읍내, 여덟, 옳지, 국물, 웬일, 좋지

<보 기 2>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이 만날 때 원래 없던 소리가 추가되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한 음운으로 발음되는 ‘축약’이 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내•</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옳지•</div>

(3)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장수산(長壽山)1

(가)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김소월

‘가고 오지 못한다’ 하는 말을
철없던 내 귀로 들었노라.
만수산 올라서서
옛날에 갈라선 그 내 임도
오늘날 뵈올 수 있었으면.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고락에 겨운 입술로는
같은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말하게도 지금은 되었건만.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살았으면!

‘돌아서면 무심타’고 하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을 알았으랴.
제석산 붙는 불은 옛날에 갈라선 그 내 임의
무덤의 풀이라도 태웠으면!

(나) 장수산(長壽山) 1

정지용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릅드리 큰 술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윗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문법으로 글 읽기】

1. (가)의 2연을 ㉠과 ㉡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낭독하여 보자. 어떠한 방식으로 낭독할 때, 그 시적 의미가 잘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의 방법>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고락에/ 겨운/ 입술로는//
 같은/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말하게도/ 지금은/ 되었건만.//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살았으면!//

<㉡의 방법>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고락에/ 겨운/ 입술로는//
 같은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말하게도/ 지금은/ 되었건만.//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살았으면!//

2. 다음은 표준어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어법에 맞는 표현을 찾아 동그라미 해 보자.

<표준어 규정>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윗-넓이	웃-넓이	
윗-눈썹	웃-눈썹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위-짜	웃-짜	
위-쪽	웃-쪽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웃-기	윗-기	
웃-돈	윗-돈	

- (웃절, 윗절)
- (웃어른, 윗어른)
- (웃치마, 윗치마, 위치마)

- (웃웃, 윙웃)
- (웃잇몸, 윙잇몸)

3.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에 나타난 종결 어미 ‘-노라’가 쓰인 부분의 시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보기〉

기원전 47년 고대 로마의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끌었던 로마군은 폰토스 왕국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그는 승리한 직후의 감동을 “Veni, Vidi, Vici”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유명한 표현을 국어로 번역할 때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로 번역한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국어의 ‘-노라’는 주로 자신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전달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당시의 카이사르가 말한 표현의 의도를 잘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가고 오지 못한다’ 하는 말을 철없던 내 귀로 들었노라. 만수산 올라서서 옛날에 갈라선 그 내 임도 오늘날 뵈올 수 있었으면.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고락에 겨운 입술로는 같은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말하게도 지금은 되었건만.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살았으면! (하락)
---	---

4. 다음은 (나)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과 ㉡안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한 것을 적어 보자.

• 베어짐직도 → ㉠
의미: 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것을 나타내는 말.

• 흔들리우노니 → ㉡
의미: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

- ㉠ :
- ㉡ :

(4) 백석의 여우난골족⁵⁴⁾

이승원

여우난골족族 || 백석

명절날 나는 엄매 아배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⁵⁵⁾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 자국이 숨숨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배 한 필을 찢다는 별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모 고모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

열여섯에 사십이 넘은 할아버지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⁵⁶⁾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
탕⁵⁷⁾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모 고모의
딸 승녀(承女) 아들 승동이

육십 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쉽게 눈물을 찢 때가 많은 큰골 고모 고모의 딸 홍녀
(洪女)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배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⁵⁸⁾을 뽑는 오리치⁵⁹⁾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
젓⁶⁰⁾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삼촌 엄매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기떡 콩가루찰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대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옆 발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
굴막질⁶¹⁾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
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랫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
이들끼리 윗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썸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

54) 여우난골족族: 여우난 골 부근에 사는 일가 친척들.

55)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의 북한어

56) 포족족하니: 빛깔이 고르지 않고 파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57) 매감탕: 엿을 고거나 메주를 쏜 술을 씻은 물로 진한 갈색을 띤.

58) 토방돌: 토방이 높을 때 올라서기 좋게 고여 놓은 돌.

59) 오리치: 평북 지방에서 오리 사냥에 쓰이는 특별한 사냥 용구.

60) 반디젓: 밴대젓.

61) 숨굴막질: 숨바꼭질.

비손이구손이하고⁶²⁾ 이렇게 화대⁶³⁾의 사기 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홍계닭⁶⁴⁾이 몇 번이나 울어서 줄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 문창에 텅납새⁶⁵⁾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서들이 옥적하니 홍성거리는 부엌으론 셋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계국⁶⁶⁾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 《사슴》(1936), 첫 발표는 <조광>(1935. 12).

음식과 놀이

<여우난골족族>이라는 제목의 뜻은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에 사는 가족이라는 뜻이다. 큰집이 있는 곳이 바로 ‘여우난골’이고 명절날 그곳으로 모인 친척이 ‘여우난골족’이다. 시는 네 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네 연은 일종의 연극적 전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연은 연극이 벌어질 공간의 제시이며 둘째 연은 연극의 등장인물을 소개한 것이고 셋째 연은 명절의 옷과 음식을 통하여 흥성한 분위기를 제시한 것이다. 넷째 연에 이르러 비로소 연극의 본 마당이 펼쳐진다. 연극의 본 마당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놀이의 공간이다.

연극의 공간으로 진입하는 첫 장면은 출발부터가 흥겹다. 나는 엄마 아버지를 따라가고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간다는 설정은 산골 마을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천진하게 나타낸다. 여기 나오는 ‘큰집’은 유교적 규범성을 지닌 가부장적 권위의 표상이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축제의 공간이다. 어린이의 시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규범에 속하는 것은 배제되고 친척들끼리의 즐거운 모임만이 표면에 서술된다.

2연에는 명절날 모인 여러 인물이 소개된다. 신리에 사는 고모는 얼굴이 약간 엷었으며 말할 때마다 눈을 껌벅거리는 버릇이 있는데, 하루에 배 한 필을 짤 정도로 부지런하고 근면하다. 토산에 사는 고모는 열여섯에 마흔이 넘은 할아버지의 후처로 들어갔는데, 그래서인지 공연히 화를 잘 내고 살빛과 입술 빛은 마치 메주를 썬고 남은 물처럼 검은빛을 띠었다. 큰골 고모는 산 너머 해변에 사는 과부인데, 자신의 처지에 맞게 흰옷을 단정하게 입었으나 혼자 사는 일이 힘들어서인지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 슬픔을 달래려고 술을 자주 먹었는지 코끝이 빨갛게 되었다. 삼촌은 배나무 접을 잘 붙이고 오리 뺨을 잘 놓는 기술이 있는데 술에 취하면 토방돌을 뿔아 버리겠다고 주정을 하기도 한다. 풍어 때가 되면 먼 섬에 혼자 가서 밴댕이젓을 담그고 오는 낭만적인 인물이다. 3명의 고모와 1명의 삼촌,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사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방에 그득히 모인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풍요롭다.

62) 조아질하고~제비손이구손이 : 아이들의 놀이 이름들을 나열한 부분.

63) 화대: 등잔을 걸어 놓는 기구.

64) 홍계닭: 새벽닭.

65) 텅납새: 처마의 안쪽 지붕.

66) 무이징계국: 민물 새우에 무를 넣고 끓인 국.

세련된 도시의 감각으로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무언가 좀 부족해 보인다. 얼굴이 얇았거나, 눈을 껌벅거리거나, 열여섯에 마흔이 넘은 할아버지 후처가 되었거나, 코끝이 빨간 과부거나, 술주정이 심하거나 한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은 도시의 세련된 시각에서 보면 무언가 부족해 보이지만 시골에 가면 지극히 흔하게 접하게 되는 평범하고 소박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펼쳐 보이는 정경은 그지없이 평화롭고 풍성하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는 큰집의 공간 속에서 이들의 개인적 약점은 모두 가려진다. 그들이 모여 이루어 내는 풍요롭고 풍성한 유대감은 그곳을 충만한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그들의 인간적 결합조차 이곳에서는 가족끼리의 정겨운 친화력으로 작용된다.

4연은 이 시의 본 마당인 놀이 장면이다. 앞부분은 해 지기 전까지 마당에서 노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일몰 후 방에서 노는 장면이다. 여기 나오는 놀이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주 생소하다. 백석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10년대나 20년대에는 이 놀이가 잔존했을지 모르나 이 시를 쓰던 3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는 일제의 고유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그 토속적 유희의 상당 부분이 유실되어 가고 있었을 것이다. 백석은 사라져 가는 어린 시절의 놀이를 세세히 떠올려 그것을 열거해 놓았다. 웃고 떠들며 밤을 지새우던 놀이의 시간 속에 평화로운 삶의 바탕이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개의 가족 구성원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적 합일의 공간 속에 우리들 생활의 힘과 기쁨과 보람이 스며 있다는 믿음을 이 시의 문맥이 함축하고 있다.

백석의 시가 음식과 놀이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 두 가지가 본능에 밀착된 그리움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먹는 것과 노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고 반복되어 재생된다. 그는 먹는 것과 노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기본 축으로 하여 그의 기억 속에 긴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우난골족’의 삶의 실체를, 그 안에 있는 근원적 세계를 탐구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우난골족’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누리고 있는 민족 전체의 비유다. 이 시가 백석 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전 《교과서 시 해설 정본》, 휴먼 앤 북스, 2008.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은 본문에 나오는 인물과 행위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써 보자.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리 고모: 얼굴에 별 자국이 나 있음. 하루에 베 한필을 짬.• 토산 고모:• 큰골 고모: 해변에 사는 과부임. 코끝이 빨강고, 늘 흰옷을 입고 있음. 말 끝에 눈물을 짤 때가 많음.• 삼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들: 밤이 깊도록 아랫간에서 웃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 아이들:• 시누이, 동서들 :

2. 이 시에 쓰인 다음 문장의 친 부분 중, 주어 ‘아이들은’에 호응되는 서술어를 모두 찾아보자.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옆 발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 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둑도록 복적하니 논다.

• 서술어: _____, _____, _____

3. 이 시에 쓰인 다음 문장을 원래의 평안도 방언으로 읽을 때와 표준어로 바꾸어 읽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명절날 나는 엄마 아배 따라 우리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표준어) 명절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 우리집 개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4. 이 시에 쓰인 <보기 1>의 시어를 <보기 2>에 따라 분류해 보자.

————— <보기 1> —————
빨간, 뺨는, 놓는, 논다

————— <보기 2> —————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u>소리대로 적되</u> , <u>어법에 맞도록 함</u> 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표준어가 이 원칙에 따라 적으면 원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결국 독서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하다는 원칙을 추가한 것이다.

소리대로 적음	어법에 맞도록 함

(5) 토지

박경리

[앞부분의 줄거리] 경상도 하동의 갑부였던 서희네는 집안이 망하자 간도의 용정촌으로 간다. 졸지에 가장이 된 서희는 그곳에서 큰돈을 모은다. 과거 서희와 혼담이 오갔지만 현재는 유부남이 된 이상현이 서희에게 접근하려 하고, 그러던 중 용정촌에 큰 화재가 발생해 서희의 집도 불에 탄다.

절 마당에 들어섰을 때 용이는 그제야 백양나무를 등지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길상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서희 방 앞에 이른 길상은

“다녀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길상을 뵈히 쳐다본 서희는

“그래서?”

하며 다음 말의 재촉이다.

“이 부사 댁 서방님은 별일 없이 송 선생 댁에 계셨습니다.”

“별일 없이? 병들지도 아니하고?”

세계 말을 내뱉는데 입매가 뱅글뱅글 돈다.

“그리고 생원님도 함께 계시더군요.”

“그 늙은이가 함께 있어? 쇠파리처럼 여기저기 잘 붙어 다니는구먼.”

이쪽에서 굵혀 사람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는 상현에 대한 노여움이 애꿎은 김 훈장에 게 된 것이다.

“아기씨!”

길상의 얼굴이 벌개진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서희는 지나쳤다 싶었는지 길상을 노려볼 뿐 대꾸는 없다.

“뜻이 맞아서 이곳까지 함께 오신 어른 아닙니까. 아기씨까지 그러시면 그 어른더러 돌아가시란 말씀이오?”

곧은길을 가듯 사양이 없다.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늙은이를 어떻게 받들란 말이냐?”

“험담은 무슨 험담입니까. 섭섭해 하신 말씀이지요.”

“듣기 싫어!”

그러나 길상은 개의치 않고 할 말은 한다.

“가실 곳이 만만치 않아 이 부사댁 서방님을 믿고 그곳으로 피신하신 모양인데 아시다

시피 서방님도 그 댁 객원이고 보면 심중이 편하시겠습니까?”

“.....”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서희는 들은 척하지 않고

“이 서방은 어디 있지?”

하고 판전을 피운다. 난처할 때 하는 서희의 버릇이다.

“밖에 있습니다.”

“일꾼들은?”

“근처에 있겠지요.”

“지금부터 공 서방 객줏집으로 내 옮겨 가야 해.”

“옮기셔야지요.”

“일꾼들 불러다 짐을 나르게 하고, 길상이는 내일.”

하다가 멀리 하늘로 시선을 던진다.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린다. 눈동자가 고정되었다 싶었을 때 다음 순간 서희는 싸늘하게 길상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내일, 길상이는 회령으로 가야 해.”

“.....”

“회령에 있는 재목을 모조리 사는 게야. 수량이 많지 않으면 원목을 그곳 제재소에서 쳐기로 하고.”

“그렇게 많이 어디다 쓰시려구요.”

“많을지 적을지 그것은 가 봐야 알 일 아니냐? 두고 보아. 재목이 동이 날 테니.”

“.....”

“우선 이게 오백 원인데,”

하며 서희는 흰 종이에 쓴 것을 내밀었다. 길상이 받아든다.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부 목재는 실어 보내고 나머지 계약을 걸어 놓아요.”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다음은 이 서방이 해야 할 일인데 이 서방은 따로 일꾼을 사서 불탄 자리를 말끔하게 하고, 우리 집터만이 아니라 장터 옆의 그 자리도 함께 치우는 거야.”

“그러면 그 터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디니? 상부국에서 샀었더라면 벌써 헐렸을 집들 아니냐? 이제는 헐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불이 났으니 땅은 땅임자 마음대로야.”

“하지만.....”

“뭐가 하지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길상은 물러난다.

(중략)

“바쁜가?”

상현이 물었다.

“바쁠 건 없지만 내일 회령으로 떠납니다.”

“뭣하러?”

“목재를 사려구요.”

“벌써 집을 짓자는 겐가?”

별일 없이? 병들지도 아니하고? 하면서 서희는 상현에 대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길상에게 쏟아놓더니 상현도 역시 서희에 대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비벼댄다.

“지금 안 바쁘면,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은 아니고…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씩 할까?”

“네?”

“불 소동에 애를 썼을 테니 풀어야지.”

길상은 할 말이 있나 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요.”

나란히 송 선생 댁을 나선다. 두 사람의 키가 엇비슷하게 중키는 훨씬 넘는다. 몸매는 상현이 편이 가늘어 보인다. 거리는 여전히 봄비고 있었다. 잠시 동안 불탄 방향으로 시선을 보낸 상현은 눈길을 거두고 그와 정반대편을 향해 곧장 걸어간다. 회영루(會英樓)라 쓰인 청요리 집 나무 간판 앞에 걸음을 멈춘 상현은 비스듬히, 자세도 눈길도 비스듬히 길상을 돌아본다. 두 사람은 오래되고 낡고 비좁은 층계를 밟으며 올라간다. 층계는 디딜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이층은 아래층보다 좁고 탁자도 세 개가 놓여 있을 뿐인데 텅 비어 있었다. 거리 쪽으로 창이 하나 나 있었으나 삼면이 벽이어서 침침하고 곰팡이 냄새 기름 냄새가 찌들어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보고 앉는다. 변발(辮髮)의 소년이 따라왔다.

“머, 들어해?”

“음, 술 두 근하고,”

“…….”

“집을 것 두어 가지, 해삼탕이 좋겠구먼. 나머지는 알아서 가져와.”

송 선생과 더러 왔기 때문에 소년과 상현은 서로 낮이 익다. 길상은 창밖을 내다본다. 찌푸렸던 하늘은 개고 서산 쪽으로 기우는 해, 구름이 흘러가고 있다. 다소 급한 속도로, 어젯밤처럼 바람이 불 모양이다.

“자네가 항상 김 생원을 생각해 주어서 고맙네.”

상현도 창밖 구름을 바라본다. 다시

“허장성세(虛張聲勢), 어디로 가나 통분, 통분, 통분,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니 귀찮은 노인임에 틀림이 없겠으나,”

길상은 고개를 돌려 상현의 눈을 본다. 가느스름하게 좁혀져 있어 평소의 강한 눈빛을 볼 수가 없다.

“연만하신 분이니 할 수 없지 않은가? 한 시절 전에만 해도 이곳에는 글 하는 선비들의 씨가 말라서 귀하게들 모셔 가곤 했다더라만 요즘에야 어디 그런가?”

“…….”

“밟히는 게 망명 선비들이니 어디 시골 서당에서 훈장 자리가 있을 성싶지 않고 쫓아 버릴래야 쫓아 버릴 곳이 있어야 말이지. 내 자리나마 물려 드렸으면 싶지만 통분 소리

가 아이들 귀에 못이 댔도 곤란할 테니 말이야. 핫하하…….”

상현은 자기 자신을 비웃듯 허탈한 웃음을 한바탕 웃어 짓는다. 소년이 와서 황주(黃酒) 두 근과 해삼탕과 두부 튀긴 것을 각각 한 접시, 탁자 위에 그것들을 띄운다. 길상이 술병을 들어 상현의 술잔에 술을 붓는다. 자기 잔에도 따르고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들이킨다. 그렇게 해서 마신 술이 거의 바닥이 났다. 모진 추위를 이기느라 마시기 시작했던 술, 망향의 설움 때문에도 마신 술, 두 사람은 모두 주량이 어지간하다. 길상은 얼굴이 벌겋으나 상현의 거무스름했던 얼굴은 창백해 갔다. 다시 소년을 부르고 술 한 근을 더 청한다. 안주도 집지 않고 강술을 그들은 마신 것이다.

“자네는 그 나이에 장가도 한 들고 어쩔 셈인가.”

드디어 상현은 포문을 열었다.

“글쎄요.”

슬그머니 뇌는 말과 달리 눈은 경계심을 나타낸다.

“달리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달리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글쎄…본시 중 될 몸이 사바세계에 나왔기 땀에 그럴까요?”

하고 처음으로 웃는다. 석연찮은 웃음이다.

“이유치고는 어렵군그래.”

“굳이 그걸 이유라 하진 않습니다. 장가갈 때가 되면 가겠지요.”

“갈 때가 안 됐다 그 말인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제 일신상의 문제는 근심 마십시오. 나이 이쯤 됐으면 조만간에 제 자신이 처리하게 되겠지요.”

듣기에 따라서 어린 주제에, 하는 경멸의 뜻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현은

“그야 그렇지. 자네 일에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 허나,”

좁혀진 눈이 벌어지면서 번쩍 빛났다.

“서회에 관한 일이라면 사정이 다르지 않겠느냐?”

“…….”

“자네한테는 상전이요, 나는… 그렇지. 비록 핏줄은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가의 내력을 봐서는, 또 서회는 천애고아가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해서 하는 얘기가야. 서회는 혼인을 해야 할 게야.”

“해야겠지요.”

“뉘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네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육박해 온다. 벌겋던 길상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셔진다. 상현은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자네가 장가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상현의 눈을 받는 길상은 한순간 휘청거리는 것 같았으나, 웃었다.

“서희 아기씨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일신상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마음속의 문제다.”

“저의 오장육부를 꺼내 보여라 그 말씀이시요?”

얼굴에 노기가 떠오른다.

“세상이 달라지고 곳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비겁한 놈이 됩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곳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억지를 쓰시는 일은 선비 체통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상현은 머쓱해진다. 마침 술이 왔다. 그들은 아까와 달리 천천히 술을 마신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다.”

상현은 주정 비슷하게 다시 시작했다.

“자네가 똑똑한 것도 알고 잘생긴 것도 안다. 이곳은 내 땅이 아니지만 우린 조선 사람이야.”

“.....”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반상의 구별이 없어졌기로 일조일석에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야.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양반들이 김 훈장 꼴이 되고 양가의 규수가 장사꾼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기화 삼는다면 내 칼이 자네 목에 들어갈 줄 알란 그 말이니라.”

“저도 한 말씀 드리지요.”

“.....”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신언서판(身言書判)이 분명한 서방님을 저도 우러러 보아 왔습니다. 이곳은 내 땅이 아니지만 물론 우리는 모두 조선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니 삼강오륜도 땅에 떨어졌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양반의 체통만은 엄연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천애고아라 해서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를, 야심의 노리개로 삼을 시, 저의 칼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 골수까지 종놈으로 썩어 버린 놈이니까요. 그걸 충성심이라고들 하지요.”

상처 받은 짐승같이 영악한가 하면 체념하는 듯한 그런 눈이 상현을 쳐다본다.

“이놈!”

“.....”

“종놈의 신분으로 뉘한테 그따위 헛바닥을!”

“서방님, 구차스럽소이다. 신분을 불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로 허약한 분인 줄 미처 몰랐소이다.”

“이놈! 뭐라구?”

“저도 연장자(年長者)라는 원병을 청하리까?”

길상은 일어섰다. 상현도 일어서는데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떠다.

“먼저 가 보겠습니다.”

길상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간다. 상현은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탁자를 친다.

출전 《토지》 제2부 제1권, 나남, 2008.

【문법으로 글 읽기】

1. 다음은 ‘길상’을 중심으로 하여 본문의 갈등 구조를 정리해 본 것이다. 인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자.

갈등의 대상	갈등 원인
길상 ↔ 서희	• 김 훈장에 대한 인식 차이 •
길상 ↔ 상현	•

2.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복원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나타내 보자.

“이 서방은 어디 있지?” 하고 탄전을 피운다. 난처할 때 하는 서희의 버릇이다.
㉠“밖에 있습니다.”
㉡“일꾼들은?”
“근처에 있겠지요.”
“지금부터 공 서방 객줏집으로 내 옮겨 가야 해.”
㉢“옮기셔야지요.”
“일꾼들 불러다 짐을 나르게 하고, 길상이는 내일.”

- ㉠: () 밖에 있습니다.
- ㉡: 일꾼들은 () ()?
- ㉢: () () 옮기셔야지요.

3. 본문의 속담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가)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다.”
상현은 주장 비슷하게 다시 시작했다.
“자네가 똑똑한 것도 알고 잘생긴 것도 안다. 이곳은 내 땅이 아니지만 우린 조선 사람이야.”

(나)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신언서판(身言書判)이 분명하신 서방님을 저도

우러러 보아 왔습니다. 이곳은 내 땅이 아니지만 물론 우리는 모두 조선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니 삼강오륜도 땅에 떨어졌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양반의 체통만은 엄연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천애고아라 해서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를, 야심의 노리개로 삼을 시, 저의 칼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 골수까지 종놈으로 썩어 버린 놈이니가요. 그걸 충성심이라고들 하지요.”

(1)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의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2) (가), (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못 오를 나무’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아보자.

4.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규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 나오는 어휘를 바르게 발음해 보자.

〈보기〉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ㄹ’, ‘ㄷ’, ‘ㄹ’, ‘ㅂ’,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ㄷ, ㄹ, ㅂ, ㅅ]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ㄴ’,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ㄴ’은 ‘ㄱ’ 앞에서 [ㄴ]로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ㄷ]으로 발음한다.
2. ‘ㅎ(ㄴㅎ, ㄹ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ㅅ]으로 발음한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4.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없다[업따]
- 많지[]
- 않으면[]
- 낯고[날꼬]
- 그렇습니다[]

(6) 영혼의 母音

-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법정

1

어린 왕자!

지금 밖에서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창호(窓戶)에 번지는 하오의 햇살이 지극히 선(善)하다.

이런 시각에 나는 티 없이 맑은 네 목소리를 듣는다. 구슬 같은 눈매를 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 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그 눈매를 그린다. 이런 메아리가 울려온다.

“나하고 친해지자,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어린 왕자!

이제 너는 내게서 무연(無緣)한 남이 아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낮익은 식구다. 지금까지 너를 스무 번도 더 읽은 나는 이제 새삼스레 글자를 읽을 필요도 없어졌다. 책장을 훑힐 넘기기만 하여도 네 세계를 넘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간(行間)에 쓰인 사연까지도, 여백(餘白)에 스며 있는 목소리까지도 죄다 읽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해 전, 그러니까 1965년 5월, 너와 마주친 것은 하나의 해후(邂逅)였다. 너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관계의 바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세계와 나의 존수를 헤아리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나 자신과 마주친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가난한 서가(書架)에는 너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애들은 메마른 나의 가지에 푸른 수액(樹液)을 돌게 했다. 솔바람 소리처럼 무심한 세계로 나를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존재임을 투명하게 깨우쳐 주었다.

더러는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다. 밤하늘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인다. 방울처럼 울려 올 네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혼자서 웃음을 머금는다. 이런 나를 곁에서 이상히 여긴다면, 네가 가르쳐 준 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

2

어린 왕자!

너의 아저씨(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동무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 동무의 목소리가 어떠냐? 무슨 장난을 제일 좋아하느냐? 나비 같은 걸 채집하느냐?’,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형

제가 몇이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 애 아버지가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그분들의 묻는 말이다. 그제야 그 동무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낼 질 못한다. '1억 원짜리 집을 보았어.'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거 참 굉장하구나!' 하고 감탄한다."

지금 우리 둘레에서는 숫자 놀음이 한창이다. 두 차례 선거를 치르고 나더니 물가가 뛰어오르고, 수출고가 예상보다 처지고, 국민 소득이 어떻다는 등. 그러니까 잘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단위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최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숫자가 늘어나면 으스스대고, 줄어들면 마구 화를 낸다. 말하자면 자기 목숨의 심지가 얼마쯤 남았는지는 무관심이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시적(可視的)인 숫자 놀음으로 해서 불가시적인 인간의 영역이 날로 위축되고 메말라 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비유가 있지만, 숫자를 다루는 그 당사자의 인간적인 바탕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흔히 내로라하는 어른들은 인간의 대지(大地)를 떠나 둥둥 걸돌면서도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구나.

어린 왕자!

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버섯'이라고 했었지?

"그는 꽃향기를 맡아 본 일도 없고 별을 바라본 일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 더하기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도 온종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고 뇌고만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잔뜩 교만을 부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그래, 네가 여우한테서 얻어들은 비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한 모서리에 불과해. 보다 크고 넓은 것은 마음으로 느껴야지. 그런데 어른들은 어디 그래? 눈앞에 나타나야만 보인다고 하거든. 정말 눈뜬장님들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슬기가 현대인에겐 아쉽다는 말이다.

3

어린 왕자!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꽃인 줄 알았다가, 그 꽃과 같은 많은 장미를 보고 실망한 나머지 풀밭에 엎드려 울었었지? 그때에 여우가 나타나 '길들인다'는 말을 가르쳐 주었어. 그건 너무 잊힌 말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길들이기 전에는 서로가 아직은 몇 천 몇 만의 혼해 빠진 비슷한 존재에 불과하여 아쉽거나 그립지도 않지만, 일단 길을 들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야.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해가 돋은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어느 발소리하고도 다른 발소리를 알게 될 거다.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이 되어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여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밀밭이, 어린 왕자의 머리가 금빛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황금빛이 감도는 밀을 보면 그리워지고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토록 절절한 ‘관계’가 오늘의 인간 촌락에서는 퇴색해 버렸다. 서로를 이해와 타산으로 이용하려 들거든. 정말 각박한 세상이다. 나와 너의 관계가 없어지고 만 거야. ‘나’는 나고 ‘너’는 너로 끊어지고 말았어. 이와 같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와 너는 더욱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관계가 회복되려면, ‘나’, ‘너’, 사이에 ‘와’가 개재되어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될 수 있어. 다시 네 동무인 여우의 목소리를 들어 볼까.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사면 되니까. 하지만 친구를 팔아 주는 장사꾼이란 없으므로 사람들은 친구가 없게 됐단다. 친구가 갖고 싶거든 날 길들여!”

길들인다는 뜻을 알아차린 어린 왕자 너는 네가 그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한다.

“내 장미꽃 하나만으로 수천수만의 장미꽃을 당하고도 남아.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고깔을 씌워 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 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 준 것이 그 장미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혹은 점잖게 있는 것까지라도 다 들어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라고 했다.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사람들은 특급 열차를 집어타지만, 무얼 찾아가는지를 몰라.”

그렇다. 현대인은 바쁘게 살고 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밀리고 돈에 추격당하면서도 정신없이 산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피로 회복제를 마셔 가며 그저 바쁘게만 뛰어다니려고 한다. 전혀 길들일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한 정원에 몇 천 그루의 꽃을 가꾸면서도 자기네들이 찾는 걸 거기서 얻어 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단 한 송이의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너는 또 이렇게 말했지.

“그저 아이들만이 자기네들이 찾는 게 무언지를 알고 있어. 아이들은 형뻘으로 만든 인형 하나 때문에도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한 것이 돼 버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뺏으면 우는 거야…….”

어린 왕자!

너는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구나. 이 육신을 묶은 허물로 비유하면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구나. 생야일편부운기(生也日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日片浮雲滅),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스러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더라.

그렇다, 이 우주의 근원을 넘나드는 사람에겐 죽음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니까. 어린 왕자, 너의 실체는 그 묵은 허물 같은 것이 아닐 거야. 그건 낡은 옷이니까.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들의 육신도 그럴 거다. 그리고 네가 살던 별나라로 돌아가려면 사실 그 몸뚱이를 가지고 가기에는 거추장스러울 거다.

“그건 내버린 묵은 허물 같을 거야. 묵은 허물, 그건 슬프지 않아. 이봐 아저씨, 그건 아득할 거야. 나두 별들을 쳐다볼래.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4

어린 왕자!

이제는 너를 길들인 후 내 둘레에 얹힌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게 소개해 준 벗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벗이다. 너를 대할 때마다 거듭거듭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벗은 나에게 하나의 운명 같은 것을 만나게 해 주었으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도 적지 않지만, 너에게서처럼 커다란 감동을 받은 책은 많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經典)이라고 한대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 누가 나더러 지묵(紙墨)으로 된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화엄경》과 함께 선포 너를 고르겠다.

가까운 친지들에게 《어린 왕자》를 아마 서른 권도 넘게 사 주었을 것이다. 너를 읽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내 신뢰감과 친화력을 느끼게 된다. 설사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 벗이 될 수 있어. 내가 아는 프랑스 신부 한 사람과 뉴질랜드 노처녀 하나는 너로 인해 가까워진 외국인이다.

너를 읽고도 별 감흥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와 치수가 잘 맞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나와 친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를 읽은 그 반응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폭을 재는 한 개의 자[尺度]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그리고 네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누워서 들어. 그래야 네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야.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네 목소리는 들을수록 새롭기만 해. 그건 영원한 영혼의 모음(母音)이야.

아, 이토록 네가 나를 흔들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건 네 영혼이 너무도 아름답고 착하고 조금은 슬프기 때문일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듯이.

네 소중한 장미와 고삐가 없는 양에게 안부를 전해 다오.

너는 항시 나와 함께 있다.


출전 《무소유》, 범우사, 1985.

【문법으로 글 읽기】

1. 본문은 1~4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편지 형식의 글이다. 각 물음에 답하면서 각 부분의 요지를 파악해 보자.

	물음	답
1	어린 왕자와 필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필자는 몇 해 전에 어린 왕자에 대한 책을 접하고 스무 번도 더 읽어서 어린 왕자에 대하여 친근함을 지니고 있다.
2	사람들은 인간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주목하는가?	
3	진정한 관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4	어린 왕자가 필자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2. 조사 ‘와’에 관한 인터넷 사전의 설명을 참고하여,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보자.

와04  발음 듣기

활용 정보:

▶ 목록 보기

「조사」

[1]

「1」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빠르기가 반개와 같다./나는 그와 다르니까 조심해.

「2」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나들이를 했다./여제는 친구와 테니스를 쳤다./나는 오빠와 함께 청소를 했다.

「3」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녀와 헤어진 후 한동안 녀석은 마음을 잡지 못했다./그와 맞서려 하지 마라. 그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야.

[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심표를 찍는다.

▶ 개와 고양이/오빠와 누이 관계/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싸웠다./너와 내가 아니면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랴.

「참고 어휘」 과12 하고05.

그토록 절절한 ‘관계’가 오늘의 인간 촌락에서는 퇴색해버렸다. 서로를 이해와 타산으로 이용하려 들거든. 정말 각박한 세상이다. 나와 너의 관계가 없어지고 만 거야. ‘나’는 나고 ‘너’는 너로 끊어지고 말았어. 이와 같이 뿔뿔이 흩어져버렸기 때문에 나와 너는 더욱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관계가 회복되려면, ‘나’, ‘너’, 사이에 ‘와’가 개재되어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될 수 있어. 다시 네 동무인 여우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3. 다음은 ‘만남’과 관련된 어휘의 의미 차이를 설명한 글이다. 다음을 읽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이 글에는 만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어휘가 사용되어 있다.

“몇 해 전, 그러니까 1965년 5월, 너와 마주친 것은 하나의 해후(邂逅)였다. 너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관계의 바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세계와 나의 촌수를 헤아리게 된 것이다.”

윗글과 같이 만남과 관련된 한자어에는 해후(邂逅)와 조우(遭遇)가 있다. 해후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에 다시 만났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만남의 대상이 이미 서로 만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조우는 만남 중에서도 우연히 맞닥뜨린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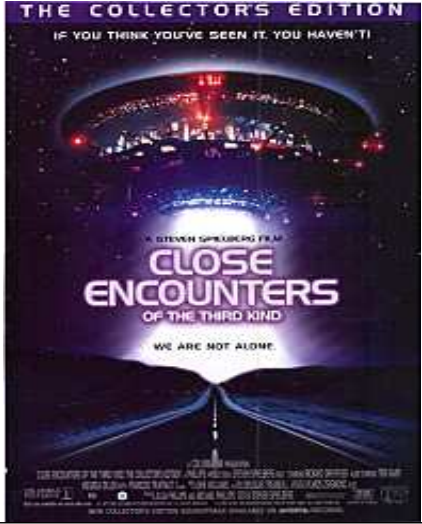
(1) <보기>는 ‘해후’라는 제목의 대중가요이다. 이 가요의 제목이 ‘해후’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보기 〉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 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 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 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창집에서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 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최성수, 해후>

(2) <보기>는 ‘미지와 조우’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 영화의 제목에 ‘조우’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보기 〉

이 영화는 본래 미국에서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공상 과학 영화이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적인 걸작 영화로, 외계인 및 U.F.O와 인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 내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원제가 그대로 번역되어 소개되지 않고, ‘미지(未知)와의 조우(遭遇)’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미지란 인간이 이전까지 알거나 만나지 못했던 것, 즉 외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외계인의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한 제목을 택한 것이다.

4. 본문의 제목은 ‘영혼의 모음’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글의 제목이 영혼의 자음이 아니라, 영혼의 모음인 이유에 대해 추론해 보자.

〈 보기 〉

국어의 모든 말소리는 음절(音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절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모음(母音)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는 말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가’와 ‘족’이라는 각각의 음절을 발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모음 ‘ㅏ’와 ‘ㅓ’는 음절의 핵(核)을 이룬다. 또한 우리는 모음인 ‘ㅏ’는 홀로 발음할 수 있지만, ‘ㄱ’과 같은 자음(子音)은 홀로 발음할 수 없는데, 이는 말소리가 음절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음절은 다시 모음에 의해서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네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누워서 들어. 그래야 네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야.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네 목소리는 들을수록 새롭기만 해. 그건 영원한 영혼의 모음(母音)이야.

쉬어 가기

김유신전

당이 신라를 침략하려는 계획을 꾸미자 그 대책을 논하다 (660년(음))

당나라인들은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고 사비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하여 신라를 침략하려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리 왕이 이를 알고서 군신들을 불러 대책을 물으니, 다미공(多美公)이 나아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백제인인 척 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입히고 마치 적의 무리인 양 행동하도록 한다면 당나라인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백제인들)과 함께 싸운다면 뜻을 이를 만하옵니다.”라고 말하자, [김]유신이 “이 말은 취할 만하니 청컨대 이를 따르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왕이 “당나라군은 우리를 위해 적을 섬멸하였는데 도리어 그들과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는가?”라고 말하자, [김]유신은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이옵니다. 어찌 어려움을 만났는데 스스로 구할 방법을 찾지 않겠사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이를 허락하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唐人既滅百濟 營於泗沘之丘 陰謀侵新羅 我王知之 召群臣問策 多美公進曰 令我民 詐爲百濟之人 服其服 若欲爲賊者 唐人必擊之 因與之戰 可以得志矣 庾信曰 斯言可取 請從之 王曰 唐軍爲我滅敵 而反與之戰 天其祐我耶 庾信曰 犬畏其主 而主踏其脚 則咬之 豈可遇難 而不自救乎 請大王許之)

당 군대가 백제 왕 등을 데리고 돌아가다 (660년 9월 3일(음))

당나라인들이 우리가 [당나라 군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음을 염탐을 통해 알고는 백제왕과 신료 93명, 병졸 2만 명을 붙잡아 9월 3일 사비에서 배를 띄워 돌아갔고,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 등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唐人諜知我有備 虜百濟王及臣寮九十三人卒二萬人 以九月三日 自泗沘泛船而歸 留郎將劉仁願等鎮守之)

당 고종이 소정방에게 신라를 정벌하지 않은 이유를 묻다 (660년 9월(음))

[소]정방이 이윽고 포로를 바치니 천자가 그를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신라는 정벌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자, [소]정방은 “신라는 그 임금의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아버지나 형을 섬기 듯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사옵니다.”라고 말하였다.

(定方既獻俘 天子慰藉之曰 何不因而伐新羅 定方曰 新羅其君仁而愛民 其臣忠以事國 下之人事其上 如父兄 雖小不可謀也)

* 국사편찬위원회 역.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사십이(卷第四十二) 열전(列傳) 제이(第二), 김유신(金庾信) 중(中)

예시 답안 및 해설

대단원 1	(1) 신시의 아침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 신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상징적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 호랑이가 패하고 곰이 이겼다는 것은 용맹과 투쟁의 가치관보다도 인(忍)과 순박함을 높이 샀다는 것이다.

㉢: 단군 신화는 자연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로 옮겨가는 한국인 최초의 역사의식이다.

2.

①, ③, ⑤

☞ ①: ‘결코’는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인다.

③: ‘마치’는 ‘-처럼’, ‘-듯’, ‘-듯이’ 따위가 붙은 단어나 ‘같다’, ‘양하다’ 따위와 함께 쓰인다.

⑤: ‘별로’는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인다.

3.

투쟁 - 분열 - 파괴 - 죽음

결합 - 화합 - 창조 - 탄생

4.

①: 선열, ②: 방어율, 승률 ③: 확률

☞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제11항을 참고할 수 있다. ‘-열, -율’은 앞 글자에 받침이 없거나 ‘ㄴ’ 받침일 경우에 사용한다. 비율, 실패율, 규율, 전율, 운율 등이 이에 해당한다.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렬, -률’을 쓴다. 능률, 출석률, 합격률, 성공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단원 1	(2) 서낭당이나 성황당이나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성황당	서낭당
①, ②, ④	③, ⑤, ⑥

2.

(1) ‘-지 않을까’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확신하지 않고 추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평서형 어미 ‘-다’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단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3.

- ① - ㉠
- ② - ㉡
- ③ - ㉢

4.

(1) 고풍스런 → 고풍스러운

☞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한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일도 많다. 형태의 변이 가운데는 일정한 환경에서는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규칙 활용이 있고, 부분적으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다. ‘고풍스럽다’는 ‘ㅂ 불규칙 용언’으로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반모음 ‘오/우’로 바뀐다. 따라서 ‘고풍스럽다’는 ‘고풍스럽- + -ㄴ(관형사형 어미)’일 때 ‘고풍스러운’으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고풍스런’으로 줄지 않음에 유의한다. 이는 ‘높다, 가깝다’ 등의 활용형인 ‘누운, 가까운’ 따위가 ‘*눈, *가깝’으로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2)

용언	환경	활용형
묻다(埋)	+ 아/어	묻어(규칙 활용)
돕다		도와(ㅂ불규칙 활용)
파랳다		파래(ㅎ불규칙 활용)
낫다		나아(ㅅ불규칙 활용)

☞ 규칙 활용은 ‘묻다(埋)’와 같이 일정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ㅂ 불규칙 활용은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반모음 ‘오/우’로 바뀐다. ‘곱다, 돕다’와 같이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면 ‘고와, 도와’로 적고, ‘안타깝다, 가깝다’와 같이 2음절 이상의 용언에서는 ‘-어’가 결합되어 ‘안타까워, 가까워’로 적는다. ㅎ 불규칙 활용은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한다. 활용 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 활용이다. ㅅ 불규칙 활용은 어간의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낫다’는 ‘나아’와 같이 활용한다.

대단원 1	(3) 궁예, 왕건이 그린 나라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 민중으로 하여금 전진을 하게 하는 것은 뜻의 제시다.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참 지도자요, 참 영웅이다.

㉡: 삼국 통일을 한 다음 북으로 가자는 것이 이상이었다.

㉢: 시대의 사조인 유교의 정치 교화의 이론을 실제로 채용하여 정치 기구를 튼튼하게 하기

2.

②, ④, ⑤, ⑥

☞ 앞 말이 목적어인 예를 찾으면 된다. ‘②는 뜻을 제시하다, ④는 지위를 보장하다, ⑤는 중국을 흉내 내다, ⑥은 불교를 통제하다’로 풀이할 수 있다. ‘①은 정치가 썩었다, ②는 역사가 죄지었다, ⑦은 부처가 보호하다’로 풀이할 수 있다.

3.

(가) 일어났다: ③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나) 일어나고: ⑤

양길이가 북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세력이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해졌다는 의미이다.

(다) 일어나는: ⑨

부흥 종교가 새로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종교나 사조 따위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4.

①, ③

☞ ①의 ‘겉 없이’와 ③의 ‘눈치 없이’는 합성어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합성어이다.

대단원 1	(4) 퇴계와 고봉 간 사단칠정 논쟁의 전개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

2.

- (1) ① 다르- + -므로
- (2) ② 것이- + -므로
- (3) ② 것이- + -니

3.

②

☞ ①, ③, ④, ⑤의 뜻: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②의 뜻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칠평], [절또]

번호: ②, ③, ④, ⑥

☞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나 있는 발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김밥[김 : 밥], 덮개[덥깨], 법규[법규], 잠자리[잠짜리], 참고서[참고서], 헌법[헌 : 뽕], 효과[효 : 과]. 참고로 ‘잠자리’의 경우, 잠을 자는 자리라는 의미의 잠자리는 ‘[잠짜리]’로 발음하지만, 곤충의 한 종류인 잠자리는 ‘[잠자리]’로 발음한다.

대단원 1	(5) 지조론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② → ④ → ①

2.

사동 표현: ①, ④

피동 표현: ③, ⑤

☞ ②는 사동 표현도 아니고, 피동 표현도 아니므로 주의한다.

3.

(1)

- 자존(自尊)
- ①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킴. (○)
- 자시(自恃)
- ②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믿음. (○)
- 자학(自虐)
- ① 자기를 스스로 학대함. (○)

(2) 자결(自決)

- ① 의분을 참지 못하거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 (○)

(3) 자임(自任)

- ① 임무를 자기가 스스로 맡음. (○)

4.

[저절], ①, ②

☞ 연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고르면 된다. 앞 음절의 받침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면, 앞의 받침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예를 찾는다.

대단원 2	(1) KOREA로 불리다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벽란도, 조공 무역, 민간 무역, 아라비아 상인

2.
(1) 가
☞ 앞뒤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은 앞뒤 문장을 바꾸어도 의미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고’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고 ‘-(아/어)서’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대등적 연결 어미는 의미적으로 대등한 두 절(節)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를 말하며 ‘-고’, ‘-(으)며’, ‘-(으)나’ 따위가 있다. 종속적 연결 어미는 앞의 문장을 뒤의 문장에 종속적으로 이어 주는 어말 어미를 말하며 ‘봄이 오면, 꽃이 핀다.’에서 ‘-면’, ‘겨울이 되니, 날씨가 춥다.’에서 ‘-니’ 따위이다.

3.
(1)

청유형	*활발하자, *다양하자
명령형	*활발해라, *다양해라

(2) 동사는 ‘드러나다, 사용하다’이고 형용사는 ‘활발하다, 다양하다’이다.
☞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청유형과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4.
(1)
• 자음: ㄹ, ㅂ, ㅅ, ㅇ, ㄴ
• 모음: ㅏ, ㅣ

(2) ‘아’의 ‘ㅇ’은 소릿값이 없지만 ‘상’의 ‘ㅇ’은 소릿값이 있다.
☞ ‘아’의 ‘ㅇ’은 없어도 발음이 변하지 않지만 ‘상’의 ‘ㅇ’은 없어진다면 [상]이 아니라 [사]로 발음해야 한다. 소리가 나지 않는 자음은 음운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단원 2	(2) 김치와 과학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 멸치젓은 김치가 시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V)
- 김치는 성인병과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다. (V)
-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다. (V)

2.

- 한국인들은 밥 한 그릇에 김치 한 보시기로 한 끼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 어머니는 고등어를 한 손만 사오라고 하셨는데, 한 손이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어.
 - 할머니께서는 손녀인 나에게 겨우 석 달 동안 기와집 한 채, 장롱 두 채, 이불은 몇 채를 준비해 주셨다.
- ☞ ‘그릇’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이나 물건의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보시기’는 김치나 깍두기를 담은 반찬 그릇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손’은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이다. 조기, 고등어, 배추 등의 경우, 한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을 이르고, 미나리나 파 따위 한 손은 한 줌 분량을 말한다. ‘마리’는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달’은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의 기간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채’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집, 큰 기구나 기물, 기구, 이불, 가공하지 않은 인삼을 묶어 세는 단위(한 채는 인삼 100근)로 다양하게 쓰인다.

3.

- 웰빙: 참살이 • 레시피: 조리법
- 슬로푸드: 여유식 • 사라다: 샐러드

4.

(1)

㉠ 담궜었지 → 담갔지/ 담갔었지

(2)

김치나 술, 장, 젓갈 등의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하는 것은 ‘담구다’가 아니라 ‘담그다’로 써야 한다.

☞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담그다’이다. ‘담그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면, ‘담갔다’와 같이 활용하게 된다.

대단원 2	(3) 음력·양력의 과학적 비교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통념의 반박: 그러나 양력은 비합리적이고 오늘날에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을 많이 지니고 있다.

주장의 강화: 음력은 문화적인 영향이 거의 없이 오직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역법이다.

2.

① ‘찢다’의 피동형인 ‘찢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찢어지는 동작을 당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주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 상황이라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또는 평가를 하는 주체 측에서 평가를 ‘내렸다’라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졌다’라는 피동형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평가 결과가 주체와 큰 관련 없이, 주변 상황에 의해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실제로 자동차의 핸들을 튼 것은 자신이지만, ‘틀게 하였다’고 하는 사동형으로 표현함으로써 핸들을 튼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주위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 춘분: 경칩(驚蟄)과 청명(淸明)의 사이에 들며 양력 3월 21일 무렵이다.
- 대한: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들며, 한해의 가장 추운 때를 의미한다. 1월 20일경이다.
- 우수: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들며, 양력 2월 18일경이 된다.

☞ 참고로 우리의 언어문화 유산인 24절기는 다음과 같다.

봄	입춘 (立春)	우수 (雨水)	경칩 (驚蟄)	춘분 (春分)	청명 (淸明)	곡우 (穀雨)
여름	입하 (立夏)	소만 (小滿)	망종 (芒種)	하지 (夏至)	소서 (小暑)	대서 (大暑)
가을	입추 (立秋)	처서 (處暑)	백로 (白露)	추분 (秋分)	한로 (寒露)	상강 (霜降)
겨울	입동 (立冬)	소설 (小雪)	대설 (大雪)	동지 (冬至)	소한 (小寒)	대한 (大寒)

4.

불납, 부주의, 부실

☞ 한글 맞춤법 제28항에서는 본래 형태소의 모양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말에서 ㄹ이 탈락된 형태로 표기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 본 모양을 밝힌다는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한 쓰임이 굳어져 있는 현실을 존중한 것이다. 한편, 제28항에 더불어 한자 불(不)이 붙은 말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ㅌ’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에는 ‘ㄹ’이 떨어진 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 ‘부실(不實)’과 같은 예외적인 예를 함께 기억하여 두도록 한다.

대단원 2	(4) 한옥의 공간 구성 원리, 소통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신이 함께하는 공간을 지닌 한옥: 신과의 소통

타인과 어우러지는 공간인 한옥: 타인과의 소통

2.

(1) 과거 시제

(2) 이미, 살펴보았다

☞ ‘이미’나 ‘살펴보았다’는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알려 준다.

(3) ①, ②, ③, ④

☞ ①과 ②의 경우, 과거의 사실임을 알려 주는 ‘이미’는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와 어울리지 않고 있다. ③과 ④의 경우, 미래의 사실임을 알려 주는 ‘앞으로’는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와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 ①

☞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①’의 우리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포함하여 ‘우리’라고 하고 있다. ‘②’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며 ‘③’은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4.

(1) 가치[가치], 발이[바치]

(2) 동일한 음운 현상인 것: 발이

☞ ‘ㅈ, ㅊ’과 같이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구개음이라고 하는데,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ㄷ, ㅌ’이 ‘ㅣ’모음과 함께 쓰이면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소리를 좀 더 쉽게 내기 위해서이다. 즉, ‘디’와 ‘지’를 소리 내 보면 ‘지’가 혀의 움직임이 더 적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혀의 움직임이 적어야 소리 내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대단원 2	(5) 백성들이 정말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는가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홍문관, 서원, 신문고, 상언, 격쟁

흰무리[힌무리], 희미하다[히미하다], 유희[유히], 오
늑[오니], 하늑바람[하니바람], 보늑[보니]

2.

②

☞ 우리말에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들이 있다. ‘지아비’, ‘지어미’는 윗사람 앞에서 남편과 아내를 낮추어 부르던 표현이다. ‘②’의 ‘저희’는 제자가 ‘선생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것이다.

다만 4. 이는 현실음을 고려한 허용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ㄴ]로 발음한다.

3.

다행히, 그러나

☞ ‘바로’, ‘못’, ‘간절히’는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고 ‘다행히’, ‘그러나’는 문장 전체와 관련을 맺는 문장 부사이다. 한편, ‘그러나’는 문장 부사 중에서도 접속 부사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는 위의 다만 3의 규정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나, ‘무늑’은[무니]로 발음하고, ‘문의(問議)’는 [무 : 닌]가 원칙이고 [무 : 니]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자어에서 ‘희’는 언제나 [히]로 발음이 되는데, ‘문의(問議)’처럼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연음시켜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며 [ㅣ]로 발음함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	원칙	허용
성의(誠意)	[성의]	[성이]
내의(內衣)	[내 : 의]	[내 : 이]

관형격 조사 ‘의’도 [ㄴ]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던 15세기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의/이’ 두 형식이 관형격 조사로 쓰이었으나, ‘이’가 없어지면서 표기상에서 ‘이’가 없어지고 ‘의’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표준어로서의 ‘의’ 이외에 방언에서는 [ㅣ], [ㅡ] 등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의 계통인 [ㄱ], [ㄴ]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서울 내지는 중부 지방의 일상 회화에서는 [ㄱ]로 발음되는 일이 많아 이를 고려하여 ‘의’를 [ㄱ]로 발음함도 허용한 것이다. 표기와 발음이 1대1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로 표기하여 놓고서 그 본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ㄱ]로 발음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이어서 많은 논란 끝에 허용 규정으로 덧붙게 된 것이다.

4.

‘ㄴ’로 발음할 수 있는 것	‘ㅣ’로 발음할 수 있는 것	‘ㄱ’로 발음할 수 있는 것
가, 라	나, 라	다

☞ 한글 맞춤법 제9항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3. 표기상에서 자음을 얹고 있는 ‘ㄴ’은 표기와는 달리 [ㅣ]로 발음하고 [ㄴ]나 [ㅡ]로는 발음하지 않는다.

예	원칙	허용
강의(講義)의	[강 : 의의]	[강 : 이의 ~ 강 : 이에]

대단원 3	(1) 고려청자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고려 초 10 세기 후반	나
11세기	가
12세기	다

2.

(가) - (㉞), (나) - (㉟)

☞ (가)의 문장에는 과거의 사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시간 순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다. 반면, (나)에는 시간 성과는 무관한 어떤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므로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

3.

일치하는 것: 황갈색

☞ ‘도기’와 ‘자기’를 합하여 ‘도자기’라는 합성어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형성된 단어는 ‘황색’과 ‘갈색’이 합쳐진 합성어 ‘황갈색’이다.

4.

적용되지 않는 것: ㉡

☞ 1126년에서 ‘년’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단원 3	(2) 우리 음악의 일반적 특징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우리 음악	서양 음악
고운 소리에 대한 태도	추구	추구
시끄러운 소리에 대한 태도	넓게 포용	특별한 효과를 위해서만 수용
소리 가공의 정도	적음	많음
자연의 소리와 의 거리	가깝다	멀다
음량	작다	크다

2.

- ①: (수사 의문문)
 ②: (수사 의문문)
 ③: (설명 의문문)

☞ 의문문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의문문은 질문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밑글에 나타나는 문장 ①, ②, ③은 모두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태상 의문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문문을 사용한 목적과 의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③은 문장 뒤에 이어지는 ‘우리 성악에서 자연의 소리 추구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설명 의문문이다. 그런데 화자(필자)는 바로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으로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미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 따라서 설명 의문문이지만 목적상 청자(독자)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글의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 화자(필자)가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①, ②는 역시 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 화자(필자)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 알기 위해 사용한 일반적인 의문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화자가 말하고자 한 바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

한 수사적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질문이 긍정문이면 강한 부정을, 부정문이면 강한 긍정을 나타내게 된다.

3.

㉠	더욱, 훨씬, 한결
㉡	~에 비해서

☞ ㉠의 ‘보다’는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뜻을 가진 말로 ‘강하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이다. 따라서 유의어 ‘더욱’, ‘훨씬’, ‘한결’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뒤의 ‘보다’는 ‘우리’라는 체언 뒤에 붙어 조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말로 ‘~에 비해서’를 대체할 수 있다.

4.

	관형어의 수식	서술어 기능	품사
울림	받음	없음	명사
창출함	받지 않음	있음	동사

☞ ‘-음’은 명사형 어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로도 쓰인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 명사임을 파악할 수 있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면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울림’은 ‘울리- + -음’으로 분석할 수 있고, ‘창출함’은 ‘창출하- + -음’으로 분석되어 겉으로 보기에 형태상 유사하다. 하지만 ‘울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파생 명사로 체언의 기능을 하는 반면, ‘창출함’은 문장의 주어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하므로 명사 ‘창출’이 접사 ‘-하다’에 의해 용언으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을 뿐 명사의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단원 3	(3) 김홍도의 <씨름>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 (1) ㉠
(2) ㉡
(3) ㉢
(4) ㉣
(5) ㉤

2.

달라진 양상: ①, ④, ⑤

☞ 종합적으로는 다음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달라진 사항	양상 비교		고친 후 얻은 효과
	<보기1>	<보기2>	
문 체 적 특징	문 어 체 에 가까 움.	구 어 체 예 가까움.	친 근 감 과 현 장 감 을 더해줌
경 어 법 사용 유 무	사용 안 함.	사용	
글의 전 개상 특 징	일 방 적 진술	묻고 답하 면서 전개 됨.	독자의 호 기심 유발 및 관심 유도
사용된 문 장 의 유형	청유문, 평서문	평서문, 의 문문, 청유 문, 감탄문	다채로운 문형을 사 용하여 필 자(화자)의 감 정 이 나 기분 등도 실 감 나 게 전달됨. 그 래서 현장 에 있는 듯한 느낌 을 줌.

3.

㉤, ㉥

☞ ㉡과 ㉠은 볼 시(視)자에 해당하는 반면 ㉤은 볼 견(見) 자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하게 ㉢과 ㉣은 들을 청(聽)자에 해당하고 ㉥은 들을 문(聞)자에 해당한다.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보기는 본다.’와 ‘보이지 않는다.’로 두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단순히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동사 ‘보다’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주어진 예술 작품의 ‘속내’ 즉 ‘작품이 가진 참된 의미’정도가 됨을 추리할 수 있다. 이때 ‘보이지 않는다.’는 문맥상 예술 작품을 건성으로 보아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음’을 뜻한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다.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뜻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는다.’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4.

일치하는 것: ④, 품사: 감탄사

☞ ‘아니’에 대한 다음 뜻풀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 ①: 「1」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②: 「2」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
③: 「1」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④: 「2」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

대단원 3	(4) 한국의 탈춤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탈춤	농촌 탈춤	북청 (사자)놀이
		강릉(관노가면)놀이
		하회탈춤
	떠돌이 탈춤	본산대 놀이패
		대광대패
	(도시)탈춤	양주(별산대)놀이
		송파(별산대)놀이
		황해도 봉산 탈춤
		들놀이, 오광대

2.

어색하지 않은 것: ①

☞ ‘판소리에서는’은 ‘판소리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표방해야만 되었는데’라는 서술어구에 대하여 문장 주체가 되는 주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에서’는 주격 조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형태에서는’은 주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형태는’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그리고 문장의 서술어인 ‘개발했다.’의 주어는 ‘탈춤은’이라 할 수 있으며 ‘형태에서는’은 주어가 아닌 문장에서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로 인해 ‘에서’를 주격 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3.

양상이 유사한 것: ①, ③

☞ 선비와 초랭이 같은 등장인물들이 한자 어휘의 특정 음절을 뜻이 아닌 소리로 받아들이고 다른 의미를 가진 동일 음절을 반복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4.

①: 로서

②: 로서

③: 로써

④: 로써

☞ 주어진 문장에서 ‘농촌 탈춤’은 ‘가장 발전된 모습’이라는 의미로 지위나 자격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로써’가 쓰인 것이다

대단원 4	(1) 훈민정음, 성인의 도를 구현한 언어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물음	답
언해본 훈민정음과 해례본 훈민정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훈민정음 언해본은 세종이 직접 쓴 ‘어제’와 정인지의 ‘서문’이 실려 있는 문헌으로 문자 창제의 뜻과 간략한 개요만이 적혀 있는 문헌이다. 한편 해례본은 ‘어제’와 ‘서문’ 외에도 어제에 대해 해설과 주석을 달아 놓은 ‘해례’가 포함된 문헌을 말한다.
훈민정음 자모의 기원에 대한 이설은 무엇이 있는가?	훈민정음 자모에 대한 이설에는 창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발음 기관 상형설로 잘 설명되는 자모는 무엇인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훈민정음의 자모를 만들었다는 설은 ㄱ, ㅋ, ㄴ, ㄷ, ㅌ, ㅎ 등이다.
삼재(三才)의 상형설로 잘 설명되는 자모는 무엇인가?	중성의 기본 모음자 ㆍ, ㅡ, ㅣ와 같은 글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의 선 모양을 상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 의미는 세종이 창제한 이후에 그 반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은 주위 환경의 영향이나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반포를 할 수 없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

상보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발음 기관 상형설’과 ‘삼재 상형설’은 각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면이 있으므로 자모의 유래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학설이라 할 수 있다.

☞ ‘점층적’은 그 정도를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는 관계를 말한다. ‘발전적’은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과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단속적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관계를 말한다. 계층적은 사회적 지위나 단계의 구분이 있는 관계를 말한다.

4.

(1)
붓물[본물], 어금닛소리[어금니소리/어금닐소리], 뒷부분[뒤 : 뒤편/뒤 : 뒤편], 윗잇몸[원닌몸]

(2)

- 붓물 (②)
- 어금닛소리 (①)
- 뒷부분 (①)
- 윗잇몸 (② , ③)

☞ ‘윗잇몸’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됨을 유의하도록 한다. 잇몸의 경우, ㄴ이 덧나므로 [인몸]이 되어 ②가 적용되는 것이며, 윗잇몸의 전체를 보면, ‘위 + 잇몸’에서 ㄴㄴ이 덧나므로 최종적으로 [원닌몸]이 되는 것이다.

대단원 4	(2) 말의 예절이란?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 말이 많다 보면 위엄을 해치고 정성스러움을 잃게 된다. (○)
- 좋은 말이라도 지루하면 듣는 사람이 되레 싫어한다. (○)
-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절대로 말을 번거롭거나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 (○)
-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철수는 자기는 학교에 일찍 갔다고 말했다.

☞ <보기>의 (가)는 직접 인용이고, (나)는 간접 인용이다. 직접 인용은 원래 발화 형식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간접 인용은 원래 발화에 나타난 생각을 전달하되 인용을 하는 화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타낸다. 직접 인용은 ‘-라고’에 의해 실현되고, 직접 따옴표와 같은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간접 인용은 ‘-고’에 의해 실현되고, 간접 인용문의 1인칭 주어가 인용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3.

①, ⑥, ②, ③, ⑤, ④

☞ 참고로 말과 관련된 관용어 이외에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속담	의미
말은 보태고 떡은 췌다.	말은 퍼질수록 더 보태어지고 변하기 마련이라는 말.
말은 이 죽이듯 한다.	말을 할 때 조금도 남김없이 자세히 다 함을 이르는 말.
말이 말을 만든다.	말은 사람의 입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한다는 말.

4.

일찍이, 며칠, 골병, 오라비, 업신여기다

대단원 4	(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구분	주요 내용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1	①
다산이 병아리 관찰한 후 쓴 글	③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2	②

2.

형태	품사	높임등급	의미
-렴	종결어미	해라체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 ‘-란다’, ‘-렴’은 모두 ‘해라체’ 종결 어미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화하는 듯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이러한 종결 어미의 사용은 독자로 하여금 보다 친근한 분위기에서 작가와 대화하는 듯 느껴져 내용 이해에 효과적이다.

3.

서경(書經), 악경(樂經) 등
☞ 국어의 어휘 가운데는 한자어 어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는 근본적으로 글자 하나가 독립된 뜻을 가진 형태소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여 많은 어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 글에서도 ‘○경(經)’라는 형식은 ‘○’에 해당하는 한자와 ‘글’이라는 의미를 지닌 ‘경(經)’이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들 수 있다.

4.

제14항		제15항	
표준어(준말)	비표준어	표준어(본말)	비표준어
무	무우	귀이개	귀개
생쥐	새앙쥐	부스럼	부럼
솔개	소리개	수두룩하다	수독하다

☞ 표준어 규정 제14항은 준말을, 제15항은 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이때 표준어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현실 언어에서 얼마나 많은 언중이 사용하는 지이다. 따라서 표준어는 규정에 대한 지식보다는 개별 어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단원 4	(4) 퇴고의 이론과 실제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주요 내용
퇴고란?	퇴고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문장을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한다.
퇴고의 기준	표현하려는 마음을 잘 드러내야 좋은 글이다.

2.

(1)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화제로 삼을 때에 쓰는 보조사.

(2)

- 그 사람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다.
- 얼굴을 보니 **심술깨나** 부리겠더구나.
- **빨리는커녕** 천천히도 못 걸겠다.

☞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쓰고,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커녕’은 보조사로 ①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과 ②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지니고 있다.

3.

①

☞ ‘허턱’은 부사로 ‘이렇다 할 이유나 근거가 없이 함부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북한어 가운데 일부는 남한 사전에도 실려 있다.

4.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 우리말의 파열음은 예사소리(ㄱ, ㄷ, ㅂ), 된소리(ㄲ, ㄸ, ㅃ), 거센소리(ㅋ, ㅌ, ㅍ)의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어는 유성음(b, d, g)과 무성음(p, t, k)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에,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에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스또예프스끼’는 ‘도스토예프스키’로, ‘톨스또이’는 ‘톨스토이’로 적어야 한다.

대단원 4	(5) 조선어 학회 사건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② → (③) → (①) → (④) → ⑤

2.

(1) 명령형 어미: ‘처벌하라, 조치하라’의 ‘-라’

(2)

- 형이 나한테 빨리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
-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 ‘말다’는 간접 인용문에서는 ‘말라’가 되지만, 구어체에서는 ‘-아(라)’가 결합하여 ‘말아라, 말라’가 아닌 ‘마, 마라’로 사용됨에 주의해야 한다. ‘제발 떠나지 마.’가 그 예이다.

3.

유사한 의미인 것: ①

☞ 다음의 뜻을 참조하도록 한다.

표리부동(表裏不同):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일거양득(一舉兩得):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견마지로(犬馬之勞):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표리일체(表裏一體): 안팎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으로, 두 가지 사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됨을 이르는 말.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4.

제시문에 사용된 작은따옴표는 [붙임]에 있는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휘 카드에 있는 ‘태극기는 대한제국의 국기’, ‘서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 참고로 드러냄표에 대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드러냄표(‘ , °)

‘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____, ~~~~)을 치기도 한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대단원 5	(1) 아리랑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1)

(가)

3~6연: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

12~14연: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

(나)

3~6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7~10연: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

☞ ‘아리랑’과 같은 민요는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내용의 첨가와 삭제가 이루어져 내용이 일관되게 전개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진도 아리랑’은 인생의 험난함을 먼저 제시하고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한 뒤, 호감이 가는 이성 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맺어진 임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정선 아라리’는 앞부분에 몰락한 고려 왕조에 떠올리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어지는 내용은 ‘진도 아리랑’의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진도 아리랑’과 달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2.

㉠, ㉡, ㉢, ㉣

☞ ‘만나니 반가우나, 이별을 어이해’의 ‘-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님이 날만치, 사랑을 한다면 / 가시발 천리라도, 맨발로 가노라.’의 ‘-면’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정 들이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의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잠시 잠깐 님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의 ‘-(아/어)서’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3.

합성어	파생어
• 문고리, 가시발, 뱃사공, 나루터	• 잡놈, 맨발, 만며느리, 군불

☞ ‘문고리’는 ‘문’과 ‘고리’가 합쳐진 말, ‘가시발’은 ‘가시’와 ‘발’이 합쳐진 말, ‘뱃사공’은 ‘배’와 ‘사공’이 합쳐진 말, ‘나루터’는 ‘나루’와 ‘터’가 합쳐진 말이다. 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경우이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잡놈’은 ‘막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잡-’에 ‘놈’이 결합된 말, ‘맨발’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맨-’에 ‘발’이 결합된 말, ‘만며느리’는 ‘만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만-’에 ‘며느리’가 결합된 말, ‘군불’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군-’에 ‘불’이 결합된 말이다. 이들은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파생어에 해당한다.

4.

자음: ㄹ, ㅇ

☞ ‘ㄹ’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유음이고, ‘ㅇ’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자음 중, 유음과 비음은 발음할 때 목청이 떨어져 울리는데, 이런 소리를 활용하면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이 든다. 따라서 우리 민요에서는 후렴구에 이런 유성음을 많이 사용하였다.

대단원 5	(2) 홍보가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자진모리, 중중모리, 진양, 중중모리

☞ ‘홍보가 읍내로 들어가는 장면’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장면에는 가장 빠른 장단인 ‘자진모리’가 어울린다. ‘홍보가 돈을 벌러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나 ‘홍보 아내가 매품을 팔러 갔던 홍보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은 인물의 흥이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비교적 빠른 장단인 ‘중중모리’가 어울린다. ‘홍보의 아내가 홍보에게 매품을 팔러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장면’은 홍보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야 하므로 장단이 가장 느린 ‘진양’이 어울린다.

2.

㉠ : 하오체

㉡ : 해요체

㉢ : 해라체

☞ ‘-마오’는 격식체의 예사높임인 ‘하오체’에 해당한다. ‘올라요’는 비격식체의 두루높임인 ‘해요체’에 해당한다. ‘놓아두어라’는 격식체의 아주낮춤인 ‘해라체’에 해당한다. 홍보는 홍보 아내에게 상황에 따라 높임과 낮춤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3.

(1)

㉠ : ②

㉡ : ①

☞ ㉠은 홍보가 매품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②에 해당한다. ㉡은 계란이 상하게 된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①에 해당한다.

(2)

• 배 굶지 말고 밥을 잘 챙겨 먹어라. (㉢)

• 객지 생활을 오래 해서 몸이 많이 굶었다. (㉡)

• 참외가 속으로 굶아서 만져 보면 물컹거린다.

(㉠)

• 떨어진 밤은 많았지만 대부분 말라서 속이 굶아 있다. (㉢)

• 자루가 커서 한 가마 가까이 담았는데도 여전히 굶아 있다. (㉠)

☞ ‘배 굶지 말고 밥을 잘 챙겨 먹어라’의 ‘굶다’는 ‘양이 모자라게 먹거나 굶는다’는 의미이다. ‘객지 생활을 오래 해서 몸이 많이 굶었다.’의 ‘굶다’는 ‘몸이 해를 입거나 골병이 든다’는 의미이다. ‘참외가 속으로 굶아서 만져 보면 물컹거린다.’의 ‘굶다’는 ‘속이 몽크러져 상하다’라는 의미이다. ‘떨어진 밤은 많았지만 대부분 말라서 속이 굶아 있다.’의 ‘굶다’는 ‘속이 옹골차지 않고 푹 꺼져 있다’는 의미이다. ‘자루가 커서 한 가마 가까이 담았는데도 여전히 굶아 있다.’의 ‘굶다’는 ‘속이 가득차지 않고 조금 비어 있다’는 의미이다.

4.

교체	탈락	첨가	축약
• 읍내, • 국물	• 여덟	• 웬일	• 옹지, • 종지

☞ ‘읍내’는 [읍내]로 발음되는데 ‘ㅂ’이 ‘ㅁ’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여덟’은 [여덜]로 발음되는데, 겹받침 중 ‘ㅂ’이 탈락하여 발음된다. ‘옹지’는 [올치]로 발음되는데, ‘ㅇ’과 ‘ㅈ’이 축약되어 ‘ㅈ’으로 발음된다. ‘국물’은 [궁물]로 발음되는데, ‘ㄱ’이 ‘ㅇ’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웬일’은 [웬 : 닐]로 발음되는데, ‘ㄴ’이 첨가되어 발음된다. ‘종지’는 [조치]로 발음되는데, ‘ㅇ’과 ‘ㅈ’이 축약되어 ‘ㅈ’으로 발음된다.

대단원 5	(3)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장수산1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시의 시적의미가 잘 형성되는 것은 ㉠의 방법으로 읽을 때이다. 이 시는 한 행을 대체로 세 마디로 끊어 읽을 때, 그 의미나 운율이 잘 살 수 있도록 의미 단위를 구분하여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2.
윗절, 웃어른, 위치마, 웃웃, 윗잇몸

3.
먼저 ‘철없던 내 귀로 들었노라.’에 어미 ‘-노라’를 사용함으로써 ‘가고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격동적이고 충격적임을 나타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으로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는 어미 ‘-노라’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 보다 당당한 태도와 걱정적으로 토로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국어의 연결 어미 ‘-노라’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쓰이는 표현으로 자신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 걱정적인 느낌 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어미이다. 이 시에 사용된 ‘-노라’는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자신의 귀로 듣게 된 상황과 자신이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전자의 상황은 충격이나 놀람의 상황인데, 이때 사용되는 ‘-노라’는 그러한 충격이나 놀람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후자의 상황은 자신의 상황이나 태도에 대해 당당하고 후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때 사용된 ‘-노라’는 당당한 태도 또는 걱정적인 자기 토로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베임직도, 흔들리노니
☞ ‘베다’는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는 의미가 있다. 문맥상 나무는 자름을 당하는 의미가 되므로 피동형인 베임직도가 적절하다. 한편, ‘흔들리우노니’는 접사 ‘-우-’가 지나치게 사용된 예가 되므로 ‘-우-’를 빼고 ‘흔들리노니’로 표기할 수 있다.

대단원 5	(4) 백석의 여우난골족族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인물	• 토산 고모: 홀아비의 후처가 됨. 살빛이 까맣 • 삼촌: 배나무 집을 잘함. 오리치를 잘 놓음. 반디젓 담그려 가기를 좋아함.
행위	• 아이들: 윗간 한 방에서 여러 놀이를 하 다 새벽이 될 때어야 잠이 듬. • 시누이, 동서들: 아침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음.

이 시에서 2연에서는 명절날 큰집에 모이는 식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신리 고모, 토산 고모, 큰골 고모, 삼촌 등이 그들로, 화자는 이들의 처지와 외양, 그리고 특성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다. 4연에서는 명절날 큰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웃고 떠들며 아이들은 밤새 놀이를 하고, 아침이 되면 시누이와 동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이처럼 이 작품의 인물들은 평범한 이들로, 이들이 모인 명절날의 모습은 가족의 끈끈한 연대감을 느끼게 한다.

2.

서술어: 놓은, 하고, 논다

이 문장은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겹문장으로 전체 주어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주어진 문장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저녁술을 놓다’, ‘아이들이 쥐잡이를 (숨굴막질, 꼬리잡이, 놓음을) 한다’, ‘아이들이 밤이 어둡도록 논다’ ‘달린’의 주어는 ‘배나무 동산’이고, ‘어둡도록’의 주어는 ‘밤’이다.

3.

방언을 살려 읽을 때가 표준어로 바꾸어 읽을 때보다 훨씬 실감나며(현장감이 느껴지며) 정겨운 느낌이 든다.

이 시는 평안도 방언으로 쓰였는데, 방언을 살려 읽으면 표준어로 바꾸어 읽을 때보다 현장감을 조성하여 장면을 실감나게 떠올리게 하고, 향토색을 드러내어 정겨운 느낌을 줄 수 있다.

4.

소리대로 적음	어법에 맞도록 함
빨간, 논다	뵈는, 놓는

‘빨간’은 어간 ‘빨강-’에 어미 ‘-ㄴ’이 결합된 경우로 원래 형태를 모두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빨간’으로 적는다. ‘논다’도 어간 ‘놀-’에 어미 ‘-ㄴ다’가 결합된 경우로 원래 형태를 모두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경우이다. ‘뵈는’은 [뵈는]으로 소리 나지만 원형을 밝혀 ‘뵈는’으로 적는다. ‘놓는’ 역시 [논는]으로 소리 나지만 원형을 밝혀 ‘놓는’으로 적는다.

대단원 5	(5) 토지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갈등 대상	갈등 원인
길상↔서희	• 김 훈장에 대한 인식 차이 • 장터 옆 자리를 치우는 문제
길상↔상현	• 서희와의 결혼 문제

☞ ‘길상’은 김 훈장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나 ‘서희’는 김 훈장을 경멸하고 있다. 또 ‘길상’은 장터 옆의 자리를 치우지 말자는 입장이나 ‘서희’는 그 공간을 치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길상’과 ‘서희’는 두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길상’은 ‘상현’과 갈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서희’ 때문이다. ‘상현’은 ‘길상’이 ‘서희’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길상’은 ‘상현’이 ‘서희’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

2.

㉠ : (이 서방은) 밖에 있습니다.

㉡ : 일꾼들은 (어디에) (있지)?

㉢ : (아기씨는) (공 서방 객줏집으로) 옮기셔야지요.

☞ ㉠은 주어인 ‘이 서방은’이 생략되었다. ㉡은 부사어인 ‘어디에’와 서술어인 ‘있지’가 생략되었다. ㉢은 주어인 ‘아기씨는’과 부사어인 ‘공 서방 객줏집으로’가 생략되었다. 흔히 대화 상황에서는 필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즉 필수 문장 성분을 말하지 않고 핵심 정보만 제시함으로써 말하는 의도를 분명하면서도 간결하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3.

(1) 자기의 능력 밖의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2) 서희

☞ (가)에서 상현은 길상의 신분이 종이라는 이유로 결혼 상대로서의 서희를 못 오를 나무로 표현하였고, (나)의 길상은 상현이 서희를 야심의 노리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결혼 상대로서의 서희를 못 오를 나무라고 한 것이다.

4.

- 없다[업따]
- 많지[만치]
- 앓으면[아느면]
- 낚고[날꼬]
- 그렇습니다[그러썅니다]

☞ ‘없다’는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의거하여 [업따]로 발음해야 한다. ‘많지’는 표준 발음법 제12항 1.에 의거하여 ‘만치’로 발음해야 한다. ‘앓으면’은 표준 발음법 제12항 4에 의거하여 [아느면]으로 발음한다. ‘낚고’는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에 의거하여 [날꼬]로 발음한다. ‘그렇습니다’는 표준 발음법 제12항 2.에 의거하여 [그러썅니다]로 발음한다.

대단원 5	(6) 영혼의 母音	예시 답안 및 해설
-------	------------	------------

1.

	답
1	필자는 몇 해 전에 어린 왕자에 대한 책을 접하고 스무 번도 더 읽어서 어린 왕자에 대하여 친근함을 지니고 있다.
2	사람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숫자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버섯이 된다).
3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길들이기)를 맺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와 타산으로만 바라본다.
4	어린 왕자는 인간의 폭을 재는 하나의 척도이며 필자의 영원한 벗이다(영혼의 모음이다).

2.

조사 ‘와/과’는 둘 이상의 대상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이다. 즉 필자는 ‘나’라는 주체와 ‘너’라는 객체를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다시 말해 서로를 이해와 타산으로 보지 않고 대등하게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조사 ‘와/과’의 기능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접속 조사라는 측면 외에도 다른 뜻풀이를 중심으로 제시된 표현의 문학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

(1) 최성수의 ‘해후’라는 대중가요는 예전에 사랑하던 연인이 우연히 찻집에서 다시 만나게 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어서 ‘해후’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특히 ‘예전에 그랬듯이’라는 부분에 주목해 보면, 노랫말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과거에 이미 알고 있던 사이임을 추론할 수 있다.

(2) ‘조우’는 ‘우연히 서로 만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조우의 대상은 ‘미지’ 즉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이다. 따라서 인류가 이때까지 전혀 만나보지 못한 대상과의 만남을 의미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조우’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4.

모음은 음절의 핵(核)으로서 모음이 없으면 말소리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할 수 있다. 즉 모음은 말소리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그런데 필자는 어린 왕자를 영혼의 모음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어린 왕자를 읽은 독서의 경험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이나 정신세계에 있어서, 결코 빼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자 소중한 가치임을 모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책임자: 이삼형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이도영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정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연구 보조원: 김시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보조원 : 나정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
담당 연구원: 최용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47

인 쇄 일 2014년 8월 11일

발 행 일 2014년 8월 11일